

文鮮明先生말씀選集

283

文鮮明先生말씀編纂委員會

머 리 말

世界平和統一家庭聯合 會長 黃 善 祚

문선명 선생, 16세에 하늘로부터 인류 구원의 소명(召命)을 받으신 후 일생을 오직 일념으로 천도(天道)를 중심삼고 살아 오신 분! 선생은 스스로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버런 문에게 재산이 있다면 나를 위한 고생보다 공적으로 고생한 것, 그것밖에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누구보다도 더 고생하려고 했습니다. 섭리사적인 입장에서도 누구보다도 더 고생하려고 하였습니다. …… 선생님은 지금까지 나라로부터, 세계로부터 술한 반대와 핍박을 받아 왔습니다. 미국에서 반대를 받았고, 기독교와 유대교, 공산당까지 반대를 하였습니다. 역사 이래 세계가 이렇게 달라 붙어서 한 사람을 없애 버리겠다고 공격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런 면에서도 세계적인 챔피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욕을 먹으면서도 옥살박살나지 않고 또 망해 버리지 않았습니다. 추호의 미동도 없이 더욱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 레버런 문은 인류를 해방하고, 영계를 해방하고, 지옥을 해방하고, 또 하나님을 해방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선집 제105집 101~103페이지 참조)

선생의 삶은 한마디로 규정하면 ‘고난 그 자체’입니다. 이 고난의 성격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선생은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소망했던 그 재림주이며 구세주이고 인류의 참부모로 오셨습니다. 이미 세계 185개국에서 선생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참자녀의 길을 가기 위해 참가정의 이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선생의 자기정체성(自己正體性)은 말씀과 삶을 통해 검증이 되어집니다. 그분에게는 세상에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신과 인간, 역사와 세계의 제 문제가 그분의 말씀 속에서 해명이 됩니다. 성서에 예언된 새 말씀의 약속은 그분 속에서 성취되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말씀은 ‘생명성’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선생의 말씀은 ‘스스로의 삶에 대한 해석’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 자체가 곧 진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심, 곧 성육(成肉)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삶이 곧 진리이며 ‘말씀’이라는 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독자께서는 선생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위대성을 이해하리라 확신합니다. 선생의 말씀의 경지는 너무 높고 깊어서 다 헤아릴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세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 선생은 말씀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啓示)해 주셨습니다. 즉, 침묵과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인간이 악의 혈통을 갖고 있기에 자녀이되 자녀라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통,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처절하게 소외되신 슬픈 하나님께서 선생은 ‘말씀하시게’ 하셨습니다. 교권과 교리, 그리고 현란하게 치장된 건물 속에 갇혀서 침묵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게’ 하였고, 인류의 부모이되 부모로서 찾아오지 못하신 하나님을 ‘부모되게’ 하셨기에 선생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체(啓示體)’이십니다.

둘째로, 선생은 인간을 무지와 혼돈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고력이 있고,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으며, 스스로의 존재 자체도 다 해명하지 못한 비극적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 인간

은 독자적 존재가 아니고, 타자(他者)와 떼어 수 없는 상호의존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성을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선생은 궁극적 해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천도(天道)를 지키시는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본보기 노정을 보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 넘치는 살아 있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선생은 만물세계를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지음 받은 모든 사물 하나하나는 고유한 가치를 가진 개성진리체(個性眞理體)입니다. 창조본연(創造本然)의 인간의 주관을 받음으로 그 가치가 완전히 발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만물은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선생께서는 말씀을 통해 만물세계에 대한 창조본연의 가치를 밝혀 주셨고, 인간을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케 하여 인간과 만물 사이에 궁극적 화해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인류의 영원한 참부모로 오신 문선생님 내외분은 오늘도 세계 만방에서 말씀을 끊임없이 하시며 ‘부모의 심정으로 종의 몸을 쓰라’, ‘위하여 살라’는 말씀을 지키시며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을 상속시키시기 위해 수고하십니다. 이 말씀을 접하는 독자께서도 이와 같은 은혜를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

차 례

머리말	3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시대	9
구원섭리사의 원리관	148
통반격파와 360만쌍 축복 완성	229
360만쌍 축복 완성 결의대회	242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시대

전부 다 몇 명인가? 「1천6백 명입니다.」 1천6백 명. 여기 국가적 메시아들 손 들어 봐요, 국가적 메시아. 현지에서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 손 들어 봐요. 내리고, 현지에 있지 않고 여기에 와 있다가 온 사람들 손 들어 봐요.

참부모는 모든 출발과 과정과 결과다

국가적 메시아 시대가 지나가게 되면 무슨 시대가 와요? 무슨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국가적 메시아들이 책임을 완수하게 된다면 지상천국 시대가 도래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엄청난 시대가 눈앞에 오는 것을 맞이해야 할 그런 책임자들이 자유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구요. 그 나라의 모든 전체, 시작도 자기를 중심삼고, 끝도 자기를 중심삼고 모든 것이, 그 나라의 정치경제문화면이 전부 다 영향을 받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구요. 메시아라는 것은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가정적 메시아, 종족적 메시아, 국가적 메시아라는 말이 뭐 지나가

1997년 4월 8일(火), 중앙수련원.

* 이 말씀은 전국공직자집회에서 하신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동기가 참부모인데, 참부모를 중심삼지 않은 가정이 있을 수 없고, 형제가 있을 수 없어요. 참부모의 혈육을 통해 낳은 자식이 참부모를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가 모든 출발이요 과정이요 결과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탕감복귀 노정을 거쳐 나가는데 누구도 의논 상대가 없어요. 누구와 의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가적 메시아가 선생님이 지시하는 내용을 따라 가지고 가야지, 자기들 멋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행동하던 모든 습관적 체제를, 혹은 자기 식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이제는 공식적인 노정을 맞추어 나가야 할 시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공식을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어제가 제38회 참부모의 날이었는데, 3수하고 8수는 아담 시대, 예수 시대, 재림 시대 3단계 시대를 대표한 8수에 해당하는 수라고요. 이제부터의 3년노정, 3년 분별기간... 언제든지 대전환 시기는 3년노정이 필요한데, 이 분별기간을 중심삼고 역사적인 새로운 방향의 새로운 목적지를 향하여 출발할 시대가 온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이 알다시피 일본은 지금 이중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세계평화가정연합이 중심으로 선두에 서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일교회는... 지금까지는 통일교회가 선두가 되었지만, 이제 가정연합이 선두가 되고 통일교회는 서서히 없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통일교회의 '세계기독교통일'이라는 말은 없어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책임하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그 차원을 넘어 가지고 기독교의 축복이 만민 앞에 전부 다 이양될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든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고요.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인데, 신령도 결국 참부모님을 중심삼고 지상에 가정적 메시아 기준이 정착되게 될 때는

끝나는 거예요. 신령의 실체를 이 땅 위에 모시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참부모의 계승자들이기 때문에, 그 참부모는 영적 완성과 지상 완성을 대표한 가정의 출발로부터 국가 출발, 세계 출발, 천주 출발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의 모형적인 기대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질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시대는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것은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통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일하기 위해서는 싸움을 거쳐 나가야 돼요. 평화의 기준이 없었어요. 알겠어요? 투쟁적 개념을 중심 삼고 사탄세계에 인수이양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평화라는 개념도 없고, 통일이라는 개념도 없다구요. 기독교를 통일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이거예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시대의 출발

장자권 복귀, 부모권 복귀를 완성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권에 예수님이 착지해 가지고 로마 제국의 세계무대로 넘어갈 수 있었던 이 기반을 잃어버렸던 것을 통일교회에서 장자권 복귀, 부모권 복귀, 왕권 복귀 시대로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다 회복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통일만이 아니예요. 세계 통일 시대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알겠나, 무슨 말인지? 「예.」

그렇기 때문에 명칭이 오늘로부터, 이 제38회 참부모의 날을 중심삼고 통일교회라는 이름은... (판서하심) 뭐예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입니다.」 이제부터 통일교회 이름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이 며칠인가? 「4월 8일입니다.」 4월 10일서부터, 4월 10일자로 이 명칭을 사용하는 거예요.

또 이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가정 문제가 지금 세계적 문제가 되어 있어요. 가정 파탄은 세계적인 대사

건이에요. 아담 해와가 타락할 때 하나님이 가정을 중심삼고 간섭하지 못했기 때문에 끝날이 되어서... 아담 해와가 타락할 때 하나님이 간섭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타락한 세계의 조상으로부터 타락한 세계의 끝날, 끝날이 되었기 때문에 세계의 어떤 나라들도 자신이 없어요. 미국 자체도 금후의 갈 길을 몰라요.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선진국 자체가 앞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업을 중심삼은 산업기반의 모든 제도와 구조는 공해를 일으키는, 이것이 인류 앞에 멸망을 촉구하는 한 무대가 되었어요. 이런 산업기반을 해체해야 될 때가 되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의 힘 가지고, 경제의 힘 가지고, 문화의 힘 가지고, 종교의 힘 가지고 파탄되는 가정과 청소년 윤락을 방지할 수 없어요. 아담 해와가 타락하던 그때와 딱 마찬가지로요. 아담 해와가 윤락을 벌인 거예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뒤집어졌다구요.

끝날에는 그렇게 심어 놓은 것이, 끝날에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타락의 그 열매가 보편적으로 세계 인류의 가정에 열매 맺히는 거예요. 열매 맺히는데, 사탄도 이 열매 맺힌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돌이키려야 돌이킬 수 없고,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세계의 종말시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천사장이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도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왜? 혈통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혈통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부모의 자리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부자지 관계라는 것은 반드시 혈통적 관계를 연결시켜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혈통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원수의 핏줄을 받은 걸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어요.

그래, 사탄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사탄도 이제는 보따리 싸야 된다고요. 사탄이 붙어 있거든 끌고 가서 손때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벌써 에덴동산에서 손뼉 거라구요.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라지를 밭에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밭에 곡식의 씨를 뿌려 놓았는데 가라지가 났다는 거예요. 누가 가라지를 뿌렸느냐 하면, 사탄이 뿌렸다는 것입니다.

밭주인에게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가라지를 뽑아서 불을 살라야 되겠습니다.’ 할 때 주인이 ‘끝날까지 가만 두어라. 그대로 두었다가 나중에 단으로 묶어 가지고 불살라 버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뒹두어 가지고 나온 것이 사탄의 주도권의 종착점, 끝날까지 오게 됐다고요. 뿌린 것은 반드시 수확을 해서 끝을 봐야 돼요. 악한 열매를 심었던 인류의 조상이 악한 결실을 이룬 것이 뭐냐? 시작이 청소년 윤락과 가정 파탄이에요. 알겠어요? 아담 해와가 윤락했지요? 그럼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뒤집어졌다구요.

세계적인 가정 대환란시대

그와 같은 결실이 세계적으로 열매 맺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환란 시대라는 거예요. 무엇 중심삼고? 나라나 세계가 다 환란이지만 제일 문제가 뿌리 될 수 있는 가정적 기준이 환란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노릇을 못 하고, 부모가 부모 노릇을 못 하고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 부부가 부부 노릇을 못 하고, 자녀가 자녀 노릇을 못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구요.

전부 다 거기에 개인주의 사상이 들이박혔어요. 프라이버시니 뭣이니 인디비듀얼리스트(individualist;개인주의자)니 해 가지고 개인주의 사상이 팽창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고, 나라도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세계도 없고, 나라도 있을 수 없고, 사회도 있을 수 없고, 가정에 할아버지도 들어갈 수 없고, 부모도 들어갈 수 없고, 남자 가운데 여자도 들어갈 수 없고, 여자 가운데 남자가 들어갈 수

없고, 아들 가운데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입장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 선 인류는 어디로 갈 것이냐? 가정으로 가려고 해도 가정을 찾아갈 수 없고, 부모를 찾아가려고 해도 부모를 찾아갈 수 없어요. 다 조각조각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도 에덴 가정에서 손 못 댔으니 역사시대에도 전부 다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손대기 시작하는 것은 폐물을 수습해 온 거예요, 폐물을, 인간 폐물들을. 악한 세계에서 몰리고 쫓기고 의지할 수 없는 ‘나만 남았나이다.’ 그런 폐물들을. 나만 남았는데 개인적인 자기 주관도 없어요. 죽어 마땅한, 고립돼 가지고 ‘그렇게 가자.’ 하는 사람들, 사탄세계의 유명무실(有名無實)한 아무 가치 없는 존재들을 하나님이 수습해 온 거예요. 열 사람을 끌어가더라도 사탄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을 수습해 가지고 끌어올리기 시작한 것이 종교의 역사입니다.

종교 역사는 교만이 아니에요. 온유 겸손입니다. 자꾸 내려가야 된 다구요. 그리고 희생 봉사해야 된 다구요. 그게 종의 역사 아니에요? 노예의 역사라구요. 노예보다 더 심한 노예의 길을 걸어온 것이 종교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백인들이 노예로 삼아 가지고 수난 길을 간 흑인들보다 더 비참한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종교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종교는 하늘을 추구해요. 이상의 나라를 추구해요. 아무리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더라도 그 짝과 그 씨는 이상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추구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흘러가고 없어질 나라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본연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의 하나님을 원하는 게 종교예요. 하나님 같은 부모, 하나님의 아들딸 같은 자녀, 하나님의 아들딸 같은 부부를 위해 나온 것이 종교의 근본적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인들도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사머니즘으로부터 종교가 점점 발전해 나온 거예요. 맨 밑창

에서부터, 잡신들로부터 유일신까지 나가는 거예요. 숯한 오랜 역사를 거쳐 그 길을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쓰레기통에서 나와 가지고 하나님까지 발견할 수 있는 자리에 나와서 기독교를 중심삼은 섭리사를 해 나온 것이 몇천 년이예요? 야곱 때부터라구요. 4천년 역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볼 때, 인류는 소망을 가지려야 가질 수 없어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현재 무대에 있어서 미래의 아들딸을 생각하고 미래의 이상적인 남편과 아내를 위한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산산조각이 나서 해체되게 되어 있다구요.

누가 주인이 될 것인가

그러면 이런 사회에서 누가 주인이 될 것이냐? 누가 주인이 될 것이냐? 양심을 중심삼고 세상에서 밟히고 살고 기도하는 사람들, 사탄세계에서 제일 이름 없이 살던 사람들이 하늘에 접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하늘 앞에 제일 가깝다구요. 하나님이 환경을 창조했다구요. 여기에 주체가 있어야 돼요. 무슨 주체? 가정을 대표할 수 있는 주체, 더 나아가서는 종족민족국가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주체를 종교인들은 찾아왔어요. 그것이 메시아 사상, 구세주 사상이라구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분이 쓰레기통 가운데서 새싹을 내서 그것을 거름 삼아 가지고 천년 만년 한의 역사를 전부 소화해 가지고, 그것을 대가로 흡수 소화해서 그 이상의 열매를 다시 복구하기 위한, 찾기 위한 것이 종교의 이상이었다, 고차원적인 종교가 가야 할 길이었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예.」

이렇게 볼 때, 지금 전세계는 포기상태입니다. 누가 포기했느냐? 하나님도 포기했고, 그 다음엔 사탄도 포기했어요. 세계를 사탄이 마음대

로 했다고요. 전 인류 남자 여자를 끌어다가 프리 섹스, 호모, 레즈비언으로 만들었다고요.

호모, 레즈비언이 뭐예요? 여자 여자끼리 쌍쌍이 되어 놀음하고, 남자 남자끼리 쌍쌍이 되어 놀음하는 것 아니예요? 그것 무엇 갖고? 가짜, 가짜 상대를 중심삼고 정욕을 충족하는 세계가 되었다 이거예요. 프리 섹스 하는 그건 가짜 남편들이라고요. 조금 더 떨어지면 동물하고 짝한다고요. 알겠어요? 강아지를 데리고 살고 말이에요. 미국이 전부 다 그러고 있다고요. 동물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고요. 동물은 한 마리에 몇백만 달러짜리가 있지만 사람은 누가 1백 달러나 주고 사 가려고 해요? 그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겠어요, 보기 싫어하겠어요? 「싫어합니다.」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오관을 전부 막아야 돼요. 눈도 감고 코도 막고 다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의 신경, 오관을 가진 인격적 신으로서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눈을 감고 오관을 막고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예요. 버릴 수는 없어요. 아담 해와를 하나님의 아들딸로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영존하신 분이니만큼 사랑의 대상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세계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하면 우주를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무(無)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그러니 그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실패의 하나님이요, 존재의 근원적 내용을 다시 세울 수 없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것을 재기시켜서 재활할 수 있는 길을 트기 위해서 주류 종교와 방계 종교를 세워 나온 거예요. 문화권이 달라요. 아시아는 유불선(儒佛禪) 문화권이지만 구라파는 기독교 문화권이라고요. 이렇게 해서 주류 종교와 방계 종교를 중심삼고 인류를 끝날에 주인이 없을 때 다시 교육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참부모를 알게 하고, 참가정을 알게 하고, 참종족을 알게 하는 거예요. 참종족만

알게 하면 되는 거예요.

종족 편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종족을 편성해서 자꾸 퍼져 나가게 되면 나라는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세계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구요. 종족이 문제예요. 종족이 7대, 7대까지.

혈통·소유권·심정권을 복귀해야

지금 통일교회가 가르쳐 주는 것은 복귀노정에 있어서 혈통 복귀, 그 다음에 뭐예요? 둘째 번은? 소유권 복귀. 하나님께서 주인이 못 되었어요. 혈통을 중심삼고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심정권 복귀. 일족이 살 수 있는 환경과 사람과 하늘의 전통을 다 잃어버렸다고요.

심정권이라는 것은 7대조, 일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통일교회로 말하면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족이라는 것은 자기 소유권, 자기 혈족이 아니예요.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혈족이 되어 가지고 소유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이 자기 땅이 아니고, 일족의 땅이 아니예요. 이 우주의 땅이에요, 우주의 땅. 그러니 우주의 주인이 되고, 우주의 조상이 되기 위한 거라구요.

그러니까 자기 일족에 대한 혈통 문제, 일족에 대한 소유권 문제, 일족에 대한 심정권 문제가 문제 아니예요. 우주의 심정권으로 하나님을 중심삼고 확대시켜야 할 대전환을 표준해 가지고 통일교회는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래, 심정권 복귀, 그것이 뭐냐 하면 종족적 메시아권 확립이다 이거예요. 거기서 혈통 전환, 소유권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람을 잃어버렸고 만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사람과 만물을 찾아야 돼요. 사람과 만물을 찾아 가지고 하나로 묶어 가지고 '이 땅 위의 우리가 살던 땅이 하나님의 소유권이 되고, 하나님이 활동할 수 있는 삶의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심정적 대상

권이 이루어진 이 한계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늘 것으로 삼습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것이 하나의 밑감이 되어 가지고 온 우주를 대치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심정권 확대 만민... 그래서 타락한 세계를 넘어가야 된다고요. 이 세상 악한 나라를 넘어가야 돼요. 종족적 씨가 열매를 못 맺었기 때문에 심정권을 중심삼고, 7대를 중심삼고 모든 씨들이 맺혀야 된다고요.

종족만 편성하면 그 다음에 민족은 자동적으로 편성되고, 나라는 자동적으로 편성되는 거예요. 7대가 되면 몇 가정이나 되겠어요? 그래, 야곱 때는 일족이에요, 일족. 계열적인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 시대는 민족 시대이고, 예수 시대는 국가 시대예요. 국가를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가정의 목적은 나라를 찾기 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정이 있으면 자연히 나라가 되지요?

장자권 복귀, 부모권 복귀, 왕권 복귀라는 것은, 하나님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동서남북 사방을 갖출 수 있는 120수가 필요해요. 열두 지파의 10배라고요. 예수님 시대는 120문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제1차 작전, 영육을 중심삼은 완성적 국가 기반을 표준 했던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영적 국가만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 십자가 이후예요.

예수님이 40일 후에 부활해 가지고 40일 동안 잃어버린 걸 다 수습했지요? 전부 다 배반자들이예요. 1차는 실패했으니 2차에 시도했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몸뚱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몸뚱이를 중심삼고 세계 판도를 이어 나가기 위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원래는 동양을 중심삼고 유불선,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그 다음에 동양의 종교권이 된 거기에서 예수를 중심삼은 주변의 신령한 사람들을 중심삼아 가지고 영계를 통해 가지고 영적 통일을 이루었다면 예수님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 받들었으면 환경 여건은

하늘이...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주체만 되면 반드시 대상은 생겨나게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섭리는 무슨 섭리라구요? 「복귀섭리...」 복귀섭리는 뭐예요? 복귀섭리는 탕감한 후에 복귀하는 섭리입니다. 무슨 복귀냐 하면 탕감복귀섭리예요. 그냥 복귀섭리가 아니예요. 탕감하지 않으면 복귀가 안 돼요. 떨어졌으니 올라가려면 사다리를 놓든가 소모시키지 않고는 못 올라가요. 구원섭리는 복귀섭리이긴 복귀섭리인데 탕감 내용을 중심삼고 복귀하는 섭리라는 것입니다. 요걸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구원섭리는 탕감복귀섭리

구원섭리는 탕감복귀섭리입니다. 여러분이 이만큼 올라오기 위해 뭘 탕감했어요? 문제예요. 탕감노정은 개인적인 탕감... 세계적인 개인 창출 시대에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가정 창출, 종족 창출, 민족 창출이에요. 사탄세계를 다시 인수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의 전략 전술은 하늘이 먼저 사탄세계를 칠 수 없어요. 능력 많은 하나님 이 친다면 마음대로 했지요 뭐. 사탄을 전부 내 버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되면 반드시 복귀해야 돼요. 아담 해와가 잘못되었으니 하나님이 복귀하는 거예요. 탕감복귀를 하나님이 해 나오는 거예요. 아담 해와 가정을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어요. 수천만 년이에요, 인류 역사가. 뭐 몇천 년? 6천년? 그건 문화사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문화사. 하나님을 글로써 표시해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본래 창조한 역사는 몇천만 년입니다. 인류 역사는 몇천만 년입니다.

자, 그런 긴 세월을 거쳐올 때까지, 지금까지 아담 하나를 다시 만들지 못했어요. 메시아를 보내지 못한 거예요. 메시아는 뭐냐 하면, 아

담 완성자입니다. 아담 완성자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완성이니만큼 개인적인 완성, 즉 남자 완성이요, 남자가 가질 수 있는 가정 완성이요, 남자가 가질 수 있는 종족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종족을 완성하면 족장이 되잖아요? 그 다음엔 나라님이 되지요?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남자 완성이라는 것은 전체를 대표한 거예요. 어제도 내가 얘기했지만, 모든 축복가정은 전체를 대표한 가정이라는 말이 거기서 성립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이 벗어나 넘어가지 못할 거예요. 수평선에 못 올라가요, 떨어진 것이. 개인 시대, 가정 시대, 종족 시대, 민족 시대, 국가 시대, 세계 시대, 천주 시대, 하나님 시대, 이 8단계를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종적인 역사를 횡적으로 전부 다 해 가지고 사탄의 모든 탕감조건, 사탄이 남긴 벽이라든가 이 모든 구덩이를 메워야 돼요. 그래 가지고 수평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많은 단체를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는 어떤 것은 가만 놔두고 있는 거예요. 종적으로 전부 다 다리를 만든 거예요. 콘크리트 집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콘크리트로 수평 기반을 다지는 기초가 필요한 거예요. 1층, 2층을 전부 콘크리트 칠 수 있게끔 말이에요. 딱 그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여러 단체를 만들었지만 횡적으로 묶지를 않았어요, 때가 될 때까지.

이제는 횡적으로 묶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통일교회 축복을 횡적으로 묶는 세계 시대를 맞았기 때문에... 통일교회에서 축복받기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성별생활을 20년 하고도 축복을 못 받고 죽어 간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때는 뭐냐 하면, 1주일 말씀 듣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혈통 복귀, 소유권 복귀, 심정권 복귀, 일족이 하나되어서 하늘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일족이 수습 안 되었어요. 이런 내용이 되었다면, 일족을 중심삼고 뿔뿔 뭉쳐 나갔다면 모세를 슬프게 안 만든다는 거예요. 일족이 붙들고 있으면 그걸 중심삼고 다

시 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족이 뭐 개개인으로서 전부 다 알알이 이렇게 되니까, 일족 집안도 없어지니 할 수 없이 섭리역사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석판을 두 번 쳐 가지고 복잡한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한 번 실수하고 두 번 실수하게 되면 점점점 몇십 배 어려움이 가중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랑을 찾기 위해서는 희생하는 길밖에 없어

그러니까 뜻을 알고는 명령이 있게 되면, ‘하라!’ 하는 명령이 있으면 안 할 수 없어요. 자기를 중심삼고 변명적 조건을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라!’ 하면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동쪽으로 가라!’ 하면 동쪽으로 가야 돼요. ‘아닙니다. 우리 아기가 지금 서쪽 병원에 있으니 병원에 가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 일족은 지금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가면 가까우니 서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해서 돌아가라는데 서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요. ‘뒤도 돌아!’ 하는데 ‘아이구,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소관 관내에 있어서는 하늘을 끌어 붙일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를 희생시켜 가지고 하늘 앞에 더 보태 가지고 자기는 없어진 자리에 들어가야 하늘의 은사가 오는 것입니다. 고기압이 되어야만 저기압에 바람이 불어오지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로요. 사랑도 물과 마찬가지로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서 타락한 세계의 사랑의 마음을 이끌려면 반대가 되어야 돼요.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효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머니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희생해야 효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몇 번씩 희생하더라도 동서남북에 방향을 맞추어 가지고, 죽을 자리에 가더라도 그걸 다 넘어서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세 바퀴 돌아와서 있게 될 때에는 부모님이 죽으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넘기면서 유언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하던 것을 대신해 다오.’ 이러면서 자기가 하지 못한 것을 연장시키게 되면 이어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해야 돼요. 사랑을 찾기 위해서는 희생하는 길밖에 없어요. 효자가 뭐냐 하면, 일생 동안 부모를 위해서, 부모만을 위해서 희생하는 길을 간 사람입니다. 충신이 뭐냐 하면, 나라를 중심삼고 일생 동안 희생해 나온 사람입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내 가정까지 희생한 사람입니다. 자기만이 아니예요. 자기 부인도 희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들딸도 희생하는 사람이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충신이 되는 데는 여편네와 매일같이 싸움해 가지고 문제 되는 그런 충신의 가정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편네와 하나 되고, 아들딸이 하나되고, 가정이 희생해야 돼요. 아버지가 죽고, 그 아들딸은 도망가고, 여편네도 도망가는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그 일족이 그 전통을 받아 가지고 희생하는 자리에 나가야 충신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성인’ 하게 되면 나라가 희생해야 돼요. 그래서 성인을 모신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를 위해서 세계적인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자의 도리도 마찬가지예요. 세계를 희생해야 돼요. 세계를 희생시키더라도 하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세계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민주세계를. 알겠어요? 기독교를 중심삼고 구교 신교, 가인 아벨의 기반을 닦은 것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전세계의 8억의 기독교인을 희생시켜서 전부 하나님의 아들의 뜻을 맞추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자의 가는 길입니다. 지금 기독교를 희생시키고 있어요.

희생이라는 대가를 모르는 녀석들은 효자니 똘이니 될 수 없다구요.

복귀심정권 내에 갈고리로 걸 수 없어요. 이것을 걸어야 돼요. 거는 데는 요만큼 가정을 걸고 남을 수 있어야 가정에서 효자가 되는 거예요. 나라를 걸고 나라가 달려도 갈고리가 펴지지 않게 걸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말뚝 같아서 펴지지 않아요. 그래, 거기에 걸고 꼬부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마만큼 지탱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알겠어요? 「예.」 희생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람은 밝히고 살아요. 뜯기고 살아요. 살을 뜯기고 뼈까지 깎아 먹힌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인 다음에도 그 무덤까지 파 버린다는 거예요.

참부모의 재산은 하나님의 혈통권과 사랑

자, 그렇게 나오던 사탄의 역사를, 반드시 하나님이 영원한 역사를 계속하겠다는 이 세계에서 악의 역사는 반드시 종결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천지창조의 원칙적인 내용에 있어서 불가피한 결론이라고요. 알싸, 모를싸? 「알겠습니다.」

일본이 망해야 되겠어요, 안 망해야 되겠어요? 끝날에는 일본 나라가 망해야 되겠어요, 안 망해야 되겠어요?

*망해야 된다고요. 왜? 사탄이 따라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요. 청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가운데 있는 개인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소유권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국가 자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일본은 태평양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라고요. 아무리 거만하게 굴더라도 자기의 생각대로 안 됩니다. 사탄편에서 아무리 거만하게 굴더라도 하나님편에서는 자기의 방편이 통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이번에 일본의 책임자들을 모두 다 오라고 했는데 6백 명이에요, 7백 명이에요? 이시이, 몇 명이야? 「624명입니다.」 624명? 「예.」 624

명, 어디로 가? 어디에 가서 살아? 「아버님이 계시는 데 가서 삽니다.」 대답하라구! 어디로 가? 그거 문제라구요. 어디로 가요, 여러분? 통일교회? 통일교회에 가서 어디서 살아요? 사는 것은 일본에 돌아가서 살잖아요? 안 된다구요. 대이동을 해야 된다구요, 대이동. 세계적인 대이동의 때가 오는 거라구요.

일본에 몰려온 사람들은 모두 다 선한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섬나라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주위에서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모두 다 일본으로 흘러온 거라구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 남은 곳이 섬이에요, 섬. 정말 그래요? 상대할 수 없는 나라라구요. 하나님 이 상대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영(英)·미(美)·불(佛)을 전부 다 붙들었는데, 이것은 꼬리와 같은 것이지요. 2차대전 후 잿더미로 남은 것을 해와 국가로 세웠다는 것은 엄청난 거라구요.

일본 사람들이 훌륭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구요. 민주세계의 흘러가는 돈을 전부 다 떠맡아서 책임지고 있다가 반대쪽으로 돌리지 않으면 안 돼요. 일본 미국 독일이 세계의 3대 경제대국이 되어 있지요? 그것이 일본의 것, 미국의 것, 독일의 것이 아닙니다. 그 주인은 재림주, 참부모입니다.

참부모는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혈통권과 사랑, 그것이 재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딸의 씨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와 국가는 그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돼요. 그것은 세계적인 복귀예요. 일본 민족이 종족적 사명을 완수해서 한국과 세계를 뒤엎지 않으면 안 된다구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일본 여자들이 해와 국가의 사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신부 종교지요? 재림주를 몇천 년간 기다리면서 죽음의 고개를 넘어온 것이 해와 국가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어머니 입장이예요. 몸이 없어요, 몸. 영적인 것은 몸이 없는 거예요. 에덴동산에

서 본래 완성해야 되었던 어머니의 영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아담과 함께 돌아온 것입니다. 아담도 해와도 완성해야 될 영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거라구요. 창조 이전의 심정권으로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성권이 지상에 나타나면 이식해서 말이에요, 16세의 기준에서 떨어진 그 심정 일치권을 따라서 국가의 출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국가 기준의 완성권을 찾아 나온 것이 아담으로부터 예수의 시대를 거쳐온 4천년 노정이었던 거라구요. 그것은 가인 아벨이예요, 가인 아벨. 이스라엘 국가가 가인, 유대교가 아벨로서 하나되어 가지고 어머니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평화의 가정을 통해야 통일될 수 있어

메시아가 올 때 여왕과 아들딸을 준비해서 맞이해 가지고 종족권에 정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가랴 가정과 요셉 가정이었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가인 아벨이 문제라구요. 그래서 이게 하나되어서 결혼식을 해 가지고 정착하는 거예요. 전도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 가정으로부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성립되는 거라구요. 평화의 가정을 통하지 않으면 통일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평화가 이루어지면, 통일은 종적인 기준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평화는 횡적인 것이고, 그리고 종적인 것이 통일이라구요. 그래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나? 에덴동산에서 무슨 사고가 있었느냐? 그것이 청소년의 윤리 파괴가 원인이 되어서 가정이 하나님편에서 사탄편으로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런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세계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도 여기까지 끌고 와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탄도 고립되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으면 안 돼요. 결국에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복귀하려는 생각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귀의 심정을 가지고 있지요? 거짓 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청소년들의 윤락 방지와 가정 방비를 거꾸로 전개해서 새로운 가정 위에 종족민족국가 편성이 되는 거예요. 국가라는 것은 가정 위에 서게 돼요.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을 중심삼은 가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편성하는 때가 재림의 시대지요? 수천만 년의 역사가 흘렀어요. 창조는 간단하다구요. 그렇지만 복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잘못되면 큰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은 영적인 구원의 세계화 운동이었는데, 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2차대전 후에는 말이에요, 해와 국가를 섬나라인 일본, 아들딸의 국가로 미국과 프랑스를 세운 것입니다. 프랑스는 미국과 영국이 싸워 가지고 나온 거라구요. 그것이 하나된 거예요. 몸이 양심을 먼저 치는 거라구요. 1차대전, 2차대전 때도 그렇게 친 것입니다. 두 번이 중요하다구요, 두 번. 사탄이 장성급 완성의 기준을 가지고 주관했기 때문에 사탄이 전권을 가지고 하나님편의 국가를 몰락시킨 것이 1차대전과 2차대전이었습니다. 일본과 독일, 그리고 이태리, 꼭 이것과 반대라구요. 사탄편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을 수 없어요. 꼭 그대로입니다. 몸이 양심을 세계의 기준까지 친 거예요. 영적인 해와 국가와 치는 사탄편 해와 국가, 맞는 아벨 국가와 치는 사탄편 아벨 국가가 꼭 그대로입니다. 히틀러는 사탄편 가인이었습니다. 전세계의 기독교와 유대교를 멸망시켰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지고 말았습니다. 일본 독일 이태리도 빼창코(べちゃんこ; 눌러 납작해진 모양)가 된 것입니다.

일본 같은 것이 그렇다구요. 그거 뭐라고 그래요? 게이샤(藝者), 게

이사라고 그러지요? 게이샤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정조관념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섬나라는 전부 다 그래요. 아침에 남편이 만선이 되도록 고기를 잡아서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태풍이 불어서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남편의 후임으로 제2 남편, 제3 남편까지 결정해 놓고 있는 거라구요. 그런 일본입니다.

핍박을 받더라도 탕감의 고개를 넘어야

하나님과 아담을 중심삼고 완전히 하나된 위에 통일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권을 복귀하면 통일세계가 올 수 있다구요. 그 통일세계의 주체 국가는 재림주를 맞이해야 됩니다. 재림주는 외톨이입니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요.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 거라구요. 해와가 아담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사탄한테 넘겨 주었기 때문에 재림주를 백 퍼센트 이상으로 맞이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들딸까지 어머니로서 다시 낳아 가지고 재림주한테 맡겨야 되는 책임이 있다구요.

기독교 문화권이 통일교회를 반대해 왔어요. 그래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라는 이름을 붙인 거라구요. 알겠어요? 그때까지 그것이 필요해요. 그 이름을 가지고 핍박을 받더라도 탕감의 고개를 넘어야 됩니다. 뭐 지금은 이미 넘어 버릴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간접주관권이 아니라 직접주관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말이에요, 소생과 장성의 단계를 넘어서 완성급 소생의 단계에 들어온 것은 사탄과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사탄이 깨뜨려 버릴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고토! 어디로 가,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구요. 자기 일신, 재산, 일족을 전부 다 제물로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됩니다. 그것이 해와 국가의

책임이라구요. 이시이, 알겠어? 「예.」 에리카와,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 자기들이 편하자고 선생님을 고생시키면 안 됩니다.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십시오)

여기는 누구야? 한국 사람이야? 「예.」 내가 일본 사람한테 말한 거 알아들었어? 「모르겠습니다.」 (웃음) 이놈의 자식, 이게 뭐야, 이게! 이런 사람들을 하나 만들기가 쉬워요? 교차결혼이라는 것을 한 거예요.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원수들이예요, 원수, 원수.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한국 사람이 절대 그걸 못 해요. 932차례나 이렇게 침략을 받았지만 90퍼센트 이상을 일본이 했다고요. 일본 사람들이 언제나 먹을 것이 없으면 배를 타고 와서 약탈해 가고 그런 거예요. 많은 희생의 피를 흘렸다고요. 그런 일본 사람하고 한 식구가 되고 가정이 돼요? 피를 섞어 가지고 사랑의 가정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원수의 아들딸을 더 사랑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 한국은 전통을 중심삼고 동방예의지국(東邦禮儀之國)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라고요. 일본이 40년 동안 한국을 지배했지만 일본 사람하고 자원해서 결혼한 여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요. 그저 몸을 팔고 뭐 강제로 강탈당해 가지고 산 사람은 있지만 말이에요. 절개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예요. 이제 선생님을 중심삼고 한국 사람의 처녀 총각을 값비싸게 팔아먹을 거예요.

기독교가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사창굴에 처넣었어요, 여자들을. 서울에서 손에 물을 대지 않고 살던 그런 여자들이 몸을 팔아 가지고 사는 사창굴에 들어가게 되었다고요. 잘못된 거예요. 몸을 더럽히는 자리에 처넣었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가? 한국의 어디? 미군기지 있는 데가 어디예요? 「동두천.」 동두천, 동두천 알아요? 미군기지. 전부 다 대학을 나오고 똑똑한 미인들이 몸을 팔아 가지고 먹여 살리는 놀음을 한다는 거예요. 사탄 앞에, 사탄세계가 뭐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같은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 선생님이 국제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고위층과 그 나라의 왕족들과 할 수 있었던 결혼을 천민들과 결혼할 수 있게 거꾸로 돼 나오는 거예요. 탕감복귀라고요. 알겠어요? 「예.」 지금 미국의 바람제비하고 결혼해 가지고 외국으로 나가 살던 그 여자들이 지금 통일교하고 가인 아벨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통일교회에 찾아오면 쫓아 버려야 되겠어요, 품어야 되겠어요? 기가 막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통일교회도 그래요. 지금 나라가 둘로 갈려 있고, 문씨도 전부 다... 성진이 어머니가 최씨예요. 이걸 탕감해야 돼요. 통일교회에 들어왔던 모든 최씨들은 말로가 좋지 않아요. 그런 거 다 모르지요? 탕감법이라는 것은, 탕감원칙이라는 것은 변할 수 없습니다. 천지가 변하면 변했지 이걸 변할 수 없어요. 사탄이 있는 한 변할 수 없어요. 사탄이 없으면 변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변할 수 없어요. 왼쪽이 바른쪽에 가서 대신할 수 있지만 말이예요, 북쪽이 남쪽에 가서 대신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사탄이 있는 한 그 자리에서 탕감해야 돼요. 대용(代用)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구원섭리는 뭐라고요? 「탕감복귀섭리입니다.」 복귀섭리는 무슨 복귀? 「탕감복귀섭리입니다.」 탕감, 탕감해야 돼요. 여러분이 통일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몇 년 되었어요? 30년 이상 된 사람 손 들어 봐요. 그래, 임자네들이 뭘 탕감했어요? 탕감 못 했어요. 선생님이 탕감한 거예요, 선생님이. 부모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부 다 모르니까. 안 그래요? 모르지요? 모르는데 책임을 지운다는 그 자체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홀로 이걸 다 개척해 온 거예요. 사탄세계의 전권을 전부 다 통괄해 나오더라도 자기들을 빼 버릴 수 없는 시대권 내에 왔어요.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 장자권 복귀를 하는 거예요. 종교로 말하게 되면 제일 막내예요, 내가. 알겠어요? 제일 막내예요. 제일 막내가 장

자가 돼야 돼요. 종교권으로부터 인류권 전부 다 해 가지고 본을 받게 해야 된다고요. 문총재의 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형님의 말을 절대 본받고, 본받아서 알게 되면 절대복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절대복종해요? 여기! 일본 간나인지, 한국간나인지... 못 하지?

절대 거룩한 것은 절대 성

한국이 아담 국가가 될 수 없어요. 아담 국가는 선생님 하나밖에 없어요. 아담 국가가 누구 하나라고요? 「아버님입니다.」 해와 국가는? 「어머님...」 어머님은 언제 나왔어요, 언제? 택해 세운 어머니가 여성 연합을 만든 때가 1992년 4월 10일이에요. 내일 모레구만. 내일 모레가 그 기념일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도 선생님이 세워 줘야 어머니가 설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을 본떠 가지고 해와를 만들었지요? 「예.」 아담이 미완성된 것을 본떠 가지고 만들었겠어요, 완성된 것을 본떠 가지고 만들었겠어요? 생리적으로 볼 때 말이에요. 완성된 아담을 본떠 가지고 맞게끔 만들었어요.

아담은 무엇이에요? 불룩이고, 해와는 오목입니다. 그 둘이 맞게 되어 있어요, 안 맞게 되어 있어요? 맞게 되어 있는데 섹슈얼 오건 (sexual organ;성기관)이 ‘아이구, 죽겠다!’ 하고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달라붙게 되어 있어요? 「달라붙습니다.」 뭇 중심삼고? 뭐, 무슨 사랑? 「참사랑.」 타락한 사랑이 아니예요. 타락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패들이예요. 타락한 후손이에요. 원리 원칙을 배반해 가지고 딱 그와 같은 자리에 있어요.

사랑의 주인이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닙니다. 알겠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랑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녀석들은 전부 다 지옥 맨 밑창에 가요. 프리 섹스, 여자나 남자나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 패들은 지옥 가야 되겠어요, 천국 가야 되겠어요? 똥

개새끼 모양으로 말이에요. 지옥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됩니다.」 지옥도 밭창에 가야 돼요.

그래, 절대 성이에요. 절대 거룩한 것이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나온 아들딸이 절대 거룩한 것이에요. 어머니 아버지의 몸과 마음을 다 기울여 가지고 사랑을 해야 돼요. 뺏골의 골수가 녹아 붙어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거 어디서 태어났어요? 입에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생식기에서 나왔지요?

그러니까 거룩한 아들딸을 품기를 바라는데, 그 거룩한 아들딸을 낳게 한 것이 생식기니까 거룩한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 생식기예요. 알겠어요? 왕성(王性)이에요, 성왕(性王)이에요? 성왕 위치에 있는 것이 생식기입니다. 한번 해 봐요. 「성왕 위치에 있는 것이 생식기다!」 그렇게 귀하게 여겨요? 왕이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예요. 변하지 않는 왕권을 남겨야 돼요.

내게 축복 받았는데, 지금까지 달고 다니면서 옆에 사탄세계의 아름다운 여자가 있으면, 거기 가 있으면 그게 일어서요, 안 일어서요? 「안 일어섭니다.」 실험해 봤어요? 그게 일어섰다가도 죽어 버려야 돼요. 그래요? 사탄세계예요! 자기 여편네가 경계선입니다. 알겠어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사랑의 세계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랑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무엇이냐 하면, 여자 생식기고 남자 생식기예요. 알았어요? 「예.」 이런 미친놈의 자식들, 똑똑히 알아야 돼요.

그걸 그냥 열 수 없어요. 엉망진창이 된 것을 전부 다 꿰매 가지고 대신 새 것으로 대치할 수 있어 가지고야 2세 시대로 넘어가야 돼요. 앞으로 임자들이 바람피우게 되면, 이제 때가 오게 되면 여자가 남자의 생식기를 집게로 빼 버릴 때가 온다고요. (웃음) 왜 웃어요? 그래, 통역 다 하는 모양이구만. 뭘 달고 있어요?

또 여자가 그런 놀음을 하게 되면 시멘트로 때워 버려야 돼요. (웃음) 아예 만년 그것을 들이박든가 해 가지고 밴디지를 붙여 가지고 아

프터라도 그걸 때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 가지고 1년, 몇 년 만에 한 번씩 조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와요. 그런 녀석들은 새끼 종자를 남겨서는 안 돼요. 이런 무서운 때가 옵니다. 일족이 전부 다 공동명의로써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전부 다 공동묘지로 보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유대나라 법이 그랬지요? 처녀가 아기를 배면 돌로 쳐죽였다구요.

그런 이상시대가 옵니다, 이상시대. 그래, 끝날에는 사탄이 세계 인류 50억 인류라면 25억 남자, 25억 여자를 전부 다 아담 해와와 같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전부 다 아담 해와를 내 마음대로 했으니 50억 인류, 여자 남자 전부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소.’ 이런다는 거예요. 뭘 할 것이냐? 프리 섹스 판을 만들어 가지고 하늘나라에 한 사람도 안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전권을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전권행사!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4대가 뒤넘이치는 거예요. 이거 프리 섹스를 통해서 말이에요. 미국 같은 데는 할아버지가 손녀딸하고 사는 경우가 많고, 아버지가 딸하고, 아들이 어머니와 같이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동물보다 못한 거예요. 쓰레기들! 세상에 인간이 그렇게 되다니! 그런 세상이 되었으니 끝장이라구요. 알겠어요? 「예.」

돌아서기 위해서 축복 세계화 시대의 문을 여는 것

하나님도 간섭 못 하고, 사탄도 만들어 놓은 뒤에 ‘야, 야! 이제 틀렸으니 나 따라갈 수 없어, 이제.’ 이렇게 되었다구요. 그래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구요. 그러니 자살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 가는 거예요. 자기의 몸에 제일 귀한 순결을 지켜야 할 이런 가치적인 사랑의 본거지로 지켜 왔던 그것을 사방에서 유린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부모가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할 텐데, 할아버지로부터 아버

로부터 오빠로부터 이렇게 유린해 나온 거예요. 그러니 남자는 꿈에도 보기 싫어요. 죽어도 싫다는 거예요.

또 여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손자를 범하고, 어머니가 아들을 범하고, 누나도 동생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자가 싫다는 거예요. 죽어도 여자는 싫다 이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끼리끼리, 남자 끼리끼리 꽤가 생겨났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비참한 세계가 왔다는 거예요. 이걸 끝장입니다. 알겠어요? 돌아가야 돼요. 돌아서야 된다고요. 180도 딴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소망이 없는 이 세계가 되었다 이거예요. 180도 다른 길을 가가지고 절대사랑을 중심삼고 전부 다 취소해야 돼요. 프리 섹스니 하는 것으로 모든 더럽힌 것을 절대적 사랑을 가지고 표백을 해서 돌아서기 위해서 이제 축복 세계화 시대의 문을 여는 거예요. 개문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러면 종족적 메시아 시대는 지나갔어요. 임자네들, 종족적 메시아가 되라고 했는데 다 가다가 도망갔지요? 고향에 돌아가라고 하니깐 ‘아, 좋다!’ 해놓고 중간에 전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배신자의 원흉의 자리에 선 것이 일본이에요. 죽기만큼 싫었지요. ‘또 종족적 메시아가 뭐야?’ 하고 말이에요. 알고 보니 큰일났어요.

해와 국가의 책임 뭐예요? 다시 낳아야 돼요. 다시 낳아야 돼요. 다시 낳아야 돼요. 잘못 낳았기 때문에 이제 본남편을 찾아 가지고 다시 씨앗을 심어야 돼요. 본남편과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개인적 관계, 가정적 관계, 일본인들 1억2천5백만 명이 되는 그 모든 게 하나도 본남편과는 관계없어요. 천사장하고 관계해 가지고 별의별 짓 다 했다는 거예요. 가질 것 다 있고, 세상에 갖출 수 있는 가정 형태, 나라 형태가 되어 가지고 세계에 자랑하고 그러는데, 그거 오래 못 간다고요.

이제 10세 미만 아이들이 전부 다 녹아나게 되는 거예요. 일본이 제

일 곤란해질 거예요. 두고 보라구요. 그걸 방지해야 돼요. 눈뜨고 보기 싫은 그런 현상이 자기 눈앞에 일본 전역에서 나타날 것을 생각할 때, 그렇게 되기 전에, 해지기 전에 일을 다 끝내야 된다고요. 해지고 아침이 되게 되면 다 끝장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래서 바쁘게 세계화 운동을 지금 한다는 거예요.

해와 국가의 책임

일본 여자 1천6백 명을 파송해 가지고 한 것이 1만2천 명으로 벌어들였어요, 120명씩. 한 나라에 10명의 선교사가 탕감해야 할 것을 그 책임을 못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120명이 벌어들였습니다. 120명이 해산하는 어머니로서 세계에 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안 가겠다, 안 가겠다, 안 가!’ 하면 망해요. 안 가 보라구요. 이시이! 이시이! 「예.」 안 가면 뭘 해? 이시이! 「예.」 120명 안 가면 어떻게 된다고, 일본이?

* 「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웃음) 안 가면 어떻게 된다고? 「갑니다.」 그런 대답이 어디에 있어? 망해, 망해요! 선생님이 포기하는 거야. 선생님의 명령에 대해서 투덜거리면서 자기의 방편대로 끌고 가는 사람은 망해! 안 망하면 선생님이 망하게 할 거라구.

에리카와! 「예.」 본래 에리카와는 에리(襟:옷깃)의 가와(川)에 서 있다는 거야. 벼랑 위의 에리가와(襟川), 한 발을 잘못 디디면 굴러서 어떻게 돼요? 지옥 밑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라구요. 에리카와! 「예.」 이 녀석, 이시이와 의논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거 기억하고 있어? 여자들을 데리고 전권을 가지고 선생님이 말한 대로 하라구! 「예.」 그거 잊어버렸어? 「안 잊었습니다.」

남자는 천사장이라구요. 이시이도 천사장, 박 씨도 천사장이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끌고 간다고요. 돈 문제를 이시이와 의논했지, 이 녀석? 위험하니까 기부해 두라구! 기부해 놓았어, 에리카와? 「예.」 구국헌금!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일본 나라가 아닌 거라구요. 구국헌금을 모두 다 했어? 아, 에리카와! 「예.」 어떻게 했어? 선생님이 그것을 믿고 세운 세계적인 계획들을 전부 다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구. 누가 손대라고 했어? 이시이한테도 경고한 적이 있다구. 경제문제에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했다구.

이시이! 「예.」 네가 그렇게 하라고 했지? 「아닙니다.」 에리카와가 스스로 그렇게 했어? 「완납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완납이 안 되어 있으면 완납을 시키면 된다구. 「예.」 안 되어 있으면 손댈 아무런 권한이 없잖아? 「예.」 이번에 일본 책임자들이 선생님한테 약속한 것이 얼마야? 일본의 책임분담금이 얼마야? 「1천8백입니다.」 1천8백, 그거 다 할 자신이 있어? 「하겠습니다.」 언제? 4월이라구. 언제 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겠습니다.」 몇 년이 걸려서 해? 전부 다 그런 결심으로 해 왔잖아? 그거 방편적인 대답밖에 안 되는 거라구. 「죄송합니다만, 한 번 더...」 죄송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구.

섭리노정은 넘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과 의논해서 될 일이 아니라구. 절대적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안 하면 안 된다구요. 여러분을 중심삼고 남미에서 혼자 싸웠지만, 환경이 전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일본 멤버들, 손 들어 봐요! 여러분의 책임이 크다구요. 해외 국가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천사장의 남자들이 아담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외한테 충성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여자를 앞세워서 넘어가야 됩니다. 남자가 앞장설 수 없다구요. 선생님 이외의 남자는 없어요. 선생님의 뒤를 따라서 일본나라는 졸졸졸 따라오면 된다구요. 일본 관광객들이 깃발을 들면 졸졸졸 잘 따라가도록 훈련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옆으로 의논하면 안 된다구요.

어떻게 해요, 일본 멤버들? 앞으로 여러분은 일본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구요. 대륙으로 이동해야 돼요, 대륙. 이렇게 되면 일본은 불쌍한

섬나라가 되어 버린다구요.

모토코! 「예.」 너는 청산했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조금 남아 있더라도 전체가 남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 알겠습니다.」 낙제라구. 시험 점수를 못 받으면 동정도 안 하고 차 버린다구. 일본은 대대적인 인사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돼, 한 번 더. 이시이! 「예.」 인사 이동! 「예.」 (녹음 상태 불량으로 간부들과의 대화 내용이 수록되지 않음)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세워 주기 위한 교육

지금부터 그렇게 너저분하게 얘기하지 말라구요. 안 되면, 해외 국가는 포기하면 된다구요. 대번에 바꾸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책임을 못 지면 포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대만도 있고, 필리핀도 있다구요. 도서국가연합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안 하면, 도서국가연합의 어떤 국가도 좋다고요. 세레 요한이 자기 혼자를 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라구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세레 요한의 무리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생님도 그래요. 캐나다를 중심삼고 아시아의 대만과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미국의 해외 국가, 대만은 대륙의 해외 국가, 일본은 세계적인 해외 국가라구요. 그거 소련과 중국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한국과 뗄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꼭 그대로라구요. 2대 천사장이예요. 미국을 중심삼고 볼 때, 태평양을 넘어서 저쪽에 있어요. 그것은 유일신의 천사장과 사신(邪神)의 아벨 국가로서 극과 극입니다.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늘편 천사장을 중심삼고 중간의 소련과 중국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일본이 메차쿠차(めちゃくちゃ; 엉망진창)가 되면 중국도 그대로 흘러가고 소련도 흘러가는 거라구요. 선생님과 하나됨으로써 앞으로

일본이 살아 남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처구니가 없게 됩니다. 태평양전쟁 때보다 더 비참해진다구요. 그렇게 생각 안 하지요, 여러분은? 미국도 선생님과 의논할 수 있는 차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중국도, 소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본과는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거 알아요? 소련과 중국을 묶으면 3주일 이내에 일본을 점령해 버립니다. 대번에 전쟁을 하게 되면 일본열도는 분할되어서 어디의 거점도 없어져 버리는 거라구요. 일본이 무슨 힘이 있어요? 경제력과 군사력 같은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선생님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으로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천국을 복귀하는 어머니로서의 일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구요. 남자는 해와를 모시는 천사장으로서 가장 가깝습니다. 개인적인 천사장이고 말이에요, 자기의 아들딸도 자기의 아들딸이 아니라구요. 자기의 아내도 자기의 아내가 아닙니다. 하나님편에 바치지 않으면 안 돼요. 해와는 하나님의 상대잖아요? 천사장은 그것을 여왕같이, 아들딸도 왕의 아들딸처럼 모실 수 있는 역사적인 기준을 세워서 탕감복귀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남자는 섭리에 대해서 투덜투덜할 수 없대구요. 일본 여자들한테 통 일교회의 어느 누구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은 비밀스러운 내용들을 전부 다 먼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간부들도 모르는 것들을 전부 다 가르쳐 주고 있대구요. 16만 명의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뭘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세워 주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데, 이거 전체의 복귀로 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그거 섭리관을 가지고 통과하지 않으면 갈 길이 없어요. 선생님도 그렇대구요. 장자권 복귀, 그리고 뭐라구요? 부모권 복귀! 왕권 복귀가 되어 있는 나라가 없어요. 사탄세계의 부모권은 복귀되어 있지만, 나라

가 없더군요. 나라를 하나님한테 연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라가 없는 거라구요. 가정은 있지만 말이예요. 알겠어요?

지금은 왕권 복귀 시대

지금은 왕권 복귀 시대이기 때문에 도서국가연합, 반도국가연합, 대륙국가연합을 만든 것입니다. 북미 대륙은 포기해도 된다고요. 아시아와 남미를 중심삼고 가인 아벨로 묶으면 되는 거지요? 그런 시대가 되는 거라구요. 국가 정착의 섭리관을 초월하기 때문에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중심을 찾으면 360도 돌아가는 거라구요. 360국가를 마음대로 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수십만 개의 섬 같은 것들도 하나로 묶으면 세계 각국에 대사를 보낼 수 있지요? 그렇게 대사를 보내면 세계 각국의 대사들은 선생님이 보낸 그 대사를 중심삼고 전부 다 끌어 붙일 수 있어요. 이론을 못 당하는 거예요. 철저한 칸셉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망상도 아니고 공상도 아닌 것입니다. 틀림없이 역사에 맞는 탕감을 치러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요? 가정연합이라든가...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정을 수습할 수 없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엉망진창이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엉망진창인 것을 180도 전환시킬 수 있는 사람은 참부모밖에 없습니다. 거짓 부모에 의해서 무너진 가정을 참부모에 의해서 전환시키는 길밖에 없는 거라구요. 하나님도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당사자가 탕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두 번째 아담이 탕감하는 것입니다. 가정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국가 기준에서 탕감복귀해야 되는데, 그 국가 기준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탕감복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정적으로 복귀된 기반 위에 섰더라면 중동의 일대가 하

나되었을 것입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던 로마 제국 같은 것도 상대가 안 되었을 거라구요. 상대하면 할수록 먹혀들었을 거라구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라구요. 그렇게 만나면 여러분한테 먹혀드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 나중에는 여러분 이외에는 얘기할 수 없다구요. 30분, 한 시간을 계속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몇 시간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위대한 진리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힘이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목사들 5천8백 명을 교육했지만 말이에요, 92퍼센트가 축복 받기를 원하고 있다구요. 완전 점령입니다. 변호사들도 그렇고, 언론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대전 후 선생님이 한반도에서 환영을 받았으면 일본 같은 것은 전부 다 없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4개국에 분할되어서 일본 사람들은 모두 다 그쪽으로 끌려가서 지금 여러분과 같이 얼굴이 예쁜 여자들이 달을 보면서 일본열도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거라구요. 통일교회의 여러분도 그런 것을 생각한 적이 없지요? 이거 30퍼센트가 돼요?

가인을 복귀하기 위해서는 투입해야

지금 일본은 그렇습니다. 오키나와 같은 것은 중국이 문제없이 삼켜 버릴 수 있다구요. 오키나와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거 알고 있어요? 북쪽의 가라후토(樺太;사할린)를 소련이 점령하는 것은 지금도 문제가 없는 거라구요. 중국이 규슈를 점령하는 것도 문제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렇지요? 소련과 중

국이 합해서 요새를 만들면 대번에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반도가 막고 있어요, 한반도가. 그 한반도가 없으면 큰일이겠지요? 김일성이 욱심대로 하면 일본까지 점령하는 거예요. 그거 중국과 소련이 도와주게 되어 있는 거라구요. 그것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한국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맙다고 생각해야 할 텐데, 지금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독도를 가지고 뭘 해요? 그거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폭약을 채워 폭파시키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는 거라구요. 지리적으로 생각하면 대마도도 한국에 연결되지요? 부산에서 보인다고요. 일본에서 대마도가 보여요? 대마도가 보여요? 어디서 보여요? 한국에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는 안 보여지요?

일본을 잘 알고 있다구요. 세계의 유명한 기자들 30명을 일본에 보내면 지금의 정치적인 내용 등을 전문가 이상으로 깨끗이 캐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의 보고들이 들어오고 있다구요. 그리고 일본 여자들을 보내는 것도 장삿속으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사업을 세계로 펼치고 싶은 거라구요. 일본은 1억2천5백만의 인구 가운데 5백만 명 이상을 이민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큰일납니다.

아들딸을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지금부터 50년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구요. 이민을 안 가면 큰일난다고요. 그런데 경제동물이라는 이름이 붙은 일본 사람들이 가면 세계의 어디서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일본 여자들이 나갔기 때문에 괜찮았지, 남자들이 가면 전부 다 싫어한다구요. 그것도 해와 국가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여자는 희생적으로 봉사할 뿐이지 착취나 무력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80개국에 120명씩을 보내서 일본과 아시아의 대사들을 전부 다 요리해야 된다고요. 그거 아시아의 평화의 기지를 일본을 중

심삼고 출발시키는 것입니다. 한국 대만 중국 등 아시아의 대사관들을 찾아가면 일본이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닦을 수 있는 거라구요. 50년 전에 침략국가로 낙인이 찍힌 것을 어떻게 지울 거예요? 어디에 가더라도 봉사하는 것입니다.

중국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다구요. 북쪽은 소련, 남쪽은 중국과 자매결연을 맺어야 돼요. 그렇게 자매결연을 맺으면 어느쪽이 아벨이 돼요? 일본이 아벨이라구요. 소련 여자들이 가인편입니다. 그러면 그 가인을 복귀하기 위해서 투입하지 않으면 안 돼요. 투입하지 않으면 상대가 생기지 않는 거라구요. 이것이 재창조의 공식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벨을 중심삼고 가인이 하나되면, 그것이 큰 아벨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중심삼고 하나되어 가지고 아버지를 복귀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권한이 어머니나 아들딸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장인 남편한테 있지요? 그러한 가정이 아벨로서 종족과 하나되어 가지고 더 큰 아벨이 되어서 민족 편성이 벌어집니다. 또 그 위에 국가가 서는 거예요. 그거 공식입니다. 공식을 모르면 안 돼요, 공식.

우선 세 명을 전도해서 사위기대를 이루는 거예요. 삼 사 십이(3×4=12)가 되지요? 그것이 자연의 발전 법칙입니다. 그래서 둘게 되면 원형이 되는 거예요. 둘면 각이 없어져 버려요. 프로펠러가 돌아가면 전체가 원형으로 보이지요? 그렇게 돌아가게 되면 영원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남편도 복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들딸과 어머니를 중심삼고 다시 탕감복귀를 하지 않으면 축복의 노정을 갈 수 없다고 하는 공식을 모르면 안 돼요. 그 공식이 수천만 년 계속되어서 좌익과 우익, 무신론과 유신론으로 전개된 것입니다. 그것이 선생님에 의해서 하나된 거라구요. 그것을 수습하지 않으면 부모의 자리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세계평화가정연합이 세워지게 된 과정

1992년까지 형제일체권이 이루어짐으로써 어머니의 자리가 마련된 거예요. 세계적인 반대가 있었지만 모든 가정들을 수습해서 관계를 맺음으로써 어머니가 1992년 4월 10일을 중심삼고 여성연합을 결성한 것입니다. 여성연합은 절대로 필요하다구요. 무엇이 필요하다구요? 「여성연합!」 그 여성연합을 만들기 전에 무엇을 만들었느냐 하면, 카프(CARP; 전국대학원리연구회)와 청년연합을 만들었습니다. 복귀원칙에 의해서 원연(原研; 원리연구회)을 만든 다음에 여성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연합과 원연을 만든 다음에 청년연합을 만들었습니다. 청년연합을 만든 것은 3년 전이라구요. 그거 공식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성연합, 청년연합, 학생연합이 하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여성연합에 청년연합과 학생연합이 하나되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가정연합을 만드는 거라구요. 참부모를 중심삼고 혈통전환을 시켜서 새로운 하늘편으로 이동해 가는 기반이 세계평화가정연합입니다. 그 가정연합을 언제 만들었어요? 「1996년에 만드셨습니다.」 1996년에 만들었어요.

그 가정연합을 만들면 에덴동산의 가정에서 아담한테 지키지 못했던 모든 약속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93년에 참부모와 성약시대가 선포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참부모와 성약시대 안착이기 때문에 이동할 수 없다구요. 역사 이래 전인류를 대표한 부모의 가정이 완전히 안착했기 때문에 사탄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직접주관권인 하나님의 권한 하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사탄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선생님을 반대하기는 하지만 선생님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짱을 가지고 밀어 제끼는 거라구요. 치면 친 사람이 대번에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원칙

을 따라서 세계를 수습해 나온 것입니다.

지금은 뭐 선생님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왔지요? 각국의 수상들이 선생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어때요? 해외 국가에 남편이 못 들어오게 막는 그 나라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일본 통일교회 여자들이 모두 다 돌아가서 도와주는 거라구요.

여자들이 모두 다 축복가정이 되어서 줄줄줄 돌아오면,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따라잡니다.» 따라오는 것이 탕감원칙이라구요, 탕감원칙. 그렇게 선교사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을 동네까지 배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일본은 여자가 없는 나라가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일대로 망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여자가 없어서 아들딸을 못 낳으면 망하잖아요, 일대에? 선생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구요.

일본 여자들! 선생님을 따라서 남미로 갈래요, 남편을 따라서 일본에 정착할래요? 자기 자신이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답해 보라구요! 「남미로 가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예.» 이렇게 보기 싫은 한국 사람을 따라가서 뭐가 돼요? 옛날에는 원수였다구요. 일제시대에는 일본 여자들이 대만 사람이나 흑인들과는 결혼하더라도 한국 사람과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는다고 했다구요. 왜 그랬느냐? 한국 사람은 무서운 거예요. 머리가 좋다구요.

머리가 좋은 한국 사람

일제시대 말기에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가운데 75퍼센트가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머리가 좋다구요. 지금 일본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전부 다 따라붙습니다. 이태원을 알지요, 이태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조품 왕국입니다. 그런

곳이 이태원이라구요. 세계의 유명한 무엇이 나오면 일주일 이내에 만 들어요. 그러니까 기능올림픽대회에서 언제나 한국 사람이 일등을 합니다.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한국 사람이 없는 데가 없어요. 모두 다 어디에 가더라도 앞에 서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되는 거라구요. (웃음) 아,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기성이 농후합니다. 선생님도 사기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사기를 칠지도 모르니까 조심하라고요. 경고하는 거라구요. 그런데 이것은 밤에 생각해 봐도, 낮에 생각해 봐도, 일생을 생각해 봐도, 수십 년을 생각해 봐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싫더라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결과가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기성이 농후하다면 미래도 아무것도 없이 엉망진창일 것입니다. 이렇게 왕사기꾼이 서서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귀를 막아야 되겠어요, 열어야 되겠어요? 어느쪽이에요? 「열어야 됩니다.」 열면 일본이 없어져 버린다고요. 틀림없이 없어져요. 일본이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도 모두 다 선생님을 반대하는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게 되면 한국이 없어져 버리게 된다고요. 그렇게 한국도 일본도 없어진 다음에 남은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수)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십시오)

이놈의 자식들, 왜 쑥덕공론하는 거야? 선생님이 말씀하는데 말이야. 잘 들으라니까. (웃음) 자기네 고향에 돌아가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고 배우라구, 쌍것들아! 알겠어? 「예.」 선생님이 말하는데 입을 열어 가지고 쑥덕거리는 그런 예법이 어디 있어? 이 쌍것들!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잘못했습니다.」 열두 시까지는 딱 참으라고 그랬는데 말이야. 알겠어? 「예.」 가만있어! 동상같이 가만있으라구. 「예.」

동상이 그 ‘얼 동(凍)’ 자가 아니예요. 그거 녹으면 큰일나요. 무슨 동 자냐 하면, 동(銅)으로 만든 동상(銅像)이에요. 만년 춥든 덥든 변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면 축복 받아요. 지나가던 새도 앉아 가지고 똥을 싸고 쉬려고 그래요. 얼음 동상이면 큰일나지요.

*사기성이 농후한 선생님을 따라가 봤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본으로 돌아가더라도 좋다고 하는 거라구요. 그리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봐요! 이시이, 어때? 선생님한테 속아서 기분이 나쁘잖아, 일본 사람으로서? 에리카와, 어때? 그래도 좋아? 「예.」 이 바보 같은 여자! (웃음)

아라이, 요전에 네 남편이 태권도 때문에 와 있었지? 「예.」 그거 선생님이 처음 알았다. 태권도를 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구. 「아버님께 보여 드리겠다고 생각하고…」 언제? 그거 12월이 아니라구. 예전에는 몰랐다고. 여기에 참석했어? 「예.」 가기로 결정했어? 남편을 사랑하지?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이 녀석! (웃음)

그러니까 곤란하다구요.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그래요. 미국 여자, 독일 여자도 전부 다 선생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남자를 어떻게 처리해요? 선생님은 어머니 한 마리로 좋다고요. (웃음) 한 마리면 됐지, 여러 마리는 필요 없습니다. (웃음) 그렇게 한 마리도 웃기 때문에 몇 마리는 필요 없다고 하는 거라구요. 한 마리로 충분합니다.

훌륭한 남편이 되게 행동을 해야

어머니를 생각해 보라구요. 여자로서 훌륭해요. 내외적으로 다 갖추고 있다구요. 유럽 어디를 가더라도, 남미 어디를 가더라도, 소련 어디를 가더라도 전부 다 ‘저런 아내를 얻은 문선생은 행복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해서 말이에요…. (웃음과 박수) 그런 어머니가 약하지 않다구요. 그 어머니가 훌륭한 아내지만 강한 면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한다고 하면 한다구요. 무엇을 한다고 약속하면 안 하는 것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결혼하기 전에 일생 동안 이렇게 한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브레이크를 건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어길 수 있는 짓은 한 번도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대개의 여자들의 남편들은 단상에서는 훌륭한 말을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엉망진창이에요. 어머니는 선생님을 존경한다고요. 물어 보라고요. 조용히 가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살짝 물어 보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선생님을 존경한다고 한다고요. 숭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훌륭한 남편이에요, 못한 남편이에요? 「훌륭한 남편입니다.» 나는 훌륭한 남편인지 못한 남편인지 모르는 거라고요. 훌륭한 남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훌륭하게 처신하지 않으면 훌륭한 남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훌륭한 남편이라고 하는 말이 좋아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거라고요.

선생님이 어머니하고 싸우는 것을 본 사람 손 들어 봐요. 선생님이 똑똑한 남자예요, 바보 같은 남자예요? 「똑똑한 남자입니다!」 똑똑한 남자가 어떤 남자냐? 똑똑한 짓을 하기 때문에 똑똑한 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웃음) 싸움을 해야 되는데, 안 싸운다고요. 보통 같으면 버럭버럭 화를 내야 할 텐데, 설 새 없이 웃는 거예요. 반대, 반대라고요. 반대로 하면 무사통과입니다.

그래도 참을 수 없을 때는 ‘아, 곤란하구만! 변소에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피해 버리는 거예요. (웃음) 아, 정말이라고요. 그렇게 해 보라고요. 남자들은 주먹이 올라갈 것 같으면 변소에 갔다 오라고요. 그러면 그 주먹이 풀어집니다. 아니면, ‘아, 몇 분에 전화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5분 정도 나갔다 오면 전부 다 수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분이나 10분 이상이 지나면 상당히 진정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디 갔나?’ 하면서 찾아가서 뒤를 따라서 돌게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보라고요. 남편이 버럭버럭 화를 내면, 그렇게 뒤를 따라서 돌아 보라는 거예요. 싸움? ‘이 사람, 또 이럴 거야?’ 하면서 우향우를 해서 안고 키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요. 그럴 때가 사랑의 걸작품을 만드는 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지도 모르는 거예요.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선생님이 그런 면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남자가 그러지 않으면 훌륭하다는 소리를 못 들어요. 아들딸한테 부부가 눈물을 보이는 것은 죄라고요. 아들딸 앞에서 부모로서 주먹질을 하는 것은 안 좋은 것입니다. 아들딸은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그 순정을 가진 아기들 앞에서 남편이...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순정을 가진 아기들 앞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주먹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면도칼로 금을 그은 것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훌륭한 남편 되기가 쉽지 않아요. 훌륭한 남편이 되게끔 행동을 해야 돼요. 만들어 가야 됩니다. 창조해야 돼요. 재창조예요.

어떤 때는 일부러 여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자꾸 굽어요. 180도 이상 2백도 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아무것도 안 한 것같이 가만히 있어 보라고요. 저쪽에서 별의별 짓 다하고 뭐 어떻고 어떻게 그런다고요. 그렇더라도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내 귀를 막았다고 생각하는데 듣긴 뭘 들어요? 한 30분 떠들다가도 가만있게 되면 ‘아, 왜 그만 하느냐? 참 듣기 좋은데.’ 하는 거예요. 더 하려야 그만 두게 되어 있지 별수 있어요? 안 지겠다고 싸움을 하는 녀석이 나쁜 거라고요. 알겠어요?

어편네를 때린 경험 있는 사람 손 들어요. 용서해 줄게 손 들어요. 용서해 줄게. 얼굴을 들어야지, 얼굴을. 이 녀석들, 이거 봐라. 한국 사람 봐라, 저, 저... 내리라고요. 망신이에요. 나라 망신이에요. (웃음)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보다 많다고요. *일본 남자들 가운데 여자를 때

린 경험이 있는 사람, 손 들어 봐요. 용서해 줄 테니까 들어 봐요! 몇 사람 없잖아요?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몇 사람 없잖아요? 한국이 나빠요. (웃음) 정말이에요. 그렇다구요. 깡패들도 많고, 순간적으로 자기 기분을 백 퍼센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한국 사람들이예요. 어디 가든지 자기들끼리 평가하는 거예요. 마을이나 시가에 상점을 피놓고 매일같이 싸움을 안 하는 패가 없어요. 망할 패예요, 흥할 패예요? 「망할 패입니다.» 그런 녀석들을 가서 교육하기 위해서 전부 다... 여러분은 흥할 패예요, 망할 패예요? 「흥할 패입니다.»

여편네를 때리는 그게 무슨 흥할 패예요? 자, 오늘부터 그렇게 안 하기로 결심해야 되겠다구요. 알겠어요? 「예.» 그러면 선생님의 명령에 의해서 망할 패가 흥할 패가 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썰기를 박아 가지고 누구도 못 빼게 큰못을 박아 놓는 게 아멘이에요. 아— 멘. 면이 놀랄 만큼 매끈매끈하다, ‘아—멘’이에요. 알짜? 「예.»

싸움이 없는 가정이 돼야

*일본 여자와 남자들! 지금부터 축복가정으로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고 하는 이름 밑에서 싸움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어느쪽으로 정하면 축복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 자동적으로 대답이 어때요? 「안 해야 됩니다.» 안 해요? 그냥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한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라구요.

그러면 남편이 무턱대고 때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싸움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울어요? 울지도 않는 거라구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눈물을 보인다는 것은 여자로서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면 말이에요, 죽어도 울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 손 들어 봐요! 「예!」

참부모의 명령에 따라서 싸움이 없는 가정이 되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통일교회의 가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공식입니다. 알겠어요? 「예.」 공식입니다. 해 봐요! 공식입니다. 「공식입니다.」

그리고 싸움도 안 하고, 뜻길에 있어서 이루어야 할 것을 이루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도 약속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웃음) 천하에 부부 싸움 이상으로 무서운 것이 없다가요. 어찌면 궤도를 탈선해서 갈라지는 거라구요, 한마디에. ‘당신 같은 남자는 만나지 말아야 된다. 축복도 안 받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순진한 여자를 이렇게 만든 것을 참을 수 없다. 더러운 남자, 똥!’ 하고 끝나는 거라구요.

그럴 때는 그렇게 조잘조잘 재잘거리는 것이 여자의 성질이라구요. 여자의 뭐라구요? 성질! 남자의 성질은 귀싸대기를 후려갈기는 거예요. 조잘조잘 재잘거리는 것은 여자의 성질이고, 남자의 성질은 ‘이것이…!’ 하면서 후려갈기는 거라구요. 두 성질을 무사통과하여 완성하는데 있어서는 입, 눈, 귀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것이 성인의 길이에요. 귀와 입이 왕이 된다고요. 알겠어요?

귀와 입! 특별히 여자는 말이에요, 귀와 입이 왕이 되라구요. 그것은 ‘성인 성(聖)’이라구요. 어느 누가 ‘성녀가 되고 싶으냐, 악녀가 되고 싶으냐?’ 하고 물으면 성녀가 되고 싶다고 하는 것이 모든 여자들의 대답이라구요. 그것이 ‘성(聖)’ 자예요, 성. 남녀간의 성욕의 성(性)이 아닙니다. 그것도 성 자지만, 이 성 자는 귀(耳)와 입(口)이 왕(王)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자의 생식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아, 정말이라구요. 이게 왕이 아니예요? 그것을 지키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배우지요? 그런 것은 사전에도, 어디에도 없다고요. 일본 교과서에서도 본 적이 없잖아요? 알겠어요?

이시이! 「예.」 에리카와! 「예.」 둘 다 마음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결혼시켜 주었더라면 날마다 싸울지도 모를 거라구요. (웃음) 「여성적

입니다。」 뭐가 여성적이야? 남자 같은 여자라구. (웃음) 플러스가 되어서 반발하잖아? 너 요즘에 얼굴빛이 변했구만! 건강해졌어? 「예.」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지? 「예?」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지? 「예.」 도둑질도 할 수 있지? 이야, 무섭구만! 은행털이도 할 수 있어? 「예.」 (웃음)

이런 것을 문선생이 물어 봤다고 수첩에 적어 놓으면 안 된다구요. 시험삼아서 말하는 것을 실제로 그렇게 하면 일가(一家)를 망치고 국가를 망치는 대왕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배짱이 필요해요. 일단 환경이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가족은 문제없습니다. 영계에 가더라도 모두 다 칭송함으로써 기가 죽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안 이상에는 남자다운 배짱을 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구요.

선생님이 가는 길이 성공의 길

지금부터 일본도 대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돼요. 몇 번이나 이시어도 ‘아, 외국에 선교사로 6천 명을 파견하는 것은 싫다.’ 했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안 합니다. 싫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은 있지? 「그것은…」 그러니까 싫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가는 길이 성공의 길이지, 여러분이 가는 길은 사탄적인 결과로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선생님과 의논해서 하면 계속될 수 있지만 의논도 안 하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구요. 박 상(상인)도 누구도 옳지 않은 거라구요.

언제 그런 것이 있을지 몰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에 걸리는 거라구요.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선생님이 전문가

지요? 탕감복귀노정을 가는 데는 선생님 이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했지요? 정말이에요? 그거 거짓말인지도 모르지요? 거짓말인지도 모르지만, 선생님이 가정한 그 조건은 역사상에 그냥 그대로 되어 가기 때문에 말이에요, 상대권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지, 선생님의 상대권이 되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천지창조의 영원한 원칙입니다.

선생님은 그것을 알고 모험을 했는데 망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이 모험을 한다고 하면서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사라져 갔지만, 선생님이 모험한 것은 실체로서 역사에 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잘못된 것을 후손들이 알게 되면 그들의 무덤을 전부 다 파내서 독수리의 밥이 되게 해 버릴 거라구요. 그런 심각한 것을 하고 있는 거라구요. 반놀음이 아니지요? 알겠어요?

선생님의 얼굴을 보라구요. 반놀음은 안 합니다. 장사를 하더라도 세계 제일이 되는 거라구요. 정치를 하든, 밀하든 그 분야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상대를 묶는 데도 말이에요, 요전에 얘기했지만, 기도할 때 계시를 받기도 하고 말이에요, 몽시를 받기도 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상대 기준으로 묶어 주느냐? 그런 상대를 어떻게 그대로 묶어 주느냐? 그것이 문제지요?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침을 받을 때 어떻게 그것을 맞게 묶느냐? 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받은 대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선생님이 무엇도 안 될 수 있는 선생님이예요? 이것은 모르지요?

세계·평화·통일·가정 연합체가 되어야

작년부터 그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이 가면 발이 멈춰요, 발이. 손이 이렇게 멈춘다구요. 손이 아는 거예요, 손이. 그런 것을 아무렇게나 포

기해 버리면 조상들이 걸리는 거라구요. 운명의 결정이 아니라 조상들의 해방을 위해서 결혼을 다리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면 영계에 가서 큰일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면 큰일난다는 거라구요.

일본 사람끼리 결혼하면 안 한다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시하지 않고 해 보라구요. 반드시 망해요. 국제결혼한 사람, 손 들어 봐요! 내리라구요. 횡적으로 확대시키는 데는 국제결혼 이외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박해를 받는 거라구요. 한국도 그래요. ‘일본 사람과 결혼시켜?’ 한다구요.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보다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몇 배라구요.

지금은 그것이 전통적인 것이 되어서 일본 사람들이라도 모두 다 통일교회의 멤버는 한국 여자들보다 낫다고 하면서 누구든지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일본 여자들이 변하고 있는 거라구요. 일본 여자들이 옛날의 여자들이 아닙니다. 변했다는 거라구요. 지금 그렇지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선생님을 만나서 변한 여자와 남자가 되었어요, 그냥 그대로 일본 사람으로서의 여자와 남자예요? 「변했습니다.」 얼마나 변했어요? 180도! 따라해 봐요! 180도!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본래대로 돌아가서 방향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무엇부터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 평화, 통일, 가정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합체로서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라구요. 세계를 잊어버려! 어때요? 싫다구요! 얼마나 싫으냐? 고통스럽도록 싫은 것입니다.

세계를 잊지 말고, 평화를 잊지 말고, 그리고 뭐예요? 통일을 잊지 말고, 가정을 잊지 말라! 연합체를 만들어야 돼요. 전부 다 상대적입니다. 그 상대 기준 가운데 사랑을 연결하면 세계는 하나로 연결돼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앞으로 중요시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인데 세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세계를 잃어버리고 평화를 해서 뭘 해요? 평화를 잇으면 통일할 수 없어요. 통일해서 뭘 해요? 통일이 없으면 가정연합 해서 뭘 해요? 가정은 한 가정이 아니예요. 연합적이라구요. 그런 연합기반이 없으면 가정이 뭘 해요?

전부가 이 관계로 되어 있다구요. 세계? 「평화.」 가인 아벨이예요. 세계와 평화도 가인 아벨, 그 다음엔 통일도 가인 아벨, 가정과 연합도 가인 아벨, 통일과도 가인 아벨이예요. 전부 다 두 자씩 딱 짝이 되어 있어요. 몇 개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연합을 생각할 때 통일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평화를 생각하고, 세계를 생각해야 돼요. 세계를 생각할 때, 평화를 생각하고, 통일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연합을 생각해야 돼요. 일체다 이거예요.

가정이 저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세계 대표의 주인이 되고, 평화의 주인이 되고, 통일의 주인이 되고, 가정의 주인이 되고, 연합세계의 통일천하의 주인이 되니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세계! 「세계!」 여러분은 ‘아멘’ 해야지요. 세계! 「아멘!」 평화! 「아멘!」 통일! 「아멘!」 가정! 「아멘!」 연합! 「아멘!」 모든 것이 완성이예요. (박수)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협회 공문으로 내라구요. 「예.」 통일교회 신문에도 공고 내야 되겠다구요. 공고 내고, 이제부터 가정을 중심삼고 세계를 책임져야 할 이런 가정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정비해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도 혼자 갈 수 없어요. 앞으로 인사조치도 가정적으로 할 거라고요. 왜? 부부일신이예요. 책임자도 남편이 장(長)이면 여자는 부장(副長)이예요, 부장. 부책임자예요. 그 아들딸들이 모든 실력기준에서 우수하게 될 때는 그들을 중요한 부처에 가정적으로 배치하고 일족으로 배치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가정은 평화의 기준

자기 문증이 있으면 전부 다 종족 중에 우수한 사람을 선출해 가지고 국민 앞에 내세워 추천을 받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마음대로 못 해요. 대통령이 되더라도 마음대로 못 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하나되어야 되고, 부모가 되었으면 부모가 자식하고 하나되어야 돼요. 부모를 중심하고 만아들하고 하나되어야 돼요. 만아들을 중심으로 하나되었으면 동생하고 하나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행이 통과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남편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여자들은 전부 다 간섭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제는 아니예요. 부책임자예요, 부책임자. 알겠어요? 그 다음에 뭔가? 박 똥이? 박정해, 남편이 뭐던가? 「김병우입니다.」 이름을 잘 모르는구만, 생각하고 병우라고 하니. 김병우! 김병우가 아시아 대륙의 책임자예요? 「예.」

박정애야, 박정희야? 「박정해입니다.」 정해? 박정희가 아니고? ‘바다해(海)’ 자로구만. 박정해는 거기 부책임자야. 남편 대신 가서 대리행사 할 수 있고, 자기 아들딸이 다 자라 가지고 상당한 똥이 있으면 부모의 계대를 이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비서실장, 경리 책임자, 외교문제, 내무, 외교, 경제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비행(非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시대로 넘어갑니다. 알겠어요? 광정환이 알겠나? 「예.」 지금 당장에 해야 돼요. 2000년을 넘어 가지고 국가적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틀림없이 이런 조직체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 대통령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못 해요. 어머니의 승낙을 말아야 돼요. 뜻길에 충성하는 어머니가 마음대로 뜻을 내놓고 외도를 할 수 없어요.

또 부모가 갈 길을 아는 장남 앞에 외도를 할 수 없어요. 어머니 아

버지가 이렇게 된 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구요. 형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부모가 하나되어 가지고 가야 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부모 몰래 하게 되면 통과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가정회의에서 모든 것을 수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평화의 기준이에요. 가정이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평화의 기준, 통일의 기준, 가정과 연합적 기준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 단일 인사조치가 아니예요.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가정이 앞으로 출세할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고요.

이제부터 그러면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원리적으로 가야 돼요. 조직이 뭐냐 하면, 앞으로 있어서 학생이 있다구요. 중고등학생, 대학생, 학생이면 대학생까지 23세 이내는 전부 다 거기 들어가도 괜찮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나와 박사 코스 가려면 정식으로 하게 되면 24세까지 된다고요.

이렇게 볼 때 20세 전후를 중심삼은 학생들, 대학교에 적을 가진 사람은 세계평화총학생연합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의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은 전부 다 형님이 되는 거예요. 가인적입니다. 사회에 나가 가지고 정당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가정연합이 정착해야

이것을 가정과 연결 지어야 돼요. 학생을 중심삼고는 가정, 청년을 중심삼고는 나라와 연결되는 거예요. 나라는 가인적이예요. 전부 다 가인적이라구요. 정당이냐 나라냐 모든 기관은 지금까지 통일교회를 반대했어요. 통일교회를 지금까지 반대하던 모든 전부가 가인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학생들은 어머니를 중심삼고 가정에 통하는 거예요. 알겠어

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를 중심삼고 이제는 말이에요, 왕권시대가 되면 어머니를 중심삼고 청년회와 학생회가 하나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계통을 세워 보지 못했어요, 여자들이. 역사 이래 여자들이 지금까지 장자로서 맏아들부터 차자로부터 형제가 하나되어 가지고 어머니를 하늘같이 모실 수 있는 전통을 갖지 못했어요. 본연의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본연의 어머니가 장자권 복귀, 부모권 복귀를 해서 어머니 복귀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머니를 중심삼고 볼 때 장자와 차자는 어머니 이름 아래 절대복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복종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와 연결돼요. 아버지의 계대를 이어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 앞에 오시는 재림주, 하늘나라의 모든 축복을 전부 다 어머니를 통해 어머니 전통을 이어받고 부모의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대표해 나온 것이 장자요, 장자와 장자의 전통까지 이어받은 것이 차자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을 어머니가 절대복종하고, 어머니의 명령을 맏아들이 절대복종하고, 맏아들의 명령을 동생이 절대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가정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가정이 못 된다는 것이 원리적 총관(總觀)입니다. 총관이라고요. 알겠지요? 「예,」

그래서 우리 조직도 그래요. 우리 조직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여성연합이 있고 청년연합이 있다구요. 이것을 본격적으로 노출화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학생연합이 있습니다. 대학교를 중심삼고는 뭐냐 하면, 우리 통일교회의 청년연합이 대학교의 카프(CARP; 전국대학원리연구회)를 움직여야 돼요.

카프 책임자가 누군가? 이름이 뭐던가? 뭐야? 「신동모입니다.」 너는 왜 선생님한테 와서 인사도 안 해? 카프가 혼자 있을 수 없어. 가인야벨 기준을 연결시켜 나가야 돼. 알겠어? 「알겠습니다.」 부모권을 복귀했다면 부모권을 복귀한 통일교회 조직 내의 청년들 중심삼고는 학

생이 청년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청년과 학생들은 어머니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아버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아버님은 종적이에요, 종적. 어머니를 중심삼아 가지고 쪽 도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 품에 안겨 가지고 도는 거라구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공식적 조직이 그래요. 그래 가지고 최후에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가정연합 정착입니다. 가정연합이 정착해야 됩니다. 축복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머니하고 장자하고 차자가 하나 되어 가지고 하늘나라에 입적, 축복 자리에 나가야 된다고요.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 작업을 해 가지고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요.

그것을 에덴에서 잃어버렸어요. 이게 원칙적 조직이에요. 알겠지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동생은 형님의 말을 들어야 되고, 형님과 동생은 어머니의 말을 들어야 돼요. 더더욱이나 장자는 어머니하고 완전히 하나되어야 돼요. 그제 가인 아벨이에요. 그 후로 아버지를 중심삼고 어머니가 완전히 하나돼야 돼요. 남편을 중심하고 하나돼야 돼요.

그 하나된 자리에서 그 다음에 땅을 대표해 가지고 모든 복귀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말이에요, 자기 작은아들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건 어머니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아버지는 중앙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전부 다 어머니를 통해서 만나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 아니예요? 그게 제일 가까운 길이에요. 심정이 흘러갈 수 있는 정상적인 주류라구요. 그러니까 그러한 조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알겠지요? 「예.」

가정이 정착할 수 있는 세계적인 가정연합

어제 유정옥이 말을 들었어요? 특별히 국가 책임자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공식적인 조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이, 영계에서 협

조 안 해 줍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조직은 협조 안 한다 이거예요.

남미에서 하는 그것이 세계적인 통합조직이에요. 전부 구교 신교를 하나 만들기 위한 거라구요. 가인 아벨을 중심삼아 가지고 하늘의 뜻을 세우기 위한 거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었던 놀음을, 여러분은 모르는 놀음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공상적이고 망상적인 것이 아니예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제1, 제2, 제3 아담이라는 걸 알지요? 제1 아담 실패, 제2 아담 실패를 제3 아담이 와 가지고 완성하는 거예요. 3차의 부모를 거쳐 가지고 완성할 역사적인 제1 아담, 제2 아담의 터전을, 이 승리했다는 터전을 여러분이 이어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이 가정적 메시아요, 종족적 메시아요, 국가적 메시아인 것입니다.

가정적 메시아는 가정에서 자연히 종족으로, 국가로, 세계 무대, 하늘땅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것이 원리의 총론적인 조직 편성이라구요. 원칙적인 모델 조직이다 그말이에요. 똑똑히 알라구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지금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인 아벨 기준을 통과해야 돼요. 어머니를 통해 들어왔으면 어머니 동료와 같이, 형님을 통해 들어왔으면 형님 동료와 같이, 학생을 통해 들어왔으면 학생으로서 형님을 존경해야 되고, 어머니를 존경해야 되고, 아버지를 존경해야 돼요. 자기의 망종이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원리형에 맞추어 나가야 된다고요. 알겠지요?

보라구요. 통일교회에 있어서 원래는 중고등학교의 성화학생으로부터 카프 조직이 벌어졌다구요. 성화학생에서 카프 조직을 중심삼고 형님 조직도 없고 여성 조직도 없어요. 국가적 모든 시련을 거쳐 가지고, 어머니를 중심삼고 이것이 비로소 남북의 통일적인 조건적 가인 아벨의 형태를 거쳐 가지고 여성연합이 창립된 거예요.

복귀해야 돼요. 해산(解産)해야 된다 이거예요. 딱 그와 같은 조직이예요. 그 기반 위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설대회를 연 것이 작년인가? 그러니까 맨 나중에 가정연합이 나온 거예요. 원래는 작년 7월 31일 전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하루 늦춰서 8월 1일까지 다 끝냈어요. 음력으로서는 7월 안에 했다고요.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틀이 잡혔어요. 가정이 정착할 수 있는 세계적인 가정연합이 되었다고요. 세계적인 여성연합으로부터 조직이 필요해요. 세계적인 청년연합, 세계적인 학생연합을 만든 거예요. 이 학생연합 가운데는 종적인 면에서 가인 아벨이예요. 중고등학교 학생 교육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못 하면 가인이 또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고등학교에서 순결운동을 하라고 지시한 거예요. *인사조치 하라구! 「예.」 그거 할 수 있도록 해. 「예. 알겠습니다.」 후임자를 누구로 추천해서 할 거야? 너같이 될 수 있는 후임으로 누구를 추천해? 지명해서 세워 보라구! 누구야? 「뉴욕의 와콤 지점장입니다. 그 사람을 추천합니다.」 참고해서 인사조치를 하라구. 너도 세계를 좀 돌아 보지 않으면 장래성이 없어진다고. 세계적인 와콤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 것을 경고해서 권고하는데, 뭐야?

세계를 평준화시키지 않으면 안 돼

선생님을 생각해 보라구요. 아침에 한 것을 저녁에 정리하지 않으면 안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반을 닦은 거라구요. 3중 작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의 싸움, 두 번째의 싸움, 세 번째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맡이예요. 한평생이 길지 않은 거라구요.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데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내에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면 세계적인 기반을 닦을 수 없습니

다.

어제 객선생의 보고를 들었지요? 꿈같은 얘기입니다. 세계를 평준화 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평준화. 종적인 일들을 많이 해 나왔는데, 지금부터 그것을 평준화하는 거예요. 높은 데를 깎아서 낮은 데를 메우지 않으면 평지가 될 수 없다구요. 아담 가정을 중심삼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깊은 데도 없고, 산도 없지요? 무한하게 펼쳐진 광야입니다. 거기서 번식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연이 보호해서 번식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통일교회가 가는 데는 산도 없고 골짜기도 없다구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180개 국가들에 신문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대혁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신문사들과 같이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워싱턴 타임스>를 중심삼고 세계의 3분의 2까지 확대하는 거예요. <워싱턴 타임스>을 직접 영어로 받아 읽으면서 키보드를 두들겨 한국의 상황에 맞는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거라구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신문사의 사장이라든가 편집장이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탄적인 것에 보조를 맞추어요? <워싱턴 타임스>가 10년 동안에 체제를 완전히 바꾸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와콤도 그래요. 일본 와콤은 안 된다구요. 미국에서도 그냥 그대로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조직체계가 다른 거라구요, 일본과. 역사적인 배후를 묶어서 현실을 소화해 가는 거라구요. 게이트상과 같은 일방통행의 그런 생각은 안 된다구요. 고토! 「예.」 지금 몇 살이야? 「49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세계적으로 쪽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구.

그리고 본격적으로 인사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지금부터 그런 이름을 만드는 거라구요.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상대할 때는

지났어요. 기독교가 안 도와주더라도 세계가 앞서서 기독교보다 먼저 선생님을 도와줄 수 있는 때가 되었다구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해와 국가의 체제도 바꾼다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 되는 거라구요. 대만을 해와 국가로 하면 어때요? 대만만큼 불쌍한 데가 없어요. 독립하는 것, 유엔에 가입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완전히 기대고 있는 거라구요. 캐나다도 그래요, 캐나다도. 지금 세계적인 3대 비행기 회사 가운데 한 회사가 통일산업과 조인트 벤처를 계획하고 있대구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일본 가정의 남편들이 가져야 할 마음자세

선생님은 놓고 있지 않아요. 일본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일본 이상의 기반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구요. 일본에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리를 건너갈 때 필요한 것이 해와 국가라구요. 다리를 다 건너고 나면, 일본 전권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들어 봐요! 아, 손 들어! 그 자각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인 어머니의 나라가 돼요? 여자의 여자라구요. 여자 중의 여자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여자를 낳을 수 있대구요. 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머니로서의 자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왕 이상의 자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해와 국가의 사명이라구요. 그런 자각심을 가지라구요.

어제 선생님의 말씀이 그랬지요? 축복가정은 모든 것의 대표라고 했지요? 만민을 자기의 아들딸로 양육한다고 생각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태평양이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깊은 데를 다 메워야 되는 거라구요. 하나님의 심정은 바다로 흘러가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사랑의 세계는 바다와 같지요? 깊은 데를 메우

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데가 어디냐? 해와 국가가 서는 자리가 제일 깊은 곳이 될 수 있는 전통을 남기고 싶은 것이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렇다고 남자들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구요. 자기의 아들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의 아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는 대로 모두 다 바쳤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만년 부리더라도 고맙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 일본 가정의 남편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입니다. 그거 섭리라고요, 섭리.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여자한테 손을 대는 사람은 천벌에 걸려요. 알겠어요?

일본 남자들은 모두 다 자기 아내를 아무렇게나 취급하지요? 선생님은 잘 봤다구요. 남편이 돌아오는데, 뭐예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문을 열고 ‘오카에리나사이(お歸えりさい)’ 하면, 남자는 천황 이상의 권위를 가지고 ‘이제 왔다.’고 하면서 이런다구요. 그러면서 나쁜 짓을 하고 돌아오더라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당당한 권한을 휘둘러 온 것이 일본 남자들입니다. 그런 것을 거꾸로 돌리지 않으면 본연적인 남자의 권한을 복귀할 수 없어요. 탕감복귀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구요. 알겠어요, 남자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남자들과 의논하지 않더라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되겠다구요. 일본 남자들은 습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위신을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남자들? 본연의 남자라고 하는 자각을 가지고 있는 일본 멤버는 손 들어 봐요! 본연의 남자! (웃음) 왜 웃어요? 웃는다는 것은 심각하지 않다는 거라구요.

눈동자에 힘을 주고, 입을 굳게 다물고 똑바로 이렇게 들어 보라구요.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 보라고 하는데, 왜 안 들어요? 한 번 더 들어 봐요! 왜 내리라고 안 했는데 내려요? 한 시간 정도 들고 있으라구요. 그것을 싫다고 하는 사람은 해와 국가의 남편

이 될 수 없다구요. 그러니까 한 시간 정도 들고 있으면 기분이 좋겠지요? (웃음) 아, 수련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들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구요.

제38회 참부모의 날에 수택리 대강당에 참석해서 손을 한 시간 정도 들게 되어서 기분이 나쁘든가 화가 난다면, 그 화를 못 참고 죽어도 괜찮다구요. (웃음) 바보는? 「죽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는다!」 (웃음) 여자들이 옆에서 킁킁하고 있다구요. (웃음) 내리라구요. 자각하고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해와 국가의 사명

해와 국가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겁니다. 선생님이 알고 있는 기준까지 해와가 올라오지 않으면 안 돼요. 선생님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참사랑과 참사랑의 후손들 뿐이라구요. 그것이 선생님의 재산이에요. 해와를 통해서 절대사랑에 연결되는 아들딸의 씨, 이것을 번식시키고 있습니다.

성주식을 해와가 하지요? 해와가 해요, 선생님이 해요? 선생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구요. 해와, 여자가 하는 거예요. 여자가 복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선생님이예요. 선생님은 조건적인 다리를 건네 주는 거라구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주식, 그리고 뭐예요? 축복결혼식, 그리고 3일행사입니다.

그거(3일행사) 뭐예요? 해와는 세 남자를 죽였다고요. 아담과 예수님을 죽였고, 그리고 선생님 생애의 절반이 추방당해 버린 것입니다. 기독교가 신부 종교지요? 그것을 대신해서 세운 것이 해와 국가라구요. 기독교가 이어 온 순교의 노정을 혈통적으로 연결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해와의 사명입니다. 순교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이 소유

권이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제물이 된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라구요. 그렇게 되면 그 일족이 하나님편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으면서 복귀해 가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3일행사는 무엇이나? 자기의 남편을 낳아 주는 거라구요. 세 번을 낳아 주지 않으면 안 돼요. 두 번을 죽였지요? 그리고 세 번째의 절반은 선생님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형님 아담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동생 아담의 자리에 세워서 복귀해 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자기의 남편이 본남편이고 선생님은 정부(情夫)와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아버지를 중심삼고 두 줄로 들어갈 수 없다구요. 한 줄이에요. 그러니까 본남편과 정부인데, 본남편은 사탄의 혈통이 연결되어 있다구요. 거꾸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가 되는 거라구요. 정부가 본남편이 되고 본남편이 정부가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세계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가정이 뒤집어집니다.

끝날에 해와는 두 남편을 대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래 남편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해와는 옆으로 돌아가는 거라구요. 그러니까 두 남자를 연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해와는 그렇지요? 천사장과 아담이지요? 두 남자예요. 영적인 본남편이 육적인 정부와 같이 되어서 뒤집어지지 않으면 통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오른쪽, 본남편은 왼쪽으로 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공식이라구요.

그래서 50퍼센트 이상이 이혼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구요. 대개 50퍼센트, 미국은 50퍼센트를 넘는다고요. 일본은 몇 퍼센트예요? 「25퍼센트입니다.」 25퍼센트? 통계로 나오는 숫자로는 25퍼센트지만, 실제로는 온갖 것들이 다 있다구요. 출장을 다니면서 온갖 짓들을 다 하는 남자들이 있다구요. 남자는 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도 동네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소문을 내지 않고 그냥 살면서 앞날의 희망이 없는 가정들이 되는 거라구요. 그것이 전부 다 탕감

복귀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일본 문화와 한국 문화는 완전히 달라요. 구다라나이(くだらない; 가치 없다)는 구다라나이(百濟にない; 백제에 없다)가 되는데, 그런 가치 없는 안 좋은 것이 일본의 역사에 들어와 있는 거라구요. 그러니까 일본 민족은 대륙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일본 여자들은 대륙의 남자들과 전부 다 교차결혼을 하는 거예요. 반도와 섬이 교차결혼을 하고 있는 거라구요. 이렇게 교차결혼을 해서 낳는 아들딸들은 나중에 대륙에 있는 사람들과 교차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아 대륙이 하나가 돼요. 그 이외에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은 없대구요. 그렇게 가정을 중심삼고 세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복귀의 원칙은 재창조노정

그러니까 복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노정을 따라서 재창조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만든 것이 고장나면 다시 블루프린트(청사진)대로 공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탕감복귀 노정은 뭐라구요? 재창조노정입니다. 공식이에요, 공식. 블루프린트대로 재창조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나 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무엇을 만들었느냐 하면 환경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무엇을 만들었다구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환경!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나? 환경에는 반드시 주체와 대상이 있어요. 그것은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광물세계에도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중심삼고 있느냐? 사랑을 중심삼고 도는 거예요. 사랑을 중심삼고 도는 거라구요. 그래서 균형을 취하는 거예요, 균형. 사랑은 균형을 취하게 되어 있어요.

식물도 수술과 암술이 있어서 균형을 취하고 있다구요. 동물은 수컷과 암컷이고, 인간은 뭐예요? 균형을 취하고 있다구요, 인간의 가정은. 남녀 평등을 주장하지만,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사탄적인 기준을 가지고는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참사랑을 중심삼고 균형을 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운동을 하는 데도 구심력과 원심력이 있는데, 그 구심력이 움직이면 안 돼요. 이것은 원심력과 균형을 취하지 않으면 덜컥덜컥 소리가 난다든가 하게 되어 있어요. 우주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양심은 이동하지 않아요. 절대사랑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되어 있는 그것은 기둥이지요, 기둥. 이것은 영원히 정착해서 이동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가정들이 전부 다 돌아옵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중심삼고... 남자와 여자가 횡적으로 하나되면, 이 수직이 종적으로 쪽 내려와요. 이것은 중력에 의해서 더 내려오는 거라구요. 이렇게 내려오는 반동의 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에 의해서 운동이 시작되는 거라구요. 그것은 이론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왜 몰라요? 무슨 사고가 생긴 거라구요.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모른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오늘은 내가 한국 놈들을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아요. 문제는 해와 국가예요. 알겠어요? 그거 알아요? 「예.」 아담 국가는 구경만 하면 돼요. (웃음)

제주도 남편처럼 생각하면 돼요. 제주도 남편이 눈뜨고 꺼뻑꺼뻑 하고 있으면서 여편네가 벌어다 주는 거 먹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딱 그와 마찬가지로. 제주도에 갈 때 제주도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구요. '일본이 저렇게 남자를 벌어 먹어야 되는데.' 하고 생각한다고요. 한국 사람들이 벌어먹지 못하게 됐어요. 광정환! 「예.」 남자 괴수

가 되어 가지고 별지를 못해 가지고 일본 신세를 지고 지금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딱 그래요. 딱 제주도과 마찬가지로 거예요. 내가 제주도를 그래서 자주 가는 거라구요. (웃음) 그렇게 알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훈련을 잘 해서 보내야 돼요. 통역으로만 들으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몰라요. 80퍼센트, 70퍼센트는 알아도 30퍼센트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니만큼 30퍼센트를 감점하게 된다면 백점 되기는 영원히 불가능해요.

그러나 일본말로 하게 된다면 70퍼센트가 90퍼센트, 98퍼센트까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루하더라도 한나절쯤 기다려 줘도 된다 그말이에요. 섭섭한 녀석들, 손 들어 봐라, 이 녀석들아! 섭섭한 녀석, 손 들어 봐요, 이 한국놈들! 「없습니다.」 없구만. (웃으심) 그래, 공상하지 말고 가만히 무슨 말을 하나 배우라구요. (웃음)

국제결혼을 한 부부들이 앞서게 돼

*지금 선생님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말이에요, 한국 남자들은 제주도 남자들과 같다고 했어요. 제주도에서는 누가 벌어먹이느냐 하면, 여자들이 벌어먹어요. 해녀가 돈을 벌고, 남자는 짓이 없으니까 ‘엄마! 온다, 온다.’ 하면서 애를 채우느라고 자장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자한테 기대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은 제주도의 남자들과 같고, 일본 사람들은 제주도의 여자와 같습니다.

선생님이 한국 남자들의 대장이지요? 그거 전부 다 동생들이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여자들이 벌어먹이더라도 나쁠 것이 없구요. 그거 전부 다 축복해 주잖아요? 그거 만약에 반대해 가지고 쫓겨나서 아들딸을 낳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가 없어져 버리는 거라구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 감사, 사사사 돌아가면서... (웃음) 정말이라고요. 여자는 그러는 것이 행복입니다. 밤에도 행복, 낮에도 행복이지요? 그렇지요?

하루종일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말이에요, ‘이제 와요? 그렇게 예쁜 줄 몰랐소!’ 하면서 마중한다고 말이에요, 맛있는 것을 만들어서 준비해 놓는 거예요. ‘당신은 피곤할 테니까 좀 자요!’ 하면서 남편이 부엌에서 짹짹 중국요리라도 맛있게 만들어서 함께 먹고 더 이상 안 자도 된다고 하면 잔잔잔 사랑의 세계에 취하는 거예요. 그런 부부 이상으로 행복한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남자와 결혼시켜 준 것이 나쁘지 않다는 거라고요.

앞으로 봐 보라고요! 앞으로는 국제결혼을 한 부부들이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결혼한 부부들보다 앞서게 돼요. 국가를 초월해 있지요? 국가를 초월한 심정을 가지고 묶어진 사람들은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묶어진 사람들보다 귀하게 보이는 거라고요. 그래야 복귀된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시집 온 사람들은 말이에요, 선생님이 남미로 데리고 갈지 몰라요.

거기에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도 많이 사 놓았다구요, 선생님. 제주도 이상으로 넓은 땅을 사 놓았습니다. 일본 열도의 10배 정도를 사 가지고 일본 여자들을 전부 다 끌고 가면 남자들은 안 따라와도 좋다고요. 안 따라와도 좋지만, 따라와도 좋고 말이에요. 그렇게 여자들을 전부 다 끌고 가서 세계적인 기반을 닦아서 말이에요, 훌륭한 저택과 땅과 바다와 강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초밥을 좋아하는 일본 사람들은 침을 흘리면서 간장에 찍어서 목에 힘을 주고 넘기면서 ‘맛있다! 맛있다!’ 할 정도로 잘먹게 되면 살이 찌겠지요. 그러면 후손들도 훌륭해진다구요.

그렇게 기반을 닦아 놓고 일본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면 꾸물꾸물 슬슬 따라오게 될 것인데, 그 모양이 보기 좋을지도 모르지요. 꾸물꾸물

걷는 것을 보면 기분이 나쁘겠지요? 알겠어요? 「예.」 선생님이 일본 사람들을 스키아루노(좋아하다)가 좋아요, 나빠요? 「좋습니다.」 무슨 스키예요? 벽의 스키(隙;틈), 눈밭을 가는 스키(鍬;쟁기), 그리고 뭐예요? 여러 가지의 물건을 함께 담는 것을 좋아하는 스키(すき;좋아함)예요, 무슨 스키예요? 아, 스키가루하는 것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스키냐고 물어 보는 거라구요. 「아이(愛;사랑) 스키.」 아이도 마찬가지로예요. 아이 스키, 아이 스키. 아이스 케이크(アイスケーキ;얼음 양과자)를 좋아하지요? 아이스 케이크를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 봐요. (웃음)

한국말을 배워야

나이 든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배운 일본말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선생님의 혀가 훌륭해요, 한국말이 훌륭해요? 어느쪽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의...」 노노노! 선생님의 혀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한국말이 훌륭한 거라구요. 그 발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일본 축복가정들은 전부 다 한국말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말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남미 같은 데 가더라도 좋구요. 일본 여자와 한국 여자가 같은 축복가정으로서 똑같은 수준에서 갔는데, 일본 여자는 두 배 노력해도 한국 여자를 못 따라가요. 5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마음대로 말을 못해요. 한국 여자는 줄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좋아하던 것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모르니까 입을 못 여는 거라구요. 모르면 얼마나 답답해요! 점점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한국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는 것을 전부 다 알아 들어요. 안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수록 재미가 있는 거라구요. 재미가 있어서 밤낮으로 하니까 발전하는 것입니다. 한국말을 가지고서

는 45억 이상의 발음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발음할 수 있는 말이라구요.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말을 한국 사람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이가 들어도 혀가 훌륭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말이 그만큼 훌륭해서 아무런 불편을 못 느끼기 때문에 술술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말을 빨리 하는 데 있어서도 일등입니다. 앞으로 일본을 요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도 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훈련을 했다고요. 선생님은 어디든지 간다고요. 어디든지 가더라도 일본말을 하는 데 있어서 지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글도 잘 쓰기 때문에 말이예요, 어디든지 가면 종이를 내놓으면서 부탁한다고 하는 거예요. 체격도 좋아요. 미남은 아니더라도 미남 측에 들지요? (웃음) 아, 정말이라구요.

일본 여자들 가운데 선생님을 좋아한 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일본 아내를 얻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랬으면 좋았을지도 모르지요. (웃음) 선생님이 자고 있는 데를 기어들던 여자들이 얼마든지 있었다구요. 일본 여자들이 그런 면에서 보면 무섭다고요. 모두 다 와서 양양하게 웃는 얼굴로 남자들도 못 하는 그런 짓을 잘도 하더라고요. (웃음) 그런 것들을 설득시켜서 저절로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다고요.

그런 것을 여러분은 모르지요? 일본 여자들한테 선생님은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시간이 없지요? 졸던 여자도... (웃음) 이야, 저렇게 심각해질 줄은 몰랐다고요. 그래서 사람의 비밀을 캐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일본 여자들이 아니겠느냐, 하고 생각한다고요. 동네 같은 데서 비밀스러운 것을 소곤소곤해서 소문을 퍼뜨리는 여자들은 그런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주머니도 그래요? (웃음) 여자들은 모두 다 똑같다고요.

일본이 해와 국가로서의 사명을 남자들이 여자들을 도와주어서 하고

싫어요, 여자들이 남자들을 도와주어서 하고 싶어요? 어느쪽이 도와주어서 하고 싶어요? 어느쪽이 도움을 받고 싶어요? 확실한 대답을 해 보라고요. 「남자가 도와주겠습니다.» 왜 그래요? 「천사장이니까…」 텐슈(店主:가게 주인)? 「텐씨(天使)!」 남자의 기질은 있어 가지고 ‘장’을 붙여서 ‘천사장!’ 하는구만. 한 번 더 해 봐요! 「천사장!» (웃음) 그거 틀림없지요? 「예.»

혈통·소유권·심정권을 전환해야

몇 년 정도 그럴 거예요? 조건을 달 수 있는 천사장이 아니라구요. (웃음) 무조건입니다. 「예.» ‘저 남자는 훌륭한 남자라서 자기의 아들 딸이 만난 그러더라도 고맙다고 생각하고, 그 아들딸도 자기가 만난 그러더라도 찬성하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켜 주세요. 그 아내한테도 남편을 대신해서 그렇게 해 준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게 되면, 선생님은 쪽 감정하는 거예요. ‘그거 정말이야? 둘째 아들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럴 수 있어?’ 할 때, ‘예.’ 하면 장자권 복귀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탕감복귀 노정이라고요. 아벨을 천하제일로 모심으로써 하나되면, ‘형님은 뭐가 필요해?’ 하면서 필요한 것을 사 주는 거예요. 시계가 필요하다 하면 시계도 사 준다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만 그렇게 하면 그러지 말라고 해도 고맙다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세 번, 다섯 번, 열두 번, 서른여섯 번까지 가면 다 돌아가 버린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머니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엄마, 알았어요?’ ‘뭘 알아?’ ‘나는 형님을 존경합니다. 지금은 형님이 내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야? 그럴 리 없어!’ 하면, 물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래?’ 하면, ‘몇십 년 전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 그래?’ 하면서 간단히 수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명령에 형제가 함께 복종하겠어?’ ‘예스, 예스, 예스!’ 하게 되면, 품고 뽀뽀를 해 주면서 ‘정말이지? 고맙다.’ 그러면 어머니가 저녁에 그때까지 먹어 본 적도 없는 맛있는 저녁상을 차려 주는 거라구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아버지는 어때? 아버지 이상 되는 남편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형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맛있는 저녁상을 차려 준 것과 마찬가지로 일생을 그렇게 모시더라도 고맙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 때, ‘정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면 어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정말이라고 하고 형도 정말이라고 하게 되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옛날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아, 그래?’ 그래서 셋 모두 다 남편의 뒤를 따라서 참부모를 찾아와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남자는 처음 보았습니다. 넘버 원 천사장입니다.’ 할 때, ‘아, 그래? 혈통전환을 알아?’ ‘예, 예! 괜찮습니다.’ ‘소유권 전환을 알아?’ ‘예, 예! 괜찮습니다.’ ‘심정권 전환을 알아?’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할 수 있어?’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축복하게 되면 뭐 하루만에 깨끗이 정리가 되어서 하늘편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참부모님을 영원한 희망의 목표로 삼고 살아 온 부부로서의 모델 케이스로 존경하면서 그 전통을 상속해 나가는 데 틀림이 있어요, 없어요? 어느쪽이에요? 「없습니다.」 듣고 있구만! (웃음) 안 듣고 있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것은 상대권이라구요. 오빠가 주체, 누이동생이 객체로서 하나되어 가지고 아벨이 되어서 또 다른 주체인 어머니와 하나되어서 객체가 되고, 그것이 아벨이 되면 가인의 입장에 있는 남편과 오케이가 되어서 3단계에서 오케이가 되면 만사 무사통과의 결론이 되기 때문에 사탄세계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의 몇십 배 이상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천국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이 이상으로 타락 세계에서 바랄 수 있는 희망이 없더군요.

몸 마음이 하나되지 않으면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어

아담 해와가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소유권에 속했는데, 그것을 천사장이 빼앗아 갔더군요. 그 소유권을 하나님편으로 돌려 주는 거예요. 그거 공식이라구요. 축복가정의 모든 것을 하나님편으로 돌려 주는 거라구요.

시력이 얼마예요? 표준이 얼마냐구요? 「1.5입니다.」 1.2 아니예요? (웃음) 12수 페이스를 넘을 수 없습니다. 춘하추동 12개월입니다. 그러니까 12수가 표준입니다. 그것이 모델 케이스지요? 그것을 표준으로 해서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완전한 눈이라구요.

몸 마음이 하나되지 않으면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어요. 양심을 중심삼고 상대적인 육신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공식입니다. 가인 아벨의 노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단구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녹음이 잠시 중단됨)

여저께 말씀한 대로 우루과이에서 전부 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전부 다 아담 가정의 한을 풀어 줘야 돼요. 아담 가정의 한을 풀어 주는 게 뭐냐? 하나님은 무엇이 한이냐 하면 말이에요, 아담 해와는 만들었지만 손자 아들딸을 못 봤어요. 그게 타락의 한이에요.

국가적 메시아가 되기 전에 가정적 메시아가 되어야 된단구요. 가정적인 메시아는 아들딸을 자기와 같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자기를 중심삼고 축복을 해 가지고 아들 수에 해당하는 횡적 기반을 닦아야 된단구요. 그것이 새로운 씨로서 부식(扶植)돼야 된단구요.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노릇을 못 했단구요, 하나님이. 알겠어요? 「예.」

여러분은 아담 가정과 딱 마찬가지예요. 아들딸을 길러 가지고 할아

버지를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음으로써 그걸 탕감복귀해야 돼요. 국가적 메시아, 그런 전통이 없으니 전부 다 거꾸로 세워 가지고... 예수님이 국가적 메시아가 되어 가지고 가정적 메시아권을 복귀할 수 있는 사명을 못 했다 이거예요.

선생님은 그걸 다 완성했기 때문에 세계적 메시아 자리에서 국가적 메시아 기반을 다 승리적으로 닦았기 때문에 핍박이 없는 가운데 국가적 메시아 행차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종족적 메시아를 완성해 가지고 올라가는 길이라구요. 그 책임을 했으면 내가 이런 놀음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걸 못 했으니까 종족적 메시아의 책임을 선생님이 전부 다 탕감해 가지고, 종족적 메시아 책임을 못 한 것을 국가적 메시아 책임을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패했던 사람이 다시 이어받아서 살 수 있는 길을 남겼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제1차는 실패예요. 축복가정 전부 다 실패예요. 그걸 못 하게 되면 선생님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만아들 만딸 전부 다 맞고, 둘째 전부 다 걸려 버려요. 공식이에요. 자기들도 모르게 걸려 들어가요. 그 책임을 전부 다 여러분이 해야 돼요, 국가적 메시아들이.

국가적 메시아가 되면 왕권 복귀 시대를 맞아 법을 통해 가지고 그걸 전부 다 넘어갈 수 있는 헌법과 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만년 무사통과 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초등학교로부터 중고등학교, 전부 다 법에 의한 교육을 해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많은 예식의 종교가 필요 없어요. 가정 예식, 단일 예식, 평화의 단일 예식, 통일의 단일 예식, 가정의 단일 예식, 연합의 단일 예식이에요. 그게 가정이에요. 알겠어요? 가정 가운데는 어머니 아버지, 아들딸이 있다구요. 그걸 연장한 족장 된 분도 어머니 아버지, 아들딸이 있다구요. 그렇지요? 민족장 하더라도 전부 다 가정이 중심이라구요. 어저

께 얘기했지요? 가정을 중심삼고 전부 다 이루어져요. 가정이 핵이예요.

요건 전부 다 하늘나라에 가도 하나님을 중심삼아 가지고, 참부모를 중심삼아 가지고 가정적 핵은 마찬가지로 공식이라구요. 그러니 공식이 될 수 있는 입장에 서니 대표적 가정이다 이거예요. 대표적 가정이니 까 가는 길은 수평선이다 이거예요. 산이 없고 골짜기가 없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가정맹세의 제1은 환고향

아담 가정이 대표적 가정이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맹세’문을 갖고 있는 것을 놀랍게 생각해야 돼요. 환고향(還故鄉)이라니, 종교권 내에 환고향이 어디 있어요? 출가를 명령했다구요. 탈고향을 지시한 것이 종교권인데, 환고향 이걸 역사적인 고마운 복음이에요.

‘가정맹세’의 제1은 환고향입니다. 고향 땅의 환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본연의 뭐라구요? 그래서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입니다. 거기서 잃어버렸지요? 창조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안 해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요! 아담 가정이 해야 돼요, 가정이 못 했으니.

그 기반을 내가 다 닦아 줬어요. 반대 안 받으면 지금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디 가든지 패권을 쥘 수 있는 능력은 자동적이예요. 어디 가서 입을 열어 말하라고요. 동네방네 자는 사람들을 깨워 가지고, 라디오 방송으로 새벽에 깨워 가지고 아침에 모이라고 그러는데 안 모이면 흥두께로 찜질을 해서라도, 강제로라도 끌어 모아 가지고 30분, 한 시간, 두 시간 해대는 거예요. 나쁜 말이거든 반대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고맙게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절대 권한을 가지고 일방통행으로 냅다 밀더라도 부작용이 없

을 수 있는 환경 여건이 짜여져 들어왔는데 이것을 눈으로 직시하면서 행동하지 못하면 바보 천치지요. 그 따위 것들은 거지 새끼들한테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종새끼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번이 뭐예요?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대표적 가정은 꼭대기예요, 꼭대기. 대표예요. 대표가 되고 내려와서는 중심이라구요. 아담이 그거예요. 세계적 대표적 가정이에요. 장자의 표본이요, 부모의 표본이요, 왕의 표본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그 다음에 ‘중심적 가정이 되어…’ 이것은 모범이 되는 거예요. 이 수평선을 그리는 데 있어서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가 전부 다 수평선이예요. 요걸 중심삼고 돌더라도 여기에 부작용이 없는 수평 판도를 거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 가정에서는 뭐라구요? 효자, 나라에서는 뭐라구요? 「충신.」 세계에서는 뭐라구요? 「성인.」 천주에서는 뭐라구요? 「성자.」 그거예요. 효자의 도리예요. 부모와 하나 못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님과 하나 못 되면 안 돼요. 세계의 대왕마마, 하늘 천주의 대왕마마와 하나 못 되면 안 돼요.

그 하나되는 법이라는 것이 이미 가정에서 다 훈련돼 있다면 어려운 게 아니예요. 판도가 달라질 뿐이지. 전통적 가정 이상이 다른 차원으로 확대되었을 뿐이지, 내용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참된 효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생 동안 부모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모셔야 되지요? 그 초점이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초점이 언제든지 머리 가운데 중심으로 남아져야 됩니다. 왔다갔다하지 않아요. 그것이 그냥 그대로 연결되어 충신의 길로 연결되고 세계를 향해서 성인의 길, 천주를 향해서 성자의 길이 되는 거예요.

참사랑을 절대 시봉하는 길을 통해 가지고 무사통과, 가정으로부터

국가세계하늘로 직행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역사시대의 무슨 사상관은 그런 내용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전부 다 지그재그 올라가고 그렇다구요. 이렇게 만년 불파(不破)의 사랑을 중심삼고 일체적인 가정 형태 확대 이상을 따라 가지고... 가정의 모델 형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대표적 가정이고 중심적 가정이라구요. 알겠어요? 「예.」

대표적 가정이 되고 중심적 가정이 된다는 말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가정에서는 효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효자로서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효자로서 모셔야 돼요. 알겠어요? 나라에서도 하나님 대신 나라님을 모셔야 돼요. 하나님 대신 부모를 모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라님을 모셔야 되고, 세계에서도 나라님을 하나님 대신 모시고, 상징적이요 대상적인 입장에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실체로 모실 수 있는 본향 땅의 본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해방이에요. 내 한편으로 할 수 있다구요. 평면적인 하나님 같은 기준에 지금까지 무엇이든지 내 활동무대에 있어서 전부 다 일원화, 대등한 자리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상속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나라의 상속을 못 받아요. 알겠어요? 예수님이 뜻을 완성하게 될 때 하늘땅의 모든 전권, 전체를 상속해 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사랑을 중심삼고 연결된 우주사적인 통일적 가정 확대형이 어느 때를 막론하고 이루어진 자리에서 상속권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구요. 알겠어요?

필연적으로 가야 할 효자충신성인성자의 도리

가정은 충신을 따라가야 돼요. 충신을 넘어서 성인을 따라가야 되고, 성인을 넘어서 성자를 따라가야 돼요. 왜? 하늘땅의 본연의, 하늘땅의 제일 주체 되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부모님의 모든 것을 거기서 상속 받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대등한 자리에서 상속받는

거라구요. 알겠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가정에서 편안히 사는 사람들은 멍청이에요, 멍청이. 가정천국 울타리 안에서밖에 머무르지를 못해요.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요? 그래서 대표적 가정이 되고 중심적 가정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효자·충신·성인·성자의 도리는 내가 갈 길이다 이거예요. 천성적으로, 내가 필연적으로 가야 할 길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나라를 섬기지 말라고 해도 나라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안 그래요? 세계 왕을 섬기지 말라고 해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종족적 메시아권에 있다면 세계의 왕은 오시는 재림주예요. (판서하시며) 지상천국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중심삼고 하나님과 일체 되어 가지고 여기서 천상세계로 이동해 가지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백성.

사랑의 계열적인 인연으로 묶어진 그 터전 위에서 천국 백성이 벌어지지 그것이 없어 가지고는 안 돼요.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상속받아 가지고 자율적인 해방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계에 가 가지고 무한공간 세계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 대신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부락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문인성? 무슨 성이던가? 「문인성입니다.」 문인성이라는 이 작자도 말이야, 저나라에 가게 되면, 상속받게 된다면 문인성 마을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의 심정권을 얼마만큼 상속받았느냐 하는 그 비례에 따라 가지고 자기 소유권 판도가 좌우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예.」 똑똑히 알라구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효자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엔 나라에서는? 「충신.」 충신이라는 것은 나면서부터 그 도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밤이나 낮이나 초점을 맞추고 나가야 돼요. 선생님은 일생 동안 뜻이

라는 초점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자나깨나. 자리에서 일어나면 계속 해요. 천년 만년 계속하는 거라구요.

이 땅에서 못 하고 끝을 맺지 못한 것이 있으면 저나라에 가서도 그 걸 이를 때까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변하나 이 거예요. 이러한 도리를 갖고 살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산 사람들이 악한 나라의 백성이 아니예요. 하늘나라 백성이예요. 안 그래요?

그러면 자기 부모 연령과 같은 사람을 보게 된다면 자기 부모와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형제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넘어서, 자기 가정에서 훈련된 것보다도 더 큰 판도를 이루기 위해서... 개인은 가정을 위해서, 가정은 종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투입해야 된다는 이 논리를 중심삼고 볼 때, 자기 나라에서 이국 땅에 갈 때는 그 이국 땅이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위할 수 있는 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하게 되면 그 나라에 아무리 살더라도 그 나라의 법이 환영하지 배척 안 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같은 연령의 사람들을 어머니 아버지로, 다른 나라에 가더라도 부모를 섬기던 이상으로 섬기면 누가 싫다고 하겠어요? 세계 어디든지 통하는 거라구요. 나라님을 모시는 그곳에서도 그 나라의 나라님을 자기 나라보다도 더 높이면 누가 반대해요? 알싸, 모를싸? 「알싸!」 똑바로 알라구요. 언제나 구구하게 얘기 안 해요.

그래, 여러분이 가정맹세문을 가졌다는 것이 고마운 거예요. 타향에서 서글프게 나오던 종교권이 귀향하라고 하다니, 환향하라고 하다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다니! 잊을 수 없는 말이에요.

보라구요. 종족적 메시아로서 돌아가라니까 얼마나 좋아했어, 이 쌍 것들! 마지못해 3년도 못 가 가지고 전부 다 꼬리를 감춰 가지고 집어 던져 버리고... 그러나 선생님은 선생님의 갈 길을 다 갔어요. 세계의 고개를 다 넘었어요.

선생님이 승리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종족적 메시아의 책임을 못 해

도 국가적 메시아의 책임을 해서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청산하라고 내세운 거예요. 거기서 효자가 되어야 되고, 충신이 되어야 됩니다. 효자가 못 되었어요. 알겠어요? 충신이 못 되어 있어요. 성인이 못 되어 있어요. 세계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이래야 부모님을 따라 성자의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전에 나타날 수 있는 거라구요. 알짜? 「예.」 똑똑히 알아야 되겠다구요. 그게 공식적이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선생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 자녀들이 교육받을 수 있게끔 다 보여 주려는 거예요. ‘이분은 이리이러한 역사적인 수난의 길을 거쳐왔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모심으로 말미암아 선생님의 계대를 계승한 모든 축복이 우리 가정에 온다.’ 하는 것입니다. 수원지의 파이프 큰 것, 작은 것에 따라 가지고 물 수량이 배급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족권

그 다음 셋째가 뭐예요?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세계예요.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4대 심정권이요? 아거나 형제나 장발이 되어 나중에 결혼하는 이 모든 전부가 부모의 자리를 찾아나가는 것이요, 부부의 자리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몸이 되기 위한 자리를 찾아 나가는 길이라구요. 그게 왜 없어요? 4대 심정권이 하나님의 공상이 아니예요. 내가 갈 길이에요.

그 다음에 3대 왕권이 뭐예요?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왕이고, 어머니 아버지는? 지상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미래의 왕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의 왕인 할아버지의 훈시와 어머니 아버지의 훈시에 절대복종해야 돼요. 효자의 길보다도 충신의 도리의 길을 가려니까

절대복종해야 돼요.

그러면 3대 왕권이 뭐냐 이거예요. 아담 아들딸인 손자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요. 아담은 아버지의 사랑밖에 못 받았어요. 할아버지의 사랑은 못 받았어요. 아담의 아들은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3대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비로소 횡적으로 확대돼요. 3단계를 거쳐 나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의 모델이에요. 그것이 사위기대예요. 3대를 연결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손자는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지상에서 하늘나라를 접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왕손의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알겠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왕권 시대, 그 다음에 아버지 왕권 시대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왕권 시대요 지상 왕권 시대를 합한 통일적인 이상이 3대 왕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할아버지는 1대고, 아버지도 2대밖에 안 돼요. 3대가 안 돼요. 손자가 있어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과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참 묘하다구요. 선생님도 아들딸을 낳아서 기르고 다 이랬지만 말이에요, 손자가 친구예요. 친구가 되더라구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외로워지고 말이에요, 환경이 변화되어 이렇게 돼 가지고 쪼그라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손자하고 결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할아버지도 완성하고, 아버지도 완성하고, 이래 가지고 하나의 씨가 돼요, 씨가. 그렇기 때문에 꼭대기가 여기까지 연결하면 이거 다 연결되어야 된다고요. 두 가지가 연결되어야 이것이 하나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가정의 아들딸 중심삼아 가지고, 그 하나의 모델형을 중심삼고 횡적으로, 직계인 왕손을 중심삼고 연결돼 가지고 가정이 횡적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3대 심정권을 체휨한 씨가 되지 않고는 확대가 불가능해요.

황족권이 뭐예요? 지금 가정밖에 없는데 황족권은 뭐예요? 그건 가인입니다. 가인을 구해 줘야 돼요. 세계의 왕권을, 잘못된 그것을 왕자의 도리를 대신해서 가르쳐 줘 가지고 끌고 들어가야 돼요. 가인 아벨을 구해서 동생 삼아 가지고 왕가의 모든 전통을 내가 가르쳐 줘서 동생 자격으로 끌고 들어가야 땅 위의 후손들도 왕손으로서 저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황족권이 연결되지, 지상에 있는 이 모든 가인세계가 형제의 인연을 묶을 수 없게 되면 황족권이 지상에 남아지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 가인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가정이 황족권으로 되는 게 아니예요. 그 가정하고 자기 가정이 형제가 되어 가지고 하나되어 세상의 왕권을 전부 다 인계해 가지고 동생의 자리에 세워 가지고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수습되면 가인 아벨이 거꾸로 하나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두고 말하는 거예요.

황족권이라는 것이 자기 집안이 되는 것이 아니예요. 반드시 가인 아벨이 하나되어야 돼요. 그 가인 아벨에 가인적인 부모가 있고, 가인적인 할아버지가 있지요? 그들을 교육해야 돼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 전부 다 가인권 아들을 중심삼고 그 일족 할아버지 3대가 자연굴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황족권으로 가면 그들도 동생의 자리에 데리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어야

4번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이상인…」 ‘하나님의 창조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큰 가정이에요. 타락하지 않은 황족권으로 해 가지고 천주의 대가족을 형성하는 거 아니예요? 그걸 못 이루었어요. 황족들이 연결된 평화의 기준을 통해서 천주의 대형제지 우애를

가진 일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는 거라구요.

그 다음에는 대가족을 형성했으니 하나님도 자유와 평화와...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딸이 어디 막힘이 없어요. 자유와 평화... 막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 통일이 막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는 거 아니예요?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보니까 천상세계가 남아 있어요, 타락한 조상들. 알겠어요? 심정적 유대가 안 되어 있어요.

다섯 번이 뭐냐 하면,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하는 거예요. 통일을 향해 하나되어서 나가는데 또 전진적은 뭐냐 이거예요. 통일해 가지고 가만히 노는 게 아니예요. 전진해야 돼요. 세계가, 영계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통일해 가지고 정착할 수 없어요.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해라 이거예요.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는 거예요. 그게 5번이지요?

그 다음에 6번이 뭐예요?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모든 상속을,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주변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주변이 누구예요? 가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라구요. 자기 혼자 천국 가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곡괭이를 들고 '이놈의 자식아! 너만 천국 올라가려고 그래? 뜻이 그랬어? 내가 통일교회가 싫다고 하면 매를 때리면서라도 죽을 때까지 충고해야 할 텐데 왜 안 했어?' 이런 일이 언젠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7번은 뭐예요?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본연의 혈통에 연결 안 되어 있다구요. 심정문화세계를 창건해야 된다고요. 심정문화세계가 안 되지 않았어요, 사탄세계 때문에? 그 관계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려면 다 끝나는 거예요.

심정문화세계가 뭐예요? 절대사랑, 절대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을 모시고 가정에 안착시키게 되면 평준화된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반대가 없고, 왔다갔다할 수 있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상세계에서 천상세계로 통할 수 있는 자유 개방시대가 오는 거예요. 영계를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일의 세계가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복귀섭리의 핵을 짜 가지고 만든 것이 이 맹세문이에요. 우리가 맹세문을 가졌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선생님이 강연한 내용, 맹세문을 만들고 하는 모든 것은 친구약 주류 종교의 사상인데, 제1대조 아담, 제2 아담 예수, 제3 아담을 이렇게 완성한다는 요것만 딱 골자가 되어 있으면 종교가 필요 없어요. 유교도 그 길을 찾아가야 돼요. 불교도 그 길을 찾아가야 돼요. 무슨 경(經), 무슨 경 전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요사스러운 것, 소모스러운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전부 다 불살라 버릴지 몰라요.

갈라진 4대 심정권을 복귀해야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이 필요 없어요.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도 필요 없어요. 가정을 정착할 수 있으면 세계와 통할 수 있는 대표적 가정이 되어 있는데, 에덴에서 바라던 하나님의 창조이상의 결실이 나타나야 돼요. 아들딸을 중심삼고 횡적으로 확대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소원하던 종족이 되고 자동적으로 민족이 되지요? 국가도 자동적으로 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가 필요 없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탄세계의 혈족이 필요 없고, 단일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 이래서 다 끝나는 거예요. 가정은 혼자가 아닙니다. 알겠어요?

「예.」

그러면 아담 가정의 모든 것을 해소해야 돼요. 그걸 예수님이 해야 할 것인데 못 했다고요.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 몇 가정이라고요? 120 가정이에요, 120가정. 선생님 시대에는 몇 가정? 160가정이 원칙이에요. 180가정인데, 160가정과 내용적으로 가치적으로 대등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탕감하는 것을 싫어하니까 160가정이 떨어진 것입니다. 본래는 180가정이에요.

우리 통일교회 축복가정이 180가정 있어요, 160가정 있어요? 180이 1800가정이라고요. 알겠어요? 세계적이에요. 1천6백이 아니에요. 1800가정이에요. 그 다음엔 무슨 가정이 있어요? 6000가정이에요, 6000가정. 이걸 사탄 6수를 세계화한 거예요. 그거 더블(double; 두 배)해 가지고 6500가정까지 있잖아요?

그거 알아요? 모두 몇 번이에요? (판서하시면서) 3가정에서부터 그 다음엔 36가정, 그 다음엔 72가정, 124가정, 430가정, 777가정, 그 다음엔 1800가정, 그 다음엔 6000가정, 6500가정, 3만 가정, 36만 가정, 360만 가정입니다. 열두 고개를 넘어갔어요. 9수를 넘어서 10수로 넘어가는 거예요. 세계시대예요. (판서하시며) 제일 꺾박이 많은 때가 9수를 넘어갈 때까지입니다. 6000가정이 제일 고생한 거라고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바람에 선생님이 고생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남자들은 ‘내 여자 도적질해 가는 여자 도적놈!’ 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때려잡으려고 했다고요. 그 다음엔 ‘아들딸 도적놈!’ 해 가지고… 그래, 원리가 맞기는 맞지요. 성경에 도적같이 온다고 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에덴에서 도적질해 간 것을 찾아와야 돼요. 탕감원칙에 의해서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여자라는 여자는 선생님이 다 좋아한다.’ 하는 바람이 불었어요.

길자! 기도하는 거야, 자는 거야? (웃음) 「머리가 아파서…」 머리가 아파서? 「피곤해서…」 피곤하니까 눈감고 졸지. 물어 보는데 피곤하다

고 얘기할 게 뭐 있어? 내가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 여자라는 동물은 선생님을 다 좋아하는데 사길자도 좋아해? 이 시간에는 안 좋아하잖아? (웃음) 그래서 물어 보는 거야, 이 쌍거야! 지금 당장에 물어 보는데 그때는 즐고 있지 않았어?

좋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타락한 해외가 4대 심정권을 유린했어요. 탕감복귀에 있어서 1대에 한 남자를 중심삼고 4대 심정권을 걸고 뒤넘이를 쳐야 돼요. 소년시대의 심정, 청년시대의 심정, 부부시대의 심정, 부모시대의 심정, 4대 심정권이 본래의 원칙이에요. 그것을 바로잡고 나서 아들딸이니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지,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그거 다 무효예요.

여자라는 여자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 시대인 지금 때는 시대가 다릅니다. 부모시대가 아니예요. 자녀시대로 들어왔습니다. 횡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종적인 기준을 중심삼고... 아담 해외를 중심삼고 볼 때 아담이 누구라구요? 하나님 몸인 동시에 뭐라구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알겠어요? 해외도 하나님의 딸인 동시에, 실체를 쓴 종적인 부인인 동시에 횡적인 하나님의 부인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다가요.

그렇기 때문에 복귀시대에 있어서 선생님에 대해서 말이에요, 아버지인데 남편같이 모셔요. 남편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그래요. 복귀입니다. 갈라진 4대 심정권을 복귀해야 되겠기 때문에 어린애를 비롯해서 모든 전부가 선생님을 만나면 괜히 좋아하는 거예요. 무릎에 가앉아 가지고 아기와 같이 하고 싶고, 오빠가 가는 데 따라가고 싶고, 무얼 사달라고 하고 싶고 그런 거라구요.

그 단계를 넘으면 약혼 단계예요. 에덴동산에서 데리고 다니면서 꽃밭에서 꽃반지를 만들어 주고 목걸이도 해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에덴동산에서 16세 무렵에는 별거벗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은 둘이 멋도 모르고 별거벗고 자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구

요. 그렇다고 해서 그 놀음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동생이에요. 동생인데 어머니를 모신 뒤에는 전부 다 어머니의 분신과 같이 동생으로 잘 키워야 되고, 그 동생을 잘 길러서 아내를 만들어 줘야 되고 훌륭한 어머니를 만들어야 줘야 한다구요. 그걸 가르쳐 줘야 된다구요. 그래 가지고 결혼들 했지요? 어머니 되라고 결혼시켜 줘어요, 안 시켜 줘어요? 시켜 줘어요, 안 시켜 줘어요? 훌륭한 부부가 되어 가지고 훌륭한 아들딸을 낳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어야 된다구요. 그래 가지고 천국에 직행할 수 있는 아들딸을 강보에 싸 가지고 길렀느냐고 할 때 길렀다고 해야 된다구요.

재봉춘하기 위해서는 아기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문난영, 어때? 그런 원리 기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심정을 해와가 한 순간에 타락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 한 분을 중심삼고 회봉춘(回逢春)해야 됩니다. (환서하시며) 다시 봄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재봉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봉춘이나 재봉춘이나 마찬가지로. 재봉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왕이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들이 있지만 다 안 보여요. 다 없다구요. 선생님 하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소녀의 심정을 가지고 커 가지고 사춘기의 심정을 거치는 그 과정을 재현해 가지고 그 자리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중심삼고. 그런 봄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통일교회에 들어온 여자 가운데 선생님을 싫다고 하는 여자는 여자가 아니예요. 병신이지요. (웃음) 아기를 못 낳든가... 여자 고자가 있지요? 여자 고자를 뭐라고 해요? 여자 고자를 의미하는 말은 없잖아요? 그런 여자는 여자 고자라는 거예요. 「석녀라고 합니다.」 석녀가 뭐야, 이 쌍거야! 물어 볼 때 즉시

말해야지.

이런 얘기는 뭐... 그 단계에 들어가면 여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말이에요, 젖이 붓고 음부가 부어요. 타락한 여자들은 그런 것을 모른다구요. 그러니 잠을 못 자고 먹을 거 잊어버리고 그래요. 일방통행이예요. 천하에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 가지고야 탕감조건을 세우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걸 유린하면 안 돼요. 다 잘 길러 줘야 돼요. 어머니를 찾는 기반을 닦은 후에는 전부 다 여동생으로 키워 가지고 훌륭한 아내로 삼아 주고 훌륭한 어머니로 삼아 줘야 돼요. 그게 복귀역사입니다. 손동식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 여자가 아니면 몰라요. 그건 설명이 필요 없어요. 벌써 재까닥 하는 것이 지남철과 마찬가지로.

선생님은 어려서부터 그런 무엇이 있었다구요. 학생시대에도 말이에요. 언제든지 더벅머리로 해 가지고, 30대까지는 머리를 이렇게 해 가지고 땀새나는 옷을 입고 다녔어요. 아침에 어느 골목을 지나가면 조상들이 가르쳐 줘 가지고 지키고 있는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당신 이런 사람 아니오?' 하는 거예요. 이름까지 가르쳐 주고 기다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여자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을 키워 주고 바르게 지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복귀의 길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겁니다. 역사노정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건 놀라운 사실이라고요. 여자라는 동물, 손 들어 봐요. 여자들 손 들어 봐요.

*여자라는 동물은 전부 다 손 들어 봐요! 일본 여자라는 동물은 전부 다 선생님을 안 좋아하게 되어 있다구요. 지금 손을 든 일본 여자들은 선생님을 좋아해요? 「예.」 얼마나 좋아해요? 「매우 좋아합니다!」 (웃음) 이러니까 일본 남자들은 천사장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문 선생님한테 전부 다 끌려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 보려고 하더라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요.

선생님이 무슨 마술을 부리는 것은 아니지요? 자석과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 자석들이 작용이 미치지 못했지만, 선생님을 만나게 되니까 몇십 배의 작용으로 쑥 끌리는 거라구요. 선생님이 학생시절에는 미남이었다구요. 그런데 전당포에서 졸업생들의 학생복을 사 입은 거예요. 땀 냄새가 1미터, 2미터, 3미터까지 풍기는 그런 옷을 사 입고 다녔어요. 여자들이 못 따라오도록 말이에요.

말도 안 했어요. 말을 할 만한 상대가 없었다구요. 친구들도 모두 다 상대가 될 수 없었어요. 가끔씩 선생님과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공언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는 그런 챔피언이 된다는가 하는 그런 경우는 많이 있었지만 말이에요, 말할 만한 상대가 없었다구요. 남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내용을 못 가지고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침묵이라구요.

그렇지만 저녁 때 가끔 변장을 하고 동네에 나가서 대강연을 하는 거예요. 군중들 앞에서 '인간은 이래야 된다.' 하면서 강연을 한다구요. 보통 때는 그렇게 불품없는 모양을 하고 다니지만 그럴 때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모자도 쓰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훌륭한 강연이라고 생각하고 듣는데 강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요. '아, 이상하다. 저거 문 씨 같은데. 정말이야, 아니야? 저렇게 몰라보게 변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상하다.' 하면서 듣는 거라구요. 그리고 아침에 학교에 오면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시절에는 신비한 남자였다구요. 그런 뭐가 있었습니다.

또 극장 같은 데 가면 여자들이 옆에 앉아서 자기도 모르게 선생님의 손을 잡는다고요. 그때는 20대의 미남자였어요. 정말이라구요. 선생님이 지금도 사진을 보면 '이야!' 하면서 키스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 여자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일본 여자든, 서양 여자든 선생님한테 반하게 되어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였다 이거예요.

가정맹세는 천주적인 대선언

서양에서도 그렇습니다. 서양 여자들이 선생님의 방문을 노크하는 것은 보통이에요. ‘선생님!’ 하고 부르면, ‘뭐야, 이거? 열두 시다.’ ‘용건이 있습니다.’ ‘무슨 용건이야, 이 녀석?’ 하고 문을 잠가 놓고 안 열어 주는 거라구요. 용건이라고 해 봐야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좋으니까 키스라도 해 주기를 바란다고요. 안 해 주면 자기가 키스해서 선생님의 볼때기를 물어뜯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주위에 1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웃음)

그것도 큰일이라고요! 매우 좋아하는 것보다 큰일이다 이거예요. 극장 같은 데서 선생님은 20대인데 30대 부인이 깔끔한 양장을 차려입고 옆에 앉아서 선생님의 손을 잡는 거라구요. ‘여보세요, 이거 뭐요?’ ‘뭐가 뭐예요?’ ‘이게 뭐요?’ ‘뭐가 이거예요?’ 그러면서 잡은 손을 밀어서 뿌리치면 ‘아, 나도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거 이상하지요? 그런 매력이 있었던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좋다고요. 어머니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웃음) 어느 누구든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 여자도 우주적인 어머니의 후보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10대부터 70대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대표한 여자들 가운데서 어머니를 택한 거라구요. 모든 여자들이 사망팔방에서 선생님을 유혹한 거예요. 선생님을 어떻게든 속여서 어떻게 해 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쉽게 안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여자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자가 넘어갔다고 해서 무슨 나쁜 짓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구, 이 녀석들! 눈알을 힐끔힐끔하면서 왜 그래? 일본 여자들한테 선생님은 당당하다고요. 나쁜 짓을 수없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일본 여자들을 말이에요, 범하지 않았습시다. 선생님은 그랬지만, 당연히 해와 국가로서

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요.

5년, 7년, 10년 전에 영계를 통해서 본 영인체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실제로 땅에서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라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구요. 자기도 모르게 끌려오는 거예요. 온갖 일들이 다 있었겠지요? 그렇게 보면, 일본 여자들이 통일교회의 문선생을 숭배하더라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예.」

일본 여자를 만났더라면 큰일났겠지요? 그 여자는 돈 많은 가정의 무남독녀였어요. 선생님이 학생시절에 1백 엔이면 1년 동안의 생활비였어요. 그것을 매주 선생님의 책상 서랍 속에 넣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두 달간만 모아 놓으면 엄청난 금액이 된다고요. 선생님이 없을 때 살그머니 들어와서 넣어 놓아요. 그러는 것을 하루는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거 네 돈이야? 부모의 허락을 받았어?’ 하면서 밤새도록 설득해 가지고 돌려보내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름을 대면 알지도 모르지요. 그 당시에 그랬던 사람이 통일교회의 문선생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본 여자들을 대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당당하게 구속해서 억압하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탕감조건을 제시하더라도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여자들을 무자비하게 때려 물려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 기분이 나쁘지요? 할머니, 이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느냐구요? 무자비하게 때려 문다고 했다고요. 그래도 좋아요, 할머니? (웃음)

본래대로 돌아가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토록 놀랍고 무서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정맹세의 내용은 천주적인 대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예.」 작년부터 부모님이 강연하는 강연문의 내용은 가정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철칙이라는 것입니다. 영계 해방의 축복식을 해야 할 때가 다가오는 거라고요.

360만쌍이 끝나면 영계 축복식을 하는 거예요. 상대가 영계에 갔으면 불러내서 묶어 줄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세계까지 해방되는 거라구요.

책임지지 않는 데는 완성이 없다

영계와 지상에 모두 다 꿈같은 얘기가 실현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 만큼 무섭고 귀한 것이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순순히 원리의 길, 뜻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참부모의 전통적인 생각입니다. 그거 상속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상속해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상속하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선생님은 그렇더라도, 여러분은 ‘상속해야 됩니다!’ 하면서 선생님을 반대하고 내달리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해방해 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가정맹세를 알았지요, 가정맹세? 1, 2, 3...; 모든 것이 원리 원칙이 라구요. 이거 전부 다 완전히 암기해야 돼요. 그것을 모르면 섭리의 방향을 모릅니다. 방향을 모르면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중간에서. 가정 맹세와 이번에 어머니가 강연하는 내용은 새로운 천주복귀의 대원칙으로서 책으로 출판해야 돼요. 타락한 이 세계에 있어서 장자권을 복귀 하여 가정정착을 이루어 거꾸로 돌아가는 거라구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발전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지금 자기의 상대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손 들어 봐요! 마음에 안 들면 아들딸을 낳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딸을 낳으면 곤란하다구요. 그러면 서로 갈라서게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이혼을 하겠다면 아들딸을 반으로 쪼개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구요.

참사랑을 이루었으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무책임한

데 완성이라는 말은 영원히 없습니다. 그렇지요?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완성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책임이 없는 사람은 완성이라는 것이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확실히 알고 부부생활을 이루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책임을 지지 않는 데는 완성이 없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데 있어서 비로소 완성이 있지, 책임을 안 지는 데는 완성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도 책임적 기반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한 그 모든 전체는 균일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 자기가 사랑하게 될 때는 오관을 집중해 가지고 사랑하지요? 눈 따로, 코 따로, 귀 따로, 입 따로 되어 가지고 손 따로 그래요? 자기를 생식기를 꼬아 박을 때는 몸 마음이 하나되어 가지고 오관이 집중해서 행동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따로따로 해요? 이 쌍것들아, 대답해 보라구! 「그렇습니다.」 해요, 안 해요? 그마만큼 심각한 거예요. 오관이 통일하고 있어요. 몸 마음이 통일하고 있어요. 전체의 모든 행동은 그 초점에 갖다가 결부시키는 거예요.

죽어도 뜻길 살아도 뜻길

그 다음에는 뭐예요? 꽃아 놓고는 뭘 하는 거예요? 오관이 거기를 봐요? 그 다음에는 자유예요. 태평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유권 전체가 결정나고 모든 게 결정났기 때문에 내 자유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전부 다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어. (웃음) 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한이 아니예요? 안 그래요?

홀아비가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봐요. 없잖아요? 과부가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봐요.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있다면 그 모가지를 찢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종자를 받으려고 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본연의 기준을 완전히 통일하여 천국화시켜 하나님

절대 사랑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겠다고 싫다면 죽어야지요. 그놈의 자식들, 그놈의 간나들은 씨앗을 안 받아야 돼요.

욕도 잘 하지요? 욕이예요, 멋진 말이에요? 「멋진 말입니다.」 아이구, 훌륭한 사람들이지. 욕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멋진 말로 생각하니 그 사람은 최고 나쁘거나 최고 좋은 사람인데, 최고 좋은 것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래 봐도 아멘, 저래 봐도 아멘, 상하전후좌우 다 아멘이라는 거예요. 해 봐요! 「아멘!」 일본 멤버, 다 아멘 하는데 왜 아멘 안 해요? (웃음)

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번 해 봐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그 중심이 뭐냐 하면 가정입니다, 가정. 알겠어요? 완전한 가정은 완전한 남자, 완전한 여자의 절대적인, 애플루트 섹스(absolute sex; 절대성)를 중심삼고 저래도 아멘! 「아멘!」 밤에도 아멘! 「아멘!」 낮에도 아멘! 「아멘!」 춘하추동 사시장철, 그 다음엔 만년 생애 전체를 바쳐도 아멘! 「아멘!」 그래, 불평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래도 불평하지 않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동네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반놈이(반병신)인데 말이에요, 3·1 독립운동 때 만세를 불렀어요. 일본 경찰이 잡으러 오니까 ‘죽어도 만세, 살아도 만세, 죽어도 만세!’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세운동의 괴수예요. 경찰 앞에 끌려가서도 ‘죽어도 만세, 살아도 만세!’ 하니 ‘에이 녀석아, 저리 가!’ 한 거예요. 찾다 보니 그 사람이 괴수였어요. 죽어도 만세, 살아도 만세니 만사 만세 해방이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때가 다 지나 가지고 잡아 놓아도 쓸데없으니까 놔주었는데,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해졌다구요.

그래서 ‘죽어도 만세!’ 해 봐요. 「죽어도 만세!」 살아도 만세! 「살아도 만세!」 해방 만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요. ‘죽어도 뜻길!’ 해 봐요. 죽어도 뜻길! 「죽어도 뜻길!」 살아도 뜻길! 「살아도 뜻길!」 하나님이 해방하신다 이거예요.

책임자가 되려면 반드시 신학교를 거쳐야 돼

국가적 메시아는 전부 다 33명을 알아요, 33명? 「예.」 33명을 알아
요, 몰라요? 「압니다.」 점심때 됐어요, 안 됐어요? 내가 공기 나쁜 데
서 이렇게 얘기를 오래 하니깐 목이 또 쉬어 오누만. 그래, 목이 쉬더
라도 부러먹고 싶어요, 해방시키고 싶어요? 해방시키면 선생님을 통해
서 들은 말씀을 어떻게 전해서 실천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 되는
데, 내가 말 안 해 줘도 다 실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
어요? 「예.」 그럼, 선생님 죽으라는 말이구만. (웃음) 그렇잖아요? 선
생님이 없어도 다 무사통과라면 선생님이 죽어도 좋다는 말 아니예요?
「말씀을 해 주시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이용해 먹자 그
말이구만.

그러면 말이에요, 식사하고 나서는 33인과 앞으로의 조직 편성에 대
한 걸 얘기할 거라구요. 다 가지 말라구요. 중요한 거라구요. 알겠어
요? 「예.」 식사시간으로 하자구요. 맛있는 반찬 했나? 맛있게 점심 먹
으라구요.

(점심식사 후 말씀) 아까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사람이 많아졌
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입니다.」 한국 목회자들은 앞으로 신학
교를 졸업해야 될 거라구요.

*일본 목회자들도 모두 다 신학교, 전문대학의 신학교를 졸업해야
돼요. 그리고 유 티 에스(UTS)까지 졸업해야 된다고요. 지금 나이 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2년간 수료해서 석사 학
위를 가지고 출발하지 않으면 지도자로서 중간 이상의 레벨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으면 중간 레벨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여기에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 손 들어 봐요. 많을 거라구요.

모든 기관장도 앞으로 신학교를 졸업해야 돼요, 기관장도 영육이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 기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대적 입장이 되려면 신학교를 졸업해야 돼요.

자기 특성에 따라 가지고 직업을 갖더라도, 통일교회 신자들은 전문적인 학과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2년간은 반드시 신학교를 거쳐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고는 앞으로 책임자로 선택 안 할 거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직장은 외적 교회와 마찬가지로요. 내적 교회나 외적 교회나 다 모든 가는 길이라든가 박자, 호흡이 맞아야 돼요.

숨쉬게 되면 내쉬고 들이쉬는 이게 상대적입니다. 안 그래요? 들이쉬는 건 짧고 내쉬는 건 길고요. 다 마찬가지로요. 상대적이예요. 내쉬고 들이쉬고 다 마찬가지로요. 그러니만큼 호흡을 맞추려니 영적인 모든 지식적 기반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호흡이 맞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직장에 있더라도 신앙적으로 해결한 기반 위에 서야지, 사업적인 기반 위에 서 가지고 신앙을 해서 안 돼요. 신앙적 기반 위에 서서 사업적인 면을 해결해야 된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원칙이라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거꾸로 하면 큰일 나요. 거꾸로 되면 전부 반대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상대적이예요. 가인 아벨과 마찬가지로요.

아까 창조공식이 뭐였어요? 환경 창조에는 주체 대상이 있다고요. 주체 대상에서 가인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아벨은 하나님과 같이 투입하고 잊어버려야 돼요. 많은 수난 길을 거쳐 교화해 가지고 하나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아벨과 주체가 하나되어 일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 만들어 일체가 되었으면 이것이 큰 아벨이 돼요. 큰 아벨이 되어 가지고 더 큰 것을 중심삼고 발전해요. 이것이 전부 다 반드시 환경에는 주체 대상이 있고, 주체 대상은 창조적인 과정이나 진화적인

과정이나 발전 원칙이 마찬가지로요. 조그마한 하나의 원소를 중심 삼고 상대적인 걸 결합시켜 커져 가지고 그걸 중심삼고 더 큰 것으로 흡수해서 커 가는 거예요. 진화도 그렇게 하고, 발전 과정도 마찬가지로요.

복귀의 공식·원리적 공식·재창조의 공식은 환경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는 반드시 플러스와 마이너스, 주체와 대상 관계가 있습니다. 주체와 대상 관계의 작은 것이 큰 것으로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하면 작은 것이 전부 다 흡수돼야 돼요. 투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은 가정을 위해 투입하고, 가정이 개인적 큰 것을 소화하려면 작은 것이 흡수되어 가지고 완전히 소화되어야 된다고요. 개인은 가정을, 가정은 종족을, 종족은 더 큰 것을 위해 투입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통과되는 거예요. 그것이 발전적 원칙이 되어 있어요. 나라는 세계를 위해 투입해야 된다고요. 재창조 원칙에 따라 가지고 투입하지 않고는 더 큰 것이 나올 수 없어요. 알겠지요?

복귀의 공식, 원리적 공식, 재창조의 공식이 환경입니다, 환경. 하나님은 창조할 때 해와 물과 공기와 땅을 창조했습니다. 이것이 생명이 존속할 수 있는 필요 요건이에요. 태양 빛도 없어서 안 되고, 공기도 없어서는 안 되고, 물도 없어서는 안 되고, 땅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생명이 존속할 수 있는 절대 요인이라는 거예요.

환경 창조를 먼저 했어요. 그 환경 가운데는 반드시 주체와 대상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광물·식물·동물의 3단계로 피조세계가 그렇게 돼 있는데, 광물세계도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추고 전부 다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물도 수술 암술, 그 다음에 동물세계도 수놈 암놈, 사

람은 남자 여자, 전부 다 상대적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 관계가 없으면 역사성을 남길 수 없어요. 다 없어진다구요. 그렇지요? 역사가 연결되어야 돼요.

그런데 사랑·생명·혈통이 역사성이예요. 사랑과 생명이라는 것은 개인이 그걸 구성할 수 있지만 역사성은 연결 못 시켜요. 역사성이 연결되려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절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야 20억, 30억, 50억 인류가 생겨나는 거예요. 동물세계도 번성해 가지고 전부 다 지구성을 커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부 다 주체 대상이 하나되어야 돼요. 하나되어서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그것은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을 이루어 부모가 되어서 사는데, 이것이 확장되려면 아들딸을 낳아야 돼요. 부모가 투입해야 돼요. 투입해야 된다고요.

자기와 같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투입해서 아담 해와를 창조해 키우던 것과 딱 마찬가지 과정이라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요. 몸 마음이 하나되고 자기 몸이 희생되더라도 고맙게 투입하는 것입니다. 전통이 되어 있어요.

부모는 그걸 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더라도 어려움을 다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자기를 위해 고생한 어머니 아버지를 붙들고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리고 한마디 ‘고생한 어머니 아버지인 줄 알아요.’ 하고 위로하면 일생의 고생을 다 잊어버린다고요. 사랑의 흔적을 만나게 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구요.

자기가 희생해야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자체는 아들딸을 낳아 가지고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투입하고 희생해야 돼요. 재창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현재의 입장에서 자기가 투입하고 희생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크지를 않아요.

노력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더 출세하기 위해 노력을 하려면 말이예요, 자기가 시간도 그렇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투입해야 돼요. 투입하고는 잊어버려야 된다고요. 또 계속해서 투입하겠다고 해야 그 성과가 빨리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것이 창조원칙이에요, 재창조원칙. 알겠어요?

그 공식이 뭐냐 하면 환경이에요. 창조된 환경에는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더 크기 위해서는 대응적 상대관계로서 큰 것을 위해서 둘이 합해 가지고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대응적 상대관계로서 하나된 그것이 또 창조의 주체가 되어 가지고 투입하고 더 큰 것을 소화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기가 희생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 몇 배 이상 투입하면 몇 배 이상의 큰 것이 하나된다 이거예요. 그 큰 것이 플러스가 되어 가지고 더 큰 것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큰 것이 나온다 그말이라구요. 알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창조세계를 중심삼고 창조할 때 백 번 창조했으면, 백 번 했다 하는 것을 의식하면 백만한 것밖에 안 나와요. 백 번 하고 잊어버리고 자꾸 투입하니까 큰 것이 나오는 거예요. 투입하지 않으면 이상적 물건이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 선생님 같은 사람은 투입하고 그 높음을 한 거라구요.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잊어버린 것입니다. 결과물로 된 것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아요. 공공기관, 나라의 물건, 세계의 물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교회면 교회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소유권이 한계선을 뚫지 않아요. 내 소유라고 해서 그 소유를 중심삼고 막아 놓으면 자기가 죽기 전에는 그 일(-)가정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창조한 것은 자기 후손을 통해 가지고 자꾸 보태서 커 나가는데, 자기 한계선에서 있게 되면 세상이 막혀 버린다는 거예요. 무한한 대우주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그것이 크면 클수록 큰 대상적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거 이론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재창조 과정은 뭐냐 하면, 먼저 환경 창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은 전부 다 부락에 들어가서도 부락 환경을 봐 가지고 ‘이것이 안 되었다.’ 할 때는 그걸 전부 다 시정해 놓는 거예요. 이상적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주인들이 주체적 모든 계열이 벌어져야 돼요. 이장으로부터 반장으로부터 모든 체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 가지고 그 체제가 부락을 위해서 투입할 수 있는 놀음을 해야 돼요. 못 하나까 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 않고 전부 다 얻어먹고 신세 지며 살겠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차 버리지. 안 그래요?

환경을 알아야

임자네들이 선생님을 좋아하는 게 뭐예요? 선생님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배운 게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자기들부터 청춘시대 일생 살아가는 그때 그 기준을 중심삼고 버티고 앉으면 그 기준 이상 세계하고는 관계를 못 맺는 거예요. 넘고 넘고 넘고 잊어버리고, 넘고 넘고 넘고 넘더라도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국가적 기준에 전부 다 의탁시켜 가지고 관리할 수 있게끔 맡겨 놓고 자기는 소유물을 갖지 않는 거예요. 꿈이에요, 꿈. 그것을 계속하니 뒤에 따라서 생겨나는 모든 물건이 전부 다 줄을 지어 있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50년 살다 보니 세계에 누가 하지 못하는 것을 했다 하는 기록적인 사건들이 벌어져 나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 대학 졸업했다고 공부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책에서 배웠던 것을 벗어나 실지 사회에 나가서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실험해야 돼요. 자기가 실험 책임자가 되고, 그 배운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체 대상을 맞춰 가지고 해야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그게 공식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재창조의 법도다 그말이라구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모르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학자들이 모이는데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학자세계에 있어 가지고 되겠어요? 그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로 존재예요. 그건 방해꾼이에요. 거기 구성 원칙이 같은데 거기에 있을 자리가 아닌데 와 있으면 방해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튼! 침 뺏어 버린다는 거예요.

환경을 알아야 된다고요. 끼리끼리 다 모이지요? 나비도 빛깔이 같은 것끼리 수놈 암놈 다 하지, 반대되는 색깔하고 수놈 암놈 안 한다고요. 끼리끼리 모여야 돼요. 환경을 전부 다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 통일교회가 지금까지 반대받는 것도 그래요. 세계의 환경이 맞지 않으니깐 반대받지 않았어요? 180도 반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180도 반대니까 뭐 적극적인 반대지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반대 환경을 누가 만드느냐 하면,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사탄세계가 바라는 것이 전부 다 천치예요. 바보라구요.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이 만들어 나왔습니다. 나라가 해 주겠다고 해도 내가 싫다고 했어요. 돈을 갖다 주고 별의별 짓을 다하더라도 내가 그 돈을 받지 않았어요. 통일교회를 고생시켰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일본 식구들을 고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딴 데서 누가 돈을 주면 안 받았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투입한 조건이 있으니까 전부 다 색깔이 달라진다고요. 정성의 도수가 흐려져요. 알겠어요?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요. 제2 하나님, 제3 하나님이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해요? 제1, 2, 3, 4, 5, 제10 하나님이 있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인데 가짜 하나님 자체가, 악마들이 그 놀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속여먹고 옆으로 접탈해 가지고 천국 가는 길을 다 막고 있다구요.

가짜 하나님이 많아요. 가짜 통일교회 교인들 많지요? 가짜 선생님도 많고. 자기 욕심부리는 건 가짜예요. 통일교회에서 가르치는 원리에 위반되는 길을 가는 건 가짜라구요. 가짜가 수다하고 말도 잘 해요.

세상에 진짜가 많아요, 가짜가 많아요? 금도 가짜 금이 많아요, 진짜 금이 많아요?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가 많아요. 마찬가지로요. 인간도 마찬가지로요.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투입하고 잊어버린 그 기준이 깊고 넓고 높을수록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상대적으로 나눠 줘야 하기 때문에 굳든가 강하든가 그렇다는 거예요. 환경에 있어서 뭐라고 할까, 변색하지 않고 깨져 나가지 않습니다. 풍화작용이 벌어지지 않아요.

투입하고 잊어버려야

사람도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변할 수 있어요? 일방통행이지요. 안 그래요? 어디 가든지 그렇게 사는 사람은 원수가 없어요. 반대자가 없어요. 누가 반대하겠어요? 위해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구장이나 국가적 메시아가 앉아 가지고 편안히 살겠다는 건 가짜 교구장, 가짜 국가적 메시아예요. 투입하고 잊어버려야 돼요. 1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도 1년도 안 되어서 잊어버려야 돼요.

선생님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일생동안 버티고 서 가지고 이 놀음을 하고 있다구요. 아이구, 이게 할 짓이에요? 목이 쉬든 뭐 어떻든 계속해야 되는데, 나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게 해야 돼요. 좋아

서 해야 된다고요. 울면서 투입해 가지고 무슨 우는 상대가 나타나게 할 일이 있어요? 재미있게 해야 재미있는 상대가 확대되는 거 아니에요?

원리 말씀을 하더라도 할 수 없어서, 시간이 아깝다고 하면서 하면 안 된다고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할 때 슬픔을 갖고 창조했겠어요? 이상적인 세계, 사랑의 상대를 찾기 위한 창조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재미를 갖고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만상 만물 전부 다 하나님이 재미를 가지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미물의 어떤 개미새끼 한 마리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균도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 균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죽었는데도 썩지 않으면 큰일나지요? 원소 분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사체들이 그냥 그대로 버티고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 표면이 전부 다 시체 때거리가 될 거라고요. 세균은 세균대로 자기의 사명이 있고, 적소에서 적절한 책임을 다 갖고 있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예.」 버티 가지고 편안히 살겠다고 하더라도 그 몸뚱이가 편안히 살게 안 되어 있어요. 움직이게 되어 있지, 편안히 살게 안 되어 있다고요.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점점점 악화됩니다. 퇴화된다고요.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움직여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부모라든가 자기 형제들이라든가 자기 주변을 위하고 살면서 자기도 전체 환경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주고받고 다 이럼으로써 화답하는 거 아니에요? 열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면 열 사람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친구가 열 명 있었는데 매일같이 만나 가지고 ‘야, 이 녀석아, 너 나를 위해 달라.’ 그러면 친구가 다 없어진다고요. 친구 열 사람 있다면 그 열 사람을 매일같이 더 위하고 더 하면 친구가 열에서 백 명도 되고 천 명도 된다는 거예요. 자꾸 커 나가는 거예요. 위해서 기쁨으로 투입하면 발전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창조의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미를 느끼면서 창조했습니다. 그거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쌍쌍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세포까지도 짹짹이 되어 가지고 좋아하고 이러는 걸 볼 때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사진 찍은 것만 해도 잘 나오면 붙들고 좋다고 하는데, 사진이 말하고 춤추고 하는데 얼마나 좋겠나 말이에요.

재미를 느끼면서 지으신 피조세계예요. 만물의 영장 되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을 바라볼 때, 그들의 친구가 되고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걸 보고 전부 다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더라도 사랑을 하고 먹어야 돼요. 농사를 짓더라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서 키운 물건을 먹으면 병도 안 나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가지면 ‘너는 내가 먹어야 돼. 널 잡아먹어야 된다.’ 독사들도 벌써 사람이 자기를 때려잡을지 어떤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하면 물지도 않는다는 거지요.

위하는 천지의 모든 조화물이기 때문에 위해 사는 사람은 이 천지의 조화물이 전부 다 울타리를 치고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운은 방향을 갖춰 가지고 가려 가면서 환경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위하라고 그러면 전부 떠나갑니다.

위하라고 하는 책임자는 고독단신

여자들은 시집갈 때 사랑 받으러 가요, 사랑하러 가요? 사랑 받으러 가요, 사랑하러 가요? 사랑 받으러 가는 것도 좋습니다. 사랑 받는 것은 뭐냐 하면, 남편이나 아내, 아들딸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 받는다는 이론이라면 된다는 거예요. ‘아, 나만 사랑 받으면 돼. 그 외에는 몰라.’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그건 반드시 없어지는 거예요. 주체 대상 관계가 안 되어 있어요.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요. 그건 자동적으로 혈족이 끊어져요.

통일교회 교인도 선생님이 이렇게 살다 보니 말이에요, 다 망한다 망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흥하는 놀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 망한다고 했는데 흥했다구요. 알겠어요? 「예.」 위하니까. 본원지가 그래요. 본원지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과 일치되니까 천운을 움직이는 주인 되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그 감각은 위하는 사람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가 어렵더라도 통일교회편이 되어 가지고 복이 더덕더덕 붙어 가지고 10년을 지내고는 뭐가 생겨나는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망상이예요? 이론적이라구요. 환경을 모르는 사람은 쫓겨나는 거예요. 대갓집 며느리가 되었으면 층층시하에 들어가 가지고 ‘아이구, 내가 대학원 나왔고, 대학을 서울대를 나왔는데 나를 모셔라.’ 그러면 그거 쫓겨나지 별수 있어요? 알겠어요?

환경 창조를 하나님이 했으니만큼 재창조도 우리가 어디에 가게 되면... 선생님도 그래요. 학자들에게 갈 때 모르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행세하는 거예요. 뭣이든지 배우려고 그러합니다. 무엇이든 주고도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대해서는 주려고 생각하지만, 그들에게는 받으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받았댔자 뭐 쓸데가 있어요? 딴 세계 기준을 중심삼고 전부 다 인연 맺으면 그 사람들을 다리를 놓아 가지고 내가 높은 데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필요한 거예요. 올라가려면 그 사람을 위해야 되는 거예요. 든 든하니, 밟아도 찌그러지지 않으니 전부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 보조가 부족하게 되면, 다리가 약하면 다리를 도와주고 다 이래 놓아야 갈 길이 생기는 거 아니예요? 천지만사가 그렇다 이거예요. 그것을 공식노정이라 하고, 대표적 그 형을 모델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델이 뭔지 알지요?

대량생산하는 프레스를 보게 되면 물건을 똑같이 찍어내는데 그걸

모델이라고 그러합니다. 그걸 천 개 만 개 찍어내도 변함없이 같은 것이 나오니까 그것이 모델이에요.

위하라고 하는 책임자는 고독단신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들을 사랑하고 싶은데, 아들딸이 어머니 아버지를 싫어하고 ‘아버지가 죽어 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딸이 있고 아들이 있다면, 죽을 정도로 시켜 먹고 깎아 먹으니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위하면 왜 죽으라고 하겠어요? 죽었다면 살려 주려고 하지요. 안 그래요?

여기에도 어머니 아버지가 죽기를 바랐던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봐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많을 텐데? 칠판에 쓴 것이 뭐라고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가정이 중심이라고요. 통일된 가정, 그 다음엔 평화스러운 가정, 세계적인 가정, 연합적인 가정. 다 좋지요? 여기에 이의 있어요?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협회가 이제 문제 돼요. 통일가정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가정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원하는 게 뭐예요? 세계평화통일 국가를 원해요. 안 그래요? 국가가 없어요. 국가를 이루면 세계예요. 세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세계가 돼요. 자기가 세계평화통일가정이 되는 거 아니예요? 대표적 가정이 되고 중심적 가정이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으니 다리를 놓아서 가야 돼요.

가정연합은 통일교회의 국가를 찾아 나가야

자, 그러면 통일교회기(旗)하고 지금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기는 어떻게 되느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지금 쓰고 있는 가정연합기를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까지 통일교회가 쓰던 로고는 뭐냐 하면, 국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나라가 없어요. 그건 국기가 되는 거예요, 국기.

그렇기 때문에 무슨 대회든 반드시 오른쪽에는 과거에 쓰던 통일기를 꽂고 왼쪽에는 가정연합기를 꽂으면 돼요. 가정연합은 통일교회의 국가를 찾아 나가는 길을 가면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안 되어 있으니 바른쪽의 하늘을 중심삼고 찾아가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통일교회 교회 조직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것이 뭐냐 하면, 조직은 그냥 그대로 계속되되 이름만을 변경하는 거예요. 공고하고 국가에서 통일교회의 이름을 변경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원리 책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원리 책은 다 마찬가지로요. 가정이 정착해야 돼요. 교회라는 것은 개인 구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종교라는 것은 개인 구원을 목표로 했지, 가정 구원을 목표로 한 종교가 없어요. 전부 다 출가, 가정을 버리고 나갔습니다. 알겠어요? 시대가 달라요.

어떤 종교든지 개인 구원을 목표로 해서 나가지, 가정 구원이라든가 종족 구원이라든가 국가 구원이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 통일교회는 가정을 중심삼고 국가 구원, 세계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계를 재창조해야 되고, 나라를 재창조해야 돼요. 투입해 가지고 재창조해야 된다는 말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전부 다 공식이 그래요. 환경 창조, 이 세계가 전부 다 하나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다고요. 그렇지요? 일본 사람들도 평화의 세계, 통일의 세계를 바란다고요.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니까 그렇지, 알게 되면 그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하는 사실을 보여 주고 알려 주는 거예요. 세계적 가정이 하나되고, 오색인종이 하나되면 되는 거예요. 그말이라고요. 알겠어요?

그래, 초인종적으로 외국 사람하고 결혼을 많이 한 사람들이 통일교회에서 일본 여자예요, 한국 여자예요? 한국 여자들이 많아요, 일본 여

자들이 많아요? 「일본 여자가 많습니다.」 왜 일본 여자들이 많으나? 일본은 여자 나라니까 지금 통일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도 남자보다 여자가 많아요. 한국은 여자보다도 남자가 네 배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본은 자기들이 상대할 수 있는 것이 4분의 1밖에 없는데, 4분의 3은 어떡하노? 할 수 없이 국제로 수출해야지요.

그래서 세계 각국으로 퍼져 나간 거예요. 그것이 일본이 살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우하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은 눈을 부릅뜨고 ‘아이구, 일본 민족 혈족을 파괴시키고 전통을 파괴한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의 야마도 다마시(大和魂) 전통을 가지고 뭘 해먹어요? 일본 중심으로 세계를 통일해요? 피스톨 가지고 탕탕탕 하면 천 명이고 만 명이고 한꺼번에 다 나가자빠지는데, 세계를 통일할 수 있어요?

타락한 후손들의 최고 소원

우리 국진군이 만든 총을 지금 평화의 총이라고 이름지었는데, 평화용으로서 여자들은 반드시 그걸 호신용으로 써야 돼요. 우리 통일교회 교인들에게 전부 다 하나씩 기부해 줄까, 사게 할까? 이 총은 안전한 거예요. 손에 꼭 들어가요. 세계에서 제일 조그만 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국진군이 자기가 고안해 가지고 특허를 받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런 거 모르고 있어요? 그런 천재적인 머리가 있어요. 공과대학도 안 다녔는데 말이에요, 잡지를 보더니 총 설계도를 만들더라구요. 내가 공과계통의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도면을 볼 줄 아는데 참 놀랍더라구요. 설계를 해 가지고 공장에 선반 갖다 놓고 자기가 깎아서 만들었어요. 내가 그 놀음을 못 하니까 아들이 다 그 놀음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세계에 없는, 세계에서 제일 작은 피스톨을 연구해서 만든 거예요. 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할 수 있게 그걸 만든 거예요. 여

자들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시대에 와 있어요? 혼자 다닐 수 없을 정도라구요. 그것만 딱 하나 핸드백에 넣어 가지고 ‘조금 기다리세요. 내가 화장을 좀 하겠다구요.’ 해서 따라오면 옆으로 총을 대 가지고 전부 다 차버릴 수 있는 거예요. 협박이나 반대하면 전부 다 까 버릴 수 있는 거라구요.

그래서 연구하라고 했대구요. 국진이 갔나? 그래서 스물한 살 때부터 만들어 가지고 지금 스물다섯 살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총 이름을 대게 되면 벌써 알아요. ‘야, 그거 무니가 만들었다더라.’ 하고 통일교회 레버런 문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 안대구요. 그 집 가문이 천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들이 다 나쁘질 않아요. 종자가 나빠요, 좋아요? 「좋습니다.」 좋은지 어쩐지 모르지만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하버드 대학 같은 대학을 가기 힘든데 시험 치러 갔다 오면 벌써 다 입학하고 말이에요, ‘아버지, 나 하버드에 들어가서 엠 비 에이(MBA; 경영학 석사과정) 졸업하겠습니다.’고 해서 ‘아, 그래.’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트 가든 주변 고등학교에서도 유명해요. ‘야, 문씨네 가족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은지, 아들딸들도 머리가 좋은데 손자까지 공부를 잘하더라.’ 이거예요. 손자가 지금 전교 1등이에요. 그림도 잘 그립니다. 지금 아홉 살인데 말이에요... 아홉 살인가? (박수) 글 쓰는 것도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선생님이 전부 다 참고하겠다고 그러고 있더라구요. 그 머리가 좋아요, 나빠요? 「좋습니다.」

그런 손자며느리, 그런 손자사위 한번 삼고 싶지 않아요? 어때요? 통일교회 교인들 전부 다 잘났든 못났든 소원이 뭐냐 하면, ‘아이구, 선생님 일족, 머리가 제일 나쁜 두석(頭石), 돌대가리 손자들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그거예요? 돌대가리예요, 무슨 대가리예요? 돌대가리 반대가 뭐예요? 천두(天頭), 천두! ‘하늘 천(天)’ 자에 ‘머리 두(頭)’ 자의 천두예요. 천재보다 천두가 훌륭할지 모르겠구만!

*모든 타락한 후손들의 최고 소원은 어떻게 선생님의 혈통권에 연결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관계를 맺는 것이 최고의 희망이라고요. 선생님의 아들딸이 몇 명이에요? 「열세 분입니다.」 손자들은 얼마나 돼요? 아들딸들이 손자를 얼마나 갖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묻는 거예요. 하나씩만 낳아요? 모두 다 적어도 한 다스를 넘지 않으면 안 된다구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니그로, 시그로, 야그로 할 것 없이 기다리고 있다구요. (웃음) 옐로(yellow; 황색)니까 야그로가 되잖아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대씨족이라고요. 수많은 혈통권이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360만쌍 가운데는 연결되지 않은 동네가 없어요. 반드시 방방곡곡마다 한 쌍씩은 있습니다.

그것이 종자가 될 수 있어요. ‘이야, 보니까 부부가 싸움도 안 하고 행복하게 잘사는구만! 저렇게 생활할 수 있게 만드는 통일의 사상이 뭐냐?’ 해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게 된다구요. 그래서 그 소문이 동네를 넘고, 군을 넘고, 도를 넘고, 나라의 전체 방방곡곡마다 다 알려질 수 있는 놀라운 부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그렇게 훌륭한 부부들이예요? 너도, 너도, 너도 그래? (웃음)

그러면 선생님도 훌륭한 남자예요, 훌륭한 남자의 반대가 뭐예요? 여자! 여자의 반대가 뭐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것이 뭐예요? 아이노코(間の子; 혼혈아), 아이노코라고 한다구요. 아이노코! 국제 결혼한 부부가 낳은 아들딸을 아이노코라고 하지요? 일본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닌 아이노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노코가 천재적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아이노코가 국가 지도자가 된다구요.

일심동체를 이루어야

끝날이 되면 말이에요, 첩의 후손들이 훌륭하게 성장해요. 첫사랑보

다 더 강렬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 가지고 낳은 아들딸들이 천재적인 아들딸들이 됩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지도자들이 어땀어요? 본처를 사랑해서 낳은 아들딸보다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어 가지고 낳은 아들딸이 성장해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모르지만 그렇게 되어 있다구요. 서양에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 사람들 가운데는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천국은 한 줄로 들어가는 것이지, 두 줄로는 못 들어가요. 일본 여자나 한국 여자라고 하는 것이 통일교회에는 없다구요. 한 줄로 나아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말도 절대로 둘이어야 된다고 해야 돼요, 절대로 하나라고 해야 돼요? 「하나라고 해야 됩니다.」 일본말을 중삼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일본말은 말도 아니라고요. 30퍼센트도 발음이 안 돼요. 한국말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말은 말도 아니라는 거라고요.

엔 에이치 케이(NHK)에서도 아이들이 한국말을 배우면 외국어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한국말을 가르쳐 준다고 하지요? 그런데 통일교회의 멤버가 그 말을 안 배우면 어떻게 돼, 이 녀석? 세계화의 시대에 들어간다고요. 일본화가 아니예요. 선생님의 사상은 우주적, 천주적인 거라고요. 우주라고 하면 영계에서는 안 보여요. 천주라고 해야 영계에서도 안다고요. 그런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일심동체, 만심동체(萬心同體)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천국은 한 줄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더 많구만. (웃음)

자, 통일교회, 알겠어요? 과거의 통일교회는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명의(名義)를 변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의를 변경하고 신문공고만 내면 아무 지장 없이 종교법인이고 뺏기고 그냥 그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세계평화가정연합’인데

거기에 명의를 변경해서 ‘통일’을 하나 집어넣으면 그냥 그대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통일’도 없어도 괜찮아요. 통일교회를 들고 나가면 반대하는 사람이 많지만 ‘가정’을 넣었기 때문에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마피아도, 야쿠자도 반대 못 한다는 거예요. 마피아 가정이 문제이고, 야쿠자 가정이 문제라구요. ‘환영합니다.’ 하면서 점심 사겠다고 따라다니게 돼요. 왜 그 좋은 이름을 안 쓰겠나 말이에요. 안 그래요?

‘세계기독교통일’ 시대는 지나갔어요. 통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세계통일이 빠르지 기독교 통일은 맨 나중에요. 그런데 왜 세계기독교를 달고 다녀요? 그리고 ‘신령협회’인데, 신령도 필요 없어요. 신령 실체가 되었어요. 앉아서 전부 다 하나님과 말하는 시대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 기도해 가지고 신령 역사 안 받아도 됩니다. 안 좋으면 전부 다 가르쳐 줘요. 마음이 딱 그렇게 된다고요. 점점점 밝아져요. 통일교회 원리만 듣고 그 뜻 세계에 방향만 맞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화(聖化)되어 가지고 하늘과 통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변치 않고 가는 방향을 바로잡고 나가게 된다면... 날아가는 화살은 직행하지, 마음대로 왔다갔다해요? 여러분은 쏘아 놓은 화살과 마찬가지로요. 타깃을 적중시켜야 돼요. 전부 다 세계통일국가라는 타깃을 향해서 날아가는 화살이에요. 그 계 중간에 어디에 가서 머무를 수 없어요.

그 화살은 자기 마음에서 날아가야 돼요. 나르는 몸뚱이가 되어 쏘아 놓은 화살처럼 날아가야 돼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자기 운명의 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를 만드신 운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실패해 가지고 파괴되는 걸 원치를 않습니다. 완전히 타깃을 맞아 성공하기를 원하니만큼 화살은 타깃으로 가게 마련이라구요.

통일교인의 본업은 신앙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 신자는 무엇이 본업이나 하면 신앙이 본업입니다. 사업은 부업이에요. 알겠어요? 지금까지 사탄세계는 몸뚱이를 중심삼은 외적인 모든 경제분야가 본업이 되어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뭐 부업도 못 돼요. 부(副)도 안 되지요. 무업(無業)이라구요, 무업. 전부 다 지옥 간판을 붙이고 사는 거예요.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별개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 했어요. 학교도 만들고 전부 다 뚫이든 다 만들었어요. 선생님에게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다구요. 자기들이 발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을 다 닦아 놓았어요. 박사가 되고 싶으면, 하버드 대학 박사가 되고 싶으면 그곳에 갈 수 있는 길도 열어 놓고 있어요. 내가 소개하면 재까닥 내 소개가 통한다구요. 그런 놀음을 안 하지요. 좀 해서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버드 대학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뭘 해야지, 사탄세계에 대해 머리 숙이고 부탁을 안 해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구요. 여기 이 나라 장관들이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 줍니다. 일본도 그래요. 안 만나는 거예요. 만나려거든 찾아와라 이거예요. 찾아와야지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찾아왔어요, 찾아갔어요? 어때요? 찾아왔어요, 찾아갔어요? 「찾아왔습니다。」 알아보러 왔지 찾아올 게 뭐예요! 조사하러 왔다가 걸려들었지요? 안 그래요? ‘통일교회가 나쁘다는데 가 보자.’ 해 가지고 말이에요, 쓸 만한 여자가 있으면 유인해 가지고 춤이나 춰 보자고 하는 그런 건달꾼이 얼마나 많아요? 눈들을 보면 건달꾼이 3분의 1 이상이 돼요. 그건 전부 다 오래 안 가 떨어질 가망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할 수 없이 내가 써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본바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저녁에 돌아가서 통일교회를 그만두고 자기 갈

길을 가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거리에 나가 가지고 몇 사람은 금방 잡아올 수 있다구요. 내가 사람 볼 줄 아는 사람이라구요. 그래도 선생님이 필요해요? 「예.」 정말이에요? 「예.」 달콤할 때는 필요하지만 쓸 때는 싫다 그말 아니예요? 「아닙니다.」 통일교회 선생님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통일교회 교인 아닌 사람은 욕을 할 줄 몰라요. 욕할 수 있는 밑천이 있어야 욕을 하지. 이놈의 자식들, 들어와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도적질해 먹다가 들키게 되니까 자기 변명하기 위해서 통일교회 나쁘다고 간판 거꾸로 붙이고 문선생 팔아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난 죽어도 그런 일은 안 해요. 그런 일을 했으면 벌써 쫓겨나서 매 맞아 죽었어요. 알겠어요? 매 맞을 녀석들이 전부 다 도망갔지 나는 도망 안 가요.

자, 통일교회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해 알겠지요? 「예.」 그거 질문될 게 뭐 있어요? 혼동하지 말라구요. 거기에 대해 의논하느라고 30분 늦었어요. 다 가려 쫓으니깐 그 사람들이 물어 보면 답변 잘할 거라구요. 알겠지요? 「예.」

33인에 대한 의미

자, 이제부터 조직을 편성하는데, 33명에 대한 내용을 아는 사람 손들어 봐요. 어디 보자! 얼굴을 보자구요. (녹음이 잠시 중단됨) 아이구! 얘기해 봐요. 어디서 나타난 사나이야? 「멕시코입니다.」 메기 밑에 썩썩하던 멕시코. 소망이 있는 나라예요, 소망이 없는 나라예요? 「예. 소망이 있습니다. 멕시코는 목을 잡고 흔들어야 왕권이 복귀된다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33인에 대한 의미는 저보다도 더 많은 말씀을 들은 사람이 우루과이 유정옥 회장인

줄 압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가끔 남미는 남쪽에는 우루과이, 북쪽에는 멕시코라 하셨습니다. 남미의 북쪽 멕시코가 돌아가고, 남미의 남쪽 우루과이가 돌아가서 이 두 나라가 축을 이룰 때 남미 33개국에 완전히 한 바퀴 돌 수 있다 하는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33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남미가 33개국입니다. 33수는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루과이에 33명의 독립운동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33명의 독립운동가를 대표한 의인 33명을 우루과이에 부르셔서 먼저 교육을 시키시고, 나머지 33개국에 33명의 친구국연합 회원을 데려다가 특별히 아버님께서 눈물로 이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33명은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남미의 33개국을 대표하고, 그리고 우루과이 33명의 독립운동가를 대표한 그러한 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종관 멕시코 회장)

한국의 독립투사도 33명이에요. 마찬가지로요. 멕시코도 33명, 미국도 33명이에요. 또 선생님이 가 있는 주도 33개 도시, 33수가 전부다 선생님이 가는 길에 딱 이마를 맞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연한 수 일치가 아니에요.

「..... 사실 우리 일본 형제들이 여기에 있지만, 아까 아버님께서도 원수의 나라끼리 이렇게 만났지만 그 원수의 나라, 932번 침략 당한 횡수 가운데 90퍼센트를 일본이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 식구들이 세계평화와 참부모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계 도처에서 피 흘리고 땀 흘리고 헌신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사실은 일본 식구들의 조상이 저지른 죄과는 밋지만 여러분이 세계평화와 하나님의 뜻과 참부모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계 도처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눈물겨운 장면이 많습니다.

이렇게 33인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10배가 운동을 하면 330명, 그리고 3천3백 명, 그리고 3만3천 명, 그리고 33만 명, 그리고 330만

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서 그러한 33명을 기반으로 한 여성 지도자 780명 교육을 모든 남미가 다 완료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완료하니까 아주 축복이 어떻게 쉬워졌는가 하면, 이번에 기성교회 목사를 60명씩 해서 두 번에 걸쳐서 120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 (유회장 보고 계속)」

석준호! 나와서 워싱턴에서 개최한 무도인대회, 그 다음에 소련과 중국에 대한 몇 가지를 전체 앞에서 얘기 좀 해 보라구.

자기 입장만 생각해서는 안 돼

여러분도 국가적 메시아인데 자기 입장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세계적 기준을 맞춰 나가야 되고, 높고 낮음을 알고, 수평적인 환경을 어떻게 개척하느냐 하는 것이 현지 당사자들의 책임소행인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말을 비준 삼아 가지고 자기 위치를 전부 다 알아 가지고 그 조정을 해야 된다고요. 얘기해요. 「중국부터 하겠습니까.」 무도인대회부터 먼저 해요. (석준호 극동회장 보고)

전세계적으로 무도인이 2억 명이 넘어요. 젊은 사람으로서 주먹으로 사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주동적 인물이 될 사람이 전부 다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또 그리고 그 무술세계는 자기 장의 이름은 절대적이예요. 일방통행이라구요. 알겠어요? 명령 일하에 행동 안 하면 문제가 벌어진다구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꼭대기에서 ‘자, 전부 다 축복 받자.’ 하면 다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다 결탁시켜 가지고 한 방향으로 내세우게 되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어요.

벽돌이나 차돌을 주먹으로 깨 버려요. 그것도 쇠 해머로 몇십 번 쳐도 안 깨지는 것이 한 번에 깨져 나간다고요. 그 꿈같은 사람들, 동네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유명해 가지고 ‘야, 조용해라!’ 하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 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알겠어요? 그 꼭대기 상투를 잡아 가지고 휘두를 수 있는 권한만 있으면 세계는 마음대로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만한 가망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축복가정과 메시아들이 직접 그 사람들의 사범이 돼야 돼요. 정신적인 교수들이 돼야 된다고요. 그렇게 연관적인 조직체들을 만들 수 있게끔 다 지시했다구요. 책임자가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있어. 선동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젊은 놈들, 굶주린 녀석들 바람 집어넣어 가지고 봉— 날게끔 하고 말이에요, 조그만 담 정도는 뛰어넘을 수 있는 기백을 심어 주고 그래야 책임자의 소행이 되는 것인데,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선교한 얘기를 또 해 봐. 내가 들어도 10분의 1도 안 하는데, 어떻게 책임자를 해먹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놈들, 이놈의 자식들! 「예.」 선동할 때는 선동할 줄 알고, 울 때는 가서 울 줄 알고 말이에요, ‘나 살려달라!’ 하고 소리를 지를 때는 주변 사람들이 물어 제끼고 살려 주겠다고 달려들 수 있게끔 될 수 있어야 친구도 가까운 친구, 원수도 큰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지요. 미지근하면 아무 데도 못 써요. 알겠어요? 「예.」

그때는 욕이 필요해요. 잠자는 녀석들한테 욕을 하면 눈을 번쩍 뜬다고요. 자, 얘기해 봐. 「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석 회장)」 시간이 많지 않긴? 시간은 많아. (웃음) 뭐 내일 아침까지도, 내일 아침 10시까지라도 괜찮다구. (웃음) 그래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겠노? (석준호 회장의 중국 섭리 진척 상황에 대한 보고)

일생은 한 번, 잠깐이다

관심이 있어요? 그런 말들에 관심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

다.」 중국이 얼마나 커요? 중국이 얼마나 커요! 소련하고 하게 되면 얼마나 커요! 중동까지 관계되어 있는 걸 전부 다 하면 굉장한 거라고요. 인류의 절반이 걸려 있는 거예요. 아시아를 보게 되면 아시아 인구가 32억입니다. 지금 여러분 국가 메시아가 가 있는 나라 가운데 작은 나라는 3만짜리도 있더구만. (웃음)

거기에 일본 선교사를 120명 보내는 것은 내가 계산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인구가 3만 명인데 거기에 어떻게 120명이 있겠나 말이에요. (웃음) 그런 곳 가운데 반대하는 데는 선교사들을 어디 다른 나라로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시급한 전체 섭리의 뜻 앞에 이익을 평가한다면 인구가 3만인 데는 세 사람도 아깝습니다. (웃음)

그렇게 생각해요? 인구 10만 명의 나라도 그래요. 인구 1백만 명의 나라도 그렇다구요. 그 사람들을 중국에 전부 투입해 보라고요. 어떻게 되겠어요? 가는 데마다 사람이 넘쳐나고, 젊은 청년들 중고등학생만 해도 2억5천만 명이에요. 그러니 대학생까지 합하면 얼마나 많아요!

중국을 여자만 해도 6억5천 명입니다. 남자만 6억5천이고, 아이구, 그 떼거리를 어떻게 다 처리하겠나? 그 개인 개인을 포섭하고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이 세계를 전부 동원해도 부족하다구요. 뭐 그러니까 책자를 중심삼아 가지고 교육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문서전도를 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때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뭐 사람이 없다, 교육이 문제다 하는 말은 통하지 않아요.

우선 선생님이 요즈음에 강의하는 내용을 전부 다 암기시키라는 거예요. 1천 번이고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환해지고, 전부 다 세상 이치가 어떻게 다 연결되어 가지고 연대적인 결과가 어떻게 처리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관심 있어요? 「예.」

소련과 중국을 중심삼아 가지고 중동까지 전부 다 포괄해 가지고 혼

자 이렇게 전부 다 엮어 나가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임자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따라가야 되겠어요, 안 따라가야 되겠어요? 「따라 가야 됩니다.」 말을 듣고 괜히 조는 사람같이 해 가지고 딴 생각하지 말라구요. 그 이상 해야 돼요. 석준호가 몇 살이야? 「오십삼 세입니다.」 53세인데 여기 지금 53세인 사람 손 들어 봐요? 몇 녀석 안 되는구만. 53세 이상 되는 사람 손 들어 봐요.

이게 뭐예요? 손을 이렇게 들어야지. 국가적 메시아밖에는 하나도 없구만. 53세 이상 말이에요, 이상. 전부 53 이하 아니예요. 53세 이하면 쓰고 남고, 전부 다 팔아도 남고 이럴 수 있는 패들인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선배들이, 그런 노틀들이 선두에 서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 듣고 나서 마음 편안히 잠을 자겠어요? 변소에 가서 오줌 쌀 시간, 대변 볼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바쁘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예.」

일생이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예요. 한 번이에요, 한 번, 잠깐이에요. 깜박하는 시간에 일생이 가는 거예요. 10년, 20년 간단해요. 간단하다고요. 순식간이에요. 여러분이 아들딸을 낳아 가지고 크는 것 볼 때 열 살, 열다섯 살 되는 것이 어때요? 유광렬, 잠깐이지? 시집보냈지? 장가보냈든가 시집보냈지? 「예.」 그 시집보낸 거 꿈같은 얘기였을 거라고요. 뭐 색시도 못 얻어 가지고 얼굴 찌그러 가지고 죽을 상을 하고 다니던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아기를 낳아 가지고 시집보내서 할아버지 입장이 되게 되었으니 얼마나 세월이 빨라요?

달려가는 화살보다 더 빠른 것이 세월이에요. 그래, 세월이 유수(流水) 같다는 말이 있지만, 화살보다 더 빠르고 총알보다 더 빠르다고요. 유수 같은 세월이라고 하지만 말이에요. 일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뜻 앞에 있어서, 역대 섭리의 뜻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훌륭한 자리에 딱 서 가지고 남기고 갈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지 빈 손 들고 갈 거예요? 선조들 앞에 어떻게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타날 거예요? 알

짜, 모를까? 「알겠습니다!」

즐음이 오지요? (‘통일의 노래’ 식구들과 함께 부르심) 정신이 났어요? 졸고 싶은 사람 없어요? 지금 몇 시예요? 여섯 시가 되었구만. 선생님 말씀할 시간이 없어요.

새로운 조직을 편성할 때

자, 골자만 얘기할 테니 잘 들으라구요. 알겠어요? 「예.» 이제부터 조직 편성을 해야 할 때가 왔어요, 조직 편성, 체제를 가지고 살아야 할 때입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조직 편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조직 편성을 하는 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보게 되면 아담 가정에 대한 조직 편성, 예수 가정에 대한 조직 편성, 재림주 가정에 대한 조직 편성, 이런 말이 나온다구요.

그러면 아담 가정에 대한 조직 편성은 가정 형태지만 세계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내용을 갖춘 조직 편성이다 이거예요. 그 내용을 국가적 기준에서 예수 가정을 중심삼고 이루려 했는데, 국가적 편성 기준은 아담 가정의 완성도 물론이지만 세계적 완성까지 그런 표준 기준의 조직 편성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거 못 했기 때문에,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그 조직 편성이 세계를 중심삼아 가지고 재림주 시대에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 재림주는 세계적 분야예요. 세계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아담 가정 완성 오케이, 예수 가정 완성 오케이, 모든 것이 거침없는 체제를 갖춰 가지고 가정에서부터 세계까지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조직 편성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면 재림주의 가정을 중심삼은 조직 편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세계적이예요. 천주적이예요. 하늘의 사실을 모르면 모르게 되어 있어요. 영계를 모르면 모르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영계와 일체

화되어 가지고 영계와 더불어 지상에서 조직 편성이 되어야 돼요. 아담 가정 시대는 그 시대에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계 전체의 국가 형성이 안 되니까 결국 조그마한 곳에서 시작해서 커 가지고 여기서 하나되어야 돼요. 이 가운데 보게 되면 가정을 중심삼고 직선으로 보면 가정이 소생이고, 국가가 장성이고, 이거 완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생이 완성을 능가할 수 없고, 장성이 완성을 능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 시대, 제3차 아담 시대의 조직 편성의 완성은 1차 아담 시대 완성은 물론 2차 국가 조직 편성의 완성, 그 다음에 세계까지 확대되는 거예요. 그 세계라는 것은 비로소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되니 만큼 하나되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아담 가정이 하나되었더라도 가정밖에 안 돼요. 국가 가정이 안 돼요. 영계에 가 있는 모든 영들이 바라는 것은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세계, 이상적 제3차 아담 이상의 기준에서의 조직 편성이라고요.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조직적 편성을 해 가지고 영계와 대등한 자리에서 호흡을 맞춰야 돼요. 알겠어요?

걸어가려면 한쪽 다리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호흡이 맞아야 됩니다. 눈도 깜박깜박하고, 숨도 내쉬고 들이쉬는 것과 같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거 다 상대적 호흡이 맞아야 모든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지 않으면 조화가 벌어지지 않아요. 조화, 화합이 벌어지지 않으면 평화와 통일이 불가능한 거예요. 알싸, 모를싸? 「알겠습니다.」

어려울 때는 기도해서 영계의 지시를 받아라

그런 일을 하려면 반드시 어려울 때는 기도해서 영계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책임자는 그래야 돼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새벽기도를 하든가 밤새도록 기도를 하든가 해서 반드시 영감(靈感)을 받아야 돼요.

선생님이 있어 가지고 언제나 지시하지 못해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어려운 길을 터 갈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사탄은 소생장성권 내를 중심삼은 3분의 2를 주관한다면 3분의 1은 남아진 거예요. 하늘이 활동할 수 있는 기대(基臺)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3분의 2를 능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세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3분의 1 세계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생활권 내에 고민하는 사람들과 국가권 내에서 국가체제에 얽매어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세계 체제, 재림주 시대에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잘못 들었어요. 없다! 「있습니다.」 자기 가정이라든가 자기 국가체제에서 얽매어 가지고 그물에 허덕이는 사람들은 절대 재림이상체제권 내에 관계를 맺을 수 없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가정을 이겨야 되고 나라를 이겨야 돼요. 가정이 뭐라고 하든, 나라가 뭐라고 하든 하늘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게 되면 그 길은 열리는 거라구요. 알겠어요? 「예.」

자기를 염려하면서 앞서 가는 사람은 절대 그건 후퇴뿐이지, 전진이 없어요. 그런 표준에서 전부 다 나가야 돼요. 거기에 핍박이 있더라도 그건 잠깐이에요. 나를 잡아치우지 못해요. 360도를 전부 다 반대하더라도 70퍼센트, 75퍼센트까지는 하지만 그 이상은 반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넘게 된다면 갈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지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통일교회 특권이에요.

앞으로 통일교회가 붙어 나가더라도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영계를 통해 가지고 연락시킬 수 있는 조직 편성이 벌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담 가정적 조직 체제가 아니고, 예수의 국가적 체제가 아니에요. 세계적 체제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적 체제라는

것은 영계와 균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국가적 체제도, 가정적 체제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가정 체제를 넘어서야 돼요. 국가 체제를 넘어서야 됩니다. 가정 체제, 국가 체제를 넘어서지 않고는 이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예요.

선각자의 길을 가라

선생님도 국가나 가정에 머무르면 이 자리에 못 가는 거예요.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행하는 거예요. 방해가 있더라도 정면으로 돌파를 하는 거예요. 미국 갈 때 감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서슴지 않고 가는 거예요. 길을 내가 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길을 개척해야 할 것이 선각자입니다.

먼저 안 사람이, 먼저 깨달은 사람이 그 길을 책임지고 개척하는 것이 쉽지, 모르는 사람은 천년 만년 걸려도 안 돼요. 딴 방향으로 가 버린다구요. 선각자의 가는 길에는 희생이 동반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국가적 메시아의 권한을 국가를 대표해 가지고 일본에 세웠는데, 일본 국가를, 세계적 국가 기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선각자(先覺者)의 책임을 할 수 있는 무리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선각자라는 것은 현재의 국가적 기준에서 정책 방향을 다 알아요. 가정을 살리는 걸 다 알고도 남아요. 그런 선각자가 되어야 합니다. 몰라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길을 가야 돼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오늘날 대한민국도 이제 경제문제, 정치문제 어려운 게 아무 문제가 아니라구요. 모험할 수 있는 민족성을 가져야 돼요, 타고 넘을 수 있는. 월급을 절반만 받고도 일하겠다고 할 수 있는 운동을 해야 돼요. 내 말만 들으면 내가 그렇게 시킬 수 있지요. 교육을 해 가지고.

데모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지금 남미에서는 그런 작전을 해요. 우루과이가 공산당의 유니언(union;노동조합) 조직이 제일 강해요. 노동조합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이거예요. 종교노동조합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공산당 폐들은 전부 다 임금을 올리는데 임금 30퍼센트 감축해 가지고 일을 하겠다!’ 이렇게 출발하면 당연히 공산당 자유주의 노동조합은 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국가 기금은 없는데 돈을 받아먹겠다고 하면 도적놈 새끼지요. 더 받아먹겠다고 한다 이거예요. 빵 조각을 먹어야 할 판인데 이밥에 소고기 반찬을 해 가지고 삼시 삼끼 먹겠어요? 그건 망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것은 역사에 없어요. 전통에 없다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입고 다니고 말이예요. 앞으로 통일교회에서는 넥타이를 못 매게 한다 이거예요. 상의를 벗고 다녀라 이겁니다. 집에 가게 되면 맨발 벗고 살아야 돼요. 왜? 아프리카 제3세계의 불쌍한 사람들이 굶어죽고 있어요. 이것을 세계인이 협력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전통을 만들어 놓아야 돼요. 몇 십 년 전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걸 전부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하니 이래야 되겠소?’ 할 때 벌써 알기 때문에 ‘그래야 되겠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게 입을 못 연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장에 실천!’ 그런 것이 가능한 거예요. 알겠어요? 「예.」

혁명을 해야 돼요, 혁명을! 혁명이라는 것은 현재와 달라요. 내일을 현실 안에 끌어들여 가지고 현실을 부정하고 이것을 격파할 수 있는 데서 혁명이 벌어져요. 그냥 안 돼요. 그것이 발전할 수 있는, 사탄세계와 하늘세계의 전환시대에 책임자들이 가져야 할 결의라구요. 그런 거 가졌어요?

360만쌍 축복 후 영계의 축복이 벌어져

오늘 달리 모인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해서 모이게 한 거예요. 아담 가정의 체제, 예수 가정의 체제, 재림주 가정의 체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가 로마를 넘어 세계적 단계를 넘어서 하늘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통일교회는 이제 그런 자리를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시대를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번 360만쌍 축복만 끝나게 되면 영계의 축복이 벌어집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앞에 놓고 이 지상에 있어서 역사에 한 번밖에 없는... 두 번 없어요. 천지개벽이 벌어지고 천상세계, 영계의 문이 벌어지는 이 일을 지상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놀음이라는 것은 대한 일이에요. 빛나는 역사를 우리가, 전환시기에 한 번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있어서 내가 바윗돌을 물리치고 고속도로를 닦는 데 있어서 이 길을 개척할 수 있는 이 놀음을 했다는 것이, 굶고 옥을 먹고 키워 주는 사람들의 피를 바라보면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젊은이는 그런 의욕에 불타야 돼요! 오십 이상 되는, 80세 가까운 선생님이 이려고 있는데, 젊은 놈들이 선생님한테 져야 되겠어요, 이겨야 되겠어요? 「이겨야 됩니다.」 기백이 져야 되겠어요, 안 져야 되겠어요? 눈이 전부 셋별같이 뻥뻥거리고 입을 다문 그 모습이 말이에요, 철갑을 써 가지고 전진 명령을 바라는 순간의 용사보다 더 대담한 기백이 숨어있어야 돼요. 의기도 당당하고 기백도 당당해야 돼요. 그래요? 이놈의 자식들, 뒷골목이나 돌아다니고 콩지(꼬리)나 바라보고 편안한 길을 찾아가겠다고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발전과 혁명이 필요한 이 시대에 그 사람들은 거름밖에 안 돼요.

그러니 알아야 돼요. 알고 실천하지 못하면 책임추궁을 받아요, 선

조로부터 후손들로부터. 우리 어미 아버지는 왜 이리 못나 가지고 이 놀음했느냐고 눈앞에서 공격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와 한 방에서 자던 새끼들이 그럴 수 있는 것이 뻔한데, 그런 자리를 피해 가지 않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을 옹호시키려는 이런 놀음을 해야 할 것이 사나이와 아낙네들의 혁명적 책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33인이라는 것이 세계적 조직... 이걸 어디든지... 국가단체 33인, 주 자체 33인을 중심삼아 가지고 6대 부처에 780명을 전부 편성하라는 거예요. 군에도 그게 가능하고, 면에도 그게 가능하고, 반까지 가능해요. 그런 조직을 해야 돼요. 과거에는 위로부터, 하늘 조직으로부터 땅까지, 반까지 통할 수 있는 계열이 없었어요. 단계가 없었어요. 이제는 단계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제 반이 형성되고 리가 편성되고 군이 편성되는 거예요. (녹음이 잠시 중단됨) 나라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군에서 해야 되고, 면에서 해야 되고, 리에서 해야 되고, 반에서 해야 돼요. 반에 있어서 780명이 있으면 33명을 중심삼아 가지고 그 걸 비례 수로 벌려 나가 가지고 780명 완결을 위한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고요. 아기들을 몇 년 동안 대해 가지고 만나서 잘해 주고...

내려가야 커지는 것

그 다음에 40세 넘은 여자들도 아기를 낳아야 돼요. 요즈음에 40세 넘어 아기를 낳겠다는 간나들 어디 있어요? 그런 간나, 여편네가 어디 있어요? 몇 살이야? *몇 살? 「마흔다섯입니다.」 마흔다섯이면 아기를 낳을 수 있다구요. (웃음) 아브라함의 아내는 1백 세에 낳았다구요.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구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지면 영적으로 감동을 받아서 대번에 임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영계에서는 거리와 시간을 초월해요. 시간이 없다구요. 무엇이든지 보고 싶다는 생각만 하면 대번에 나타나요. 방대한 천국이 대번에 통하는 거라구요. 이 땅 위에서 전화도 거리의 문제가 없지요? 그렇게 어디든지 통화가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 세계가 배후의 동기지(動機地), 발전소와 같이 되어 있는 거라구요. 알겠어요? 「예!」

발전소에서 송전선을 통해서 전기를 보내 가지고 전등이 켜지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이것이 24시간 밝을 수 있는 것은 발전소의 발전기가 돌고 있기 때문이지요? 어딘가에서 엄청난 발전기가 쉬지 않고 돌고 있는 거라구요. 마찬가지로입니다. 마찬가지로예요. 중앙으로부터 전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라구요. 알겠어요?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십시오)

일본말 해요, 한국말 해요? 일본말 해요? 처음부터? 언제부터 했나? 일본 여자야? 내가 정신이 돌겠다구요. 얼굴은 똑같은데 일본 간나, 조선 간나 분별할 수 있어야지. *이거 뭐예요? 이거 도청기라고 해요? 도청기라고 해요, 청진기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보청기라고 합니다.」 보청기? 그래?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십시오) 보청기를 끼고 듣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지만 다 알겠구만. 조금 늦지만 말이야. 일본말은 하지 않을 거라구요. 알겠어요?

누가 일본에 가서 살래요? 누가 일본에서 태어나래요? 한국에서 태어나지. (웃음) 조상 타령하는 거예요. 잘살아도 조상, 못살아도 조상입니다. 세상이 다 그래요. ‘내가 못사는 것은 조상이 못나서지, 내가 못난 것이 아니고 조상만 잘살았으면 내가 잘살 텐데.’ 그러합니다. 조상이 부자였으면 자기도 잘산다 그말이라구요.

언제나 부자들이 먼저 생겨나요? 가난뱅이에서 발전해서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부자에서부터 발전한 게 아니예요. 알겠어요? 맨 밑창에

서 발전해 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부자가 될 수 없다가
 요. 부자가 되려면 내려갈 줄 알아야 됩니다. 내려갈 줄 알아야 된다가
 요. 눈도 굴러야 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려갔다 자꾸 굴러야 돼요.
 그 다음에 높은 데 올라갔을 때는, 더 높은 데 올라가더라도 180도
 넘어서는 내려가야 된다가요. 내려가야 커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통일교회도 지금 그래요. 선생님이 지금 세계 최고의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다가요. 가만히 보니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지요? 중국이
 니 소련이니 어디든지. 여러분이 아는 이상 선생님이 유명하다가요.

이 철부지 대통령의 아들딸이 되어 가지고, 사형수를 대해 사형을
 집행하고, 왜먹지 않은 반역자들을 전부 다 교수형을 명령할 수 있는
 대통령의 아들딸이 되어 가지고 말이에요, 옛날에 자기 집 안방에서
 어머니하고 싸우던 아버지로 생각하고 그러는 격이라구요. 알겠어요?
 배고플 때 밥 얻어먹던 어머니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대통령을 모른다가요. 딱 마찬가지로예요. 언제나 같이
 사니까 선생님의 앞모습만 알지 선생님 배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
 고 있잖아요? 알아보니깐, 뭐 듣고 나니까 눈이 둥그레 가지고 ‘그럴
 수가 있었구만. 난 모르는데.’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 탈락자예요.
 탈락자를 탈락하지 않는 반대의 자리에 입대시키든가 입적시키든가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해 주는데,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가지고 빨리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 많은 노들
 들이 그러는데 젊은 사람이 왜 가만히 있겠노?

‘저 사람의 배 이상 하겠다. 3배 이상 하겠다.’ 그래야 발전하는 거
 예요. 역사적 기수가 되고,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천리 이치요 발전의 원칙이에요. 알싸, 모를싸? 「알싸!」 알싸!
 「예!」 일곱 시가 되어 온다, 이 쌍것들! 이런 권고의 말은 필요 없어
 요. 알겠어요?

33인은 예수님을 중심삼고 한 말

조직 편성을 해야 돼요. 33인이 뭐냐 하면, 그건 예수님을 중심삼고 한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라를 책임지고 대신 나타난 세례 요한을 중심삼은 개인적 대표, 가정적 대표, 종족적 대표, 민족적 교단의 대표가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앞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왕권 대신자의 표상으로 나타난 계열적인 책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의 33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왕자로 태어난 거예요. 지상나라의 왕자가 아니예요. 죽은 우리 조상도 왕으로 모셔야 되고, 이 땅 위에 태어날 후손도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 원칙은 가능한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예수가 이 땅 위에 태어날 때는 만민을 대표해 가지고 하늘나라의 왕자인 동시에 지상의 통일적인 왕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 분으로 모실 수 있는 환경을 이루어 가지고 예수를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를 보낸 하나님의 표준적 희망입니다. 알겠어요? 「예.」

예수는 나면서부터 말이에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말기유간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헤룻이 잡아죽이려고 하니 도망 다녔어요. 인친 관계도 모르는 가운데 태어나 가지고 자기편에 있어서 왕자를 왕자로서 생각하는 녀석도 없고, 젓 한 번 먹이고 밥 한 끼 먹이려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이 보게 될 때 가슴에 멍울이 졌다는 거예요.

불쌍한 예수! 몇천 년만에 인류의 조상으로 보냈는데 불쌍한 예수가 된 거예요. 하늘나라의 왕자로 태어난 그 예수를 함부로 대접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디로 가고, 사가랴 가정은 어디 가고, 유대교는 어디 가고, 이스라엘 나라는 어디 갔던고! 구약 성경에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몇천 년 전부터 약속해 나오던 분을 보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푸대접했다는 사실! 하나님이 분하고 원통했다는 걸 알아야 된
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 가지고 그 나라의 대통령과 그 나라의 각료들
이 모셔 가지고 나라 잔치를 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굿간에서
소 돼지 친구와 같이 태어나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강보에 싸 가지
고 누웠다는 걸 크리스마스 때 찬양해요? 똥! 슬픈 예수, 불쌍한 예수,
고독한 예수, 망할 예수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망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예요. 천하에 대(大) 흥하게 하기 위해 보
냈는데 불구하고 그런 상대적 여건이 전부 다 죽어 버렸어요. 예수의
태어난 일생은 비참하였다는 거예요. 한 날도 비참하지 않은 날이 없
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품에 품기지 못했어요. 안 그래요? 사가랴
가 아버지인데도 말이에요, 엘리사벳의 눈치를 봐야 되고 말이에요, 첩
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세례 요한까지도 비판할 수 있는 자리에 서서,
전부 다 메시아로 증거하고도 반대했기 때문에 예수가 죽고 만 거예
요. 세례 요한이 먼저 죽었지요?

불쌍한 예수예요. 그러니 철들 때까지 예수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예수를 보낸 하나님의 철들 때까지 예수를 바라보는 기가 막힌 심정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상에서 예수의 친구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형제가 되어 가지고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럴 수 없는 사정의 하나님의 고통을 누가 아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1년의 한이 천추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저
왕자의 모습, 2년도 마찬가지고 3년도 마찬가지고, 33년 살 때까지 그
렇게 왔다 갔다 이거예요. 그 한이 사무쳤어요. 옷을 입는 것을 보나,
밥을 먹는 것을 보나, 사는 환경에서 전부 다 예수의 가슴에 못이 박
혀 있다는 사실, 하나님에게 못이 박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걸
누가 풀어 주느냐 이거예요.

눈물로 보호해 주고, 국가 대신 모든 대표자들을 보내 줘 가지고 추앙하고 모실 수 있는 모든 치하의 음성이 산야를 넘고 넘어 가지고 나라를 넘고 넘어야 할 텐데, 국경을 넘어 넘어 세계로 번져 나가야 할 텐데, 고독단신 외로운 구세주의 입장에 있을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예.」

예수님의 소원은 축복

그런 인류의 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수백만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한 대표자가 와 가지고 예수를 지켜 주었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 지켜 주고, 각료가 지켜 주고,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주지사라든가 군수라든가 와 가지고 지켜 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의 보호권 내에서 예수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입장에서 살아야 될 텐데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 살 난 예수의 친구가 누구였더냐? 아무도 없어요. 세례 요한도 없고, 사가랴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두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 왕들이 모셔야 할 환경 여건을 다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세례 요한 일가라도 왕으로는 못 모셨더라도 가정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어머니가 있으면 왕후의 자리의 가치를 지녀 가지고 품고 왕권을 대표한 어머니로서 젖을 먹여 줄 수 있어야 했는데 그런 사람마저 없었어요.

엘리사벳만 하더라도 남자가 크면 곤란하다고 해서 자기 집에 문제가 되겠으니 잘 자라기를 바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첩의 자식이 메시아로 오는데 자기들 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예수의 사정을 알아야 돼요. 예수의 사정을 내가 한 살을, 1년을 대신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일을 못 한 것을 한으로 생각해야 돼요. 나라를 대신해 가지고, 그런 세례 요한 일가를 대표한, 밤을 지새워서라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위로의 대표자가 필요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33년을 전부 다 허송세월로 보냈어요. 대표자를 선택해 세워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높이고 예수의 못 벗긴 그 사연을 풀어 드려야 돼요. 예수의 생활은 빛나는 생활이었다 이거예요. 선생님이 안 나왔으면 예수가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지요? 「예.」 33년, 33회의 국가적 대표를 대해서 세계적 대표, 하늘땅을 대표할 수 있는 선지자의 왕권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러한 예언자들이 모여 가지고 전부 다 보호해 주고 위로해 주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너무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기념 날이 오고, 잔칫날이 오고, 신년이 찾아오면 집에 있는 아기도 전부 다 때때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동네동네 서로 나누어 먹는 환경에서 예수는 그것도 못 했다는 거예요. 고독단신 사생아로 태어나 머무를 수 있는 자리가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심각해요. 하나님 대신 가슴이 터지는 아픔을 느껴야 돼요. 예수 같은 가슴 아픔을 느껴야 돼요. 체휼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국가적 메시아를 뿔 하러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건 뭐예요? 가정을 이루려고 왔지요? 나라의 모든 중심 지도자들이 가정을 모실 수 있는 준비를 해 가지고 그들이 전부 다 부하가 되어 가지고 왕으로 모셔야 했는데 그런 환경을 못 이루었어요. 그 주위의 나라를 들어서 찬양하고 환영하는 자리에서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요. 결혼하고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 입법부, 사법부, 정당을 중심삼고, 교회를 중심삼은 지도자 중심삼고 6대 부처에 120명씩 클럽이 되어 가지고 예수를 가정에 모시지 못한 그 가정적 기준을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못 했어요? 어머니가 못 했어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없었어요. 예수의 상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서른세 살까지 왜 장가를 못 갔어요? 장가갈 수 있는 환경이 못 되었어요. 왜? 유대교와 이스라엘 나라가 협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가랴 가정과 요셉 가정이 하나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협조하

지 못함으로 말이암아.

예수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그 문중 전체가 합해 가지고 가인 아벨이, 사가랴 가정과 요셉 가정의 증진들이 모여 가지고 예수의 소원인 축복을 하려면 어떻게 축복해야 하느냐고 문의해 가지고... 전부 다 예수의 동생들은 시집 장가가 가지고 아기들을 다 기르는데, 예수는 혼자 있으니까 장막절에 예수살렘 성전에 올라가 있지 왜 여기에 와 있느냐고 핀잔하는 거예요.

서른세 살까지 전부 다 장가를 안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출가해 가지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데가 없노라.’고 했는데, 전부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또 ‘누가 나의 모친이고 나의 동생이냐.’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결혼을 위해 협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결혼을 누가 해 줬어요? 선생님이 해 줬지요? 영광중의 영광이야, 이놈의 자식들! 예수보다 나은 거야! 그러면 그때 시대에 예수가 당하지 못한, 축복가정에서 모시지 못한 것을 여러분은 지금부터 그렇게 모실 수 있는, 역사의 선조들 앞에 본이 되고 해원성 사할 수 있는, 자기 주변을 깨끗이 청산해야 할 것이 우리들이 갈 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담 가정을 세운 다음에 국가 대신 가정을 청산하고, 재림주가 갈 수 있는 길을 청산해야 돼요. 아직 국가 기준을 중심삼고 왕권시대 복귀라는 말이 웬말이에요, 이게! 2차대전 후 연합국이 전부 다 통일천 하한 그 세계에 있어서 전부 다 선생님을 반대하고 추방해 버렸기 때문에 다시 복귀노정을 거쳐 가지고 40년 수난 길을, 피어린 투쟁의 역사를 거쳐서, 하나님의 심정의 복통적 사실을 다 해원해야 되고, 아담 가정의 타락했던 아픔을 해소해 주고, 예수가 실패했던 모든 전후좌우를 전부 다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올라가요.

종족적 메시아 명령을 받고 등한시한 이 패들, 전부 다 폐품이에요, 폐품, 폐품! 자각을 해야 돼요.

33인의 섭리적 중요성

33명이라는 것은 뭐냐? 만왕의 왕의 권한을 가진 예수를 모든 나라의 왕들이 서로 지키겠다고 경쟁하는 가운데서 예수를 모실 수 있는 환경을 못 이루었어요. 국가를 넘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못 되더라도 국가 내에 있어서 유대교가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일족이 그렇게 해야 했는데, 그것도 못 했어요.

교단이 못 했으면 가정이 하고 일족들이 해야 할 텐데 사가랴 가정과 요셉이 가정이 못 했어요. 종족도 못 했어요. 가정도 못 했어요. 그게 무슨 왕자예요? 폐물 취급해 가지고 할 수 없이 가을이 되면 낙엽이 되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이 땅 위에 한을 남기고 간 거예요, 열매를 못 찾고. 아시겠소?

그것을 우리가 풀어 줘야 돼요. 그걸 밟고 올라가서 그 한을 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해원성사하고 예수가 해방권을 이루어 해원성사하여 여러분의 뒤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가서 여러분의 갈 길을 열어 주어야만 전부 다 세계적 가정, 국가적 메시아가 올라가고 세계적 메시아까지 도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탕감 해원 성사의 정비할 문제가 아담 가정과 예수 가정에 남아 있고 선생님의 가정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책임을 못 해 가지고 그런 놀음이 벌어졌어요. 알겠어요? 33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이에요. 33개국의 왕들이 지켜 가지고 예수님을 위로해 주고, 예수님을 세상의 어떠한 왕자 이상 호화로운 자리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 소원을 완전히 매몰시키고 짓밟아 버렸다

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민족이 잘못된 거예요. 유대 나라와 이스라엘 교단이 잘못했다는 것
입니다. 알겠어요? 「예.」 다시 탕감해야 돼요. 뉘아 나가야 돼요. 맺혀
있으면 풀고 나가야 돼요. 중대한 문제예요.

그런 사연이 국가를 가는 데도 전부 다 내려가면 다 맺혀 있습니다.
다 맺혀 있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기준을 중심삼고 국가적 메
시아가 그 33인 해원성사 기반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120명을
중심삼고 6개국에 780명 여자들을 세워 가지고 예수님 12제자 앞에
그 시대에 있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여자들을 각 지역에서 선별해 가
지고 준비 못 한 게 한이니 그걸 풀어 줘야 돼요.

예수님이 결혼식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국가적 책임이 아니예요. 국가에 맺혀 있고, 세계로 가는 데 맺혀 있
고, 어머니 나라인 일본의 현에도 맺혀 있고, 군에도 맺혀 있고, 도나
리구미(となりぐみ;隣組)에도 다 맺혀 있어요.

33인 이 조직을 중심삼아 가지고 같은 형태의 기준을... 크고 작을
뿐이지 가정도 마찬가지로 종족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같은 공식적 노
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알겠어요, 국가적 메시아?
「예.」 이 녀석들, 전부 다 그것이 지나가는 말, 선생님이 설교한 한때
의 말씀으로 전부 다 듣고 잊어버린 녀석이 있다구요. 그렇게 당부했
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즈니스예요. 세계도 전부 통고하고, 나라도 통고하고, 아래도
통고해야 가정을 중심삼고 이 체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다리가 33
인을 중심삼고 크게, 국가적으로 전부 다 있어야 돼요. 남미에서 서른
세 사람을 중심삼고 교육 안 했다면 어머니가 순회강연을 못 해요.

그래 가지고 전부 다 교육한 그 내용을 중심삼고 무슨 일이 있더라
도 그들이 결사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16개국 순회강연을 무사
통과한 거라구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나라를 찾는 제일 빠른 길

남미에서 온 사람 서 봐요. 남미, 일어서 봐요. 일어서 봐요, 남미! 그 33명 다 있어요? 「예.」 쿠바는 없잖아? 33명 뭐... 없지?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 해?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한다구? 들어가서 언제 33인 자리잡아? 못 잡아. 언제 하겠나, 언제? 「틈틈이 하겠습니다.」 말은 잘 하고 있구만. 제주도 패, 저거 아주 땅달배 같은 게 배포는 두둑하구만.

여기는 쫓겨났다면? 「예.」 쫓겨났으면 그 선교사는 어디 갔어? 「베네수엘라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에 전부 다 배치하는 거야. 들어가든 못 들어가든 뽕쟁이꾼을 해서는 안 돼. 뽕쟁이꾼, 뽕쟁이 놀음을 해선 안 된다 그말이야. 나라의 환영을 받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내가 배치했던 책임은 다 했어요. 자기 나라가 책임 못 한 거지 내가 책임 못 한 것이 아니라구요.

그걸 그렇게 대접하게 되어 있어요? 결방살이 대접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예요! 하늘의 총독으로 간 거예요. 그런 대접을 나 원치 않습니다. 6개월 지났지요? 안 지났나, 아직까지? 6개월이 되면 전부 다 철수시켜도 괜찮아요. 알겠나? 거기 머무를 필요 없어요.

지금 바쁜데 소련이나 중국이나 대만이라든가 태국, 그 다음에 어디? 태국이 지금까지 반대한 그 패라구요. 「아버님,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다고 해서 지금 특별히 배치할 것이 없잖아? 앞으로 다 달라진다고. 그 다음에 780명 부인들을 6대 부처에 배치할 수 있는 교육을 했어? 안 하지 않았어? 그 33명은 전부 다 축복 받아야 돼. 안 받는 사람은 전부 다 인을 쳐주어야 돼요. 금년 결혼식을 중심삼고 준비해야 돼요. 신구국연합이에요. 가정을 중심삼지 않으면 구국(救國), 나라가 성립 안 돼요. 새로운 국을 열어 줘야 되는 거

예요.

이걸 중심삼고 780명만 하게 된다면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정적으로, 그것만 하고는 말이에요, 가정을 중심삼고 열 사람씩만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가정을 중심삼고. 탄 데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탄 데 전도할 필요 없어요. 이미 선발된 사람들이 하나된 기준에 있어서 축복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중심삼아 가지고 열 사람, 열두 사람 전부 다 포섭해 나가는 거예요. 그거 쉬운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탄 사람 전도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나라를 찾는 데 있어서 제일 빠른 길은 종족 편성하고 민족 편성하는 거예요. 열두 종족은 민족 편성이 되고, 민족 편성이 되면 국가를 조성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탄 것 하지 말라구, 이놈의 자식들!

너, 33명을 만들어 가지고 780명 다 교육했나? 교육 다 했나? 「예. 요번에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 했어? 다한 데 지금 손 들어 봐요. 절반도 안 되누만. 그들을 축복해야 돼요. 그들을 축복해야 돼요. 그들을 축복해 주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시대의 이것도 해원성사하는 거예요. 6대 부처에 이 모든 걸 하게 되면 말이에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정당,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 책임자, 종교, 그 다음에 세계평화가정연합 이 6대 부처에 130명씩 780명을 하나 만들어서 축복 받게 해야 돼요. 축복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일족을 중심삼고 열두 명씩 엮어 나가라는 거예요. 거꾸로예요. 열두 명에서 72문도, 72문도를 중심삼고 120문도예요. 72문도는 12가정을 여섯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편성해 가지고 야곱 가정의 열두 집안 착지예요, 착지. 착지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벌어집니다.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공식노정입니다. 알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

제멋대로 하지 말라구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이것을 국가가 하고, 그 다음엔 현(縣), 주(州)라든가 한국으로 말하면 도에 33인 78명, 군에 33인 78명, 면에 33인 78명, 반에도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에서 33명을 세워 가지고 전부 다 연결시켜 가지고 78명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을 철저히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반이 없으면 소생·장성·완성의 횡적으로 3단계를 중심 삼고 포섭해 가지고 78명을 남의 반까지도 전부 다 흡수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알겠어, 꼭정환! 「예.」 한번 얘기해 보라구. 이번에 책임져야 할 텐데. 「행정적으로 국가 단위로 33명과 6개 부처에 조직을 780명…」 뭐 행정 단위의 33명이 아니예요.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중진이에요. 행정부 하게 되면 교육부니 무슨 종교계가 다 빠지잖아요? 반까지 나가야 돼요, 반까지. 알겠어요? 「예」

반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착지를 해야 돼요, 착지.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거 확실히 알라구요. 알겠어요? 「예.」

앉으라구요. 그 가외의 국가적 메시아 일어서요. 가외 국가적 메시아 일어서라고 그러잖아, 이것들아! 국가적 메시아야? 33명 벌써 선생님님이 전부 다 생일날에 전부 다 지시한 말 똑똑히 다 들었나, 못 들었나?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한 데 손 들어 봐요. 33명 국가대표 상하를 중심삼고 연결시켜, 영향권 있는 사람들을 묶어 가지고 대표로 세운 사람 손 들어 봐요. 들어 봐! 벼락을 맞을 자식들! 이러라고 선생님이 지시했어? 똥개 새끼들.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될 것 같아?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고생을 안 해요.

박노희는 그걸 듣거나 했나, 알거나 했나? 「안 갔습니다.» 왜 안 왔어? 「사정이 있어서…」 무슨 사정? 개인·가정·국가적 사정이 문제가 아니라구. 이런 걸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못 갔으면 못 간 걸 분하게 느껴 가지고 그 이상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뭣 가지고 일할 거야, 뭣 가지고? 선생님이 순회강연 한다는 그런 통보는 받았어? 전부 다 이런 편성을 해 가지고 대통령을 중심삼고 각료를 중심삼고 선생님을 국가적으로 환영할 수 있는 나라는 내가 방문하겠다 이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예요. 이제 돌아가면 그런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비행기를 사야 돼요.

*이시이! 일본이 책임을 못 했기 때문에 선생님의 계획이 전부 다 무산되었다구. 각 지구마다 5천만 엔이야, 5천만 달러야? 최소한 매달 5천만 달러를 선생님의 선교자금으로 입금하겠다고 했는데, 약속이 틀리잖아? 눈은 새빨갭게 하고, 혀는 빨 수 없으니까 침을 뱉으면서 결심한 것을 잊어버렸어? 매달 5천만 달러를 일본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구. 그거 거짓말이야, 참말이야? 거짓말이야, 아니야? 이시이! 「예. 사실입니다.» 뭘 하고 있어, 지금? 선생님을 허수아비로 생각해? 허수아비로 알아, 허수아비? 걸모양은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용은 엉망진창이라구!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이놈의 자식들 같으니라구! 대가리들이 썩었어요. 그렇게 피어린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야, 이게? 양준수! 똑똑히 알아야 되겠어요. 선생님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지나가는 한 절기의 한 주일날 설교가 아니예요, 이거! 우주적 대전환시기에 있어서 천명에 의한 결정적인 선포예요. 그렇게 무책임해 가지고 뭘 해먹겠다고 메시아가 될게 뭐야!

이것들을 믿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러니 전부 다 하늘이 망쳐 버려요. 교회를 도와주겠다고 전부 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전부가 영향 받아 버렸어요. 물이 높은 데로 흘렀으면 고개보다 높은 데 걸리면 고

개를 넘어야 할 텐데 넘지 못하게 될 때는 그것이 저수지가 되어 버립니다. 더 높게 될 때는 물은 영원히 흘러가지 못해요. 그렇게 사람을 시켜 가지고 설명을 받을 새우도록 얘기했다구요. 들었나, 못 들었나? 「들었습니다.」 배트로 대가리를 까 버려야지. 정신 차리라고요.

33명을 중심삼고 780명을 교육해야

두 번째, 검증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구요. 알겠어요? 「예.」 가서 할 거예요, 못 할 거예요? 못 하겠으면 후퇴해요. 한국 녀석들 다 쫓아 버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해도 잘할 거라고요. 세계선교본부의 꼭정환은 뭘 했어? 선교본부는 뭘 했어? 선생님 분부한 것을 재촉하고, 할 수 있게끔 위에서 채찍질하고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잖아? 제멋대로 해서 안 된다구. 공식적 체제를 만들어야 돼요. 알겠어요? 아담 가정 시대, 예수 시대와 재림주 시대는 다르다구요. 알겠어요? 「예.」

이 일을 하늘이 얼마나 고대했던가를 알아야 돼요. 돌아가게 되면 당장에 실천하라구요. 당장에 실천 못 하겠다는 사람은 전부 다 앉아요! 실천할 사람 손 들어 봐요. 누굴 망치려고 그래, 이놈의 자식들? 누굴 망치려고 그러느냐구. 조상들을 전부 다 지옥 구덩이에 몰아넣을 거예요? 선생님이 말하는 게 농담이에요? 장난이에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내가 선발대로서 전부 다 모범을 보였어요. 기반을 다 닦아 놓았는데도 그걸 못 한다 말이에요? 몇 번씩이나 전부 다... 유정옥! 편지로 연락했지? 「예.」 몇 번 했다구요. 틀림없이 내가 통고했어요.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이놈의 자식들!

누구를 위해서 이려고 있는 거요, 누구를 위해서? 레버런 문이 아니에요. 하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지시한 거라고요. 그렇게 무가치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말이에요? 알겠

나? 알겠다면 양손을 들어 봐요. 들어가면 실천공행하라고요! 대답해 봐요. 「실천공행!」 앉으라고요.

33명을 중심삼고 780명을 교육해야 돼요. 공식이에요. 다른 사람을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타고 나가는 거예요. 딴 사람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여성연합을 만들어야 되고, 청년연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 있어요. 780명을 하게 된다면, 그 여자들을 중심삼고 아들딸도 있고 남편도 다 있기 때문에 청년회를 만들 수 있고, 학생회를 만들 수 있고, 가정연합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가망한 말이에요, 부당한 말이에요? 가망하겠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준 거라고요. 그냥 그대로 하는 놀음판이 아니에요.

조사위원도 마찬가지로요. 여자들을 전부 다 축복 받게 해 놓고, 그 다음에는 아들딸도 몰아넣고, 또 그 다음엔 전부 다 가정연합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연합과 청년연합과 학생연합을 해야 된다고요. 자기 여편네를 여성연합을 시키라는 거예요. 자기 만아들이 있으면 청년연합에 가입시키고, 학교 학생은 학생연합에 가입시키고... 대번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축복 받으면 가정연합이 되는 거예요. 철옹성 같은 기반이 앉아 가지고 순리적인 환경에서 그 나라의 중심체제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놓으면 축복 받았기 때문에 누가 빼 갈 수 없어요. 사탄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780명을 교육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가 반대하든 뭐든 그 아들딸을 중심삼아 가지고, 친척을 중심삼고, 사돈의 팔촌, 사위 며느리까지 합해서 몰아넣어 가지고 축복 받게 하면 되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예.」

그런 것을 전부 다 해 가지고 한국 돌아와 가지고 그런 편제를 해 보니까 전부 다 안 되어 있어요. 광정환! 「예.」 어제 왔던 그 사람 있

잖아? 그 사람을 중심삼고 한 달 이내에 33명을 넣어 놓으라구. 최고 간부들까지 해 가지고 어디든 다리 놓을 수 있게끔 짜 가지고 33인을 대표해 가지고 그걸 중심삼고 입법 사법 등 6개 부처의 요인들을 중심삼고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결합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여성조직, 청년조직, 학생조직을 다시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청년연합하고 학생연합은 어머니 중심의 여성연합하고... 돈이 없으면 여성연합에서 돈을 대라고 그랬지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되라는 거예요. 누나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할머니와 같이 어려우면 사정해 가지고, 못 하면 밤을 새워 기도라도 해야 돼요.

그 기도하는 정성에 감동받아 청년이 따라가면 같이 기도하고, 학생이 따라가면 수도원이 기도하고, 그러면 남편이 찾아와서 남편까지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을 중심삼고 자동적으로 여성연합 책임자로 만들 수 있고, 청년연합 책임자를 만들 수 있고, 학생연합 책임자도 만들 수 있고, 가정연합 책임자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한 집안에서 다 할 수 있다가요. 똑똑히 알았어요?

지금 조사국은 전부 다중간 패예요. 여러 분과와 연합해 가지고 연결시켜 가야 돼요. 정부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전부 다 연결하고 사회 전체에 연결되어 있다구요. 55세 미만까지는 청년연합에 들어가는 거예요. 55세가 많지요? 많더라도 할 수 없어요. (녹음이 잠시 중단됨)

가정연합 체제를 가지고 살아야 할 때

거기에 7년 가해 가지고 55세로 정했어요. 7수, 선생님 7년 수가 들어 가서 전부 다 하늘 왕권을 맺기 위해서 7수를 합해 가지고... 언제인가? 1994년인가? 1994년이면 전부 다 몇 세까지인가? 「49세까지.」 49세(1948년)에 7년 더해 가지고 55세까지 넣은 거예요. 그때

55세니까 몇 해 되었어요? 청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어져요. 클린턴 대통령도 해방둥이예요. 이걸 전부 다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예요. 자기 직속 관계를 중심삼고 여기는 전부 다 청년연합이 되어 있고, 학생연합이 되어 있고, 여성연합이 다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여자들은 전부 다 여성연합 가입, 청년은 자기가 못 하겠으면 김봉태 중심으로 가인, 그 다음 학생을 중심삼고... 카프(CARP;전국대학원리연구회) 회장이 뭐야? 이름이 뭐라구? 「신동모입니다.」 거기에 왜 앉아 있나, 여기 와 앉지. 왔는데도 선생님한테 인사를 못 해. 그 따위 패가 어디 있어? 하나돼야 돼, 하나! 협회장은 이마 맞대 가지고 보고하고, 청년 책임자가 보고하고 일체가 되어 뒤넘이쳐서 수평선을 만들어야 된다고. 알겠어? 「예.」

자기 혼자 잘하겠다고 해 봤자 안 돼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체제를 가지고 살아야 할 때예요. 알겠어요? 체제가 필요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종적으로 많은 단체를 만들었는데 가정연합에 전부 다 결속하는 거예요. 모든 단체장을 중심삼고 여편네는 여성연합, 장자들은 청년연합, 차자는 학생연합에 가입해야 돼요. 자동적으로 편입돼야 돼요.

그래 가지고 축복 받으면 그 가정을 중심삼고 다 할 수 있어요. 유능한 가정이 되면 여성연합 책임자, 청년연합 책임자, 학생연합 책임자가 돼 가지고 철용성 같은 기반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가정 편성, 가정 대이동 시대가 있다고 했지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갈라져서는 안 돼요. 알겠어요? 딱뚱로 해선 안 된다고요. 자기 혼자 독주하고 싶지요? 너저분하게 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전부 다 조직편성을 해서 여편네들은 여편네끼리, 장남은 청년회끼리, 차남은 학생연합에 묶어 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몇 배가 됩니다. 조직이 몇 배로 확대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중심삼고 활동하는 그것이 제일이 아니예요. 여편네

활동이 아버지 활동보다 클 수 있고, 아들 활동이 어머니 아버지 활동보다 클 수 있고, 대학생 활동이 청년 활동보다 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통일화된 위에서 확장운동이 가능한 그런 발판을 왜 상실하느냐 이거예요. 교육하는 거 보니까 혼자 뛰고 불쌍해요.

여성연합 책임자가 누구야? 정대화! 송국장을 불러 가지고 보고 받아야 돼. 가정연합이야, 여성연합이야? 「여성연합입니다.」 여성연합 책임자는 어머니 책임이야. 보고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되어야 돼. 하나 되어야 돼. 알겠어?

그건 천사장형이라고요. 원리도 모르잖아요? 제멋대로 살고 말이에요. 나라에서 꺾테기 벗겨 먹던 사람들 아니예요? 꺾테기 벗겨 먹던 사람들이 뭐냐 하면, 비법적인 행동을 해 가지고 살아 나온 사람들이 다 그말이에요. 타락한 천사장이 복귀된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전부 다 여성연합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자기 여편네가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거꾸로 교육해야 된다 그말이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살길이 없어요. 알겠나? 똑똑히, 똑똑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축복가정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되는 것

이번에 외로웠지요? 외롭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외롭게 만들었어요. 내가 콕이사장보고 송국장을 회사 부사장직에서 떼 버리라고 했어요. 이걸 요리해야 된다고요. 그걸 요리하기 위해서는 여성연합의 정대화! 여기 손동식을 오라고 해 가지고 보고할 수 있게 해야 돼. 알겠나? 어머니 입장에서 해야 돼, 이 쌍꺼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손동식이 처로부터 그 다음에 조사위원 부인들을 전부 다 가 입시켜야 돼요. 손동식이 책임자이니 선두에 서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걸 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정대화, 알겠어? 「알았습니다.」 정소화가 되지 말고 대화가 되라고. 그

리고 여성을 교육해야 돼. 여기서부터 전부 교육을 다시 해야 돼. 알겠나? 「예.」

너는 학생을 교육해야 돼. 「알겠습니다.」 전부 다 형님을 따라가야 돼. 형님 따라가야 돼. 가인 아벨, 장자권을 복귀한 시대에 들어왔으니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 명령에 절대복종하고, 장자의 명령에 절대복종할 때가 왔다구. 혼자 하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까지 조사위원으로 가정 여자를 포섭해야 되고, 장남 차자를 포섭해야 큰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현재 같이 온 사람들을 중심삼고도 마찬가지로예요. 전부 다 학생이면 어머니를 포섭하고, 누이동생을 전부 다 포섭해야 되고, 형님 될 수 있는 사람을 포섭해야 되고, 동생 될 수 있는 사람을 다 포섭해야 된다고요. 원리적 추진 방법, 체제 방법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예.」

이래 놓고 비로소 축복 받음으로 말미암아 재림주가 아버지 입장에서게 되어 하늘에 속하는 거예요. 축복 받아야 돼요. 그래서 축복가정이 뭐라고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심삼고 역사하니만큼 재창조의 불이 나서 ‘획!’ 회전운동을 하면 환경이 자기도 모르게 끌려들어온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선조들이 내려와 가지고 영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영적으로 하나돼 가지고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 광정환도 영계하고 뭐가 통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다 써먹는 거예요. 여기 전부 다 세계적 책임자도 다 통하기 때문에 써먹는 거예요. 석준호도 마찬가지예요. 임자네들도 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정성들이라고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그와 같은 조직을 국가에서 하고, 도에서 하고, 군에서 하고, 면에서 하고, 리에서 하고, 반까지 내려가서 한 집안도 남음이 없어야 된다 이

거예요. 한 집안에 다 배치하면 뭐라고 할까, 강원도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구덩이를 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가지고 논을 만들고 밭을 만들어 혼자 사는 가정까지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조직을 그냥 살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 하늘나라에서 쪽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기독교 사람들이 세상에 재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영계에 있는 예수님을 중심삼아 가지고 재림할 수 있고, 수많은 종교의... 그래서 4대 성인에게 40일수련을 받으라고 명령해 가지고 수련 받고 갔지요? 그게 사실이에요? 「예,」 사실이에요. 그러니 협조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이 체제를 중심삼고 이제 나라에서 축복했으면 군에서 축복하고, 군에서 축복했으면 면에서 축복하고, 면에서 축복했으니 리에 축복하고, 리에 축복했으니 통반에서 축복하는 거예요. 이럼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혜택권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땅까지 미쳤으니 이것이 전부 다 여기에 달린 사탄권이예요. 영계가 그 아래에 달려 있으니 영계 축복시대에 연결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땅에 착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가정연합은 착지하기 위한 것

가정연합이라는 것은 착지하기 위한 거라구요. 땅에 착지해야 영계가 새로이 여기 아래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연결시켜야만 복귀할 수 있는 거예요.

지상에서 자기 사랑하는 여편네가 지금 영계에 가게 되면 다 갈라져 간다구요. 지금까지는 갈라져 왔습니다. 영계에 가면 영계의 비준에 맞는 도수에 맞게 들어가는 거예요. 영계에 딱 들어가게 되면 비디오 같은 걸 버튼만 누르면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다 나와요. 다 기록돼 있

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몇 번이다!’ 하면 몇 번에 벌써 자기를 데리고 갈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는 거예요. 가정의 열 사람이 있어도 심령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헤어져야 돼요. 만날 수 없어요.

이제 그것이 해방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축복 받고 지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영계에 가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대모님도 그렇고, 대형님도 그렇게 축복해 준 거라구요. 총모님도 다 축복해 준 거라구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영계 사람을 축복해 준 거예요. 그 문이 열린다구요. 그래야 지옥해방이 가능해요. 그래야 에덴동산의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세계, 천국에 들어가는 일방적인 통행으로서 천국 편성을 완성했다 할 수 있는 기준을 땅에서 갈라졌던 모든 개인, 가정을 헤쳐 가지고 세계적으로 편성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일시에 갖다 맞추므로 말미암아 지상·천상·천국의 통일권이 벌어져 하나님이 해방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늘 영계를... (이후 말씀은 녹음되어 있지 않아 수록하지 못함) *

구원섭리사의 원리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은 모든 복잡한 문제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란 어려운 문제예요. 개인서부터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국가, 세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중심삼은 영계까지 복잡하게 엉켜 있어요. 그 엉켜진 내용은, 왜 이렇게 엉켜졌느냐 하면 근본의 원칙적인 해결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엉켜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

그러면 세계 문제의 이 복잡하게 엉켜져 있는 동기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두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남자라는 사람하고 여자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를 절대 필요로 한 주인이 있다면, 그 주인을 오늘날 하나님이라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절대 필요한 남자, 절대 필요한 여자가 되었다면 오늘날 이와 같은 세계에 꼭 넘치게 차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은 없었다는 거예요.

1997년 4월 12일(土) 오후 1시, 중앙수련원.

* 이 말씀은 '문씨 한씨 종친 섭리적 결성대회'에서 하신 말씀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 우주의 근본이라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어떤 높은 사람을 존경하고 숭배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나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알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것이 주체라면 주체 앞에 상대적인 가치 존재가 된다고 하면 그 주체가 이를 수 있는 뜻의 모든 것, 확장된 더 큰 뜻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주체 앞에 대상적인 실적이 있어 가지고 미래의 소망의 터전까지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체가 역사적인 인물이라도 미래에 그 주체가 바라는 소망의 세계까지 그 대상적인 기준에 갖추어 가지고 상속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서 본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이겠느냐? 보통 사람은 생각 못 합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이 제일 귀하게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나 물을 때 돈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돈 좋아하지요? 「예.」 돈 싫어하는 사람 없지요? 돈이 제일이다, 황금만능이다, 말은 좋아요. 그 돈 때문에 죽고 살고 돈 때문에 망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 돈이 죄악의 근본이 되어 있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돈이 인간을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돈이 필요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금, 은, 보석 무한히 전부 다 재원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분에게는 돈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돈은 언제나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은 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식이 필요하다 한대구요. 지식 가지고 천하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오늘날 지식이 팍찬 세계로 주도국으로서 리드하는 미국이 지식의 왕국이라고 하지만 그 지식 가지고 천하를 다스리지는 못합니다. 지식이 좋다고 했지만 그 지식은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된다면 지식이 필요 없어요. 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분이 지식을 갖추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 알고

넘을 수 있는 삶의 자리까지 준비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에게 속해 있는 자연적인 환경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필요치 않다구요. 지식 가지고 자랑하지요? 뭐 어느 대학을 나오고 뭐 어떻고 어떻고 무슨 박사학위가 뭐 어떻고 어떻고 하지만, 그거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인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 하면 말이에요, 권력입니다. 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이거예요. 권력을 쥐어야 5년밖에 못 쥐어요. 5년 붙들고 나라를 흔들다가 쓰러져서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쉬운 그런 것을 가지겠다고 권력, 권력! 하는 거라구요. 역사는 그렇게 나왔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권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자구요.

가정에 제일 필요한 것은 사랑

여기 문씨에게서 나를 종장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또 그 다음에 한씨, 친족도 모였기 때문에 여기에 남자로 생겨 가지고 여자를 제일 사랑한다면 제일 사랑할 수 있는 대표자가 뭐냐 하면 자기 아내예요. 물론, 어머니도 있지만 제일 피살을 같이 동화시키고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이 황적인 무대 위에서 부인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인과 더불어 의논해 가지고 세계를 꿈꿀 수 있지만 부모는 종적인 입장에서 오래 안 가 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한씨라는 사람들, 한씨 부인이 와 가지고 문씨가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그 문씨 종중을 전부 다 내세운다 하더라도 문씨 종중에 계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낳아주는 것은 부인이예요, 부인. 그러면 문총재의 부인이 한씨라면 한씨를 통해 그 문씨 종중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는 거라구요. 그 직계 계대의 아들을 낳아줄 수

있는 어머니가 누구냐면 한씨라는 말이에요. 아들이 열셋이면 열셋의 모든 어머니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한씨예요. 그럼, 한씨와 한씨 아들딸 그것이 문씨, 문총재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은 뭐냐? 돈이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해요? 권력이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거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이 바라는 이 땅 위에 개인으로부터 가장·종족·민족·국가·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나? 하나님은 돈은 필요 없어요. 지식도 필요 없어요. 권력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참된 개인, 참된 남자와 여자를 필요로 한다 이거예요. 그 참된 남자, 여자가 무엇을 가졌기에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걸 가졌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홀로 계십니다. 홀로 계세요. 아무리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도 홀로 계시고는 외로운 거예요. 그 분이 원하는 건 돈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권력도 아닙니다. 뭐냐? 참된 사랑의 대상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참된 대상자, 사랑의 대상자는 뭐냐 하면, 어린 아기 적부터 자라는 거예요. 어머니 품에 품겨 자라던 아기, 사랑할 수 있는 아기의 상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면 형제라구요. 젓 먹을 때 한 살 두 살까지는 몰라요. 남자 여자를 모르지만 철들게 되면 남자, 여자를 알아 가지고 자기 갈 길을 닦아 가야 됩니다. 그 때는 형제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이 형제시대를 거쳐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말이에요.

에덴에 우리 조상이 몇 사람이었어요? 우리 조상이 몇 사람이예요? 남자, 여자 두 사람씩이에요, 절대 한 사람씩이에요? 절대 한사람씩이라는 거예요. 틀림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사랑을 나누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남자에 대한 절대 사랑, 여자에 대한 절대 사랑을 하려면 두 사람이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요. 하나예요. 절대라는 말은 그 어의(語義)에 있어서 하나, 단일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세워진 아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 해와를 지을 때 어른으로 지었을 것 같아요, 아기로 지었을 것 같아요? 아기라는 거예요, 아기. 아기를 지어 가지고 아기가 커 가지고 형제가 되고, 형제가 커 가지고 전부 다 부부가 되고, 부부가 아들딸 낳아 어머니 아버지 될 수 있는 자리까지 자라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대상을 필요로 했다 이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의 절대사랑의 정착점

여러분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 우주의 중심 된 하나님이 절대 필요로 하는 것은 영원불변한 절대 사랑의 대상을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여러분도 남자 여자들이 지금까지 절대 필요한 대상으로 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자 중에 두 남편을 모시겠다는 여자가 있어요? 절대 한 남편, 또 남자도 절대 한 여자, 한 부인을 두는 거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을 중심삼고 절대 남자, 절대 여자가 참사랑으로 하나된 그러한 절대 부부가 되었다면, 그때서부터 하나님과 하나되는 거예요. 종적인 부모가 설정되는 동시에 횡적인 부모로서 결탁을 맺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참사랑의 인간적인 절대사랑과 참사랑의 하나님의 절대사랑이 어디 가서 정착점을 일체화시키느냐? 이걸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 서 있는 문총재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영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 고민했던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절대사랑을 인간도 필요로 하는데 절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어디서 정착되느냐? 이것이 한 점이 아니게 될 때는 문제가 벌어집니다. 절대사랑의 기점이 하나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하나의 방향, 하나의

목적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발의 결착점이 하나인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부부의 사랑이 일체할 수 있는 자리요, 부자지 관계에 있어 일체화될 수 있는 자리요, 형제관계에 일체가 될 수 있는 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점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자녀들을 가질 수 있고 부부의 사랑이상도 가질 수 있고 부모의 사랑이상도 체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체 된 근본 가정적 기반이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 제일 고심하는 가운데 영계의 지시가, 명령이 뭐냐 하면 참사랑은 직단거리를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참사랑은, 인간들의 참사랑은 직단거리를 통한다 이거예요. 수직적 관계예요. 부모, 부자지 관계는 수직적 관계입니다. 부부관계는 전부 다 이게 횡적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전후관계는 또 다른 90도를 갖는 거예요. 이 삼면이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의 가정을 이룬다, 이렇게 봐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상하관계의 부모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좌우관계의 부부가 있어야 돼요. 동쪽은, 오른쪽은 남자를 상징해요. 동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여자는 서쪽과 마찬가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됩니다. 동쪽 햇빛을 받아 가지고 대등한 자리에 서는 거와 마찬가지로예요. 그게 부부라는 겁니다. 형제는 뭐냐? 이것은 전후관계예요.

이 셋이 합해야 입체적인 구형이 되는 거예요. 상하관계가 종적인 것인데 이것을 연결시켜 하나의 표준을 중심삼고 하나의 정착점을 이루는 것입니다. 상하의 결착점, 좌우의 결착점, 형제(전후)의 결착점이 같다 이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갈라지면 여섯 방향인데 이 하나의 종합적 정착지가 뭐냐? 하나님이 임재해 가지고 인간과 더불어, 부부와 더불어, 형제와 더불어 같은 자리에 정착할 수 있는 안정기반이 가정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래, 가정 중심삼고 출발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이 가는 길, 부부의 가는 길, 형제의 가는 길이 전부 한 방향입니다.

가정이라는 한 방향, 참사랑이라는 절대사랑을 중심삼고 가정의 방향을 감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확대됨으로 말미암아 국가 형성이 벌어져요.

여러분 독신생활 하면서 국가를 모실 수 없습니다. 천지의 이치가 그래요. 사랑 기반을 통해야만 남자로서, 개인 개인이 태어난 가치를 완성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남자가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그건 반 쪼가리예요, 반 쪼가리. 여자하고 남자가 하나돼야만 한 쪼가리 된다고요. 동과 서가 합해 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상하와 겹해야 이것도 하나되는 거예요. 전후가 그래야 삼면, 구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제일 정착지가 뭐냐?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사랑을 맺는 자리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는 남자와 사랑을 추구하는 여자가 절대 형제의 자리에서 절대 부부의 자리에서 절대 부모의 자리로 연결시키는 것이 우리 인류의 시조의 근본이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최고로 원하는 소원이 뭐냐 하면 사랑인데, 그 사랑 가운데 무슨 사랑이냐? 정착할 수 있는 이상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 분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한, 사랑의 본체 되는 그 출발과 과정과 목적이 변함없이 일체 될 수 있는 그 기틀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기틀을 통하지 않고는 완성된 가정의 합격자가 될 수 없고 종족적 완성, 민족적 완성, 국가적 완성, 세계적 완성, 천주적 완성, 하나님의 이상적 완성세계의 출발과 과정과 목적이 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그렇게 나오.

그러면 복잡다단한 문제 해결점을 이룬 참된 남자가 없었다 이거예요. 무슨 참된 남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절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남자가 못 되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자가 못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절대적인 남자와 절대적인 여자가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그 결혼은 이상적인 절대적인 출발의 기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여러분의 몸 마음의 싸움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평화를 바란다 해도 몸과 마음이 싸웁니다. 여기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그렇다구요. 그러니 싸움 바탕이에요. 몸 마음이 싸우지, 부처끼리 싸우지, 어머니 아버지가 전부 다 중간에 불화하지, 사회도 두 패로 갈라져 싸우는 거라구요. 전부 다 엉망진창이 되었으니 갈 길을 몰라요. 출발이 그릇되었으니 과정을 모르고 목적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걸 정리해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절대적인 남자, 절대적인 여자가 되어서 절대적인 사랑을 중심삼고 가정적 기틀 가운데 출발한다면 하나님이 출발한 원천적 기준을 중심삼고 하나님이 가는 방향과 목적과 자동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애는 성공리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바람과 소원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할 때 ‘아멘!’ 이런 결론이 나와요.

이러니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흠모한 남자 완성, 여자 완성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전통을 중심삼고 참된 부모가 되어 가지고 참된 부모의 자리를 천대 만대 계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뜻은 가정을 이루었으면 종족을 이루어 나가고 종족을 이루었으면 민족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로 말하게 되면, 문충재에 의해서 가정 기반은 닦았습니다. 참부모라는 가정을 닦았어요. 세계적인 전부 다 참부모를 중심삼고 360만쌍, 지금 생각하기에는 8월 중순까지 360만쌍 끝나게 되면 3천6백만쌍을 발표할 것이다 이거예요. 3천6백만쌍을 1년 이내에 완성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었다구요. 그 다음에 3억6천만 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로 넘어갈 거

예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가정이라는 문제를 중심삼고... 하나님 이 에덴동산에서 타락할 때 손을 못 댔습니다. 간섭 못 했어요. 왜? 핏줄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간부(姦夫)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야 될 해와, 하나님의 몸이 되어야 할 그 몸을 파괴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섭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의 상대를 빼앗아간 원수를 간섭할 수 있어요? 손 못 대는 거라구요. 핏줄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역사과정에 하나님이 직접 타락한 인간을 간섭 못 해요. 간섭하는 것은 형제지 관계에서... 형제권 내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천사장 같은, 사탄편에 해당하는 형제와 같은 그런 비준에 있는 하늘편 사람을 세워 가지고 그 사람을 중심삼고 전부 다 사탄세계를 뒤집어 박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핏박받고 매맞고 탕감해 나온다는 거예요. 사탄을 대한 전략전술은 맞고 빼앗아오는 전법을 쓰고 있다는 거라구요. 선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참아라, 참아라, 참는 자가 이긴다.’ 하지요?

사탄편의 전략 전술은 치고 빼앗기지만 선한 편은 거기에 손해배상까지 침부해 나오기 때문에 언제나 점점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상에 이상세계를 가려줄 수 있는 책임을 누가 하느냐 하면 사상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가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문총재라는 사람은 그런 종교 지도자로서 사상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문제에 해결을 제시한 문제의 사나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 안 댄 데가 없어요. 신문사만 하더라도 185개국에 신문사를 만들어요. 미국에도 50개 신문사, 남미에도 전부 다 신문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조사위원들도 수십만 명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무도인 협회까지 만들어 가지고 힘으로 어둠의 세계를 방어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계 평화의 기틀을 침범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천운이 보호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해요.

문씨는 제사장 책임을 해야

이런 장황한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내가 성이 뭐예요? 무슨 문씨예요? 남평(南平)이에요, 남평. 남쪽의 평지예요. 남쪽은 이상을 말합니다. 그렇다구요. 태양이 남쪽을 향하잖아요? 남쪽인데 평지니까 그건 지장이 없어요. 남쪽 나라에 평지를 이룰 수 있는 활동 무대, 자연 무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씨가 뭐예요? ‘글월 문(文)’자예요. ‘글월 문’자를 보게 된다면 말이에요. 요거 점(丶) 하나에다 이렇게 봐 가지고 제상(文)을 바치는 것과 딱 마찬가지로요.

그러니까 문 씨는 제사장 책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주(祭主)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제주?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는, 제물 드려 가지고 풀어 드리는 제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문씨의 그 본류적인, 주류적인 전통사상을 종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제안하느냐 하면 ‘나는 하늘땅의 역사에 없는 처음 나타난 대장 제주다.’라는 겁니다. 기분 좋아요, 나빠요? (박수) 한 씨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겠어요. ‘아이구, 한씨 종친은 뭐냐? 문씨 종친회 모였다고 뭐 문씨만 자랑하느냐?’ 아니예요. 한씨는 여자를 자랑해야 돼요.

타락을 누가 했느냐 하면 여자가 했어요. 전체 잘못된 것을 홀로 책임지고 문씨에게 지지 않고 상대적 입장에서 하나님을 여자가 슬프게 했던 것을 먼저 해방하는 넘버 원 여자다, 그 여자가 한씨다, 그게 한이 많아 한씨다 이거예요. 아, 정말이라구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한이 많아요? 7천년 역사 고독한 민족으로 자라왔다고요. 한 많은 한씨의 한을 풀어준 어머니라는 겁니다. 가정의 살림살이 한을 해산하고 해방

시켜 주어야 할 어머니 책임을 졌으니 그 아버지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아들딸을 낳아요. 어머니가 아들딸 낳는 것이 쉬워요? 남자는 아들딸 낳는다면 몇 주일도 못 가 사는 거예요. 어머니가 낳아 준 아들을 가지고 내 아들, 내 계대를 이은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게 뗄 수 없어요. 죽어도 뗄 수 없어요. 죽어도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부는 일신이다. 부부가 뭐예요? 일신이에요, 이신이에요? 「일신입니다.」 한 몸이다. 부자지 관계도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형제까지 일신이 돼요. 형제까지 일신이 되어야 된다고요.

오늘 여러분 종친들이 여기 모인 것은 부부 일신을 알았고 부자지 일신 알았더라도 형제 일신을 몰랐어요. 이 셋 가운데 구형이 되려면, 동서남북 입체를 그리려면 셋이 하나되어야 됩니다. 한 점에 정착해서 참사랑과 뿌리를 박아야 돼요. 여기서 부모의 뿌리, 그 다음엔 부부의 뿌리, 형제의 뿌리... 형제가 자라 가지고 부부가 되고 부부가 자라 가지고 전부 다 부모가 되는 것이니까 한 뿌리다 이거예요. 이게 영졌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한 뿌리다 이거예요, 한 뿌리.

그래서 부자지 관계는 일신입니다. 한번 해요. 부자 일신 해봐요. 「부자일신.」 부부이신, 일신? 나 잘 몰라요. 여러분이 나보다 더 잘 아니까 나는 ‘부부이신’ 하는데 당신들은 일신하니까 나보다 낫다 이거예요. 부부는? 「일신!」 일신. 형제는? 「일신!」 그거 알아야 돼요. 형제와 갈라질 수 없습니다. 같이 살아야 돼요. 언제나 갈라지면 마음에 빈자리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채우기 위해서 텔레비전이 나오는 거예요. 입력만 하면 형제들이 어떻게 사나 전부 다 언제든지 체크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다 볼 수 있어요. ‘다 이렇게 사누만.’ 전부 다 시공을 초월해 가지고 공감적인 사랑을 중심삼고 기쁨을 한 날에 한 시간에 즐길 수 있는 가정을 모시기 위한 세계 환경이 되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부모 때문에 그렇게 되어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참부모가 절대 필요하다

그래, 참부모가 필요해요? 「예.」 참부모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부모를 표준해 가지고, 참부모라는 표제를 중심삼고 참다운 아기를 길러 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인간의 바라는 소원은 참부모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도 참부모입니다. 우리 인간도 절대적인 사랑을 중심삼고 표제로 지어 나온 것이 참부모라는 것입니다. 참부모 한번 해봐요. 「참부모!」 참부모! 「참부모!」 참부모! 「참부모!」 이게 수 천 명이 혼자 사람만도 크지 않구만. 자, 마지막에 지겠나, 이기겠나? 지게되면 쌍 것들이라구. 쌍 것 되지 말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참부모 한번 해요. 참부모! 「참부모!」

하나님의 창조도 참부모를 표제로 지은 것입니다. 어린애가 태어났다는 것은 참부모를 찾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동참하는 자리예요. 하나님 부모를 모실 수 있는 자리가 참부모예요. 일체 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어린애의 소원이 뭐냐? 참부모 되는 것입니다. 참부모 되려니까 참아들딸이 되어야 돼요. 참형제가 되지 않으면 참부부가 안 되고, 참부부가 안 되면 참부모가 안 되는 거예요. 참부모가 없으면 참부부가 안돼요. 참형제가 없어서는 참부부가 안 돼요. 참형제가 없으면 참자녀가 못 돼요. 이걸 몰랐어요. 이걸 세뇌가 아니예요. 근본적인 천리를 중심삼고 비준 해 볼 때 여러분은 몇 각도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구요.

여기 어른들 말이에요. 전부 다 어른들을 세뇌해야 된다고요. 참다운 자녀시대를 못 가졌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참다운 참부모에 연결될 수 있는 근본적 어린 아기가 못 되었다 이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형제가 못 되었어요. 싸우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부부가 못 되었어요. 참부모가 못 되었으니 난 것이 한탄이고, 형제가 원수고, 부부가

원수고 부모가 원수예요. 그걸 똑똑히 알아야 되겠어요. 종장님들, 아시겠어요? (박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참부모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참부모가 되면 하나님하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동반 반열에 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기를 품게 되면, 하나님의 상대적 사랑의 파트너를 원하는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 앞에 입적할 수 있는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숙연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같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형제끼리 더 하나되어라 이거예요. 부부는 절대적 하나님의 몸 마음같이 하나되어라 이거예요. 하나님도 몸 마음이 갈라져 싸우겠어요? 어때요? 여러분은 절대적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한 몸 되었으니, 몸과 마음이 하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참사랑과 관계없습니다. 그거 이해했어요? 「예.」 이제가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충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배울 것이 많아요. 참다운 가정이 필요하면 참된 종족 편성, 참된 민족, 참된 나라, 참된 세계, 참된 지상·천상 천국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이 춤추고 가정에서부터 세계 어디 국가를 넘어 춤추며 내 세상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이루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것은 참부모 전통을 이어받지 않으면 안 돼요.

한씨 문씨가 통일된 기반 위에 참부모를 모셔야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문씨 종종, 한씨 종종 패거리가 두 패거리 되어 싸우고 휘적거리던 패들이 완전히 하나되어 가지고 그 중심인 문충재를 ‘한씨 문씨 통일된 기반 위에 참부모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 봐요. 손 들어요, 손. 손 들어. 전부 다 만세 할 때는 두

손 들듯이 상대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가 아니예요. 한 번 ‘환영합니다’ 하고 손 들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 사상 전수를 수천만 대 하는 민족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전반 전체를 상속받을 수 있는 대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류의 조상이 몇 개 조상이 생길 뻔했느냐 하면, 아담 해와에서 한 사람 조상 될 것인데 이게 타락했어요. 타락했다구요. 아담 대신 오신 분이 제2아담입니다, 제2아담. 가정에서 실패했으니 수습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수습할 수 없습니다. 세계적 가정을 갖고 있으니까, 나라에서 수습해야 돼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나라에서 수습해 온 것입니다. 나라를 수습하려면, 나라를 세우려면 말이에요. 예수님 와서 가정이 없으면 안 돼요. 가정을 찾기 위해서 준비해서 온 것이 전부 다 이스라엘나라 백성인데 그걸 몰랐어요. 이스라엘나라와 유대교가 가인 아벨이에요. 요거 시간이 있으면 좋을 텐데, 전부 다 풀어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반드시 주체와 대상, 광물세계도 전부 다 분자를 보면 주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물세계도 수술 암술, 동물세계도 수놈 암놈, 인간 세계는 남자 여자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가 없으면, 상대가 없으면 없어져요. 없어진다구. 여기 회장님도 지금 혼자이기 때문에 걱정이지. 외롭지요? 아무리 무슨 회장이 되어 있더라도 옛날에 여편네하고 둘이 전부 다 밥을 굶더라도 그 시간이 좋지, 암만 혼자 진수성찬을 해 가지고 춤을 추는 자리에서도 불행하다구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중장님하고는 처음 보는 사돈님들이지요. 내가 한씨 앞에는 사윗감, 사위가 돼요. 비싸게 사우, 싸게 사우? 그런 말도 통해요. 비싸도 하늘 땅도 못 사리 만큼 비싼 그 사우가 문충재더라! 아멘! 한씨들만 아멘 해봐요. 한씨들, 아멘! 「아멘!」 이거 전부 한씨인가?

자, 이제 이만 했으면 말이에요, 정지작업이 다 정지됐으니 씨를 뿌려서 심을 만해요. 여러분, 제1차 아담, 해봐요. 제1차 조상이에요. 우리 인류의 조상이 아담 해와인데, 이름은 아무래도 좋아요. 1차 조상을 아담이라고 그래요. 실패했으니 이것을 구하기 위해 왔으면 제2차 아담이 되는데, 또 실패했으니 제3차 아담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1차 아담은 가정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국가적 기준의 이스라엘나라에 2차 아담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예요. 구세주예요, 구세주. 이걸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통하는 거예요. 원리원칙이에요. 이걸 몰랐어요. 새로이 문씨, 한씨 종족들은 이걸 절대 믿어야 돼요.

그래, 오시는 주님, 기독교에서 오는 주님은 뭐냐? 몇 차예요? 3차 아담입니다. 가정 아담에서 실패해서 국가 아담이 구하려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가정을 못 가지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장가가서 씨앗을 남겼으면 2천년 동안에 오늘날 기독교를 봐도 죽은 예수가 세상을 통일했는데 그 후손 가지고 세계를 요리한지 오래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패했으니, 재림주는 제3차 아담으로 와요. 3차는 무엇을 해야 하나냐 하면 첫째 조상 실패를 깨끗이 정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조상 제2 아담 예수가 실패한 것을 깨끗이 정리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책임 못 했어요. 전부 다 구교 신교가 싸워요. 하나되어야 할 텐데 싸운다구요. 형제가 못 되었어요. 그런 문제를 중심삼고 전부 다 해결해 가지고 세계적 문제를 전부 다 수습해야 된다구요. 공산당까지 전부 다...

공산당은 선생님 손에 전부 다 녹아난 거라구요. 민주세계도 나 아니면 갈 길을 몰라요. 그들의 갈 길까지 주도할 수 있는 판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잘났더라도 나를 부정할 수 없어요. '노(No)'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예스(Yes)' 하게 되어 있지. 미국이 절대 나를 필요로 한다구. 그런 거 다 몰랐지요. 먹고 잠자고 말이에요. 고향 떠난 문총재가 참부모 되기 위해서 40년 별의별 고생 할 때 이걸 모르니까 살다보니 이렇게 되었다 이거예요. 몰라서 그랬지만 이제

는 알았다구요. 모르던 것을 탐감복귀하기 위해서는 10배 이상 모든 걸 앞장서서 때려 몰더라도 불평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불평을 해야 되겠어요, 불평을 안 해야 되겠어요? 답변하라구. 불평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예, 내놓고 하자구요. 불평해야 되겠어요, 따라가야 되겠어요?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면 망해요, 망해. 망한다구. 다 망한다구요. 통일교회 전부 다 망한다는데 따라와 가지고 다 승리했다고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내가 종장이라는 사람이, 원맨쇼라는 거 알아요, 원맨쇼? 가만둬 두면 다 망할까 봐 할 수 없이 아는 사람이 이런 놀음해야 돼요. 방망이질도 하고 전부 다 땀 때는 때우고 께땀 때는 께메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으니 이런 놀음한다구요. 이거 원고만 해 가지고 연설만 하면 다 끝나잖아요.

참부모가 되자

참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부부는 참부모 되겠다, 참부모 한번 해봐요. 참부모! 「참부모!」 참부모! 「참부모!」 참부모! 「참부모!」, 왕 참부모가 누구냐면 문총재 부부예요. 여러분은 황족 참부모가 돼야 돼요. 하늘 나라의 황족 편성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 나라의 국가 편성과 세계 편성이 되어 나갑니다. 이런 걸 전부 다 알아야 아무리 태풍이 불고 벼락을 치더라도 고독 단신으로 세상이 아무래도 내 갈 길을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산이 있으면 날아가고 바다가 있으면 비약해서 전부 다 도약하고 다 이래 가지고 다 넘을 수 있는 거라구요.

그래, 문총재 가는 길에는 이제 핏박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개인, 50억 인류가 문총재를 반대했어요. 그러나 누가 이겼느냐 하면 문총재가 이겼지 50억 인류가 이기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50억 인류 가정

들이, 전세계 가정이 날 반대했어요. 나를 대해서 ‘저 문총재는 여편네 도적놈, 아들딸 도적놈!’ 한 거예요. 남자는 뭐냐 하면 천사장이예요. 진짜 도적놈이 남자예요. 역사를 보면 그렇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라는 동물은 여자의 눈물, 피눈물을 흘리게 해 나온 거라구요. 사랑을 유린하고 바람을 다 피웠어요. 바람 안 피운 사람이 있어요? 유명할수록 바람잡이라구요. 여자를 발톱서부터 머리털 끝까지 울려 왔다는 거예요. 그 한을 풀어줄 사람이 누구냐? 문총재가 나와서 풀어줘야 된다고요. 여자들, 알겠어요?

그래, 문총재가 뭐냐 하면 여자 대장입니다. 그거 왜 그러냐 하는 걸 설명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여자들은 문총재를 나빠하면 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양 가나 일본 가나 어디를 가나 오색인종 부인들을 만나면 다 나를 따라가려고 하지 자기들 남편 따라가고 자기 선생들 따라가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구요. 그게 위대한 문총재의 힘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여자들을 제일 좋아해 가지고 어린 아기로 키우고 훌륭한 동생으로 키우고 훌륭한 아내 만들고 훌륭한 어머니를 만들어 주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거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여기 어른들? 바람 못 피웁니다. 바람피우면 집게로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좋아요? 여자들, 만세하라구요. 여자 만세하라구.

여자의 소원성취가 뭐냐? 하늘땅에 직통할 수 있는 훌륭한 남편을 모실 수 있는 한날이 행복한 날이라는 걸 여자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 문총재로 말미암아 그런 세상이 되니만큼, 여자해방 시대가 오기 때문에 지금 전세계적으로 여자들이 앞장서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도 3분의 2가 여자가 된다고요. 대통령도 3분의 2가 대통령 돼요. 두고보라구요. 그런가, 안 그런가 두고보라구요. 안 그러면 문총재가 거짓말한 것이 돼요. 그것이 뭐 예언이 아니예요.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구요.

그런 걸 다 알려면...; 내가 광정환을 40년 동안 ‘이놈의 자식!’ 하고 때리고 옆으로 차 버리고 쫓아버려도 저 뒤에 담 넘어 가지고 또 따라 온다구요. 그래 가지고 전부 보따리 크게 싸 가지고 잘 부러먹고 잘 팔아먹더라구요. 이거 시골뜨기가 말이에요. 무슨 변호사고 무슨 고시인지 시보(試補)인지 모르겠구만. 그거 되겠다고 공부하다가 통일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어머니 일족 전부 반대해서 ‘이놈의 자식! 후레아들났다.’고 야단했는데, 요즘에는 문중에서 종족적, 국가적 메시아로 모셔 가지고 ‘우리 광정환이 훌륭하구만. 문선생보다 더 훌륭하다.’고 그러더라구요. 앉으라구.

그만했으면 많이 가까워졌지요? 「예.」 나는 입이 걸어서 욕을 잘해요. 뭐 세상의 난다긴다하는 대통령들도 모아 놓고서 ‘이놈의 영감들, 뭘 해 먹었어? 전부 다 수십 년 동안 나라 팔아먹고 도적놈 새끼 되어 가지고 예금통장 미국에 갖다뒀어, 안 뒀어? 손 들어 봐!’ 그러니까 솔직해서 손 다 들더라구요. ‘그 돈 나한테 줘. 너희 나라 살려줄게.’ 그런 놀음을 하더라도 그들이 전부 다 이제는... 그마만큼 유명하다구요. 대통령을 불러다 욕을 하더라도 ‘저 양반은 그럴 수 있는 실적이 있지!’ 하고 천하에 자기보다 몇십 배, 몇천 배 크다고 생각할 때는 다 말 들을 수 있는 거라구요. 그럴 수 있는 시대에 왔다구요.

이런 좋은 세계 판국이 벌어졌는데 이거 못난 문씨, 한씨들 시골뜨기 데려다가 그 이상의 선생을 만들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해요? 답답해요, 기분이 시원해요?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아이구, 이거... 그렇게 알고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한 코에 꿰어서 동으로 가라 하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라 하면 서로 가고,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내려가라면 내려가고, 뱅뱅 돌라면 돌 수 있는 이런 놀음을 종장들로부터 에미 애비로부터 시켜 가지고 세계에 날고 길 수 있는 이런 사나이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세계 지도자로서 출세를 시켜 주겠다 하는데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싫다면 싫다고 똑똑히 애

기하랴구요. 기성교회 장로 없어요? 싫어요, 좋아요? 없구만. 있으면서도 할 수 없이 대답해야지. 할 수 없이 대답했더라도 실천해야 된다고요.

문씨 한씨 종친 섭리사적 결성대회

참부모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참부모 되기 위해서는 참된 부부가 되어야 되고, 참된 부부가 되려면 참된 형제가 되어야 되고, 참된 형제가 되려면 참된 어린애가 되어야 돼요. 참부모의 표준을 바라보고 가야 하나님 앞에 대등한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높고 싶은 욕심을 다 갖고 있지요? 그것이 만민이 전부 다 성사시킬 수 있는 하늘이 부여한 자연적인, 본성적인 특권이었습니다. 이걸 잃어버렸다구요.

제1차 아담, 제2차 아담이 실패했으니 제3차 아담이 와 가지고 1차 아담이 잘못된 것을 깨끗이 정리해 놓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 가정에서부터 지금까지 50억 인류를 번성시켜 수많은 나라, 수많은 세계 판도가 생겨났지만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타락해서 전부 담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담을 다 헐어 버렸어요. 문총재 혼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싸우고 만민과 싸워 가지고 이제는 다 지나갔습니다.

폭풍우가 불어오고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혹독한 겨울 시련기는 지나고 이 4월과 같이 모든 만물이 희생해 가지고 꽃이 만발할 수 있는 봄절기를 맞을 수 있는 꽃 절기가 통일교회에 왔기 때문에 고향 찾아오고 문증을 찾아와 전부 다 한씨 문중, 문씨 문증을 모셔 가지고 잔치놀이, 꽃놀이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행복의 그 전통을 만민 앞에 역사적 재료로 남겨주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크게 불러봐요. 문씨 한씨 종친 뭐예요? 섭리사적 결성대회! 섭리사적 결성대회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섭리 앞에 모든 것이 하나로써 결의하고 나서기를 선포하는 식이 오늘의 대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모르더라도 '아멘' 해봐요. 「아멘.」 복받아요, 복받아요. 아멘. 「아멘.」 기독교라고 아멘 하는 것이 소원성취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되어서다 그거예요.

그래, 문총재 말씀대로 되어서이다 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되게 되면 한국이 통일됩니다. 남북이 통일돼요. 북한에도 한씨가 있고 문씨가 있지요? 이것은 자동적으로 하나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한씨 문씨를 중심삼고 며느리 친척이 있지요? 그것도 종친이에요, 종친. 며느리 중심삼고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한 피가 되어 있다구요. 한 집안이에요. 이걸 몰랐습니다. 사돈 만나기를 제일 거북해 하지? 사돈 만나기를 제일 좋아해야 된다고요. 비밀을 다 털어 놓고 의논해야 될 텐데 그렇게 못 되었어요. 전부 다 갈라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하나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류예요. 대한민국의 주류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전부 다 지류를 중심삼고 대한민국 전부가 끌려나가는 거예요. 여기 이의원! 국회의원 해먹겠다고 생각하지 말라구, 도적놈같이. 국회의원 하기 전에 나라를 살려야 돼요. 나라 살려야 돼요, 나라. 국회의원들은 전부 도적놈들이예요. 그 욕을 해도 얼굴이 넓적해 비위가 좋으니까 웃잖아요. 기억해 두고 이번에도 국회의원 정 해먹겠다고 한 번 투표해 보라구. 잘 되나 못 되나 한 번 시험하기 위해서 투표하겠으면 하라고요.

참부모의 길과 참사랑의 길을 잘 알아야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느냐 할 때 참부모의 길, 참사랑의 길, 이 길밖에 없어요. 종착점의 결론은 뭐냐 하면 참부모의 길을 잘 알아

야 되고 참사랑의 길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부모의 길과 참사랑의 길을 누가 가리느냐? 참부모 되시는, 뿌리 되시는 부모가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대해서는 조상이 잘못된 것을, 어머니 대해서는 사랑의 길을 잘못 간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해외가 타락했다구요.

참아버지의 길과 참어머니의 길, 참부모의 길과 참사랑의 길을 오늘 전부 다 말씀할 때 잘 들어요. 이것은 천번 만번 백번 외워야 됩니다. 여기 들은 사람들도 있을 거라구요. 아니예요. 하루의 설교 말이 아니예요. 지나가는 대행사의 집회의 말이 아니라구요. 이것은 전부 다 가보로 내 가지고 자자손손 천년 만년 교육할 재료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통일교회에서는 성약성서라 하는, 성약성경의 원본의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설교 말씀은 하루에 지나가지만 천년 만년 이걸 해야 교육의 재본(材本)이 되어 가지고 전문가가 된다고요. 되풀이해야 돼요. 되풀이하고 되풀이해야 전부 다 기억하지, 이걸 몰라 가지고는 세상에서 타락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다 나이만큼, 이걸 전부 다 자기 나이 이상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나이 3배 이상을 술술 자면서 꿈에서 외울 수 있게끔 해야 사탄들이, 악마가 와 접근 못 합니다.

천운이 와 보호합니다. 문총재는 천운이 보호하기 때문에 죽을 사지를 헤치고 살아나 가지고 이렇게 세계 최고가 된 거라구요. 이제 나 위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천하가 다 공인하는 거예요. 그러한 종종 가운데 장(長)으로 모실 수 있는 것이 자랑이요, 뭐요? 큰소리로 하라구요. 자랑이에요? 한씨는 어때요? 「자랑입니다.」 그 자랑하는 두 성씨가 하나되었으니 기분 좋은 참부모가 자랑하는 날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할 거라구요. (박수)

왕궁도 참부모, 초가집도 참부모, 하늘 나라도 참부모예요. 하나님 참부모인 동시에 그 나라의 직계 후손들이 정상적인 참부모가 되는 거

예요. 참부모는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고 황족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전통적 길이다 하는 걸 아시고 이제 지금 말씀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는 걸 아시고 귀담아 들어주길 바래요. 저 뒤에서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립니다.」 고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앉았구만. 내가 종장 되고 전부 다 사위, 비싸서 산 사위 되었으니까 한씨 문중도 귀를 쫓긋하고, 보이지는 않지만 ‘저기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귀를 크게 해 가지고 잘 들어야 되겠다구요. 자, 시작하자구요. 이제 본격적인 연설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섭리를 어떻게 하느냐

자, 『존경하는 내외귀빈, 고명하신 신사 숙녀 여러분! 종친회 여러분!』 들어가요. 여기 출판한 책에는 말이에요. 조금 내려가서 이제 나와요. 요건 여기서 내용을 첨부해서 집어넣었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위에 가 요기 한 장 반만 넘어가면 돼요.

『오늘날 역사적 대변혁 시대를 맞이하여 문충재와 여러분이 상봉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은 문충재가 가르치는 하나님주의와 두익사상의 내용을 확실히 알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주의와 두익사상을 모르면 하나님을 받들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은 전국을 대표하여 각지에서 오신 문씨, 한씨 종친들 대표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세계기독교 통합과...』 세계기독교를 통합해야 돼요. 지금 현재 남북미에 그걸 하고 있습니다. 『평화세계 달성을 위하여 세계평화가정연합을 중심삼고 세계평화종친연합이 생겨나야 됩니다.』 지금 세계평화종친회라는 말은 없습니다. 지금 출발이에요. 한씨, 문씨가 종친연합을 중심삼고

세계의 종친들을 규합해 줘야 된다구요.

『그 기반 위에 세계 국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게 세계평화종친 연합과 세계평화국가연합을 창건하려는 것입니다.』 종친연합 위에 국가연합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문씨, 한씨가 얼마만큼 강력한 연합을 창설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미래에 얼마만큼 강력한 나라가 건국되느냐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가정 파탄과 청소년들의 윤락을, 망해 가는 타락권으로부터 구해내야 합니다.』 누가? 종친들과 통일교회 축복가정들이 합해 가지고 해야 돼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타락권으로부터 구해내야 합니다. 그 기반 위에서 세계평화가정연합의 목적인 평화세계, 통일세계를 창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반이 없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거대한 목적을 위하여 본인은 이미 1996년 8월 1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세계평화가정연합을 창설하였으며 세계 각국에 그 지부를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세계평화가정연합 종친회원연합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따사로운 봄 기운이 대지를 감싸고 천하만물은 여기에 화답하듯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향해 약동하는 찬란한 이 봄에 21세기를 눈앞에 둔 우리는 다시 한 번 삶의 이정표를 정립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안 돼 있어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때에 본인은 오늘 각계의 고명하신 종친 지도자 여러분과 더불어 인간 생명의 요람이요, 평화세계의 초석이 될 참가정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모임이 미래에 건전한 가정과 평화세계를 이루는 귀중한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인류 역사는 2000년대를 향한 대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서 오늘 구원섭리사의 원리관,』 하 나님의 구원섭리에 대한 모든 때 대한 원리원칙으로 보는 그런 관이에

요. 사상관, 방향과 모든 환경을 꿰뚫어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것을 관이라고 해요. 구원섭리사의 원리관, 하나님이 구원섭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대조해 가지고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구원섭리사의 원리관으로 새 시대의 참가정을 준비해야

『구원섭리사의 원리관을 주제로 새 시대의 참가정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지고자 합니다.』 그래, 이런 때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며 유일·불변·영원하신 분입니다. 그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자니까, 불변하니까 그의 뜻도 그렇다는 거예요.

『만일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체가 되었다면 만사는 완전, 완성인 것입니다.』 완전한 것을 맞추어야 완전한 건물이 되는 거예요. 문짝이나 모든 부문이 완전한 것이 돼야 완성이 되는 거라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출발과,』 하나님이 출발한 것을 몰라요. 출발이 미분명해요. 기독교도 출발을 모릅니다. 불교도 출발을 몰라요. 모르니까 방향이 틀리고 목적이 같지 못하고 전부 다 끝날에는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출발과 목적과 과정, 그리고 그 원인과 결과 방향도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런 절대적인 원인, 절대적인 방향, 절대적인 과정, 절대적인 목적, 결과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조상 아담 해와는 무지에서 타락하여 혼돈에 빠졌습니다. 개인적 무지와 혼돈에서 가정으로, 그리고 국가와 세계적 무지와 혼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타락권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 종교와 구원섭리의 노력인 것입니다.』 이걸 벗어나기 위한 것이 종교와 하나님의 수고한 것입니다.

『끝날에는 메시아가 와서』 끝날에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참부모가 오신다는 거예요, 세계의 참부모. 『끝날에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편에서 보는 절대·유일·불변·영원한 원인과 방향과 결과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어, 무지와 혼돈의 세계를 청산하여,』 이걸 다 쓸어 버려야 돼요. 악마의 더럽힌 핏줄에 연결된 것을 쓸어 버려야 돼요.

『청산하여 본연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 뜻이 완성,』 돌아가야 돼요. 죽으면 돌아갔다고 하지요? 잘못 돌아갔습니다. 『뜻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끝날에 모든 종교도 주의도 사상도 국가도 다 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도, 소련도, 대한민국, 일본, 어느 선진국가도 앞으로 갈 날을 몰라요.

『다 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인 것입니다.』 오늘 세계는 다 혼란시대예요. 종교도 갈 길이 없고 국가도 갈 길이 없고 개인, 가정, 종족,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개인이나 모든 무슨 전체 세계적 단체가 다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거 다 갈 길을 모르다가 와중에 혼돈이 벌어져서 자체에서 전부 다 쓰러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창조주와 인간과의 참사랑을 중심삼고 완전 완성될 참가정을 바라는 하나님을 인간과 일체 될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시조에게 주실 계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계명이 뭐냐 하면, 사랑의 가정, 사랑의 전체, 제일 귀한 것을 상속해 주겠다는 그 약속의 조건이 계명이다 이거예요.

『인간이 성장과정을 거쳐 자라 올라가는 미완성 단계가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자녀에게 인간에게 가장 귀한 참사랑과 가정을 상속해 주시려는 조건이 계명이었습니다.』 참사랑과 참가정을 상속해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계명입니다. 쫓아 버렸지요? 선악과가 뭔지도 모르고 있지만, 그걸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넘어가자구요. 다음에 자기 나이 이상 읽다가 궁금하거든 그 지방에 있는 통일교회

책임자를 찾아가면 잘 설명해 줄 거예요.

절대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가정, 인간에게 가장 귀한 참사랑과 가정을 상속해 주시려는 조건이 계명이었습니다.』 계명이 타락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 참사랑은 경험을 통해서 얻고 체휼을 통해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요? 마찬가지로요. 『참사랑은 말이나 글, 혹은 일반 교육을 통해서 체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생활을 통해서만 완전히 체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교회를 믿어보지 않고는 절대사랑을 몰라요. 들어와서 믿어보니 절대사랑이 무엇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라구요. 가는 길을 받을 붙이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구요. 『뒤로 돌아!』 틀리게 되면 그런 걸 느껴요. 그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걸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아기로 지음 받은 아담 해와는 장성하면서 단계적으로 생활을 통해서 경험함으로써 참된 자녀의 심정, 아들딸의 어린 아기 심정, 참된 형제의 심정,』 아시겠어요? 참부모까지 그래야 된다고요. 『참된 부부의 심정, 참된 부모의 심정을 체휼함으로써 완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전체적으로 체득할 때 비로소 창조목적은 완성한 이상적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장할 수 있는 인간이 된다 이거예요. 창조목적이에요, 창조목적. 참사랑이에요.

『사람은 자기의 사랑하는 상대가 자기보다 몇천만 배, 아니 무한대의 가치적 존재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당신의 사랑하는 상대인 인간이 무한한 가치적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완성하면 신성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함같이 온

전하여 하나님적 가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자이시지만 참사랑의 이상은 혼자서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 이상은 반드시 상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참사랑과 인간의 참사랑의 출발과 완성이 서로 어떠한 관련을 갖는 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참사랑의 절대적인 대상체로 인간을 세우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 당신이 참사랑의 출발과 완성을 이루려고 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큼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참사랑 이상은 각각 경계가 다른 거예요. 두 사람의 방향과 목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상은 인간보다 상위에 또 다른 사랑의 대상을 세워서 이루어야 하며, 한편으로 인간의 사랑이상은 하나님과 직접적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되고 맙니다.

참사랑의 주체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참사랑의 상대자로 인간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상은 인간을 통하여서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이에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사랑에서 해방 못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효자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심정세계의 해방, 왕은 충신, 성인은 앞으로 세계의 대통령, 하나님도 성자가 전부 다 효자의 도리로서 사랑의 대상자의 모든 것을 이루어야만 하나님도 해방받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목적은 신인애 일체의 절대적인 사랑이상 세계

『하나님의 사랑이상은 인간을 통해서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파트너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없으면 큰일나지요. 『하나님의 창조목적은 신인애(神人愛) 일체의 절대적인 사랑이상 세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 최선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 받았습시다.』 이렇

게 고귀해요. 『그런고로 인간은 만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실체를 입은 대상입니다. 무형의 하나님 앞에 보이는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몸이 하나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뚱이가 되어야 하는데 타락했으니 이 꼴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과 몸이 싸웁니다. 타락하지 않았으면 몸 마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될 것인데, 참사랑으로 하나될 수 있는 그 궤도에서 탈선이 되어 싸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이런 말도 또 처음 듣지요.

『인간은 완성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자유롭게, 또 평안하게 언제나 들어와서 거할 수 있는 유형의 실체입니다.』 집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거할 수 있는 집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참사랑의 전체적인 이상은 인간을 통하여 부모와 자식의 종적인 관계로 실현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몸으로 아담을 먼저 지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체를 쓴 하나님 자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와 하나되어 그 혈통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이 되는 거예요.

『그 아담의 상대자로 해와를 지으셔서 횡적인 사랑, 즉 부부사랑의 이상을 완성하고자 했습니다. 해와는 하나님의 딸인 동시에 하나님의 횡적인 사랑이상을 실체로 완성할 신부이기도 합니다.』 타락 안 했으면 하나님이 들어와서 전부 다 결혼식을 치르는 거예요. 횡적인 부모의 결혼식인 동시에 종적인 하나님의 결혼식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둘이 하나되는 거예요. 종횡이 하나되는 거예요.

『아담 해와가 완성하여 하나님의 축복 하에 결혼을 하고 첫사랑을 맺는 그 자리는 곧 하나님이 실체의 신부를 맞는 자리인 것입니다. 아담 해와의 신부 사랑이상이 횡적으로 결실되는 그 자리에 절대적 사랑이상이 종적으로 임재,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참사랑과 인간의 참사랑이 한 점에서 종횡의 기점을 중심삼고 출발하여 한 점에서 결실 완성되게 되는 것이 이상적 가정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필연이었습니다. 목적 없는 창조는 가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창조가 필요하셨던 이유는 단 하나, 참사랑의 이상이었습니다.』 창조한 모든 전체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완성하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얘기는 다 알아야 됩니다.

『가장 간단하고 저급한 피조물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각각 주체와 대상, 양성과 음성의 쌍쌍으로 전개하신 이유도 사랑이상 아래 상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창조물의 사랑이상과 하나님의 궁극적 사랑이상이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과 인간이 절대적으로 하나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예요. 인간이 바라는 최고의 사랑이 하나님이 바라는 최고의 사랑이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걸 잃어버렸어요. 타락하여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막혀 버렸어요. 수도 파이프에, 전부 다 본 파이프에 연결되어 있는데 막혀 버렸다 이 거예요. 수도물이 안 흐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 세계의 남자와 여자의 사랑 완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절대사랑이 완성되도록 하신 것이 창조의 법도입니다.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누가 변경할 수 없어요. 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태초에 인간을 아담 해와, 1남 1녀로 창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남 2녀가 아니고 1녀 2남이 아니예요. 그건 지옥행 직행이라구요. 폐품,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목적인 아담 해와가 참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어 참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참사랑과 하나된 참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참사랑 속에서 아들딸을 갖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참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참부모예요. 참부모 알지요?

『아담 해와가 참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실체를 입은 소망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참된 부부로 완성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상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아담 해와 선한 자녀를 가져 참부모가 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영존의 부모, 모든 사람들의 부모이신 것을 실제적으로 확정짓고, 또 하나님이 인간 혈대를 통하여 자자손손 번성함으로써 천상천국의 시민을 무한으로 두시고 싶으신 이상을 성취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아담 해와의 아들딸, 하나님의 혈족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할 말이 많지만 시간이 없어요.

타락으로 혈통이 달라졌다

『그런데 인간 시조 아담 해와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날 때 그들은 자녀를 거느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낸 아담 해와를 에덴 바깥까지 찾아가서 축복하고 결혼식을 해 주셨을 리는 만무합니다. 전 인류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없이 번식한 쫓겨난 조상의 후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문씨, 한씨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없이 쫓겨난 조상의 후손인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복귀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장하신 중친 귀빈 회원 여러분, 인류의 타락이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결과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엉터리 말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담 해와의 타락은 하나님의 참사랑 이상을 저버린 불륜의 범죄였습니다. 지켜야 할 계명이 필요했던 타락 전 아담 해와는 미완성 단계, 즉 성장기간에서 타락했습니다.』 완성했으면, 심어서 열매가 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과정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리 씨앗을 심어도 하늘이 거둘 수 있는 사랑의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폐품 들밖에 못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뱀으로 표시된 천사장의 유인을 받고 해와가 영적으로 타락했고, 그 해와가 아담을 유인하여 때 아닌 때에 선악을 따먹은 육적인 타락

을 한 것입니다.』 선악과가 무엇인 줄 알아요? 여자의 그것을 말해요. 여자의 그것. 선한 남편을 맞으면 선한 열매를 맺고, 마피아하고 하게 되면 마피아 새끼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아들딸을 낳아야 할 텐데 악마의 악한 아들딸들을 낳은 거라구요. 그것이 뭐예요? 해와의 그것이라구요.

뭐 선악과가 열매예요? 핏줄이 잘못되었어요, 핏줄이. 열매를 따먹으면 전부 다 하루면 다 소화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피를 뽑아야 돼요. 사탄의 핏줄이 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이것을 전부 제거시키기 위해서 온유 겸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교만하니 온유 겸손하라 이거예요. 희생 봉사하라! 사탄은 탈취예요. 강도, 전부 다 탈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 봉사하라, 그 다음엔 전부 다 제물 되라, 피를 흘려라, 순교하라는 것입니다. 정반대라는 거예요. 피를 뽑아 버려야 돼요.

그런 것을 알게 될 때, 타락이 음란으로 타락했다, 혈통이 달라졌다는 것을 비로소 아는 거예요. 혈통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이웃동네에 자기가 사랑해서 결혼하겠다고 마음으로 그리던 것이 시집가 버리면 손 댈 수 있어요?

『뱀으로 표시된 천사장의 유혹을 받고 해와가 영적으로 타락했고 그 해와가 아담을 유인하여 때 아닌 때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육적인 타락을 하고 만 것입니다.』 영육의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없어요. 『본연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쁘게 뛰놀며 살던 아담 해와가 사망을 무릅쓰기까지 저지를 수 있는 가능한 범죄는 잘못된 사랑의 범죄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세계도 그렇지요? 마음대로 하는 처녀 총각이 말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타락한 세계도 그런데 본연의 세계도 마찬가지로요.

에덴동산에 남자가 얼마나 있었느냐 하면 말이에요. 하나님도 남자지요, 아버지니까? 하나님 남자, 그 다음엔 아담 남자, 세 천사장 남자

예요. 다섯 명 남자 앞에 여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아내가 되고 미래의 인류의 하나님의 혈통의 조상이 될 수 있는데, 계명은 뭘 위한 것이냐? 여자 앞에 그걸 지키라고 말한 거예요. 계명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가 어디 있었어요? 기독교 사람 믿지 말라구.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영계를 들춰보고 다 알아보니깐 그거 믿는 사람은 전부 지옥 가요. 부모 앞에 배반한 자리에 가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어영부영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당하다구요. 실험을 천만 번 하 고도 틀림없기 때문에 이런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거 발표해 가지고 무슨 이익이 돼요? 꺾박받을 것이 뻔하고 전세계 기독교와 전세계 종교가 들어서 싸울 게 뻔한데 말이에요. 싸우더라도 그걸 청산해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영적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의 핏줄을 받은 것이 실제적으로 악마의 몸뚱이가 되어 가지고 아들을 낳아 버렸다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 된 특권

『본연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쁘게 뛰놀며 살던 아담 해와가 사망을 무릅쓰기까지 저지를 수 있는 가능한 범죄는 잘못된 사랑의 범죄밖에 없습니다.』 이걸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인류 조상의 첫 사랑의 결합은 하나님 자신의 사랑의 완성이기도 함으로 마땅히 하나님도 아담 해와도 환희와 축복 속에 취하는 행복한 잔치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그래요? 결혼식 한지 일주일도 안 되어 가지고 보따리 싸 가지고 이혼하는 거라구요. 똥개새끼들도 그런 놀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혈통이 인간세계에서 시원(始原)을 이루면서 정착하는 행복한 의식이어야 합니다.』 결혼식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영계나 육계나 모두 통틀어 만민도 환영하는 자리에서 거룩히 천지의 합덕을 이루고, 모든 존재물이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거룩한 의식으로서 맞이해야 할 그 결혼식이었다 이겁니다. 그럴 거 아니예요? 하나님을 모신 자리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체를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 불안에 떨었습니다. 천도를 거역하는 거짓사랑, 거짓 생명, 거짓혈통의 근원을 만든 불륜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아담 해와의 후손인 전 인류는 자자손손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게 됩니다.』 원죄가 생겨요. 핏줄이 다르니까 원죄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계 핏줄에 왜 원죄가 있느냐 이거예요. 타락의 결과라구요. 이걸 벗어나야 돼요.

『인류가 개체 속에 마음과 몸의 상충, 모순이 있게 됨은 타락에 근원 했고 사랑의 질서가 문란한 사회 속에 본심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감도 모두 여기에 연유했습니다. 사랑의 이상을 중심삼고 볼 때, 동식물 세계에서는 그 사랑의 관계가 모두 번식을 전제로 하여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인간만은 그 예외입니다. 인간은 부부사랑의 관계에 자유를 누립니다. 그것이 만물의 영장 된 특권입니다.』

모든 동물이나 그 가외의 모든 전체는 번식을 위해서 봄에 한번밖에 사랑을 못 해요. 인간은 24계절, 24절기, 춘하추동 사계절을 전부 다 극복한다는 거예요. 첫 번 그러면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준 절대적인 특권이예요. 하나님이 즐길 수 있는 사랑의 터전을 악마가 하늘의 기쁨을 파괴시키는 행동으로 전개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시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만은 그 예외입니다. 인간은 부부사랑의 관계에 자유를 누립니다. 이것이 만물의 영장 된 특권입니다.』 만물의 영장 되는 특권! 한번 해봐요. 「만물의 영장 된 특권!」 사랑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특권이 아닙니다. 도적놈들이라구요, 사랑의 도적놈

들. 어디가 숨을 데가 있어요? 뭘 그렇게 쑥덕쑥덕 거려요? 잘못했으면 그렇다고 고개를 숙이고 회개할 줄 알아야지. 그래 가지고 전부 다 변명하겠다고, 잊어버리자고 그러지요. 사실이 그래요. 전부다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구만.

『하나님은 아들딸인 인간이 무한한 사랑의 기쁨을 갖도록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보라구요. 매미 같은 것도 말이예요. 7년 물가에서 살다 나와 일주일 만나 가지고 쌍을 이루고 죽어요. 하루살이는 8년 동안 자라 가지고 공중에서 결혼식 하고 죽어요. 이렇게 귀한 거예요. 만물이 합덕하는 것은 천지의 생명권을 초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야단이에요? 내가 선생님 아니예요? 이 시간은 내 말 들어야 돼요. 조용히 하라구요. 다 마찬가지로예요. 여기 말하는 사람은 더 힘들다구요. 땀이 나고 다 그래요.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는 선생이 참된 선생이에요. 놀기를 좋아하고, 가외 시간을 주는 선생이 좋은 선생이에요? 나쁜 선생이에요. 한시간, 한 순간이라도 학생들이 똥싸 뭉개더라도 가르쳐 주는 선생이 참된 선생이에요. 알겠어요? 마찬가지로예요. 앉아요. 이러니까 나라를 팔아먹고 제멋대로하지요. 종족을 팔아먹고 말이예요. 욕 잘한다고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각오가 있어야지요.

세 가지의 책임성

『하나님이 허락한 참된 자유는 책임성을 전제로 합니다. 만일 책임성이 없이 개개인이 사랑의 자유만 주창하고 실천한다면 얼마나 큰 혼란과 파국이 오겠습니까? 지고한 사랑이상을 이룰 인간의 완성은 사랑에 대한 책임성을 지닐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책임성은 다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사랑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기 수양, 자기 관장으로 자유와 참사랑의 주인이 되는 것이 그 책임입니다.』 참사랑의 주인이 됐어요? 절대적 남자, 절대적 아내가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내 대신 부부 사랑을 해도 좋다 할 수 있는, 공인 받을 수 있는 사랑의 주인이 됐느냐 말이에요. 하나도 없더군요. 그러니까 교육을 단단히 받아야 됩니다. 잘났든 못났든 꼬끝을 꿰어다가도 만난 청청(靑靑)한 소나무에 매달아 가지고 기합을 쥐 가지고라도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전부 배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총재가 주는 걸 배부 받아야 돼요. 이걸 싫다고 도망가 보라구요. 지옥 직행이라구요. 죽어 보라구요, 거짓말인가. 그런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세계가 나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의 책임성은 법이나 이목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생명적 종적 관계 중심,』 생명적 종적 관계, 생사지 영원하신 하나님 주체 앞에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거예요. 『생명적 종적 관계에서 자아주관 완성해야 됩니다.』 나를 누가 간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직접 종적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어디든지 하나님 대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아주관 완성하여서 자기 판단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데 누구 소개받아가지고 할 수 없더군요. 자기가 판단해야 돼요. 절대적인 판단, 자기 판단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상대에 대한 책임성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상대의 자기에 대한 사랑이 나누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부부간에 횡적인 사랑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간의 종적인 사랑의 관계와 달리 나누어지면 벌써 그 온전성이 파괴됩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부자지 관계 사랑은 종적인 것 하나밖에 없어요. 억천만 년 가더라도 동물이나 전부 다 만물은 전부 새끼 사랑하는 것은 변치 않아요. 종적으로 하나예요. 부부사랑은 횡적으로 360도가 있기 때문에 한 부부가 한

도만 틀리면 다 깨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종적인 것을 숭배해야 돼요. 여자와 남자 가운데서 주체가 누구냐? 종적 대신할 수 있는 주체가 남자예요. 여자는 상대입니다. 여자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 노릇하고 하나님의 모든 천리를 알아 가지고 중앙에서 절대사랑의 이 모든 하나님의 천리의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직계 혈통관계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년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부자지 관계는 변하지 않지만 부부관계는 360도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만 틀려져도 전체 판이 찌그러지고 다 깨진다는 거예요. 절대사랑을 지키지 않으면 깨진다는 거예요.

『이는 부부간에 절대적인 사랑의 일체를 이루게 되어 있는…』 일체가 안 되면 찌그러지는 거예요. 찌그러지면 전부 다 횡적인 판이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일체를 이루게 되어 있는 창조원리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법도요, 궤도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상대를 절대로 위해야 할 사랑의 책임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남성들, 여자들을 대해서 절대적으로 위하려고 생각해 봤어요? 우습게 알고 이웃동네의 전부 다 귀가집 종만큼도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마만큼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셋째는 자녀에 대한 사랑의 책임성입니다. 자녀들의 자량과 행복의 기지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녀들은 참사랑으로 화합 일체 된 부모를 통해 생명이 태어나고 그러한 사랑 속에서 양육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가장 귀한 책임은 외적인 양육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생을 온전하게 해 줄 참사랑의 생명적 요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소중한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참다운 천리의 도리를 알고, 참다운 자녀, 참다운 부부, 참다운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영적으로 알 수 있게끔 가르쳐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참부모를 모셔야

『생활적인 경험을 통해 체득하는 참된 자식의 심정, 형제의 심정, 부부의 심정, 부모의 심정은 참된 가정 이외에 그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가정이 아직 안 되었지요? 그건 이혼해야 되고 갈라져야 되고 깨져야 돼요. 어차피 깨져요. 영계 가면 다 갈라집니다. 영계는 영원히 타락하지 않고 하늘 나라의 가정을 이루어 살던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 해와가 하나님을 중심삼고 참사랑의 부부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은 이상하신 대로 당신의 실체인 아담의 몸 안에 거하시면서 해와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아담 해와는 하나님의 실체를 쓴 참부모가 되어 선한 사랑, 선한 생명 선한 혈통의 시원(始原)이 되었을 것입니다.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참부모입니다. 아시겠어요? 참부모! 「참부모!」 참부모! 「참부모!」 참부모! 「참부모!」 내 가정에서도, 나라에서 참부모를 모셔야 되고, 세계 대통령도 참부모를 모셔야 됩니다. 참부모 되지 않고는 그 계열로 연결되지 못 해요. 하나의 실이 위 아래에 연결되지 못하는 거와 딱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 해와는 사탄의 실체가 되어서 악한 부부, 악한 부모, 악한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결합은 악한 사랑과 악한 생명과 악한 혈통의 뿌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악한 혈통의 뿌리가 되었다는 것이 타락입니다. 『인류는 모두 이 뿌리에 근원을 두었으므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은 다 싫어하지요? 종교를 다 싫어해요. 똑똑할수록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요, 간부인 사탄의 후손이 되고, 악한 부모의 혈통을 이어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싫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은 듣지 않으려는 거라고요. 이 몸이 다 싫다고 그러고, 반대의 길을 가라고 그러다구요.

『친애하는 종친, 신사 숙녀 여러분! 인류 조상의 타락으로 참사랑의 이상이 허물어졌을 때 하나님의 괴로움이 얼마나 컸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외아들 외딸을 죽여본 체험을 가진 부모들은 알아요.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참된 아들, 참된 딸을 중심삼고 참사랑으로 하나님의 혈족을 만들려고 했는데 다 깨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원통함과 분함이 아직까지 해원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수천만 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중심삼은 절대적으로 완성한 남자 여자를 중심삼고 절대적 가정을 이루지 못했는데 문총재에 의해서 이런 이론적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계에 가정을 연결시켜서 종족국가세계 민족 편성을 해 나가고 있는 거라구요. 이런 걸 모르면 안 된다구요. 이게 전부 헛말이 아니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인간이 본래의 부모인 당신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을 섬기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역사를 해오신 것입니다.』 버릴 수 없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이 실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찾아야 돼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창조이상도 절대적이므로 슬픈 구원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섭리는 잃어버린 참사랑의 창조목적의 다시 회복하려는 복귀섭리입니다.』 이걸 몰랐어요. 복귀섭리. 『하나님의 구원섭리는 잃어버린 참사랑의 창조목적의 다시 회복하려는 복귀섭리다.』 복귀섭리! 해와요. 복귀섭리! 「복귀섭리.」 복귀섭리! 「복귀섭리.」 복귀섭리예요.

어차피 영원을 두고 여러분은 돌아가야 돼요. 지상에 있어서는 7, 80년 이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벌어지지만 영계 가면 영원을 두고, 몇천만 년 걸려도 그 길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상에서 청산해야 돼요. 땅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했습니다. 땅에서 잃어버렸으니 땅에서 찾아야 돼요. 알겠어요? 여기 백발 사돈쟁이, 알겠

나? 「예,」 내 아들 같은 연령인데 욕을 먹어도 괜찮지요. 정신 차리라고.

구원섭리는 재창조섭리

『그러므로 구원섭리는 재창조섭리이기도 합니다.』 복귀섭리는 재창조예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간섭하지 못한 것을 여기 이 때 와서 가르쳐 줄 수 없다구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돼요. 재창조를 자기가 해야 돼요. 그걸 몰랐습니다. 공장에서 생산품이 고장났으니 공장에서 재차 고쳐야 된다구요. 그러려면 맨 처음 새로운 물건보다 몇 배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몇천만 년 동안 자기가 계획한 이상적인 부부 한 쌍을 못 세웠어요. 그런 무섭고도 두렵고 수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렀던 그런 축복을 오늘날 여기 문씨 종씨, 한씨 종씨들이 알지 못하고 장난치는 웃음거리로 봐서는 안 된다구요. 문총재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피어진 투쟁의 역사를 거쳐왔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17시간 이상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예요. 보통 12시간 이상 9년, 10년 세월을 허송하면서 이 일을 찾아온 거라구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나가는 모임이 아니라구요. 섭리사적인 새로운 재결의 할 수 있는 결의대회라는 것입니다.

구원섭리는 복귀섭리요, 복귀섭리는 탕감해야 돼요. 그냥 못 올라가요. 치러야 돼요. 죄를 졌으면 치러야지요. 그러니 문총재가 세계 인류가 못한 걸 혼자 감옥살이 여섯 번을 하고 별의별 수욕을 다 당하면서 참고 이 고개를 넘어왔습니다. 언제 눈물이라도 한번 흘려봤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통곡하고 우리 여편네도 전부 다...

일족이 전부 다 눈물을 흘려 온 거예요. 통일교회가 눈물 흘리고 나온 겁니다. 임자네들은 아무 눈물도 흘리지 않은 패들을 모아 가지

고... 이제 환고향 했으니, 복을 받고 세계적인 출세를 하고 승리했으니 일족에 복을 나누어주려고 이 대회를 가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예.」 똑똑히 알아들으라구. 이 말이 거짓말인가 영계에 가 보라구. 못 들었다는 얘기는 못 할 거라구요. 문씨하고 한씨들은...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도 지금 그 어떤 종교가도 누구도 모르는 말이라구요.

『그러므로 구원섭리는 재창조섭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누가? 내가! 내가 그렇게 창조해야 돼요. 죄 지은 사람이 해야 된다고요. 제1차 아담이 실패했으니 제2차 아담, 제3차 아담을 거쳐 이 일을 전부 다 복귀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복귀섭리의 근본은 어떻게 하면 창조이상을 완성할 인간의 씨, 본연의 아기씨를 찾느냐에 있게 됩니다.』 아기씨를 잃어버렸어요. 아담이 아기씨를 잃어버렸고 해와도 아기씨를 잃어버렸어요. 아담을 본떠서 해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아들의 씨를 찾아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쉬운 게 아니예요. 이제 알아보라구요.

거짓 사랑으로 유래된 생명과 혈통을 청산해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간부 된 사탄의 거짓 사랑으로 유래된 생명과 혈통을 청산해야 됩니다.』 거짓 사랑에 유래된 생명과 혈통을 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길은 순교를 해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돼요. 예수님 말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했어요. 생명을 걸고 이 길을 개척해서 격파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영계 가서 다 걸려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간부 된 사탄의 거짓사랑으로 유래된 생명과 혈통을 청산해야 됩니다.』 전세계 인류가 다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참생명과 참사랑과 참혈통과 일체 된 구세주, 참부모를 어떻게 태어나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부모가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참부모를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요. 참부모를 어떻게 태어나게 하느냐 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상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조상이 자기 책임분담을 완수하지 못하고 불륜한 혈통관계를 맺어 사탄의 주관을 받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원상회복 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지었는데 그 나라의 대통령이 죄를 전부 다 벗길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요. 그러니까 악한 천사장이 사탄이 됐어요.

『하나님은 악한 천사장에 돌아간 인류를 조건 없이 선한 입장에 취할 수도 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 편에 있는 천사장적 중심인물을 세워...』 이건 형제예요. 형제로서,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장이 아니고 충성하는 천사장적 중심인물이에요. 『먼저 맞으면서...』 사탄세계는 개인·가정·종족·국가적 입장에서 하늘편적 천사장급이 나오는데 잡아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 없이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저 맞으면서 탕감조건을 세우게 하여 빼앗아 오는 작전을 해오셨습니다.』 선한 사람의 전략 전술은 맞고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어떤 가문에 있어서 맏아들이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식물인간이 된 동생이 있다면 동생을 대해서 ‘야, 너 부모님께 불효하지 말고 죽어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돼요? 그놈의 형 앞에 상속을 해줘요? 어렵도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먼저 치고 빼앗기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전술이에요. 그래, 통일교회 문총재는 이 전략을 알기 때문에 40년 말없이 맞아 왔습니다. 신문지상에 한번 변명 안 했어요. 별의별 요사스러운 신문에, 책 몇십 권에 나쁘다는 소문이 났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고요. 왜? 그때는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예요. 이걸 구해줘야

할 책임이 있는 거라구요. 세계까지 이것이 갈 길을 닦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고 맞고 맞으면서 그 길을 다 닦아줬어요.

그래, 이제는 간판을 걷어치우는 거예요. 그럼으로 말미암아 맞은 사람이 때린 사람의 모든 걸 상속받는 것입니다. 기독교, 천주교, 신교의 모든 복은 문총재 뒤에 달려오는 거예요. 이것들을 전부 다 문씨, 한씨라고 복 주려는데 복 못 받겠으면 다 빼앗겨 버린다고요. 심각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총재는 천운이 보호했기 때문에 몇백 번 죽을 수 있는 사지의 환경에서 살아 남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죽을 각오하면 살려주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겠다는 사람은 죽어요. 문씨도 마찬가지로요. 이런 천운의 도리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먼저 치고 빼앗기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제1차, 제2차, 제3차 세계대전이 그 예가 됩니다. 먼저 친 편이 망했습니까.』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먼저 친 편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습니다.」 세계 대 사건도 조그만 사건도 이 법에 의해서, 전략전술 법에 의해서 맞는 자가 선한 편을 치는 자를, 까닭 없이 치는 자를 정복한 것입니다. 기성교회가 나를 쳤지만 기성교회의 모든 재산은 전부 다 맞고 전체가….

통일교회 반대 안 한 기성교회가 있어요? 반대하지 않은 나라가 세계에 있어요? 하늘땅 전부 다 반대했기 때문에 하늘땅 전부가 문총재 뒤에 달려 있는 거예요. 바꿔치우는 거예요. 살림살이 바꿔치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한테 핍박을 받고 끝까지 죽으라고 하더라도, 백 번 죽이더라도 살아나서 또 죽여 달라고 하게 되면 문총재가 가진 축복을 몽땅 인수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것이 있는 걸 누가 알았어요.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레버런 문의 비밀이 그거예요. 그 양반이 지금까지 세계적인 핍박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핍박받으면서 세계적인 기반을 닦았느냐가 수수

끼라구요. 그 전법을 모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젊은놈들, 알겠어?
이 녀석들아! 정신차리라구.

나보다 형님 되는 사람이 아니면 다 괜찮아요. 미안하지만 나보다 나이는 다 젊은 놈들이지요. 80된 노인들, 손 들어 봐요. 몇 사람 안 되지요. 이웃동네의 공동묘지 앞에 가 있는 사람으로 해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그래도 들을 줄 알고 안경도 안 끼고 다 볼 줄 알아요. 하나님이 보우하시! 그런 하나님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여기 어르신네들? 시원하게 답변을 해야지. 여기 앉아서 가지고 자기 공부하기 위해 모인 거 아니예요? 싫더라도 답변이라도 해줘야, 땀흘리고 말하는데 동정이라도 해줘야지 그런 무정한 때들이 어디 있어요? 배고프다면 고개를 넘어서라도, 짐을 저서라도 밥을 갖다 먹어야 되고 물을 갖다 먹어야 그 친족이 해야 할 책임이지, 눈을 부릅뜨고서 모른척하고 입다물고 있어요?

이래야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책상을 두드려요. 중요한 때는 그래요. 어른들은 그렇게 해 놓아야 잊어버리지 않고, 여기서 정신차려서 ‘예’ 하게 되면 못 잊는다구요. 그것이 교육하는 비법이기에 때문에 처음 만나 가지고 실례인 줄 알지만... 내가 세상만사를 다 알고, 유명한 사람을 당해 결례라는 걸 모르겠어요? 앉아서 천리만리를 다 헤아릴 줄 아는데 예법을 다 알지요. 서양 예법도 알고 다 알지만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구요. 제멋대로 다 헤쳐가는 것을 한 길로 몰아 넣으려면 양몰이 모양 회초리로 몰아쳐야 된다 이거예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대답을 시원하게 해줘야지요. 미안합니다! 괜찮다고 하니 고맙습니다.

제일 무서운 전쟁은 몸 마음의 전쟁

『제1차, 제2차, 제3차 세계대전』이 그 예가 됩니다. 먼저 친 편이

망합니다.』 대한민국은 역사 이래 932회나 침범을 받았지만 어느 나라도 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역사에 없는 복이 문총재를 통해서 온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문총재를 반대한 박정희도 죽었어요. 전부 다 내 신세를 진 전통(전두환 대통령)도 감옥에 가 있습니다. 노태우도 죽자 살자 하고서 대통령 만 들었더니 지금 감옥에 갇어요. 김영삼도 적극적인 반대하던 것이 지금 따오기 숨을 쉬고 있다구요. 그걸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죽으라는 기도를 안 해요. 원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총재는 망하지 않습니다.

『복귀섭리를 개괄하면, 모자 협조의 기반이 중요합니다.』 모자협조가 지금 나와요. 모자가 협조 안 하면 안 됩니다. 『야곱 때 모세 때 예수 때 다 그러했습니다. 타락의 장본인인 해외를 대신하여 책임 하는 어머니를 세워 차자와 모자 협조를 하면서 사탄의 혈통과 생명을 분립하려는 섭리가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거 뒤집어 박아야 돼요.

『하나님께서서는 타락으로 인류를 선점(先占)한 사탄과 혈연적으로 직결된 장자를 곧바로 대할 수 없습니다.』 곧바로 대할 수 없다구요. 동생이 형님이 되어야 돼요, 동생이. 하나님이 주체인데 사탄이 주체가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동생이 되어 가지고 뒤집어 박아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지개벽의 역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오늘날 모든 신앙자, 기독교인이 몰라 가지고 천국 가겠어요? 거짓말이에요. 못 갑니다. 내가 천국의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구요.

『하나님은 선 편을 대표하는 차자를...』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차자를 상대로 조건을 세우게 하고 악 편을 대표하는 장자를 굴복시키는 것으로 선한 혈통을 복귀해 나옵니다.』 하나님의 씨로 혈통을 맑혀 나온다는 거예요. 『아담 가정에서 하나님은 차자 아벨을 세워 장자 가인을 굴복시키는 섭리를 하셨습니다. 타

락한 어머니지만, 그 해와를 중심삼고 두 아들을 하나로 만들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결과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섭리는 종결을 못 보고 연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노아 때도 모자 협조의 기반은 있었지만 본격적인 모자 협조의 기준은 리브가와 야곱 때부터입니다.』

리브가가 야곱 가정이에요. 이걸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는데 이것을 전부 다 앞으로... 조상들이 실수한 역사에 있어서 이걸 모르고 가면 영계의 문이 닫혀요. 절대 알고 가야 된다고요. 이걸 다 따라야 돼요.

『인류의 타락은 아담, 해와, 천사장 이렇게 세 존재에 의해 저질러졌습니다. 천사장이 해와를 유인해서 영적 타락을 했고,』 영적으로 길이 막혔어요. 『그 다음에 타락한 해와가 아담을 유인하여 육적 타락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오려야 올 수 없어요. 마음의 문이 막혔고 몸뚱이까지 사탄편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올 길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장이 사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원섭리는 복귀섭리요, 복귀의 원칙은 180도 반대의 길을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180도 반대예요. 지옥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은 180도 반대입니다. 요걸 알아야 돼요. 망할 세상에 180도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은 도적놈이라고 그러지요? 여러분 전부 다 몸 마음이 도적놈하고 싸워요. 몸 마음이 하나돼야 됩니다. 몸 마음을 중심삼고 통일 못 되었다구요. 마음의 명령을 중심삼고 개인적인 환경을 넘고 국가적인 환경, 세계적인 환경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역사 이래에 전쟁 가운데 제일 무서운 전쟁이 몸 마음의 싸움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휴전도, 정전도 없었어요. 이것을 자기 일대에 정정해야 됩니다. 이걸 문충재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참사랑에 접붙이지 않으면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몸뚱이를 지배할 수 없다구요. 지배 못 하면 사탄의 제물이 되

는 거예요.

메시아는 새로운 생명을 접붙여 주기 위해 오시는 참사람

『참사랑과 참생명의 씨를 가진 아담을 잃은 하나님은 사탄의 참소 조건이 없는 새로운 씨를 가진 아들을 찾아 세워야 합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찾아 못 세웁니다. 사람이 그걸 찾아 세운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창조 때 아담을 먼저 지었듯이 재창조섭리인 복귀섭리도 아담과 무관한 아들을 먼저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 사상의 근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정신 나갔어요. 구름 타고 온다고 하지만 억천만 년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이것이 메시아 사상이에요. 메시아가 와야 되는 근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혈통과 직결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장자예요. 장자가 못 되었다 이거예요.

『메시아는 사탄 관장 하에 있는 타락한 혈통을 지닌 사람들의 생명을 부정하고 새로운 생명의 씨를 접붙여 주기 위해서 오시는 참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접붙여 주기 위해서 이 놀음하는 거예요. 가정도 접붙여 주기 위해서 이 놀음하는 거예요. 그건 문충재가 세계적인 승리한 기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같이 아무 공이 없는 사람들을 잘라 가지고, 뿌레기를 잘라 가지고 접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문씨니 무슨 종교니 기독교니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다 끊어 버리고 새로이 접붙여 가지고 부모님의 가정에 접붙일 때가 온 거예요. 가정적 접붙임! 지금 다른 종교들은 개인 구원이라구요. 통일교회는 가정 구원을 말해요. 그 다음에 가정 구원의 기반 위에 친족 구원이에요. 친족연합. 그 다음에 친족연합 위에 국가 구원입니다. 국가 구원 위에 세계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가 대통령을 중심삼고

한꺼번에 축복받으면 천국에 입적할 수 있는 거라구요. 그런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뿌리는 하나님에게 두었지만 후아담으로 와서 아담으로 저질러진 것을 청산지어야 하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참부모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만으로 역사 할 초인을 메시아로 보낼 수 없는 사정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름 타고 허깨비처럼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인간적인 메시아를 보낼 수 없는 사정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씨를 갖고 태어날 아들을 위하여 먼저 어머니가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낳더라도 그냥 그대로 낳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귀의 공식을 통해서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귀섭리 속에 나타난 모자 협조는 모두가 하늘의 아들이 사탄의 참소를 벗어난 새 생명의 씨를 지니고 착지하기 위한 준비요, 조건인 것입니다. 모자 모두 사탄의 공격을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을 세운터 위에서 사탄을 대표하는 장자를 굴복시킴으로써 사탄이 선점한 사랑과 생명과 혈통을 복귀해 나오시는 것입니다.』 이런 걸 다 몰랐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리브가가 남편 이삭과 장자 에서를 속이고 차자 야곱을 도와 그가 축복을 받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견으로 부당해 보이는 방법을 동원한 그 모자의 편에 서시어서 그들에게 축복을 계속해 주셨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말이에요. 리브가라는 여자가 이삭의 아내인데 에서 장자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 가지고 차자한테 복을 빼앗아 졌습니다. 그거 왜 그래야 되느냐 이거예요. 해와가 실수하고 해와가 잘못했던 근원인 삼각대 때문에 저리 갔으니 그 삼각대로 갖다 맞춰야 돼요. 잃어버린 그대로 180도 반대로 탕감하기 때문에 해와가 갈 길은 뭐냐? 장자인 아담, 하나님의 아들인 장자를 속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걸 탕감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뜻 가운데 이런 일

을 하는 겁니다. 속여 가지고 해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사탄이 이 세상 모든 장자권을 쥐었어요. 이걸 뒤집어 놓아야 돼요.

리브가가 이런 놀음을 한 거예요. 에서가 아들이예요. 장자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예요. 속여 가지고, 해와와 반대예요. 장자 앞에 축복을 빼앗아서 차자 앞에 줌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온 것입니다. 탕감복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말은 처음 듣는 말일 거라구요. 문총재가 없으면 사탄의 비밀을 다 몰라 가지고 멸망하는 거예요. 천사장인 사탄과 맺은 사랑의 혈통을 복귀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 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기록이 많이 있는 거라구요.

혈통을 복귀하지 않으면 천국에 돌아갈 길이 없어

『아담 가정에서는 가인과 아벨 형제가 태외에서 다투어 차자 아벨이 오히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야곱은 아벨 이후 선 편에 선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탕감조건의 기대 위에 섰으므로 선점한 사탄을 더욱더 따라잡아 쌍태의 형인 에서를 상대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은 압복강에서 천사를 굴복시키는 영적 승리의 조건과...』 요거예요. 아담이 영적 타락을 했고 실제 타락한 이걸 탕감복귀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야곱은 압복강에서 천사를 굴복시키는 영적 승리의 조건과 실제 천사장의 몸인 에서를 굴복시킴으로써 역사 이래 아담 해와의 영적, 육적 타락을 처음으로 승리했다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은 졌지만 야곱은 이겼다는 거예요. 탕감복귀예요.

『그러나 그 때는 이미 나이가 40대였습니다.』 40대였으니 이 밀창까지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거짓사랑의 씨가 해와의 태

중에 뿌려져서 악의 생명이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태중까지 들어가서 분별해 놓지 않고서는 하늘의 아들이 태중에서 탄생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승리에 의해서도 아직 분별되지 아니한 잉태에서부터 40대까지의 기간도 사탄의 분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책임을 맡은 위대한 어머니가 다말입니다.』

다말이 태중에 들어가 가지고 싸워서 해방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에서 혈통을 복귀해 가지고 이 혈통을 맡혀 온 것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는 기독교를 중심삼고 천하통일 한 거예요. 아무리 성인이라도 이런 혈통적인 내용을 성별시켜 나온 성인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독교의 교리는 부자지 관계입니다. 상하관계, 부부관계, 형제관계예요. 그런 내용을 중심삼고 교리가 엮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리 대도의 중심인 가정을 중심삼고 해결할 수 있는 교리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 가지고 2차대전 이후에 세계통일을 기독교 문화권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오시는 재림주를 환영했다면 전부 다 세계는 천국이 된지 오래였을 거예요. 재림주 되는 문충재를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계는 망한 것입니다. 40년 동안 땅에 떨어지고 문충재는 땅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다말은 유다의 장남 엘과 결혼했지만 엘은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 아니어서 죽고 맙니다. 당시 관례에 따라 유다는 차자 오난을 다말에게 주어 아기를 낳게 했지만 오난은 태어날 아기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정자를 땅에 흘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 오난도 죽고 맙니다. 다말은 유다의 세 번째 아들 셀라와 함께 하려 했지만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다말에 의해 두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유다는 셀라마저 죽어서 가계가 끊길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다말은 선민의 혈대를 이어야겠다는 일념으로...』 다말은 리브가의 손주며느리예요. 혼자 살면서 할머니의 지도를 많이 받았어요. 네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혈대를 받기 위해서 이런 내용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다 계시해서 가르침 받은 딸이에요.

『다말은 선민의 혈대를 이어야겠다는 일념으로 매춘부로 위장하여 시아버지인 유다를 맞아 쌍태 아기를 가졌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낳은 아들이 전부 다 선민 이스라엘의 어머니, 예수님의 1대조 어머니가 돼요. 탕감복귀라구요. 돌아가는 어머니가 되었다는 거예요. 음란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음란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선민의 혈대를 이어야겠다는 일념으로 매춘부로 위장하여 시아버지인 유다를 맞아 쌍태 아기를 가졌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담은 아들인 동시에 아버지예요.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과 같아요. 해와도 마찬가지로예요. 그랬기 때문에 2대의 조상과 관계 맺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니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 가지고 혈대를 이을 수 있는 조건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기들이 태어날 때 먼저 손을 내밀어 나오려던 장자 아기가 다시 들어가고 동생이 되어야 할 차자 아기가 형이 되어 먼저 태어났으니 그가 베레스입니다.』 ‘베레스’는 밀치고 나왔다는 거예요. 밀치고 나왔다는 뜻입니다. 차자의 자리에서 형이 장자로 태어나는 걸 끌어 당겨 버리고 다시 밀치고 나왔다는 거예요.

『다말의 태중에서 장자와 차자가 싸워 분립되는 태중 복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 위에 선민의 혈족을 보아 2천년의 로마제국의 국가 기준을 대치할—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이스라엘 국가적 터 위에 메시아가 잉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 보내기가 이렇게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준비되어진 어머니의 태중에 사탄의 참소 없이 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된 국가적 승리의 터전이 조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성모 마리아가 섭리의 주

류에 등장하게 됩니다.』

성모 마리아도 장남을 속여야 되고 아버지를 속여야 돼요. 마리아 입장이 국가적 마리아 입장이라면 다말은 종족적 마리아예요. 같은 공식에 의해 가지고 마리아도 장남을, 장손을 속여야 돼요. 맏아들을 속여야 됩니다. 요셉이 맏아들이니까 요셉의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이 래서 잉태하는 거예요. 탕감복귀가 불가피한 거예요. 국가적 기준에서 분별된 그 터전 위에 예수를 잉태했기 때문에 복중에 태어난 예수는 복중에 태어나도 사탄이 내 아들이라고 참소할 수 있는 조건을 끊어버린 거예요. 혈통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혈통적으로 풀고 이걸 전부 다 수습하지 않으면 천국에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기독교에서 이 문제를 지금까지 누구도, 신학자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문총재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세계 신학계의 문제가 되고 로마 교황청의 문제, 전부 다 세계 장로회고 무엇이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도해 가지고도 알 수 있어요?

재림주님이 이 땅 위에 와서 해야 할 일

『요셉과 결혼할 마리아는 자기의 몸을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누가복음 1장 31절) 가브리엘 천사장의 놀라운 메시지를 받았습니 다. 처녀의 입장에서 아기를 가지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당시의 규율이었지만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신앙하는 사람은 생명을 걸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들도 이와 같은 자리에서 생명을 걸고 마리아와 같이 죽을 수 있는 각오를 하고 가지 않으면 천국 문을 못 연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누가복음 1장 38절)” 하며 절대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 들였습니다.』 절대 신앙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친족이요, 존경받는 대제사장 사가랴에게 상담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를 제사장에게 문의했다는 거예요. 『사가랴 가정에서는 그 부인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임신한 세례 요한을 태중에 지닌 채 마리아에 대하여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누가복음 1장 42절에서 43절) 하고 예수님의 잉태를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사가랴와 엘리사벳으로 하여금 메시아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알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여야 할 중대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사가랴 부부는 마리아를 자기들 집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가랴 가정에서 잉태했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만 갖고 있어요, 남자 정자 둘 다 갖고 있어요? 여자들이 뭘 갖고 있어요? 「남자만 갖고 있습니다.」 정자도 없고? 마리아는 남자, 정자를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 의 원칙을 중요시하는 분이예요. 법도를 따르는 하나님인데 그럴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자는 남자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이론적이라구요.

사가랴 가정에 있었다면 사가랴가 누구냐? 아버지라구요. 엘리사벳은 큰어머니예요. 마리아는 첩이에요. 첩 자식이 메시아가 돼요. 세례 요한도 알았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단 강에서 세례 주고 나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메시아라는 것이 직계의 본처 혈통을 타지 않고 첩의 혈통을 통해서 나다니!’ 생각한 거라구요. 믿지 못했어요. 반대하고 있다가 목베어 죽었다구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도 죽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세상에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자가 없지만 천국에 들어가면 제일 지극히 적은 자가 그보다 크

다.』 그랬다구. 그리고 『너희들은 무엇으로 크겠느냐? 옷 잘입는 사람이나?』 이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보냈는데 세례 요한은 뭐 했느냐 이거예요. 경고장이라구요. 천국은 싸우는 자가 빼앗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수제자 되어야 할 것이 베드로가 수제자 되었다는 거예요. 원통하지요. 그런걸 다 몰라 가지고 천국이 어땡고, 뭐 신부가 되겠다구? 그런 걸 다 알아야 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 사이는 어머니 쪽으로 이종자매 관계였지만 섭리적으로는 언니 동생의 관계였습니다. 사가랴 앞에서 엘리사벳의 도움을 받은 마리아는 레아와 라헬이 야곱 가정에서 모자 일체 되지 못했던 것을 국가적 기준에서 사가랴 가정을 통하여 탕감하는 조건까지 세우면서 예수님을 탄생시켜야 했습니다.』

야곱 가정에서 레아와 라헬 싸웠어요. 싸움으로 말미암아 열 지파와 두 지파가, 북조 10대 나라와 유다 두 나라가 원수가 된 거라구요. 이걸 하나 만들어야 돼요. 엘리야가 이걸 하려다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이 올 때 먼저 와 가지고 오시는 주님의 길을, 통일천하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못 했다가구요. 세례 요한이 와 가지고 통일천하 못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림주님이 이 땅 위에 와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공산세계와 민주세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치라구요. 그런 놀음을 지금까지 해와 가지고 다 평준화 해 버렸어요. 미국이 문충재를 따라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 남북미 연합전선을 중심삼아 가지고 전부 다 남북미와 구교 신교만 통일하게 되면 세계는 방향으로 넘어 가지고 2000년 이후에 전부 다 세계로 갈 수 있는, 사랑의 세계, 평화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모진 수모와 곡절과 고통을 다 극복해 온 것입니다. 지금 개인적 해방권으로 축복받을 수 있지만 종족적 연합체를 묶을 수 있는 대표적 기준을 안 하게 되면 세계 종족들을 묶어 가지고 문씨 종족은 저주받는 문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다구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되는 거예요. 못 하면 빼앗겨 버려요. 그런가 안 그런가 영계 가 보라구요.

『사가랴 가정을 통하여 탕감하는 조건까지 세우면서 예수님을 탄생 시켜야 되었습니다.』 야곱 가정에서 잘못된 그 모든 것을 청산해야 돼요. 오시는 재림주인 3차 아담은 1차 아담의 실수, 2차 아담 예수를 정리하지 않고는 3차 재림주의 세계적 무대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치예요. 야곱에 있어서 전부 다 형제가 싸워 가지고 남편 빼앗은 싸움을 한 거와 마찬가지로 사가랴 가정의 형제가 남편 빼앗은 싸움을 대신할 수 있어서 탕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독생자

『역사 이래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씨, 참아버지가 되어야 할 씨가 준비된 어머니의 태중에 사탄의 참소 조건 없이 착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첫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독생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독생자라고 말하는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비로소 복중에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독생자예요.

『그러므로 지상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첫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독생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혈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혈족이 되려면 아내가 없으니 혈족을 못 남기고 갔어요. 그래서 재림하는 거예요. 재림은 결혼식 하러 오는 거예요. 어린양 잔치를 하러 오는 거라구요.

『당시의 법에 용서될 수 없고, 또 상식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을 마리아가 해내야 했습니다. 세 사람이 모두 영적으로 감동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에 따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소원임을 무조건

믿고 따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비록 착지는 했다 하더라도 사탄세계 안에서 무사히 자라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호받을 울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기독교 신앙, 천주교 로마 교황청이 오시는 재림주의 울타리가 되어야 된다고요. 가정적 울타리, 종족적 울타리, 국가적 울타리, 세계적 울타리 이것을 다시 편성해야 됩니다. 세계가 정 위에 종족 울타리, 국가 울타리를 편성해야 된다고요. 종교권은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가랴 가정의 세 사람에게 그 기반이 되어줄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호하고 모시는 일에 어떻게 전념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생각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성서에는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누가복음 1장 56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 성서를 보면 마리아와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서로 교통한 기록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사가랴 가정은 최후까지 예수님의 울타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게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 울타리에서 쫓겨났다고요.

『조금 지나서 요셉은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때 그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랑하는 약혼녀 마리아가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3개월간 어딘가 갔다 돌아왔을 때에는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으니, 요셉이 마리아에게 태내에 누구의 아이를 갖고 있는지를 추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다 알아야 돼요.

『그때 마리아가 정직하게 얘기해 버렸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만일 밝히는 날에는 일족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처음부터 자기 형의 남편 사가랴를 도적같이 빼앗았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누구하고 결혼해야 하느냐 하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동생, 자기 이복동생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탕감복귀는 불가피한 거라고요.

그것을 사실로 얘기했다가는 돌무더기에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리아는 오직 성령으로 잉태했다고만 말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성령을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마리아의 배가 불러왔고 주위 사람들도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면 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임신이 자기의 책임이라고 방어한 의인이었습니다.

이리하여 마리아는 약혼기에 임신했다는 조소는 받았을지언정 돌에 맞아 죽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사정이 섭리의 뜻을 이루는 배후에 있었던 것을 누가 알아요? 문총재가 밝힘으로 말미암아 예수라든가 모든 역사적인 것이 풀리는 거라구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어져야 영계가 해방되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밝혀줘야 된다고요. 육을 먹어도 세계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천주교가 야단하고, 신교가 야단하지만 그걸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밝혀놓아야 예수가 갈 길을 가고 마리아가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

『마리아를 사랑하는 요셉은 처음에는 이렇게 마리아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 밑바닥에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특히 태어난 예수님을 지켜보는 요셉은 그 아버지에 대한 의문과 연계되어 마음 속 고통을 자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꿔 생각해 보라구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예수님이 자라면서 요셉과의 관계가 심정적으로 거리가 있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가정에 자주 분란이 일어났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생아의 입장에서 사가랴 가정의 보호도 못 받고, 또 요셉과의 어려운 조건에서 심정적으로 말할 수 없이 외로운 처지에 자랐습니다.』 이가 우리의 둘째 번 조상으로 왔다간 실패한 둘

째 아담이에요. 제2아담이에요.

『메시아의 길을 자각하게 된 예수님은 외로운 사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심각한 장애요인임을 홀로 안타까워했습니다. 메시아는 참부모이신데 그 사명을 위해서는 실체 신부를 맞이했어야 했습니다.』 결혼도 못 하고 죽어 갔습니다. 그러니 다시 와야지요. 『천사장이 아담과 남매와 같이 자라던 해와를 거짓사랑으로 타락시킨 것을 근본적으로 복귀해야 할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아담 대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천사장형의 여동생을 아내로 맞아야 합니다. 그가 바로 사가라의 딸, 세레 요한의 여동생입니다.』

세레 요한의 여동생은 이복동생이에요. 이복형제라구요. 이복동생을 아내로 하는 건 그 때 법에 의해서는 돌무더기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세까지 결혼 못 했어요. 예수의 동생들은 결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33세까지 결혼 못 한 거예요. 이러한 공식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겠기 때문입니다. 이거 전부 다 여러분이 조상이에요. 제2아담이에요, 제2아담. 나라를 찾기 위해 왔다가 실패하고 간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제3아담으로 세계에 찾아와서 실패할 수 있는 구덩이에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런 걸 청산지어 가지고 하늘 나라를 뒤집어 사탄을 추방해 가지고 지상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놓음하고 있는 거라구요.

『사탄 권세가 준동하는 지상에서 이런 일을 성사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형성된 보호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예수님 주변에는 이와 같은 터전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만일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계시와 영적인 은혜 아래 처음 가졌던 절대적인 믿음을 계속 가졌더라면 상황은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책임을 다했다면 마리아는 3개월 뒤에 그 집을 나왔더라도 계속해서 그들과 교통하고 의논하였을 것입니다. 사가라 가정은 예수님 탄생 후에도 땅을 대표하여 제일 앞장서서 메시아를 보호하고

모시면서 증거해야 할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가정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메시아로 지극정성으로 모실 뿐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절대적으로 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태어난 세례 요한이었으니까 그가 회개시킨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책임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만 했지 모신 실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만 했지 모시지 못해요.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가 망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요?

『존경받는 제사장인 사가랴가 방관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무관한 자리에 서게 됨으로 오히려 예수님이 가는 길을 더 어렵게 만들고 백성들이 따르지 못하도록 하고 말았습니다. 하물며 그들이 믿음을 잃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흐를 때 예수님이 바라신 신부를 맞는 일을 도왔을 리가 만무했던 것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을 타계할 수 있는 데 협조할 수 있는 게 누구냐? 여기 온 사람들 가운데도 문충재가 그랬다면 다 도망들 갈 거 아니예요? 그런 고비를 다 넘었으니 망정이지요.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점은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가 예수님에게 미친 영향입니다. 마리아는 해와와 다말을 탕감복귀해야 할 입장이므로 요셉과는 약혼관계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해와가 아담하고 약혼관계에서 타락했다구요. 그걸 복귀하려니 약혼관계에 요셉을 속여 가지고 뒤집어 박아야 돼요. 그런 걸 누가 알았어요? 참부모의 이름을 가졌으니 이런 걸 다 알았지요. 참부모 아니면 전부 망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점은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가 예수님에 미

친 영향입니다. 마리아는 해와와 다말을 탕감복귀해야 할 입장이므로 요셉과는 약혼 관계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약혼관계에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섭리적으로 보면 그들의 관계는 부부간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부모인데 부모를 낳아준 어머니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두 아기를 낳았어요. 두 남편을 모셨어요. 천사장의 몸을 만들고 아담을 타락시킨 사탄의 몸뚱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 남편 관계로 두 씨를 맺은 해와와 똑같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 탄생할 때까지는 물론, 그 후에도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바라심이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에게 대하여 예수 탄생 후에도 계속 사랑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헤어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 목사들이 전부 다 통일교회 원리를 알면서도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못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문총재의 말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울타리를 그어서 그물 되어 가지고, 전부 다 거기를 못 벗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전부 다 빼앗겨 버리는 거라구요.

예수님의 출가

『그러나 현실은 그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본심으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마리아는 요셉과 성적 관계를 맺게 되어 자녀를 가짐으로써 해와의 실수를 반복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이를 조건으로 그들에게 침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한 사람 남기고 모두 사탄의 관장 하에 들어간 결과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지켜야 할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벨편 형제도(세레 요한과 그 형제), 가인편 형제도(요

셋의 자녀) 모두 사탄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사탄의 침범을 받으면 이미 영적으로 받은 은혜와 감동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감사를 잃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와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 가지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다가는 벼랑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일족이 망하고 일가가 길이 막힌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인연을 선포한 것을 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탄의 침범을 받으면 이미 영적으로 받은 은혜와 감동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감사를 잃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을 경고해요. 『이리하여 마리아까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결혼을 돕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신부를 맞아 참부모가 되지 못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었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죽었어요. 예수가 왜 죽어요?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인이여, 나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요한복음 2장 4절) 한 것도, 가장 귀한 섭리의 요청인 예수님의 신부 맞는 일에 등한시하고서 먼 친척의 혼인잔치를 도우려는 마리아를 책망한 심정이 표출된 것입니다.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이냐” 하신 말씀도 이런 기준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어머니 책임을 못 했고, 동생들도 시집 장가 다 가면서 형님이 33세 되는데도 결혼시킬 것을 염려하지 않은 거라구요. 이 패들을 전부 다 저주한 말인 걸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로부터도, 사가라와 엘리사벳으로부터도 반대를 받고, 최후로 세례 요한으로부터도 반대를 받아, 육친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명을 완수할 것을 단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비밀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의 피를 흘

리는 이렇게 억울하고 비참한 역사가 누구의 동기로 삼아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인지 그 누구도 몰랐어요. 이걸 풀어줘야 해방이 되는 거예요. 땅에서 매였기 때문에 땅에서 풀어줘야 돼요.

『새로이 영적 기반을 찾아 다시 복귀섭리를 하시고자 출발한 것이 예수님의 출가였습니다.』 제1차는 열두 제자를 중심삼고 나라를 찾으려던 것을 다 실패하고 죽어서 40일 부활해 가지고, 쓰레기통을 모아 가지고 영적 구원섭리 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나라가 없어요.

유대나라도 나라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선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예수의 몸뚱이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영적 구원만 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아시아에서 전부 다 천국이 될 것인데 반대로 태양신으로서 전부 다 휴머니즘, 인본주의 사상, 로마로 거꾸로 와 가지고 태평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태평양 문화권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역사가 그냥 그대로 온 게 아니라고요. 이걸 다 풀어서 놓아야 그렇게 왔던 모든 사람, 영계의 선조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거라고요. 참부모가 나오니 그걸 전부 다 가르쳐 줘 가지고 해방하는 거예요.

『새로이 영적 기반을 찾아 다시 영적 구원섭리를 하시고자 출발한 것이 예수님의 출가였습니다.』 기독교는 영적 구원밖에 못하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게 되니 천대받고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리지 않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대표적으로 세계에 유리고객 하면서 2천년 동안 나라 없는 가운데 피를 제물로 흘린 거예요.

한국도 문충재가 들어와서 이런 복귀의 역사를 안 하면 그런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 문씨, 한씨가 그런 패들이 된다는 거예요. 헐박 공갈이 아니예요, 경고입니다. 헐박 공갈은 죽이기 위한 것이고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경고는 살려주기 위한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알아야 돼요.

『출가한 예수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나는 새도 거처할 곳이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마태복음 8장 20절)고 탄식하였습니다. 가문의 기반을 잃은 예수님은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기반을 찾아 나선 것이 예수님의 3년노정이었습니다.』 기가 차요! 가정과 일족을 내버리고 어디 가서 이걸 찾아요? 그러니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과 민족의 불신을 받고 제자들이 믿음이 약해져서 사탄의 침범을 받고 말았음으로 예수님의 기대는 무너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메시아로 지상에 와서 제자들과 만민을 축복하시고 죄 없는 천국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불신을 받아 신부를 맞지 못하였음으로 참부모가 되지 못하여 그 사명을 완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림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참부모라는 말은 놀랍고 고마운 말

참부모, 이 말이 놀랍고 고마운 말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참부모 다시 한번 말해요. 참부모! 「참부모」 재림주가 오는 것도 참부모를 찾아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역사 이래 참부모가 한 분도 없었어요. 수천만 년 역사를 걸어오면서 피와 눈물로 하늘의 가슴에 못을 박던 인류 역사 앞에 해방의 시간이 오는 것은 참부모가 지상에 등장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문충재 부부가 안 나오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이 길을 갈 때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내가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왜 반대를 받고 죽을 길을 가려고 하느냐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 일을 책임지고 가야 돼요. 천신만고 일생에 원수의 나라들 앞에 쫓겨 가지고... 한국에서 감옥살이를 해봤어요.

여섯 번이나 감옥살이 해 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보우하사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우하사, 하나님이 보우하사! 얼마나 기가 막히고 통곡할 사실인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1백분의 일이라도 그 축복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계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충성해야 할 것이 문총재 부부의 일가의 남아진 사명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오늘 결심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결심하는 사람은 손 들어 봐요. 고마워요.

비통한 사실입니다. 통곡하기에도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라구요. 직계 부모예요. 부모가 이렇게 될 줄이야! 불효 막심한 악당의 조상들을 모셨다는 것이 원통하다는 것입니다. 뼈가 울고 골수가 우는 슬픔을 체험하지 않고는 하늘을 못 따라갑니다. 그런 역사가 아직까지 많이 남은 걸 알아야 됩니다.

『메시아로 지상에 와서 제자들과 만민을 축복하시고 죄 없는 천국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불신을 받아 신부를 맞지 못하였으므로 참부모가 되지 못하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림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참부모를 모시고 이 행사를 하고 있어요. 만국을 승리한 패권을 가진 참부모를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거짓말이 아니라구요. 기도해 보라구요. 목을 메고 40일 동안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문총재가 거짓말했다. 똑똑히 정신차려야 되겠다구요. 해방 후 52세 이하 사람은 전부 다 여기 와서 교육받아야 됩니다. 일주일 교육받아야 됩니다. 일주일 못 하겠으면 4박5일 교육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몇 천 명이라도 한꺼번에 교육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내가 남미에 들어가 이 놀음하고 있어요. 일족이 와 있게 된다면 문씨보다 그들을 앞에 내세워야 돼요. 그런 평등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심각하다구요. 정신 바짝 차리라구요. 더욱이나 젊은 사람들, 2차대전 이후에 탄생한 사람은 선생님과 생사지권을 같이

해서 나라를 세우고 세계를 수습할 수 있는 책임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책임 해야 됩니다. 예수가 죽어서 전부 다 영적 구원섭리 한 것과 같이 영적으로 선생님을 도울 수 있는 이런 판도를 나라를 대표해 가지고…: 나라가 영망진창이 되었다구요.

오늘 집에 가서 내가 한 대로 하게 되면 전부 다 주류 씨족이 되게 되면 전부가 걸려 들어가요. 문씨 전부 다 그 아들하고 결혼한 모든 종씨들은, 문씨의 장손을 낳아준 어머니들이예요. 그거 일족이라구요. 친족이에요. 전부 다 어머니 중심삼고 3대까지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도 두 할아버지예요. 이쪽 문씨 할아버지, 저쪽 사돈들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부터 전부 다 부부로부터 3대 여섯 사람이 전부 패가 돼요. 여섯 사람들에 인연된 별종들을 전부 다 묶어 가지고 한 데 주류의 친족을 만들어 가지고 편성하면 이 나라, 대한민국나라가 전부 다 한 곳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4천만, 7천만까지 끌고 가는 거라구요. 이북에 통고할 거예요. 이북까지 축복하라고 내가 지시했습니다. 선생님 말이 이북까지 통하는 줄은 모르지요? 남한보다 김일성이 먼저 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꾸로 돼요. 김정일이 말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떠들어요? 배가 고파도 좀 참으라구요, 나도 배고파요. 마찬가지라구요. 전쟁마당에 서 가지고 승패를 결의하는 결의 대회라구! 승리하고 나서 밥먹고 쉬는 거예요. 편안한 생활을 해서는 망해요. 놀음놀이로 알지 말라구요. 협박이 아니예요. 경고라구. 협박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경고는 각성을 시키는 거예요. 경고를 한다구요.

세계 통일교인들의 입적시대

만일 죽어 가지고 여기 왔던 사람이 ‘왜 그때 똑똑히 말해주지 않았소?’ 하고 문제 삼는 거예요. 내가 걸리지 않게 똑똑히 얘기해 주는 거

예요. 이런 해설이 필요 없어요. 45분, 37분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몇 시간이에요, 이게? 나도 힘들어요. 처음 만났으니 정성을 퍼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이 쉬더라도, 피가 토하더라도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이 남기신 전통입니다.

태어나기를 잘못 태어났어요. 왜 문씨하고 한씨한테 태어났느냐 이거예요. 백정의 후손은 백정이에요. 참부모의 후손은 뭐예요? 마찬가지로입니다. 참부모입니다. 못 벗어나는 거예요. 실수한다면 어디 가든 천대받는 거예요. 마을에 들어오면 차 버린다구요. 그런 때가 틀림없이 오래지 않아 옵니다.

여기 다 왔던 사람들은 ‘이럴 수야! 나 이럴 줄이야!’ 할 것입니다. 몰랐지요. 그러던 녀석들은 두고보라구요. 보따리 싸 가지고 저 남양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세계 통일교인들이 입적해 들어오는데, 7천만 이상 못 살아요. 현재 360만, 3천6백만쌍 하게 되면 7천만이 넘습니다. 전부 다 한국으로 입적해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기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보따리 싸고 물러가게 돼요. 대 이동이 벌어집니다. 민족 대 이동이 벌어집니다. 안 벌어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 어려운 세계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모아 심각히 말씀을 전수해주시만큼 잘 들으라구요.

알겠나, 모르겠나, 쌍것들아? 「알겠습니다.」 쌍것이라고 얘기 한 것은 내가 조건을 남겨주는 거예요. ‘문충재, 어떻게 그렇게 욕을 했소? 문충재를 내가 처음 보는데 그렇게 욕먹고 전부 다 믿지 못했소.’ 그때 가서 용서해 주려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저나라에 가 가지고 ‘당신이 욕을 하니 통일교회를 믿지 못했다.’ 그거 맞는 말이라구요. 그래, 영계에 가 용서할 조건을 세워 주기 위해 욕도 하는 거예요. 욕 먹어도 마음이 아프지를 않아요. 돌아가 보라구요. ‘아이구, 이거 분해!’ 그럴 것 같은데 고향 가기 전에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마음이 그렇게 돼요. 알싸, 모를싸? 「알싸!」 알싸! 하는 사람은 손 들어 봐요.

정신들 차렸구만.

가정 파탄과 청소년 윤락을 수습하는 길

자, 이제 심각한 말이, 심각한 내용이 나온다구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탄식하였습니다. 가문의 기반 위에 예수님은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기반을 찾아 나선 것이 3년 공생애였습니다. 그러나 가정과 민족이 불신하고 제자들의 믿음이 약하여서 사탄의 침범을 받고 말았으므로 예수님의 기대는 무너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메시아로 지상에 와서 제자들과 만민을 축복하시고 죄 없는 천국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불신을 받아 신부를 맞지 못하였으므로 참부모가 되지 못하고 그 사명을 완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림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재림주가 누구라구요? 참부모가 누구라구요? 그것을 세계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구름 타고 메시아가 안 온다면 틀림없이 문총재가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다구요. 미친 놀음하고 있지 않아요. 전 세계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은 몰랐지요. 여기에 있는 문총재 부부가 누구라구요? 「참부모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가 바라는 것은 뭐라구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메시아(めし야;식당)가 일본 말로는 밥장사라는 말이에요. 그런 밥장사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갖고 오는 재산이 없어요. 하나님의 참사랑과 참사랑의 아들딸의 혈통의 씨를 갖고 오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참부모의 사명이에요. 거짓된 사랑으로 거짓된 씨를 받았으니 잘라 버려야 돼요. 밀창을 잘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접붙여 주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접붙여 가지고 3년 이상 전부 다 수확을 따버려 가지고 그 다음에 참된 열매를 다 따 하늘나라의 창고에 들여보내야 된다 이

거예요. 그 접붙이는 놀음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하나되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알았다는 말 하니 고맙구만. 한번 더 크게 말해봐요. 알겠어요? 「예!」 아이구, 기분 좋다! 가슴에 맺혔던 것이 풀려 나가는 것 같да구요. 그래야 내가 오 늘밤에도 받을 펴고 잠자요. 이것들을 놓쳐 버리면 안 된다구요.

지금부터 50년 전에 이렇게 모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내가 고생을 왜 해요? 민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꺾치지 않으면 민족이 걸리는 것입니다. 나라의 어려운 것을 구하기 위한 그물을 짜는 거예요. 그물을 짜는 것입니다. 남한에서 이 축복만 전부 다 받게 된다면 나라가 망하고 나라의 전통이라도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의한 가정을 중심삼고 새로운 전통을 따라서 새로운 나라가 건립되는 거예요. 다 세상은 망해요. 미국도 야단이고, 일본도 야단이고, 선진국가 전부 다 손 못 댁니다. 이게 사탄까지 손 못 대요. 하나님도 손 못 대고 오로지 손댈 분은 참부모 재림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책임 못 해서, 실수해서 이렇게 되었으니, 아담 완성자가 와서 손 대고 칼로 수술해 가지고 고치지 않고는 세계를 구할 도리가 없습니다.

가정 파탄, 청소년 윤락을 아담이 뒤집어 박아야 됩니다. 이 가정 파탄과 청소년 윤락은 반드시 수습하는 거라구요. 그건 절대적으로 수습, 백 퍼센트 수습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모슬렘 중에 수만의 사람들을 교육시켰는데 98퍼센트가 축복 받았다고요. 반대하던 목사들, 신부들 꽤가 적극적 반대의 기수가 축복 받아 손들었는데 반대도 안 한 통일교회의 문충재와 사돈 되는 한씨하고 문씨가 전부 다 반대하겠어요? 적극적으로 지지해야지요. 그 신부들보다 여러분이 먼저 축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나중에 받아야 되겠어요? 나중에 받지 말고 먼저 받기를 하늘이 원하는 것입니다. 복을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복을 먼저 받겠어요, 나중에 받겠어요? 「먼저 받겠습니다.」

그래, 먼저 받겠다는 사람은 손 들어 보라구. 그 손 안 들었으면 기

성교회 교인이구만. 다시 한 번 손 들어 봐요. 정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아이구, 기분 좋다! (박수) 내가 기분 좋을 게 뭐예요? 우리 일족들, 후손들이 좋겠으니 그러지요. 3대를 연결시켜야 돼요. 3대가 안 되면 사위기대가 안 돼요. 가정적 중흥 전후 좌우, 가정이 정착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루바닥에 적시고 오줌 자리 남겨도 괜찮아요. 내가 이런 강의 할 때는 16시간 반까지 했기 때문에 오줌싼 것이 3분의 2가 돼요. 문 닫아 걸라구요. 문 닫아 걸어요. 결의하고 하는데 뭐가 죄예요? 문 닫아 걸라구요. 싸야지 별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올 때에 타월 하나 가져와 깔고 싸라는 거예요. 16시간까지는 안 하니깐 5시간쯤이야 참아야지요. 내가 참고 있는데 무슨 변명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나도 배고파요. 나도 지루해요. 다 마찬가지로요. 말을 앉아서 듣는 사람이 편하겠어요, 땀을 흘리고 서서 말을 하는 사람이 편하겠어요? 그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팔십 노인이라도... 그 자리가 나보다 편하겠지만. 알았지요? 「예.」 고맙습니다. 알았지요? 「예.」 크게 ‘예.’라고 하라구, 박수도 하고. 물 좀 마시게요.

참부모 사상이 뭐냐

『오늘 이처럼 예수님과 마리아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밝혀 드리는 것은 그 동안 기존 천주교와 개신교의 반대가 많았었지만 성서에서 말했듯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태복음 16장 19절) 하신 진리대로...;』 이거 선포해 줘야 다 풀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죽은 모든 영들도 영계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해방이 안 돼요. 『예수님과 마리아를 해방시켜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 옥을 먹더라도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구요. 일생 동안 옥먹고 감옥 가고 별

의별 짓 다 당했어요. 그래도 문총재는 망하지 않았습시다. 망하는 기독교를 전부 다 인수 해 가지고 하늘편에 돌려놓았지요.

『재림주는 예수님이 못 다한 하나님의 복귀섭리의 근본을 완성하러 오십시다.』 창조 이후에 타락한 세계의 모든 근본을 전부 다 완성해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즉, 창조이상을 완성할 참된 본연의 아기씨로 와서 하나님의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의 근원이 되는 참부모 사상을 완성하러 오십시다.』 참부모 사상이 뭐냐? 참된 아들딸, 참된 부부, 참된 자녀, 참된 형제를 전부 다 완성시키는 것이 재림주의 이상이에요. 창조이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아기로부터 아들딸로부터 그런 신부 신랑을, 그러한 어머니 아버지를 품고 사랑 못 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미 예수 때까지 하나님 편이 승리한 근본섭리의 터전 위에 임재하십시다. 즉, 예수님이 장성할 때까지의 승리적 기반 위에 바로 서서어서 그가 못 다하신 신부를 찾아 참부모가 되어서 만민을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참부모는 혈통을 전환하는 새로운 결혼행사를 통하여』 아담 가정이 혈통을 잇지 못했어요. 아담 해와가 전부 다 청소년기에 타락했는데 딱 그런 시대예요. 청소년 윤락이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다구요. 가정 파탄이에요. 요럴 수 있는 때는 사탄도 손 못 대고 하나님도 손 못 대는 것입니다. 오로지 참부모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부모가 했으니 거짓 부모가 한 것을 참부모가 와서 뒤집어 가지고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탕감복귀 원칙은 불가피한 거예요.

『그러므로 참부모는 혈통을 전환하는 새로운 결혼행사를 통하여 전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접붙여 참된 사람으로 구원하고 나아가 참된 가정을 이루어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박수)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라구요. 데데한,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확

실해요. 가정 완성, 친족 완성, 국가 완성, 세계 완성, 천주 완성 하나님 해방까지... 하나님을 구해 줘야 돼요. 불효자를 맞은 부모의 마음, 이것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효자 중의 효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타락세계를 품은 것이, 하나님이 불쌍한 하나님인 걸 몰랐다고요. 원통하고 불쌍한 사연을 품고 나온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줄을 생각할 때 천년만년 통곡하고 배밀이 해도 그 울음을 그칠 수 있는 비운을 갖고 사는 효자의 도리를 지켜야 할 것이 오늘날 땅 위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의 책임인 걸 알아야 된다고요. 심각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누가 가르쳐 줘요?

국제합동결혼식은 새로운 혈통관계를 편성하는 것

『신부를 맞아 참부모 되시어 만민을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부모는 혈통을 전환하는 새로운』 뭐라고요? 결혼행사에요. 여러분이 새로이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아담 가정에서 뒤집어진 것을 바로 잡으려니, 거짓 부모로부터 거짓 혈통으로부터 결혼했던 것을 다시 청산 짓고 결혼축복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갈라져요, 천사장 자식들이기 때문에... 천국은 본래에 전부 다 가정이 들어가고 그 나라가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재림주는 육신을 쓰고 오셔서 새로운 혈통관계를 편성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이 국제합동결혼식입니다.』 (박수) 이 국제합동 때문에 내가 얼마나 욕을 먹었어요? ‘저놈의 문 아무개! 저놈의 새끼, 왜 야단이야? 남의 여편네 빼앗아 가고 자식 빼앗아 가는 도적놈!’이라고 한 거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 가정에서 해와하고 아들딸을 하나님이 빼앗긴 걸 탕감복귀해서 전부 다 여자와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전부 다 좋이에요. 천사장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구사회는 여자들이 주인입니다. 여왕같이 모신다고요.

이것이 오시는 재림주를, 에덴 가정에서 추방했던 본연의 남편을 모시지 못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탕감원칙에 불가피한 거예요.

합동결혼식 좋아해요? 「예.» 이제 알고 보니 좋아해야 되겠어요, 안 좋아해야 되겠어요? 「좋아해야 됩니다.» 좋아해야 돼요. 좋아한다, 좋아하겠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축복 받겠다면 여기 전부 다 행렬 지어서 축복해 주라구요. 광정환, 알겠어? 「예.» 바빠, 시일이 없어요.

『아담 한 가정에서 잃어버린 것을 세계 대가정권에서』(판서하시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단계예요.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하나님, 8단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전부 다 탕감조건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것은 가정이에요, 가정. 전부 가정이에요. 전부 다 가정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단계의 중심이 참부모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참부모, 종족의 참부모, 민족의 참부모, 국가의 참부모, 세계의 참부모, 하늘땅의 참부모, 하나님... 그래, 8단계에 가야 하나님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타락으로 갈라졌습니다. 이와 같은 거리로 갈라져 있어요. 참된 가정을 중심삼고 이와 같은 거리에 전부 다 있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못 들어가고 여기밖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여기서부터 이걸 전부 다 연결시켜야 되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참된 사람이 들어와서 연결해야 됩니다. 죽어서도 이 길을 영원히 가야 되는데 몇억만 년 걸려요. 죽어 보라구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선생님이 바쁜 거예요. 인생은 한번밖에 없는데 땅 끝까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싫다고 하더라도 몸뚱이를 갈겨서, 이마를 까면서라도 전부 다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상까지 걸려 있어요. 조상을 구원해야 됩니다. 조상이 하나님을 쫓아냈다구요.

그래, 문총재가 이것을 연결해서 가정으로 이 고개를 넘어 왔습니다. 사탄이 반대하는 이 고개를 넘어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길을 중심 삼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가정적으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사탄이 침범 못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부 싸워서 이렇게 별종들을 중심삼아 가지고 새로운 가정 편성, 종족 편성을 해 가지고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있던 하나님이 마음대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문총재도 마음대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영계의 사실을 다 압니다.

그래서 타락권을 굴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타락권이 없는 거예요. 자유로 개인에서부터 가정·종족·민족을 타락하지 않는 권내에서 만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전부 다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전부 다 영계를 다 알아요. 하나님의 직접주관을 받는 거라구요. 여기 전부 다 회장님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공상이 아니예요. 이론적이예요. 과학적입니다. 그런 길을 의심해 가지고는...: 시일이 바빠요. 하루가 천년 맞재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딱 이대로 하면, 요 점을 중심삼아 가지고 말이에요. 한 점을 중심삼고, 요거 중심삼고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하늘까지 8단계라구요. 가정이 중심입니다. 가정을 중심삼고 잘못된 것이 크는 거예요, 세계로. 참부모의 전통을 확대시킨 것이 우리 집의 부모고, 종족의 부모고, 그 나라의 왕이고, 세계 왕이고, 하늘나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참부모를 못 이루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 받은 참부모라는 말은 하늘땅의 대표적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래요. 그 다음에는 세계의 대표 가정, 나라의 대표적 가정, 민족의 대표적 가정, 종족의 대표적 가정, 가정의 대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원래의 모든 완성될 뿌리를 잃어버렸어요.

혈통전환, 소유권 전환, 심정권 전환을 해야

그래, 참부모가 그런 부모였다는 것입니다. 다 뿌리하고 관계없는데 오늘 여러분과 관계 맺기 위해서 내가 이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은 가정과 나라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 가정, 아담 일족, 아담 나라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지상에서부터 그냥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전부 다 갈라집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있더라도 아들딸 다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천사장에는 가정 이상이 없어요. 천사장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남자 남자끼리 되는 거예요. 여자를 싫어하고 전부 다 이 세상에는 외톨이 사람들만 남아 일대면 다 망하는 거예요.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프리 섹스 해 가지고 호모 되어 망할 거예요? 이걸 구해주기 위해서 주인 없는 이런 자유 환경에서 선생님이 나와서 전권을 가지고 가는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탄세계의 광야를 거쳐 나가야 됩니다. 개인으로 광야에 가서 개인으로부터 가정·종족·민족·국가, 사탄의 싸움터를 지나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긴 것을, 몇천 년을 몇 년 동안 며칠 동안 일주일까지 축소시켜 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일주일 데려다가 혈통전환, 소유권 전환, 심정권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7대손을 반드시 수습해야 돼요. 이런 관계로 하게 되면, 자기 7대손 조상이 있으면 7대권은 하나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돼야 됩니다.

이런 걸 가졌기 때문에 사탄세계가 나한테 굴복하는 거예요. 미국이 내 원수고 독일이 내 원수고 세계 선진국이 내 원수입니다. 소련도 나의 원수고 전부 다 그래요. 이미 내 발 아래에 다 눌렀다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요. 내 대신 앞으로 이 책임을 해줘야 되겠어요. 하겠어

요, 못 하겠어요? 하겠다면 손 들라구요. 하늘 앞에 약속하자구. 내려요. 여기에 이분들이 말한 말을 듣겠다는 사람은 손 들어 보라구요. 같이 손 들어요. 저 뒤에 말 들려요, 안 들려요? 다 든 거라구요. 들었다구요? 「예.」 틀림없이 들었다구. 틀림없이 해야 돼요.

이거 험박이 아니예요. 가 보라구요. 천년 만년, 천배 만배 감사할 거예요. 배밀이하고 무릎이 뚫어지도록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걸 위해서 길 닦아 왔어요. 무조건 환고향 했으니 내 성공한 복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게 형제들의 책임이요, 부자지 관계의 책임이 아니겠느냐 보는 것입니다.

한 대사, 알겠어? 「예.」 똑똑히 해야 되겠다구. 또 누구, 문씨 어디 없나? 기분이 나쁘지 않구만. 박수 한번 해보지요, 하나님 앞에 말이에요. (박수) 영광을 하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문총재 것도 아니예요.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하늘부모와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라구요.

그러니까 누구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해방 후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도 3박4일, 일주일 수련을 다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으면 몰라요, 몰라. 자기 갈 길을 못 갑니다. 알아야 된다고요. 그 대신 이번과 같이 뭐 차를 대주고 무슨 먹여줄 것이 아니예요. 틀림없이 자기 일가의 탕감은 자기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못 도와줍니다. 결혼비, 축복가정비를 전부 다 갖고 와야 된다고요. 알싸, 모를싸? 「알싸!」 공짜 바라지 말라구요. 공짜 바라는 사람은 종이 돼요. 거지새끼 돼요.

누가 이런 놀음을 하겠어요, 누가? 어른들을 데려다가 이것이 실례인 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구요. 잘 알아요, 잘 알아. 실례가 무슨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체면 보다가는 망해요. 길가에 가다 잘못했으면 임자네들한테 가 가지고 목을 내놓고 잘못된 것을 전부 처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미국을 떡살잡고 '이 자식아, 너 회개해야 돼!'라고 한 것입니다. 무슨 콜럼부스가 미국

을 발견했어? 이놈의 도적놈 새끼들! 전부 다 인디언은 내 사촌이라고 했어요. ‘사촌 나라를 다시 찾으러 왔다. 이놈의 자식들아!’ 이러니 죽겠다고 하지요. 옥먹어도 옥을 해라 이거예요. 누가 옥먹어야 된다고요. 주인 돼서 주인 노릇 못 한 것을 찾아야지요. 내팽개치고 버려 두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문충재, 독한 독사 같은 사람이 웃을 때는 말이에요. 이거 뭐라고 할까? 전부 양같이 웃음을 웃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뭐가 있다고요. 한번 웃어봐요. 하하! 웃어봐요. 약속했으니 다 됐어요. 이제는 문중에 가 가지고 앞으로 결혼 축복한 문충재의 존영이 없으면 야단을 치라고요. 뱃길을 차버리고 쟁가당 때려부수어도 된다 그 말이라구요. 오늘 하루에 얼마나 가까워졌어요? 그래도 고맙다는데 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갑시다.

지금 왕권시대로 넘어가는 때

『아담 한 가정에서 잃어버린 것을 세계 대가정권에서 탕감복귀하는 것입니다.』 어디 왔다갔다하더라도, 사방 어디에 가더라도 걸리는 데가 없다고요. 그걸 말해요. ‘아담 한 가정에서 잃어버린 것을 세계 대가정권’ ‘권’이라는 것 알지요? ‘권(圈)’, 그건 환경을 말해요.

『대가정권에서 탕감함으로써』 역사 이래 1차 아담, 2차 아담 다 실패한 것을 탕감해야 됩니다. 그걸 누가 탕감하느냐? 문충재가 탕감하는 거예요. 기가 차지요. 여러분, 이제부터 문충재의 꿈무니만 붙들면 말이에요. 고개 다 넘은 뒤에 나일론 실로 전부 다 여기 허리춤에 달아 주는 거예요. 요거 산이 평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가야 되겠지요? 여기 문씨 일가는 다 죽어가는구만.

자, 나니까 이러지 이런 실례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앉아 가지고 말을 몇 시간 들어주니 고맙지요. 고마운 거예요. 그래, 고마우니까 참

우리만큼 여러분 후손이 복 받으요. 틀림없이 복 받을 거라구요.

자, 아담 가정에서 잃어버린 것을, 조그만 가정에서 잃어버린 것을 세계 대가정권에서 탕감하는 거예요. 누가? 오시는 재림 3차 아담이 1차, 2차 아담 전부를 책임져야 돼요.

『탕감함으로써 아담 가정에서 완성해야 할』 아담 가정에서 완성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장자 노릇 못 했습니다. 쫓겨났으니까 장자가 없어요. 장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아담이 참부모가 못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부자지 관계가 되려면 혈연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혈연관계가 없으면 부자지 관계가 못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되려면 혈연적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혈연적 관계가 없으니 아담이 아버지가 못 되었어요.

그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 왕권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나라가 하나지 둘이 아니예요. 수많은 나라들을 누더기같이 말이에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찾아오기 어렵게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걸 다 정리해야 돼요. 하나의 참된 가정을 중심삼고 한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을 이루지 못했고, 부모권과 왕권을 이루지 못했으니 세계적 대판도 위에서 문총재가 장자권을 대신한 장자 놀음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부모 놀음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역사적으로 다 이루고 난 실적이 다 있다구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통일교회 역사를 알면 아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부모권을 복귀했으니 왕권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왕권시대로 넘어가는 때입니다. 황족권을 상속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황족권 내에 들어가야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이 왕궁도 없고 왕도 없고 황족도 없어요. 그걸 재차 편성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니 전부 다 일족을 중심삼

고 환고향 해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와서 성공했다면 이 이상 성공이 없는 것입니다. 천지의 기원을 다 알아 가지고 책임져 가지고 싸워 승리한 거예요. 같이 싸우지 않은 거예요. 맞으면서 싸워 나온 거예요, 맞으면서. 자연 굴복시켜야 돼요. 강제 굴복이 아니라구요. 한 많은 역사적 해원을 풀어놓고 하나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계적 대가정권에서 탕감함으로 아담 가정에서 완성해야 할 장자권, 부모권, 왕권을 찾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지상천국으로 전환하여 천상천국으로 입적을 보아』 하늘나라에 여러분이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못 해요. 사망신고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밀치면 쓰러져야 할, 죽어서도 호소할 수 없는 한스러운 길을 종교인들이 걸어 왔다는 것입니다. 문 총재가 그 대표적인 길을 걸어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통곡해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분하고 원통해도 참아야 됩니다. 그걸 말해요.

360만쌍 국제합동결혼식에 참석해 지상·천상천국에 입적하라

『지상천국을 이루어 가지고 천상천국으로 입적을 보아 하나님을 중심한 지상·천상 왕권시대로 진입하여 승리와 자유와 통일과 행복과 통일의 세계를 찾아 하나님의 창조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섭리사의 원리관입니다.』

오늘 주제예요. 총결론입니다. 『아담 한 가정에서 잃어버린 것을 세계 대가정에서 탕감함으로 아담 가정에서 완성해야 할 장자권, 부모권, 왕권을 찾아 하나님 주관하시는 지상천국으로 전환해 천상천국으로 입적을 보아 하나님을 중심삼고 지상천상 왕권시대로 진입하여』 왕권시대에 진입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다 끝나는 거예요. 『승리와 자유와 행복과 통일의 세계를 찾아 하나님의 이상세계인 지상·천상천국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해방이에요. 그때 대한민국 그 자리 가기 위해서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족이 하나되면 민족해방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다가오는 360만쌍 국제합동결혼식에 참석하여 하나님과 전 인류의 대희망인 지상·천상천국에 입적하는 복받는 가정 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수)

친애하는 종친 지도자,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모임에 성황을 이루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려요.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 받았으니 돌려줘야 돼요. ‘감사를 드립니다.’ 할 때 ‘예.’ 하라구요. 감사를 드립니다. 「예.」 받았어요. 받았으니 여러분이 나에게 감사를 돌려야 돼요.

『아울러 여러분 모두가 한 역사적인 방향에, 여러분 책임이라구요. 일치되어서 평화세계 건설의 선구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쌍수로 환영해 봐요. ‘바랍니다.’ 할 때 ‘예.’ 해요. 자, 다 이제 내 소원성취다 해요. 이 다음에 안 들으면 몽둥이로 후려갈길 거라구요, 틀림없이. 젊은 놈들은 문씨든지 한씨든지 길가에 있으면 먹살을 잡고 ‘이 자식아! 수련 왜 안 받아?’ 그러는 거예요. 그거 환영하기로 했다구요.

청소년들은 나를 좋아하지요? 나이 팔십이 되어도 젊은 사람처럼 씩씩하니까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습니다.」 기백이 전부 쓰레기통에 떨어질 수 있는, 정년퇴직 몇십 번 했을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시작하겠다는 출발을 선언할 수 있는 의기 당당한 할아버지를 본받을 수 있는 손자들이 있게 되면 천하통일 하고도 여유 만만한 승리자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아멘’입니다. (박수)

『그러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종씨 친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비나이다. 감사합니다.』 (박수)

오늘같이 말씀하기가 제일 힘든 날은 처음입니다. 제일 힘들었다고요. 그래, 박수 한번 하지요. 박수하라구요. (박수) 고마워요. 다 약속

들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미남이고 잘생겼구만. 할아버지도 형님뻘이 되는데 나한테 교육할 때 교육비 갖고 오라고 해서 안 되었구만요. 찾아가면 잔치를 해 줘야 될 거라구요. 자, 감사해요.

말씀을 들을 적에 귀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속이 부글부글해도 참고... 그래도 집에 돌아가면 잠이 잘 올 거예요. 생각하면 복잡하지요. 잠이 잘 올 것이고 소화도 잘 될 거라구요. 건강한 날들이, 힘찬 날들이 역사와 더불어 대한민국을 밀치고 통일할 수 있는 힘까지 만주별판을 찾고도 남을 수 있는 힘까지도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걸 알지어다! (사회자의 『우주의 근본을 찾아서』 라는 어머니 강연 안내가 있음)

신·구약이든 경서가 필요 없어요. 천지의 비밀이 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싫더라도 전부 다 답답하고 어려울 때마다 말이에요, 꺼내서 읽어 보라구요. ‘야, 이렇게 엄청난 세계가 있구만. 이런 내용을 알았으니 오늘의 내 근심은 아무 것도 아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심이 사라지고 수심과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는 이런 동기가 있다는 걸 알고, 이번에 이걸 제일 심각한 직접적인 여러분에 대한 문제니만큼 잘 들으라구요. 어머니가 제일 가까운 자리에서 충고하는 말인 것을 알고 잘 받아 드려요. 내가 얘기한 것은 다 잊어버려도 되지만 참부모만 알면 됩니다, 참부모. 참부모 중심삼고 더 알고 싶으면 자꾸 읽으라구요. 자, 엄마 하라구요.

문씨 한씨가 하나되어야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씨 한씨 종친, 내외 귀빈 세계평화가정연합 회원 신사 숙녀 여러분! (어머님)」 (계속해서 어머님께서 ‘우주의 근본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강연하심. 그 이후 문씨 한씨 종친의 참가정실천 운동 지원을 위한 차량 기증식이 있음)

한마디 하겠어요. 서서 들으라구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플 텐

데 편히들 쉬어야 할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문씨 한씨를 연합하는데, 연합적인 이 대회라는 것은 형식적인 외적이 아닙니다. 몸 마음이 참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되어 가지고… 문씨 한씨가 가만히 보면 다 까다로운 사람이라구요. 한씨는 더더욱 까다로운 사람인데 문씨는 문문한 문씨인데 한씨가 잡아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웃음) 잘 보호하고, 그것이 아버지 문씨고 어머니 한씨니만큼 둘이 하나되어야 된다고요. 또, 어머니 쪽이 2배 이상 된다는 사실을 볼 때 북귀시대에 여자가 2배 이상 되어야 된다는 원리와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되기 위한 것이고, 종친 본부로부터 지방까지 조직을 연결시킨 그 조직들이 참가정 운동 선발대로서 사용할 수 있는 차인데, 그 차는 뭐냐 하면 말이에요. 축복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데 기동대라는 걸 아시고 서로 화합하는 가운데서… 또, 여기에 중간 매개체요 시멘트 같은 우리 통일교회 조직이 있어요. 차를 놀리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전부 다 종친회 본부로부터 차가 어디 간다 하는 것을 반드시 해 가지고 차는 어디 어디 간다고 문중에서 찾아가면 반드시 전화를 해 주고 가야 돼요. 아무개 종친회 책임자가 아니고 그 누가 차를 가진다 하더라도 그 말을 통해 가지고 문중 전부가 축복결혼식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명령해주면 이 차를 쓰는데 당당한 책임자로 쓴다고 봐요.

그래 가지고 서로 서로가 하나되어야 돼요. 만약에 한씨에서 차가 모자라서 문씨에게 부탁하면 ‘아이구, 오늘 이와 같은 우리 종친회 모이는데 차가 모자라니 문씨에서 종친회 차를 쓰지 않으면 좀 빌려주세요.’ 연락하면 즉각적으로 운전사를 데려가 협조할 수 있는 놀음을 서로 서로가 교류해 가지고 제3의 종족들이 볼 때 ‘야 멋지다. 대한민국이 저렇게 되면 통일국가는 문제없다.’ 할 수 있어야 되겠다구요.

문씨가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운동이 북한에 있는 문씨하고 한

씨들을 연결합니다. 이후에 축복까지도 전부 다 북한에서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 여성연합도 만들고 청년연합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만큼 여기의 운동이 남한에서만 빚어질 것이 아니고 북한까지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서 있는 총재님을 통해서 하는 길이 있어요. 그 약속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북이 통일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씨를 쪽 끌고 나오면 전부 다 사위하고 며느리까지 연결됩니다. 며느리는 직계 아들딸을 낳아준 고마운 존재이니 뗄 수 없어요. 사위도 또 그래요. 사위도 보면 사위 집에 가 가지고 그 가문의 아들딸을 낳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종친 하게 된다면 자기 문씨만이 아닙니다. 사위가 들어가고 며느리가 들어가는데 문씨면 문씨 중심삼고 보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중심삼고 어머니 아버지, 부부 중심하고 아들딸까지 되어 있고, 저쪽도 그와 같은 3대를 연결시킬 수 있게 되어 있다구요. 그래서 한 일족을 연결시킬 수 있는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보면 또 저쪽 인천 간의 그 가정에도 또 연결, 연결해서 대한민국이 이 주류에 전부 다 달려든다는 거예요. 굉장한 전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총재라는 사람이 한씨 문씨를 중심삼고 하나 만드는데 있어서 역사적인 통일 민족적 전통을 세웠다면 훗날에 찬양할 수 있는 때가 오는데 거기에 문씨 종친들이 기수가 되어서 역사에 찬란한 전통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통일은 물론이요, 아시아와 세계 통일의 교량이 성립된다는 것을 아시고 기쁜 마음으로 충분히 활용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예.」 아시겠어요? 「예.」 아시겠어요? 「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만세삼창) *

통반격파와 360만쌍 축복 완성

(앞부분 녹음이 안 됨) 축복 받음으로 말미암아 통리 전체가 축복 받는 자리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나라서부터 저 밑창까지 가정적 일률적인 기반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천운이 위에서부터 가정까지... 가정에 착지를 해야 된다고요. 오늘 대한민국 국가라도 면까지밖에 못 가요. 리라든가 통반에는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하면 가정입니다. 가정을 중심삼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입니다. 착지를 해야 된다고요, 착지.

지금 제일 문제는 가정문제

여러분, 알지요? ‘참부모와 성약시대 안착’, 안착은 착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누가 뽑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적 기준만 딱 해 놓으면 이것은 참부모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세워졌기 때문에 사탄세계나 그 누가 건드리지 못해요. 요걸 중심삼고 딱 메우게 되면 어떤 가정이든지 자기 일족이 문제가 아니예요. 리가 문제

1997년 4월 13일(日) 오전 9시, 중앙수련원.

* 이 말씀은 ‘360만쌍 축복완성 결의대회’에서 하신 말씀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가 아니에요. 면이 문제가 아니에요. 군이 문제가 아니에요. 도가, 나라가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완전히 그물을 더 가지고 가정 중심삼고 몽땅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대회를 벌써 선생님을 중심삼고 세 번씩... 두 번했다, 세 번했다? 「세 차례 했습니다.」 통반격파 운동을 세 차례 했어요. 이것이 41만 반이예요. 41만 이런 대회를 40일 동안 다 해치웠다구요. 하루에 2천8백 곳까지 한 때가 있다구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선포의 내용, 말씀은 간단해요. ‘구원섭리사의 원리관’, 그 다음엔 ‘우주의 근본을 찾아서’인데 우리 제1차 조상과 제2차 조상의 잘못, 제1차 아담 실패와 제2차 아담 실패의 모든 것을 제3차 아담이 와서 수습한 기반 위에 승리적 세계 기반을 닦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들이 전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으로부터, 각료로부터, 도지사로부터, 군수로부터, 면장으로부터, 반장으로부터 반원까지도 이것을 전수 받아야만 하늘나라에 입적할 수 있는 백성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하대구요. 여러분, 지금 하늘나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편성하게 된다면 말이에요, 정당이 있든 무슨 야당이든 싸우겠으면 싸우고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 모든 것을 한 방향으로 수습해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가정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가정 파탄과 청소년 윤락, 이것은 나라의 힘을 가지고, 경제나 어떤 문화의 힘, 교육의 힘, 어떤 종교의 힘도 손 댈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참부모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간섭 못 하고 사탄도 프리 섹스를 만들어 가지고 타락한 환경을 만들은 이 환경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에서 손 못 댄 것처럼 이 세상을 손댈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손댈 수 있느냐? 오로지

손댈 수 있는 주인은 참부모뿐입니다. 거짓 부모로부터 심어 놓은 그 악한, 파괴적인, 모든 사랑의 길을 파탄시켜 놓은 것을 누가 탕감하느냐 하면, 하늘의 전체전반전능의 권한을 가진 참부모만이 칼을 들어 수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의 문제를 다 갖고 있는데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고, 일족의 청년들이 전부 다 모범이 되어 나라를 움직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 가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원하고 모든 인류가 원하고 모든 세계의 현재 가정 사람들이 원하는데 그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 교회만의 특권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주의 근본을 찾아보니 ‘절대 성(性)’ 문제로서... 이걸 절대 성입니다. 그런 말씀을 할 때 맨 처음에는 웃을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비로소 세계에 발표하고 백주에 드러내 가지고 검증하는데는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체가 전부 다 알아 가지고 시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라구요. 이것이 드러난 사실이요, 실현된 실적의 사실인 만큼 이것을 가정을 중심삼고 통반까지 착지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경제문제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경제문제가 혼란 됨으로 말미암아, 30대 재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재벌들은 전부 다 외국으로 돈을 빼다가 거기에 건설하라는 거예요. 아시아에 풀어놓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 가정 기반을 중심삼고 새로운 국가 이념, 세계가 따라올 수 있는 나라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는 사람에 따라오는 것이고, 가정에 따라오고 나라에 따라오는 거예요. 경제문제는 염려하지 말라구요. 문제는 뭐냐 하면, 가정문제를 선결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예요. 그건 절대적입니다.

모든 가정이 완성한 아담 자리에 착지해야

세계의 모든 난 문제는 가정에 달린 것입니다. 두 사람 문제입니다. 참된 사랑을 중심삼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된 남자 여자가, 절대적인 사랑을 중심삼고 절대 하나될 수 있는 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세계의 복잡한 문제는 전부 다 두 사람이 잘못함으로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걸 두 사람이 바로잡아 가지고 착지를 해야 됩니다, 착지.

땅에 한 가정이 착지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가정의 대표요, 종족 가정의 착지할 수 있는 대표요, 미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대표예요. 아담이 그런 입장이라고요. 세계 가정을 연결시킬 수 있는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정이 완성한 아담 자리에 착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참부모의 혈통적 내용을 가지고 아들딸을 낳아 형제를 기르고, 참부모의 사랑의 혈통을 받아 가지고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지 못한 것이 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 가정에 착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해야 됩니다. 나라가 이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중심 뿌리가 없게 되는 거라고요.

이건 싫더라도 해야 되고, 안 하면 강제로라도 총칼을 대서 위협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직 편성하는 거예요. 전부 다 각 분야가 자기들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소속을 중심삼고 축복가정들은 자기 일족 160가정—원래는 이게 180가정이에요. 유엔 가입을 중심삼고 180가정이 되는데—이것을 이제는 생사지권을 중심삼고 해야 됩니다.

통일교회 문선생이 참부모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문씨 종종, 한씨 종종이 종친 이런 협회를 만들었는데 이걸 끌고 나가게

되는 주류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문씨 종친이라든가 한씨 종친 앞에 그 종친회에 필요한, 도지부까지 전부 다 이 일을 위해서 달리고 이 일을 활동할 수 있게끔 전부 다 밴(van)을 하나씩 사 주었다고요.

가정이에요, 가정. 아버지 가정도 땅에 착지해야 되고 아들 가정도 땅에 착지해야 되고 손자 가정도 땅에 착지해야 됩니다. 왜? 아담 가정에서부터 잃어버려 가지고 세계가 이렇게 되었으니 참부모가 와 가지고 가정을 아담과 잃어버린 것을 전부 다 청산하고 뒤집어 놓으면 세계 축복의 은사권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들이 되었으면 아버지 어머니를 축복해야 되고 아들 며느리를 축복해야 되고 삼촌 일족을 축복해서 160가정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참소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의 참소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 천지와 연결될 수 있는 이런 평화의 세계가 찾아온다는 걸 알고 여러분 가정과 일족을 중심삼고 착지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담 대신 실패한 모든 것을 뒤집어 버려 가지고 완성할 수 있는 가정을 자랑할 수 있어야 이 민족이 살고 세계의 주체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고요.

모든 각 분야, 한 가정을 중심삼고 보면 어머니가 있는데 그건 여성연합이에요. 오늘날 단체 모임의 전부는 한 가정을 중심삼고 결속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성연합은 어머니예요, 어머니. 어머니 입장이라고요. 그 다음에는 청년연합은 가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학생연합 이건 전부 다 아벨 입장이에요. 해와와 더불어 이 셋은 하나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체 활동하는 데는 전부 다 분별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되어서 해야 됩니다.

본연의 가정

지금까지는 종적인 시대니까, 사탄이 위에서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올라가려니까 할 수 없이 종적이면서 횡적인 관계를 안 맺었다고요. 모든 단체를 내가 많이 만들었지만 이건 세계적 기준까지 종적 탕감을 넘기 위한 것이었다고요. 이제는 종적 탕감을 종결시키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횡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단체는 전부 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결속하는 거예요. 가정이 착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탕감복귀가 안 되는 거예요. 공식이 되어 있다고요.

가정, 그 다음엔 자기 아들딸! 자기가 어떤 사람의 아들이 되었으면 아들딸의 가정이 착지했다면 어머니 아버지하고 자기 아들딸,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도 착지된 입장에서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요. 혈통을 전환해야 됩니다. 그래, 소유권 전환을 해야 되고, 심정권 전환은 7대 후손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공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고요.

지금까지 참부모는 이미 승리한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일족은 승리 못 했어요. 참부모님이 기뻐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일족을 기쁘게 해주기 위한 이런 역사라는 걸 알아야 되겠다고요. 자기 종친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밖에 안 남은 거예요. (박수) 그러니까 여기에 부정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가담 안 했으면 그건 역적이예요. 가정의 역적이라는 것이지요. 배반자예요. 가정의 배반자요, 종족의 배반자요, 민족의 배반자요, 참부모의 배반자는 물론이고 국가세계천주하나님의 배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이것을 이 땅 위에서 안 하고 죽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저나라에 갔을 때 천국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고 천주를 대신하고 세계를 대신하고 그 다음엔 나라를 대신하고 종족을 대신하고 가정을 중심하고... 가정 가운데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전부 다 부모님 가정이 다 있고, 가정이 여러 가정인데 자기 가정을 중심삼고 연결돼야 됩니다. 아버지 가정이나 형님

가정이나 다 각자 각자 연결돼야 되고, 전부 다 세계와 연결돼야 된다
구요.

타락하지 않은 아담은 그런 세계와 연결되어서 완성한 내용을 가진
본체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3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도 그와 같은 길, 어머니 아버지도 그와 같은 길, 자기들도 그와 같은
길, 일족도 그와 같이 돼야만 세계권 내에 하나님의 족속으로서 땅 위
에 가정을 가지고 천국에 그냥 그대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그래, 일
족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국가에 연결될 때 대한민국 전체가 천국으로 들어가
게 됩니다. 그러한 이상적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들어갈 것이 천국의
기원인데 그런 가정을 이루지 못함으로 천국은 다 비어 있다는 것입니
다. 타락권 내에, 지옥권 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탄 주권 내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해방해야 됩니다.

그 모든 안팎을 정리해 가지고 만민이 고속도로로 달릴 수 있는 전
부 다 천국 길을 다 닦았는데 문제는 여러분 가정의 일족, 여러분 가
정 가정들이 본연의 가정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본연의 가정이 딱 되
어 가지고 부모님과 하나되면 부모님을 따라서 어디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라가 돌아갈 때까지 움직여라

그런 대 전환시대, 대 혁명시대,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입체적 전
환시대가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개 나라만, 세 나라 네 나라만 벌어지면 세계는 그 나라
권에 안 몰려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 전체의 가정이 축복
받아 가지고 하나되게 될 때는 일시에 세계의 수많은 국가가 따라가는
거라구요. 이러니 유엔까지 가입해야 된다구요. 그래, 내가 지금 아벨

적 유엔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유엔에 지금 뭐냐 하면 종교연합하고 여성연합하고 청년연합하고 학생연합, 4대 단체가 가입하게 된다면 세계는 자동적으로 통일이 벌어져요. 지금은 정치권 유엔(UN)이라구요. 그건 몸뚱이의 연장한 세계판도고, 마음세계는 몰라요. 지나가던 공산당이 타고 앉아 가지고 별의 별 짓 다 할 수 있고 말이에요. 전부 다 황금제일 주의로써 전부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방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유엔에 대해서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이북에 대한 경제문제 후원이라든가 그런 건 내 영향이 많대구요. 여러분이 모르는데 그런 일을 지금까지 해 나왔대구요.

여러분은 단 하나만 하면 문제없어요. 선생님이 지시한 대로 나라가 돌아갈 때까지 움직여라 이거예요. 밤이야 낮이야 선생님같이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를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나라를 살려야 여러분 아들딸이 살아나는 거예요. 남북통일도 이것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북에서 전부 다 여성대회를 할 것이고, 이북에서 축복행사를 할 거예요.

이번에 문씨 한씨 대회는 대단한 겁니다. 세계평화통일종친연합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기반 위에 세계평화통일국가연합이 생긴다는 거예요. 종친연합이 되면 대한민국은 문제없습니다. 이걸 중심삼고 세계적 국가권을 중심삼아 가지고 대한민국이 유대(紐帶)해 가지고 국가연합이 생긴다면 대한민국은 중심 국가가 아니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 가정적으로부터 종족민족국가세계까지 연결될 수 있는 체제, 사다리가 생기는 만큼 이걸 올라갈 수 있대구요.

그래, 외국들은 국가 기준에서 들여와 접붙이려 해도 이런 사다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사다리를 빌려다가 전부 다 가교를 놓아야 된다 이거예요. 가짜로 놓아 가지고 연결시켜야 된대구요. 그거 참부모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주류 국가가 한국이

되어야 하겠으니 이번에 와서 이런 놀음을 내가 시키고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6월까지, 7월 7일이 뭐냐? 선생님이 77세고, 7월 7일 7시 7분 7초, 7이 일곱 개 돼요. 선생님이 77세 아니예요? 일곱 개 된다고요, 이게. 77세! 77세라고요. 77이니 7이 둘이고, 1997년하고 77세하고 그러면 몇이예요? 셋이고, 7월 7일 7분 7초이니까 여덟이 되네. 7수 8수를 넘어가야 된다고요.

이러므로 말미암아 이 날을 중심삼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어요. 7수 고개를 못 넘어갔다는 거예요. 복귀섭리는 7천년 역사라고요. 이제 7수 안식일을 지켜야만 재차 돌아오는 월에 8수를 넘어가는 거예요. 재차 생활적 행동반경이 달라요. 이걸 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와 가지고 안식해야만 새로운 차원으로써 하늘과 연결시켜 가지고 입체적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주체 되는 하나님께서 안식 못 했기 때문에 인간도 안식할 수 없고 만물도 안식할 수 없는 한의 세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금을 그어 가지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안식권을 중심삼고 8수를 연결시키는 대 변혁시기를 전부 다 선포해야 됩니다. 사탄세계와 하나님 앞에 만 우주 앞에 전부 다 인간 세계에 발표해야 돼요.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국회에서도 무엇을 결정했으면 반드시 땅땅땅! 선포를 예고하는 거예요. 선포하고는 뒤로 돌아설 수 없고,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전부가, 우주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것을 7수권을 중심삼고 탕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을 해야 할 텐데, 이런 모든 금년에 예상한 대회를 중심삼고 땅에 가정이 착지한 자리에서 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 가외에 없더라도 통일교회 사람들을 중심삼고서라도 대표

적인 각도의 수를 중심한 대표적인 착지 기반을 중심삼고 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그것이 앞으로 종족권으로 민족을 연결시켜야 할 일이 남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세계적으로 국가를 표준하고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왕권복귀라는 시대에 국가 기준을 타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그런 착지를 일원화시켜 가지고 여러분의 일족들이라든가 축복 받은 가정은 싫다 하더라도 강제로라도 할아버지, 자기 아들은 몽둥이로 들이 패서라도 말이에요. 형님들과 동생들을 강제로 끌어오더라도 천국가는 거예요. 사탄은 강제로 모가지를 떼버리면서 죽이고 별의별 짓다해 가지고 지옥에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 반대로 7배 이상 엄하게 하더라도 조건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벼락같이 세계가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자연 국가적 환경에 있어서 모든 가정들이 아담 가정 완성한 대신 가정으로 서게 된다면 그들 중심삼고 종족 대신, 민족 대신, 세계적 대표자로서 파송해 가지고, 전부 다 완전히 마을장으로 세워 가지고 전부다 요리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7천만이 그렇게 된다면 무엇이든 통반격파든 문제없다는 거예요.

참부모와 절대 일치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가정적 대표, 종족적 대표, 민족적 대표로 다 빼 보내는 거예요. 이래서 대한민국에 그런 단체로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나라도 전부 다 국가연합권 내에 들어갈 수 있다.’ 이래서 세계 대통령으로 모셔 통일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라구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실 수 있는 왕권의 혜택권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한 정성을 들이면 하늘의 황족권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기 가정이

그럴 수 있는 놀라운 혜택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녹음이 잠시 중단 됨)

가정에서 잃어버렸으니 가정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세계 판도에서 전부 다 싸움해서 전부 다 이걸 때려잡은 거예요. 사탄이 반대할 수 있는 환경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전반전권전능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반대할 수 없습니다. 요 기반만 닦으면, 네 나라만 하면 일시에 세계가 돌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눈앞에 온 거라구요. 밥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40일 금식할 수 있는 결의를 해 가지고 있는 정성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생에 한번밖에, 역사 이래 우주사에 있어서 한번밖에 없는 이때를 왜 놓치느냐 이거예요. 왜 놓치느냐 이거예요. 일족뿐만이 아니라 일가 전체, 또 일국 전체가 허락하신 이 때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루라는 것은 아침이 있고 점심이 있고 저녁이 있고 밤이 있는 거예요. 24시간 하루예요. 하루 동안에 해야 될 책임을 이틀 동안에 하면 그건 낙제라구요.

그러니 요 초점을 중심삼고 가정에서 그러한 보편적인 가치 내용을, 아담 가정에서 잃어버린 것을 해방적 가치 내용을 지니면 그 가정 자체가 이제부터 무한히 참부모의 이름과 같이 종족으로, 민족으로, 국가로 편성하더라도 사탄세계의 반대가 없는 것이라구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니 거기는 고통과 모든 한의 역사를 능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갔나, 광정환? 결론을 내가 지어야 되겠구만. 조직만 하는 것이 아니예요. 면 단위, 전부 다 각 부처가... 여자들도 대회를 하고 면 단위 조직하고 전부 다 이래 가지고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축복을 일으켜 가지고 가정연합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을 다 갖고 있지요, 가정들? 타락한 아담 가정권 내에 연계된 가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뒤집어 박아야 돼요. 선생님 같은 사람은 틀림없이 영계로부터 지상에서 다 알아보고 사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일을 해 나온 거예요. 영계를 통일하기 전에는 지상통일 못 해요.

여러분이 영계의 사실을 알아요? 여기 조사위원들도 통일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이구, 선생이면 선생이지. 우린 우리대로 살겠다.’ 하는데, 아니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지류가 강물과 마찬가지로 흘러간다고요. 이것이 흙탕물이 되었어요. 어디 가서 이게 맑은 물이 되느냐 이거예요. 무한히 흐르게 되면 강 줄이 근원이 작으면 전부 다 강이 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물을 중심삼고 전부 다 합수(合水)해야 돼요. 큰 강에 합수해 버리면 말이에요. 자연히 흡수돼 가지고 흘러가면 전부 다 청소 작용이 벌어집니다. 대한민국도 한 지류와 마찬가지로 큰 강을 이루어 가지고 대해로 들어가게 된 다음에는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이 모든 것이 정화되는 것입니다. 대해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대해로.

대해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물은 본래 잡탕 물이 섞이지 않은 샘물이 들어가야 할 것인데 인간들이 전부 다 생활적인 면에서 공해를 가중시켜 가지고 대해로 들어가지만 바닷물은 짜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다 보완 조치되고 청소 작업도 되고 다 이래 가지고 썩지 않고 말이에요. 새로운 물이 되어 가지고 증기가 되고 또 다시 대륙을 적셔 줌으로 인해 샘이 되어서 순환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타락한 후에 전부 더럽힌 걸 다시 정화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영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 참부모와 절대 일치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간증 좀 할까요, 내가 얘기를 계속할까요? 내가 얘기를 하면 시간이 오래될 텐데. 점심 먹고 하게 되면 기운이 빠진다고요. 12시가 되어서도 아침 기분이 여기서 출발할 때 모양, ‘이래야 되겠다!’고 하

던 그 기분이 점심 먹고는 고개를 넘어가서 점심 먹은 소화의 그 영양소가 아침 먹은 소화의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에 기운이 빠진다 이거예요. 내가 얘기 많이 할 게 아니예요. 오래 할 게 아니예요. (박수) *

360만쌍 축복 완성 결의대회

얇은 사람들을 보면 다 잘 생겼네. 늙은 사람이 없어요. 나 하나만 늙었구만. 늙은 사람을 오래 시켜먹는 것도 실례라는 것도 다 알 거라고요. 말씀을 오래 할까, 짧게 할까? 「오래요.」 오래 하게 되면 전부 다 골자까지도 잊어버려요.

영계와 육계의 통일이 문제

오늘 뭐냐? 곽정환이 이야기를 잘 했다고요. 여러분이 통일교회의 배후에 뭐라고 할까? 후막에 잠겨 있는 모든 비밀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또, 알 필요 없다고요. 그거 알게 되면 짐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점심 한끼 얻어먹어도 눈물이 찼찼 나는 거예요. 나 그거 원치 않는다고요. 탕감조건에 걸려서 역사적인 한을 전부 다 청산하기 위한 부모님들이 고생한 그걸 중심삼고 회상하는 것은 하나님도 원치 않고 부모님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거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희망찬 지상천국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1997년 4월 13일(日) 오전 9시, 중앙수련원.

* 이 말씀은 '360만쌍 축복완성 결의대회'에서 세계일보 조사위원을 주 대상으로 하신 말씀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을, 참부모의 대신자로서 의기도 양양하게 천하를 자기의 무대로서, 하늘땅을 내 나라의 무대로서 도약이 아니예요, 비약하겠다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달려서 힘차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5번 가정맹세가 뭐가? 뭐예요?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삼고’ 뭐예요? ‘매일 주제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통일이예요. 영계와 육계의 통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요. 여러분 이 코에 대번 걸린다고요. 선생님도 그걸 넘어서기 위해 일생을 피눈물나는 한스러운 고개를 넘은 거라고요. 한민족이니까 얼마나 한을 품고 살았겠느냐 생각해 볼 때 7천년 역사에 가까운 그런 수난길을 거쳐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단일민족으로 그렇게 되었으니 단일민족의 핏줄의 대표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탕감법을 중심삼은 하나님이 불쌍한 이 민족을 동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동정을 풀어드릴 수 있는 대표자로 생각해요? 「예.」 신기한 것은 여러분도 전부 다 서양의 예언자가, 제일 유명한 사람이 뭐인가? 노스트라다무스. 그 예언서가 한국에서는 뭐라고요? 「《격암유록》입니다.」 남사고(南師古)의 《격암유록(格菴遺錄)》이예요. 이 모든 예언서가 전부 다 앞으로 올 수 있는 한 분 메시아를 증거했는데 그것이 8대 조건이 딱 누구한테 맞느냐면, 오즈음에는 ‘문총재밖에 없다.’ 이렇게 되었어요. 거기에 미국이 그 때는 없었고 영국도 없던 그런 4백년 전에 예언한 것이 전부 다 문자 그대로 그냥 그대로 다 맞아 나오는 거예요.

문총재가 그러면 《격암유록》이라든가 서양에 있는 노스트라다무스라든가 이런 걸 연구한 것도 아니예요. 근년에, 3년 전에 전부 다 책을 보고 ‘야, 이거 놀랍구만!’ 한 거예요. 그 때 나를 따라오면서 전부 다 보고 기록한 것 같은 그런 실감을 느꼈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쓰고 하나님은 전부 다 모르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적인 수고의

실적을 인간에게 가르치는 조건으로 남겼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그렇게 한 걸 보게 될 때 말이에요. 그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똑같이 되었더라구요. 이제는 드러난 사실이에요. 드러난 사실이랑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의 유명한 예언자들이라도, 국제적으로 다했지만 말이에요, 통일교회의 문을 두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조사위원들, 알겠어요? 「예.」 조사위원들! 잘났다고 제멋대로 산 패들이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칼자루를 쥐어 가지고 칼을 갈기면, 일본놈들 무사도 모양으로 말이에요. 죄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모가지 따버려라 하면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지금 여당, 야당 간부들은 전부 다 없어질 거라구요. 그런 거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조사위원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 주인 노릇을 잘 하라구요. 아는 것이 힘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잘 알게 되면 그 사람 앞에는 머리를 숙여야 된다고요. 조사위원들이 그럴 수 있는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잠깐 필요하다 이거예요. 뭐 그렇다고 써먹고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예요.

조사위원의 역할

조사위원이라는 건 뭐예요? 정보관계에 있어 가지고 자기 선전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 갔나, 손동식? 「예.」 저 사람이 조사위원을 책임졌는데 말이에요. 전부 다 정보요원으로서 사회에 나가서 취직해 가지고 이름도 못 알리는데 이 사람은 뛰어다니면서 자랑하고 있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자랑해 가지고 나라를 살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속여 가지고 나라를 망친 걸 세계에 자랑해 가지고 나라를 살린다는 거예요. 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그리고 지금 조사위원이 왜 필요하냐 하면 말이에요. 신문사 조

사위원들 전부 다 증명서들 갖고 있어요? 「예.」 조사위원이 3만 명 가깝게 된다고 큰소리하더니 3만 명 만들어 놓았나? 「넘었습니다.」 뭐라고? 넘었어? 넘었으면 뭐 칼날도 넘으면 못 쓰게 되는데, 중용지도(中庸之道)가 있는데 말이에요. 넘어서 못 쓰게 된 거예요, 쓸만한 것이 넘었느냐 그 말이에요? 「쓸만한 것이 넘었습니다.」 에이, 거짓말! (웃음) 쓸만한 게 진짜 넘었어? 「예.」 그래요. 조사위원들, 어디 앉았나? 앞에 앉지 말이에요. 어디 손 들어 봐요. 요 사람들밖에 없나? 손 들라면 손 들어야지요. 내리라고요.

지금 선생님이 앞으로 세계를 요리해야 됩니다. 싫으나 좋으나 세계를 요리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 나에게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세계 지도자가 많아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그런 기반을 지금까지 닦아 놓았어요. 아마 미국 대통령보다 인맥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내가 더 있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대학연맹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대학교 총장들은 모여라 하면 말이에요, 모일 수 있는 기반도 닦고 대통령, 정상들도 전부... 남미 대통령들은 다 친구라고요. 그러한 모든 인맥을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놓았는데 그 인맥을 움직인다는 것이 종교 지도자로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은 모릅니다. 그냥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체제를 엮어 나온 것이, 갖추어진 그 모든 환경적 여건을 수습할 수 있는 체제 자체를 놓고 그들이 감탄해야 되고 체제의 내용이 이론적인 기준을 중심삼고 과거도 그 체제에 일치되어 있고 현재도 일치될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틀림없이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할 수 있는 결론을 보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지식층, 지도자들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손에다 넣어 가지고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와라 하면 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기반이 있다는 것을 어떤 계급의 사람도 다 알기 때문에, 전부

다 남미의 모든 체육대회, 남미 올림픽 대회라든가 월드컵 위원회라든가 각국 나라의 체육위원회라든가 그걸 전부 움직일 수 있게끔 데려다 전부 다 교육시켰습니다.

세계에 힘을 자랑할 수 있는 모델로서 첨단에 서야

요즈음에는 전부 다 무술인들, 세계 각국의 무술인들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참 놀랐다고요. 주먹은 요런 주먹인데 말이에요, 이런 차돌인데 이렇게 까니까 딱! 부서지더라 이거예요. 그거 무서운 거예요. 총칼을 가지고는 차돌을 자르지 못해요. 총칼 가지고는 자르지 못하지만 손 가지고는 자르는 거예요. 이런 패들이 전부 다 세계 챔피언이라는 이름을 다 갖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앞으로 갈 길을 다 수습해야 돼요.

이것은 천 명을 모으면 천 명 전부다 자기가 세계 대표예요. 천 사람이 모여 가지고 싸움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기가 하나인 줄 알았는데 천 사람이 있으니 기분 나쁘지 좋겠어요? 싸움판, 어디 가던지 싸움이에요. 이것을 평화스럽게 통일해 가지고 씨먹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피아라든가 일본의 야쿠자 같은 모든 부류를 전부 다 요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납니다. 2000년대를 넘게 될 때는 그들 아래의 이 마피아라든가 야쿠자들이 세계 조직에 있어 움직이는 금융 유통적인 그 힘이 얼마만큼 되느냐 하면, 현 국가들이 움직이는 60 퍼센트 이상이 그런 세계에서 놀아난다 이거예요. 꿈같은 얘기라고요.

그런 걸 아는, 그런 걸 예상했던 문총재는 40년 전부터 무술을 전부 다 기르기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미국에 가게 되면 전부 다 태권도 도장도 내가 만들어 준 거예요. 여기 정도술의 안일력, 이놈의 자식들에게 내가 만들어 줘 가지고 ‘너 이렇게 하라.’ 하는 걸 전부 다 하다 말고 바람피우고 다 팔아먹고 말이에요. 그거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안기부지만, 옛날의 정보부가 ‘아이구, 문총재가 안 그래도 마사꾼인데 불구하고 거기에 전부 다 주먹 패까지 장(長)이 되어 가지고….’ 그랬지만 10만 이상을 교육했다구요. 왜? 선거전에서 김일성은 폭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요. 그런 놀음을 지금까지 해 온 거라고요. 오해를 받고 별의별 놀음 다 했다구요.

그래, 내가 손을 안 댄 데가 없어요. 알겠어요, 조사위원들? 내가 손을 안 댄 데가 없습니다. 정치계면 정치계, 경제계면 경제계 전부 다 학계면 학계, 예술계면 예술계… 예술을 중심삼고 내가 정상에 다 올라갔습니다. 체육계도 그래요. 일화 천마 팀을 만든 것이 잘했어요, 못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외도한 거예요, 외도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 민족의 정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별수가 없어요. 세계에 그런 힘을 자랑할 수 있는 모델로서 첨단에 서야 돼요. 축구가 그런 면에서 대표적인 아이팀입니다.

그래서 축구 팀 만들어서 돈을 썼겠나, 안 썼겠나? 수백만 달러를 썼어요. 아마 수십 억에서 수백 억을 썼습니다. 통일교회 교인들이 ‘선생님은 뭐 일화 축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밥 굶게 하고 말이야! 미친 선생이 저런 놀음한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축구팀을 안 만들었으면 말이에요. 요즈음에 한국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세계에 가 가지고… 이거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 있어서 3연승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아시아 챔피언, 아프리카 챔피언이 전부 다 되어 가지고 유명해진 거라고요. 남미에 가 가지고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에서 경기를 하고 말이에요. 요 4개국 축구가 제일 세요. 요전에 가 가지고 1년 2년 두 번 해서 제일 유명한 사람을 때려잡아 놓고 말이에요. 남미에는 축구 간판 가지고 통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할 시간은 없지만 말이에요. 취미적으로 들어보라고요. 천마팀 잘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돈을 걸고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8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백년 이상 된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80년 이상 된 나라들이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자, 우리가 몇백만 달러씩 대 가지고 전부 다 내기하자 이거예요. 그게 가능하다고요. 몇억 달러 걸고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몇억 달러 내야 되겠어요, 안 내야 되겠어요? 통일교회가 돈 없으면 어떻게 내느냐? 사람이라도 팔아서 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통일교회 교인뿐이니 통일교회 교인이라도 팔아서라도 내야 되겠다 하더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싸, 없을싸? 「있습니다.」 왜? 언제나 지는 법이 없어요. 한 번 쳐 가지고 몇억 달러 지불했으면 다음에는 틀림없이 이긴다는 거예요. 수백억 달러 걸고 하자 이거예요. 수천억 달러 걸고 하자 해서 세 번만 하게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박수)

이런 배포와 그런 강질성, 끈질긴 배포가 있으면 가능한 거라고요. 선생님이 끈질긴 사람이예요, 만만한 사람이예요? 「끈질긴 사람입니다.」 끈질긴지 한번 잡아 당겨 봤어요? 잡아당기지 못하고 전부 다 도망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련도 나를 무서워하고 일본도 나를 무서워하고 미국도 나를 무서워하고 독일도 나를 무서워하고 구라과 전체 강대국이 나를 다 무서워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무엇보다도 없다고요? 남자는 무엇보다도 없다고요? 마늘 두 쪽밖에 없다 이거예요. (웃음) 그런 거예요. 힘! 남자는 힘의 상징입니다. 여자는 힘을 갖고 나타난 남자 앞에는 꼼짝못하고 ‘아이구구, 살려주소!’ 그게 여자예요. 아무리 배포가 크고 아무리 잘난 여자라도 말이에요. 그래, 남자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일교회도 힘이 필요함으로 말미암아 무술을 내가 개발한 거예요.

남자는 절대적으로 여자가 필요하다

지금 정도술 같은 건 공격적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은

없다구요. 전부 다 힘있는 사람은 갑자기 습격을 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환경에서 이걸 방어할 수 있는 운동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내가 고안한 것이 원화도라구요. 공격을 안 합니다. 기도하는 입장에서 손을 비비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라구요. 그게 유명하다구요. 정도술이…. 태권도 20년 한 사람이 정도술 1년 한 사람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술이 그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가정까지 이것이 소화 못 시킵니다. 특정 계급은 소화시킬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나라와 가정까지 연결시키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원화도를 내가 고안해 낸 거예요.

선생님도 운동하는 소질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남자 축에 이만했으면 됐지요. 지금도 이게 여기 올라간다구. (박수)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장시간도 80노인이지만 버티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날 80 노인이라고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나한테는 못 당하는 거예요. 잠자는 데도 못 당하고 참는 데도 못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 많은 신랑 얻어 왔다고 얘기 못 한다구요. 내가 신세를 좀 지려고 했더니 신세를 질 게 뭐예요? 신세를 끼쳐 주어야 할 서글픈 사연을 갖고 사는 불쌍한 남편이 되었다는 걸 알아줄지어다.

일화 안 만들었으면 한국 축구가 형편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일화 축구단을 그냥 줄까요, 팔까요? 이제 그만큼 했으면, 서로가 이런 단체를 필요로 하는데 말이에요. 전부 다 누가 대신….

이거 왜, 자꾸 여자들이 옆에 앉아서 야단이구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자들 앞에 욕을 먹었어요. 길 가는데 왜 자꾸 만져? 발을 만지고 말이에요. (웃음) 여기 조사위원들이면 그런 걸 좋아할 텐데 나는 제일 여자가 싫어요. 여자 때문에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그 물결 파동이 말이에요, 저 세계 끝 동네까지 문충재를 아느냐고 물어보면 모른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구요. 그러면 무엇에 그렇게 욕을 먹었느냐 하면 말이에요. 여편네 빼앗은 여자 도둑놈! 자기 남편 있는

여자들을 도둑질 해 가고 그 다음에는 아들딸을 도둑질해 간 도적놈이라고 그러더라구요. 그거 기분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이게 개구리떼 같은 여자들이 겹겹이 둘러싸면 이걸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해요. 날아가고 없어져 버려야지요.

통일교인이 아니고 조사위원 같으면 문총재에게 한 대 맞았다가는 기분 나빠 가지고 ‘아이구, 일생에 맞지 않은 머리가 터질 뻔해서 야단났다.’ 그럴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말이에요. 여자들은 어쨌든 주의해야 돼요.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도 걱정이에요. 이거 봐요, 이 할머니. 이려고 있으니 욕 먹게 돼 있어요. 일본에 가도 그렇고, 미국 가도 그렇고, 독일 가도 그렇고, 마찬가지로예요. 소련 여자들은 공산당이기 때문에,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예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지지리 단련받은 문총재는 여자의 구세주가 영원히 안 될 수 없다! ‘아멘’ 해 봐요. 「아멘.」

그리고 나서는 여자 구세주가 되어야 된다니 기가 차지요. 남자는 뭐냐 하면 남자는 천사장이다 이거예요. 통일교회 원리로는 남자는 뭐라구요? 통일원리를 공부하면 남자는 뭐라고 해요? 천사장 후신들이예요. 천사장의 몸뚱이다 이거예요. 여자는 뭐라구? 해외예요. 복귀되어 들어오는데는 천사장과 갈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끝날이 되면. 천사장은 상대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끝날이 됴므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가야 돼요. 우리 타락원리가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래, 남자가 여자를 싫어해야 되고 여자가 남자를 싫어해야 돼요. 그것이 호모 섹슈얼(homo sexual)이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레즈비언(lesbian)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여자 여자끼리 결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동물세계도, 이 곤충이나 균도 전부 다 양성과 음성인데 그런 패는 없어요. 인간만이 있는 거예요, 인간만이. 여자 여자끼리 결혼하는 법이 있어요? 오목, 오목끼리 갖다 맞출 수 있어요? 남자 남자끼리, 볼록 볼록끼리 맞추면 뭐가 돼요? 세상에 이럴 수 있는 조화가

이 끝날 세상에 벌어졌다는 것이 신기하게도 우리 타락원리와 딱 맞기 때문에 문총재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놀음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수)

여자는 절대적으로 남자를 싫어해야 된다는 것하고 남자는 절대적으로 여자를 좋아해야 된다는 것하고 어느 것이 맞아요? 첫 번 말이 맞아요, 둘째 번 말이 맞아요? 「두 번째입니다.」 듣기는 들었구만. 잘생기지 못해서 기분이 나쁘구만. 얼굴이라도 잘난 미남자가 그러면 기분이 좋을 텐데. 제멋대로 된 남자가 하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듣기는 들었구요.

여자는 절대적으로 남자가 필요치 않다, 필요하다 어느 거예요? 「필요하다.」 정말이에요? ‘지금 이 밤이었다면 필요할지 모르지만 낮이기 때문에 그 말은 필요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한번 해요. 절대적으로 그렇다. 「절대적으로 그렇다.」 남자도 그래요. 남자는 절대적으로 여자가 필요치 않다? 「필요하다.」 그래, 나도 배웠어요. 남자는 절대적으로 여자가 필요하다! 해봐요. 「남자는 절대적으로 여자가 필요하다.」 자, 그러니까 내가 점심 안 먹어도 기분이 좋구요.

우주의 근본은 사랑

자, 오늘 얘기할 것은 뭐냐 하면, 이제 근본 얘기를 한번 해 보자구요. 하나님이 있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을 봤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봤어요? 봤어, 못 봤어? 생명의 작용 현상은 알 수 있고 볼 수 있지만 생명 자체는 못 봅니다. 사랑을 봤어요? 사랑이 네모나겠느냐 동그랗겠느냐 그런 말도 있지요? 사랑을 봤어요, 못 봤어요? 보지도 못하고 왜 좋아해요? 그거 미친 녀석이에요, 됴됨이가 된 사람이에요? 미친

녀석 아니면 낙제짱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걸 깨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우주의 근본이 어떻게 되느냐? 원인이 없이 생겨난 것이 없다, 원인이 반드시 있어 가지고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게 될 때, 남자 여자가 생겨난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뭐예요? 여자가 생겨난 것은 남자를 잡아먹기 위해서예요? 남자가 생겨난 것은 여자를 잡아먹기 위해서예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생겨났다면 여자도 사랑 때문에 생겨났고 남자도 사랑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이 원인이라구요.

그러면 남자 여자들이 결과인데 그 결과는 사랑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의 그 본체도 결과와 이퀄(equal;같음)이 돼야 돼요. 밤톨이 그 원인이면 그걸 뿌려 가지고 전부 다 밤이 여기서 많이 열리게 되면 밤 맨 한 톨 심은 그 씨나 그 다음에 거둔 수확된 씨나 한 톨 자체의 가치는 이퀄이어야 돼요. 결국은 원인과 결과는 전부 다 대응적인 관계를, 가치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 방향은 하나밖에 없어요. 밤이 밤톨로서 결실되기 위해서는 영원히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두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 전부 다 원인... (녹음이 잠시 중단됨)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남자 여자가 성숙되어 가지고 말없이 서로 끌려가는 거예요. 지남석을 놓아 놓고 말이에요, 거기에 쇠가루를 갖다 놓으면 전부 다 ‘너 붙어라.’ 해서 붙어요, 자동적으로 재까닥 붙어요? 자동적으로 붙어요. 아담 해와도 하늘의 사랑을 중심삼고 이 철분과 같이 자동적으로 하나되어 재까닥 달라붙는 거예요. 그랬으면 그건 지남석 주체가 주인이에요, 그 철분이 주인이에요? 지남석이 주인이라구요.

눈이 요렇게 생겼는데 왜 생겼어요? 보기 위해 생겼다고요. 코가 요렇게 왜 생겼어요?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말기 위해 생겼다 이거예요. 귀가 이렇게 왜 생겼어요? 보기 위해서 생겼지. 다 답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졸지를 않아요. (웃음) 점심 못 먹고 배고프니 졸게 되는 거예요. 귀가 생긴 것은 듣기 위해 생겼느냐, 보기 위해 생겼느냐? 보기 위해 생겼다. 「듣기 위해 생겼다.」 보기 위해 생겼다. 「듣기 위해 생겼다.」 암만 선생님이라도, 하나님이라도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면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입이 왜 생겨났어요? 밥 먹기 위해 생겼지요. 말도 하고 밥 먹기 위해 생겼다 이거예요. 주로 필요한 것이 영향력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밥은 나를 위해서 먹는 것이고 말하는 것은 주변의 모든 전체를 위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말 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말을 듣고 영향받아요, 안 받아요? 나쁜 사람은 안 받고 좋은 사람은 받는다 이거예요. ‘배고픈데 밥 먹여주지. 아이쿠, 시간 자꾸 가네. 저 죽으면 좋겠다.’ 그러는 건 나쁜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눈이 왜 생겼어? 눈이 눈을 보기 위해서 생겼지!’ ‘코가 왜 생겼어? 자기 코 맡기 위해서 생겼지!’ ‘입이 왜 생겼어? 자기 입을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생겼다.’ ‘귀가 왜 생겼어? 귀가 자기 말 알아듣기 위해서 생겼다.’ 그런 거예요? 누구를 위해 생겼어요? 틀림없이 주체인 나를 위해 생겼어요, 상대를 위해서 생겼어요? 「상대를 위해서 생겼습니다.」 오관이 인간에게 중요한 것인데 오관이 나를 위해 움직이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상을 필요로 해서 움직인다 하는 천리를 알았습니다.

상대를 위해서 존재해야

그러면 몸과 마음도 어떤 거예요? 그것도 주체와 대상입니다. 상대를 위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몸을 위하고 몸은 마음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되면 여러분은 오관이 아니라 십관이 되는 거예요, 십관. 하늘 영계도 다 보고 안다구요. 전부 다 하늘나라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라디오 방송, 이 시대에 대한 시사평가도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 아니라구요. 여러분은 타락되었기 때문에 갈라져서 통일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본래는 하나되게 되어 있다구요.

하나님이 주체라면 사람은 최고의 사랑, 최고의 욕망을 무엇 때문에 갖게 되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분이 주체니까 그 분의 마음을 맞추려면 그렇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자기 상대가 자기보다 낫기를 바래요, 아니기를 바래요? 여기 예쁜 아줌마! 「낫기를 바랍니다.」 그래, 몇 배 낫기를 바래? 「많이요.」 몇 배나? 한 백 배? 아이구, 백 배라고 하면 옆에 사람은 ‘그까짓 백 배! 나는 천 배 원한다.’ 하는 거예요. 또, 천 배 하게 되면 ‘으이구, 그까짓 것! 난 만 배 원한다.’ ‘에이, 저까짓 것! 난 억만 배, 억 억 억만 배!’ 억억 하다 보니 기운이 빠져 가지고 넘어질 때까지 계속한다구요. 억만 배 이상 훌륭하기를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뭘 하려고 그래요? 훌륭해서 뭘 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요.」 그거 어디서 들었어? (웃음)

아무리 못났더라도 뭐가 효자라구요? 병신 자식이 효자라는 말이 있지요? 누워서 전부 뭐라구요? 식물인간이 됐으면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아침부터 걱정하고 저녁까지, 일생 동안 걱정하게 된다면 부모님이 그를 위해서 인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딸 가운데서 식물인간 된 저 자식같이 부모님을 염려하는 것을 보면 말이에요. 그렇다구요. 누워 살더라도, 일생 동안 봉사하고 살더라도 싫지 않다는 거예요. 피곤함을 느끼지 않아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뭐가 있지요?

자, 하나님은 매일같이 웃고 산다 할 때 매일같이 웃고 살아도 걱정

이라구요. 한 번 웃어 보라구요. 웃어 보라구요. 하루종일 24시간 웃어 보라구요. 웃고만 살아도 큰일이예요. 세상에 그런 큰일이 없습시다. 밥 먹으면 좋겠다 하더라도 24시간 밥 먹어 보라구요. 그런 지옥이 없지요. 도망가지 말래도 야간 도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때를 맞춰가지고 박자가 맞아야지 암만 이렇게 해도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박자가 맞아야 된다고요. 상대적 여건들이 합해가지고 천지의 조화와 모든 전부가 새롭고 험고, 전진 발전, 나쁘고 좋고, 희로애락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 사람에게는 좋은 것만 가지고도 안 된다 이거예요. 좋기만 하면 옆에서 전부 다 눈만 뜨면 보기만 하면 눈물을 줄줄 흘리면 ‘세상에 어떻게 눈물을 저렇게 흘리나? 나도 한번 눈물을 흘리면 좋겠다.’ 해서 그 사람이 울 수가 있어요? 그거 불행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여기 가면 좋은 사람이 있고 저쪽에는 또 우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가서는 좋은 사람과 같이 좋아하고 저기 가서는 우는 사람과 같이 울어주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화합이 사랑이고 통일이 사랑이고 하나 만드는 것이 사랑이라면 말이에요, 울 줄도 알고 좋아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오줌만 싸 가지고는 죽어요. 똥 쌀 줄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병나서 똥싸게 돼도 똥싸는 것이 죄가 아니예요. 늙어서 노망하는 것이 죄가 아니예요. 이거 미워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은 장래가 막힌다는 거예요.

전부 공기를 들이쉬는 게 좋다고 해서 ‘후후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상대적으로 되어 있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걸어도 이거 전부 다 상대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려고 가보라구요. 하나는 나가면 다른 하나는 들어가서 전부 다 보조를 맞추게 되어 있다구요. 천지조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고 낮고 다 그래야 경치가 되고 전부 다 풍경이 좋고 멋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얼굴만 보더라도 말이에요. 이게 얼굴에 뭐냐 하면 오관 가

운데 네 가지가 붙어 있다구요. 이거 무엇에 쓰기 위해서 붙어 있느냐? 사랑에 사람들을 감정하기 위한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니예요.

그 눈은 누구를 위해 생겨났느냐? 상대를 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생겨난 동기가 자기를 위해 생겨났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구요. 오관이 자기를 위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자라는 말은 남자를 먼저 인정하고 하는 말이에요, 남자 없이 하는 말이에요? 남자를 먼저 인정하고 하는 말이에요. 여자가 있기 전에 남자가 있다 하는 것을 선유조건으로 하고, 남자를 표준하고 여자라는 말이 생겼다 이거예요. 또, 남자가 있기 전에 여자가 있어서, 여자를 선유조건으로 하고 남자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뭐냐 하면 불룩이고 여자는 오목인데 둘이 만나야 하나 된다는 거예요. 오목 갖고 있어요? 이 쌍것들, 타락했으니 그렇지 본연의 세계에서는 다 얘기를 하는 거라구요. 하나님은 오목을 만들 때 기분 나빠하면서 만들었겠어요, 좋아하며 만들었겠어요? 「좋아하며 만들었습니다.» 봤어요? 보지 않았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좋아하며 만들었지 나빠하며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며 만들었겠느냐? 눈을 만드는 것보다 더 좋고, 입 만드는 것보다 더 좋고, 심장 만드는 것보다 더 좋고, 무엇보다도 더 좋아하면서 만들었겠느냐, 아이구! 할 수 없이 만들었겠느냐? 「제일 좋아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제일 좋아하면서 만들었어요.

인간에게 제일 귀한 것은 아들딸

그래, 하나님이 제일 좋아한 것이니 행복이에요, 불행이에요? 여자로 태어나 행복했었어요? 아줌마, 여자로 태어나 행복했느냐 말이에요. ‘아이구! 우리 오빠들이 많은데, 남자 투성이 가운데 왜 여자로 태어났나? 남자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러지요.

얼마나 좋아하며 만들었겠느냐? 제일 좋아하고 만들고 제일 정성들여 만든 것이 남자 여자의 몸뚱이 가운데 어디일 것이냐, 무엇이겠느냐 생각해 보라구요. 그게 생식기라는 거예요, 생식기. 생식하는 밥쌀을 갖다 담는 그릇이 아니예요. (웃음) 생식기라면 사는 것을 심을 수 있는 그릇이다 이거예요. 생명의 생식이예요. 생명을 심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자리가 없으면 천년 만년 되어도 생명이 안 태어나기 때문에 나라도 없고 세상은 암흑 천지, 사막 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인간에 있어서 제일 귀한 게 뭐냐 하면 아들딸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을 해봐요. 아들딸을 가졌으면 아들딸을 전부 다 도둑놈이 찾아가도 좋아요? 아들딸이 귀하지요? 아들딸이 귀해요, 여편네가 귀해요, 남편이 귀해요? 이것도 원인을 규명해야 돼요. 아들딸이 귀해요, 여편네나 남편네가 귀해요? 남편네 된 사람은 여편네와 아들딸을 바꿀 수 있어요? 아들딸을 주고 여편네를 자기가 가질 거예요, 여편네를 주고 아들딸을 가질 거예요? 똑똑히 대답하라구요. 원리원칙에 맞아야 돼요. 「아들딸을 가집니다.» 여편네는 버리고?

그러면 여편네 없이 아들딸이 생겨나는 법이 있어요? 누가 원인이예요? 글썽 원인이 누구예요, 원인이? 아들딸은 생겨난 결과인데 원인이 누가 되어 있어요? 아버지도, 자기도 되어 있지만 반쪽은 엄마가 되어 있다구요. 색시가 되어 있어요. 그걸 잘라 버리면 아들딸도 절반 자르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렇다구요.

그러니까 아들딸을 먼저 사랑했느냐, 아내를 먼저 사랑했느냐 이거예요. 「아내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아내를 먼저 사랑한 거예요. 먼저 사랑한 것이 언제나 대가리지 꿈지가 아니예요. 사랑을 중심삼고는 아들딸은 꿈지고 어머니 사랑하는 것은 머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꿈지보다 머리가 낫다, 아들딸을 버릴지라도 여편네는 못 버린다, 그런 이론이 성립되는데 그것이 천리라는 것입니다. 원리원칙에 맞아요. 십 년

후에 백년 후에 이론적으로 따지더라도 이 말은 변할 수 없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가정에 들어가면서 ‘야, 아무개야!’ 하고 아들을 먼저 불러요, 아내를 대해서 ‘엄마!’ 불러요? 아들 대신, 딸 대신 ‘엄마!’ 하고 불러주면 ‘큰 왕 같은 아들, 큰 할아버지 같은 아들, 진짜 오빠 같은 아들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들어가 가지고 아들 대신 ‘엄마!’ 하고 불러 보라구요. 그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엄마 소리가 그치기 전에는 나와 영원히 같이 있겠구나.’ 그 얘기 아니예요?

자기가 엄마를 버릴 수 있어요? 제2의 엄마가 그거예요. 제1의 엄마는 나를 낳아준 어머니이지만 제2의 엄마는 아들딸을 낳아준 엄마가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엄마도 되고 부모도 귀중하고 그리고 아들딸도 귀중하니 엄마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제일 남편에게는 복음 중의 복음이다, 여자에 있어서는 듣는 그 소리가 복음 중의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럴싸, 안 그럴싸? 「그럴싸.」 ‘그럴싸’ 하면 ‘아멘’ 하고 ‘안 그럴싸’ 하면 ‘노멘’ 하라구요. 「아멘.」 영원히 ‘아멘’이예요? (박수)

하나님이 제일 정성들여 만든 생식기

바람잡이 좋아하는 남자 손 들어 봐요. 바람잡이 좋아하는 여자 손 들어 봐요. 들어보라구요, 상 줄게. 한 놈도 없구만. 한 마리도 없어. 없으니까 욕을 해도 괜찮지요. 바람잡이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는 꿈에도 없고 바람잡이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는 꿈에도 없더라 이거예요. 꿈에 암만 찾아봐야 없다는 겁니다. 지옥 가 찾아봐도 그런 것은 없어요. 그게 천리입니다. 그런 것은 없으니까 바람잡이를 싫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잡이 좋아하는 남자, 바람잡이 좋아하는 여자들은 지옥에 가 거꾸로 꽃히는 거예요. 가게 되면 거꾸로 꽃혀 가지고 발만 여기 남아 있는 거라구요. 그런 지옥이 있는 게 좋은가, 없는 게 좋은가?

인과원칙이라는 것은 변할 수 없습니다.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씨를 심었더라도 중간에 벌레를 먹던가 사고가 생겨나게 되면, 그것이 요소가 삭감되게 되어서 완전한 싹이 못 나오는 거예요. 천리이치가 그래요. 결여된 부분이 나타날 때는, 그런 불합격품은 폐품도 이용 안 한다는 거예요. 왕가집에서는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제일 정성들여 만든 곳이 어디냐? 손가락, 눈, 어디예요? 「생식기입니다.」 정말이에요요? 「예.」 여자는 무엇 때문에 궁둥이가 컸어요? 생식기 때문에 큰 것이라구요. 젖이 왜 나와요? 젖이 왜 생겼어요? 생식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생식기를 통하지 않으면 아기가 안나오잖아요. 그것이 작동하게 되면, 여자들은 전부 다 사랑하게 되면 전부 다 그 반응에 젖이 생긴다구요. 여자들은 궁둥이를 휘젓는다고 그러잖아요? 길거리에 갈 때 옆에 가는 남자가 있으면 궁둥이를 이려고 이려고 다니는 건 바람잡이라는 거지요. 여자들은 궁둥이하고 이 젖가슴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들은 안타까워서 전선대를 붙잡고 우는 여자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그래 봤어요? 그런 여자가 어디 있을고? 여자들이 그렇다는 말을 들으니 그거 사실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러한 뭐라고 할까? 정욕에 불탈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해봤다는 말이에요? 「해봤어요.」 (웃음) 신랑이 왔으면 저러니까 매 맞고 쫓겨난다구요. 인간이 정욕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절대 하나님에 속한 권한이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욕이 없으면 하나님을 품고 영원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인들이 길가에 나가게 되면 더벅머리 같은 남자가 얼마나 그리우면 말이에요. 와 가지고 쓱 만져보는데 풋! 침 빨지요. 그런 걸 경험해 봤어요? 그 사람이 자기 오빠면 어떡할 테예요? 천년 만에 이별했던 남편이 그 모습이면 어떡할 테예요? 침 빨겠어요? 아버

지면 어떡할 테예요? 그럴 때는 자기의 사랑하는 오빠같이 생각하고 아버지같이 생각하고 ‘왜 이러세요? 뭐가 필요해요?’ 그래 가지고 점심 때면 ‘점심하고 싶어요?’ 하고 돈을 내준다면, 얼마나 멋진 여자예요! 그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런 처리 방법도 숙녀답게 처리할 줄 다 알아야 된다고요.

무엇 때문에 사느냐 하면 말이에요. 사랑 때문에 살아요.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구요. 이걸 다 부속품이에요. 다 부속품입니다. 사랑하는 상대를 찾기 위한 부속품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주인, 원작품이 뭐예요? 그것이 성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조사위원들! 조사위원! 「예.» 오늘 전부 다 여기 왔으니 내 말을 들어야 돼요. 싫어도 들으라고요. 그런 가치적 존재가 뭐라고요? 성기입니다. 통일교회 교주가 성을 얘기하니까 나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건 타락하지 않았을 때 얘기라고요. 그건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도 말이에요. 왜 아담 해와한테 옷을 입히지 않았을까? 답변해 봐요. 그게 얼마나 크느냐 감정하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성숙해야 털이 나고 다 그러잖아요. 그거 다 남자들도 얼마나 크느냐 감정할 거 아니예요? 그거 하나님이 보고 싶었겠어요, 안 보고 싶었겠어요?

여러분도 아들을 낳아 가지고는 몇 달 동안은 말이에요. 매일 같이 들쳐 보는 것이 입이에요, 어디예요? 대답하라구요. ‘야, 이게 왕이 되누만. 이걸 통해 가지고 다리를 놓게 되면 천하가 왔다갔다하누만!’ 그래, 아버지가 대개 그렇지요. 나도 그런 일이 있다구요. 그걸 보면 싫지 않아요. 만지고 싶고 말이에요. 오늘 저녁 돌아가서 한 번 키스해 보라구요. 더러워요, 재미있어요? 더러운 것이 없어요. 그걸 쫄쫄 빨 때 오줌을 훑 싸도 괜찮다 이거예요. (웃음) 물고 있다가 먹으면 소문 나겠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빨지 사랑하는 어머니는 그걸 맛도 본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걸 맛 봤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동생이 참 미남자

였더라는데 여덟 살에 돌아갔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흰하구만. 전부 다 돌아가기 전에 똥 맛이 쓰면 어떻게 달면 어떻게 하는 것을 가지고 병났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말이에요. 똥 맛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는 걸 봤다구요. 지금까지 참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했는데 사랑이라는 세계에 있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안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그렇게 크니 그 부모를 위해서 효도를 얼마나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이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뼈와 같은 사랑이 종족인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성들여 만든 것이 어디나 하면 제일 안전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건 바람이 불건 사지가 고장나더라도 그것이 불구 되었다는 소리를 들어 봤어요? 사고 나 가지고 그게 불구 되어 죽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대가리가 깨지고 어떻게 해서 죽었더라도 그것이 터져 가지고 죽었다는 사람은 내가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구요. (웃음) 정말 아니예요? 그 안전지대 중에 그렇게 좋은 훌륭한 안전지대에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인간 조상들은 아무리 연구해야 그럴 수 있는 연구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있었으니 그런 연구를 했지요.

또, 남자 그 주머니는 만년 불파(不破)예요. 남자 주머니들을 모르지요? 추울 때는 위에도 올라가고 동서남북 춤을 추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얘기한다고 뭐라고 할 지 모르지만 본연의 에텐동산에 있어서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숙된 그 여자들, 남자들이 결혼할 날을 보려면 말이에요. 남자는 수염이 나고 여자도 수염이 나지요? 얼굴은 아니지만 수염이 나지 않아요? 한 곳에... 겨드랑이하고 수염이 나잖아요. 그걸 볼 때, '아, 성숙이 되었구만.' 해 가지고 '저놈의 자식들의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봄

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봄날 남풍이 불어 와 가지고 모든 전부 북풍의 어렵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새싹이 나올 수 있는 준비를 하누만.' 해 가지고 '야 야, 아담아, 해와야! 너 왜 이게 털이 났어? 이게 뭐야?' 그러면 '나도 몰라요. 이렇게 나니까 남자는 여자를 생각하고 여자는 남자를 생각하는 그러한 조화가 벌어집니다.'고 할 때 '정말 그래? 안 그렇지?' '그래요.'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물어봐도 그렇다는 것에 굴복하게 된다면 결혼시켜주겠다 생각했겠어요, 그냥 내버려두겠다고 생각했겠어요? 결혼시켜 줄 생각해야지요? 고마운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기 딸을 사랑한다 해 가지고 전부 다 혼자 늙어 먹도록 부려먹겠다는 그 아버지는 도적놈이고 이 땅 위에 없어야 할 애비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 결혼시켜 주려 할 때 '아이구, 사랑의 주인은 나인데 어떻게 결혼시켜 줄 거야?' 할 때 문제라구요. 결혼시켜 사랑하는 부부가 되어 사랑하는 것을 구경하고 싶겠어요, 어떻겠어요? 하나님도 그런 사랑의 체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담 해와만 그렇게 하도록 구경하겠어요, 그렇게 같이 좋아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어요? 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은 통일입니다.

이런 논리를 추구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인간과 하나될 수 있는 것이니, 전부 다 구경만 할 수 없고 그 이상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내적인 뼈와 같은 사랑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땅 위의 부부는 살 같은 사랑을 한다면 하나님은 뼈와 같은 사랑을 해야 돼요. 그 뼈와 같은 사랑이 종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종적 사랑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횡적인 사랑은 둘이에요. 둘이 이성성상으로 분립해서 남자 여자로 만든 것이 사랑을 중심삼고 비로소 하나님하고 딱 하나되는데 어디서 하나되는 거예요? 입맞추는 데서?

모든 것이 주체 대상으로 돼 있어

여러분 아들이 있으면 누구 아들이 돼요? 여러분 부처끼리 아들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내적인 양심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뼈적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몸(살)적인 아들은 전부 다 내 아들딸이니 살과 뼈가 합해 가지고 하나의 인간을 형성하는 거예요. 양심은 내적이고 몸똥이는 외적인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몸똥이가, 살이 말이에요, 뼈다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 몸을 위한 사람들이예요, 양심을 위한 사람들이예요? 뼈가 없어요, 뼈가. 뼈가 없다구요. 제멋대로예요, 제멋대로. 제멋대로 오늘 저녁 이 밤에도 저 방에 구질구질해 가지고 술 먹어 자빠지고 전부 다 기생을 께차고 뼈가 없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통일교회 교인이예요, 조사위원이예요? 통일교회 교인 아니예요? 왜 가만히 그러고 있어? 솔직히 얘기하지. 「777가정입니다.」 777가정? 그래도 뭐 간판이 붙었구만. 뼈 살이 하나된 사나이예요? 살이 뼈를 끌고 다니는 사나이예요, 뼈가 살을 끌고 가는 사나이예요?

이것이 문제 된다구요. 우주주관 바라기 전에 자아주관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예요. 천국의 기지가 어디 있느냐 하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몸똥이예요. 몸똥이의 이 섹스, 몸똥이 하자는 대로 사랑을 찾아가는 곳이 지옥의 밑바닥이고 양심이 하자는 대로 찾아가는 곳이 천국의 출발지라는 겁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두 세계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문충재가 우주를 전부 다 살살이 뒤져보니 그것밖에 결론 해 놓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보나 인간에게 물어보더라도 ‘그런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발표해 가지고 환영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통일교회를 중심삼아 가지고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내 일대에 있어서 역사를 통하여 휴전하지 못하고 정전하지 못하는 내 몸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마음의 절대 주인과 더불어 몸을 완전히 소화시켜 일체적인 입장에 서 가지고 예덴에서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일체 된 그 일 점을 밟아 가지고 우주 여행 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다 할 수 있다구요. 앉아서 우주를 다 저 세계도 들어가고 저 아래도 다 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면 알지요? 느끼지요? 마찬가지로요. 사랑의 힘줄을 쥐면 우주가 다 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같은 사람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했어요. 공명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명. 둘이 하나되면 전부 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영계의 무엇이든 세상살이의 모든 전부를 자기 일생 동안 다 알고 살 수 있었던 것이 인간인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전쟁 마당에 살고 있으니 이래 지치고 저래 지치고, 마음 싸움 몸 싸움을 해 가지고 지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오는 고통과, 전부 마찬가지로요. 육적 고통과 마음적 고통, 두 세계 고통을 거쳐서 지쳐 가지고 천년 만년 이상 한 것을 다 잃어버려 가지고 전부 다 뭐라고 할까? 휴지조각이 되어서 바람에 날리는 거예요. 동서사방 곳, 사계절의 바람에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정처 없이 날아다니는 인간세계가 되었으니 언제 어디서 쓰러질지 모르는 그런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참한 한계선을 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모든 것이 주체 대상입니다. 눈도 쌍쌍이 되어 있고 말이예요. 코도 둘이 되어 있는데 콧구멍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편리해요? 감기 들게 되면 이게 다 통해야 좋아하고, 눈도 다 통해야 머리도 안 아프다구요. 입술도 요것 1밀리미터만 틀어져 보라구요. 말을 못해요. 발음이 째 발음이 된다구요. 이게 다 상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귀도 여기 전부 다 공명해 가지고 사문 판이 전부 다 하나되어야 들리

는 거예요. 손도 전부 다 이렇게 해야 소리가 나지 이러면 소리가 나
나요? 천년 만년 해도 이걸 없애지는 거와 마찬가지로요. 모든 것이
상대적인 세계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상대인 몸이 주체와 쌍을 이루어 가지고 마음이 하자
는 대로 척척 도수를 맞추었으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천도를 전부
헤아려 가지고 해방된 자유인이 되어서 사랑을 중심삼고 절대 하나님
을 모시고 사는 효자 효녀가 될 수 있는 직계 자녀가 될 수 있었더라
이거예요. 상대 때문에 태어났다 이거예요.

사랑의 주인

그래, 여자는 오목이니까 볼록이 절대 필요합니다. 안 그래요, 그래
요? 여자 여러분은 뭐가 필요해요? 오목이 필요해요, 볼록이 필요해
요? 그거 부끄러워하는 것은 타락한 후손이에요. 본연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물어 보게 되면 뭐가 필요하다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볼
록이 필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냐? 절대적이다 이거
예요. ‘네 생명보다 더하냐?’ 할 때 ‘그렇고 말고’ 하는 거예요. 왜? 하
나님이 거기에 달려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달려 있다
구요. 근원이 달려 있어요.

사랑의 주인이 누구예요? 아담 해와예요? 여기 사랑 보따리의 근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전부 다 하나님 마음속에 그리던
들이 전부 다 하나되어야 된다고요. 그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사랑
의 파트너를 가지고 외로운 하나님의 자리를 피할 수 있기 위해서 천
지 창조 했느니라. 아멘! (박수)

그러면 하나님이 상대를 중심삼고 상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
나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게 되면 사랑 중
에 어떤 사랑을 좋아하느냐? 올라가는 사랑, 내려가는 사랑, 변하는 사

랑, 변하지 않은 사랑 중에 어떤 거예요? 변하지 않은 사랑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대하게 될 때는 신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돼요.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눈을 보니까 전부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남자는 수염이 났는데 여자는 수염이 못 났어요. 그거 만지고 싶은 거예요. 같이 수염 나면 관심이 없대구요. 남자는 어깨가 큰데 여자는 요거 주머니에 들어가듯이 어깨가 작으니 만지고 싶다 이거예요. 남자는 궁둥이가 작는데 여자는 왜 이렇게 궁둥이가 크냐 하고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대구요.

그러니까 신의, 믿을 수 있는 이런 모든, 관심을 끌 수 있는 조건이 믿음이에요. 신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신의 가운데 적당한 신의가 필요해요, 절대적 신의가 필요해요? 절대 신의를 가져야 됩니다. 절대 믿을 수 있는 여자, 절대 믿을 수 있는 남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는 절대 믿을 수 있는 플러스니 너도 절대 믿을 수 있는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좋다 하면 의심이 없어요. 그걸 따라가야 돼요. 이래라 하면 백 퍼센트 의심이 없이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믿고 행동하면 사실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세계의 남자 여자가 전부 다 신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게 된다면 첫날밤에 만나 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이 나를 영원히 믿고 사랑할 수 있느냐?’ 하지요? 믿음에 언제나 끌려다닌대구요. 친구들끼리 불신하게 된다면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일상생활의 주변에 필요요건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의 문제를 전부 다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절대 믿는 위에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절대 믿지 않는 불신의 개념이 하나도 없는 자리에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거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절대 신의 상에서 우주를 창조했기 때문에 상대자도 절대 신의 이상에 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론적입니다.

남자 여자끼리, 부처끼리 살더라도 말이예요. 남자가 전부 다 흥분할 때 여자도 같이 흥분해야지요. 여자 입술 보고 전부 다... 요즈음에는 화장해서, 루즈를 발라서 몰라요. 전부 다 바람피워 가지고 남자 싫은 사람들이 남자를 유혹하는 거예요. 본래 전부 다 여자들은 화장할 필요 없어요. 입술 보면 알아요. 입술이 빨개지거나 새파래져요. 그거 보게 되면 벌써 동그란 눈이 이렇게 돼요. 평면적이 된다고요. 자려고 한다구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아이구, 문충재는 여자 많이 사귀어 봤구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생리적으로 그렇다고요.

복귀의 길은 무서운 길

본래 타락하지 않았으면 말이예요, 여자들이 어떠느냐 하면 말이예요. 전부 다 성숙기가 되게 되면 젖이 부어요. 생리적으로 젖이 탄탄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부가 부어야 돼요, 음부가. 그런데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여자들이 없다고요. 그래, 음부가 부어요? 똥똥 부어요? 동물세계는 그것이 현실적으로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못 견뎌요. 냄새를 맡고 압니다. 암놈이 수놈 있는 데를 강이든 물이든 뭐 철망이 있든 직행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다리가 찢어지거나 꺾테기가 벗겨지건 간에 말이예요. 그런 거 모르지요?

그것은 타락해서 그래요. 장성기 완성급까지밖에 못 갔다는 것입니다. 완성기 완성급에 못 갔다 이거예요. 동물세계도 그런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하고 번식할 줄 아는데 만물의 영장은 자동적으로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타락입니다. 그 기관을 완전히 백 퍼센트 활용해 가지고 백 퍼센트 활동한 그런 사랑의 터전에서 머물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담 해와도 의심하고 불신한 거라고요. 신의를 파괴하고 믿을 수 없는 이런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타락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요.

그것을 백 퍼센트 활용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본연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연의 길을 가려면 사탄이 반드시 유혹하는 겁니다. 사탄세계의 혈통을 타고난 이것을 전부 다 부정하고 무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런 수양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나 하면 정욕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사탄적 정욕에 하늘적 정욕이 못 이겨요. 사탄적 정욕에 일원화되어서 사는 것인데 본성적 정욕이 기반만 되면 그건 문제가 아니예요. 문제가 아니예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본연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에 가게 되면 영계는 사랑이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 세포가 사랑화될 수 있는 것을 체험해야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거라구요.

이거 세포가 전부 다 숨쉬지요? 사랑의 세포를 전부 다 어디서 길러 가느냐 하면, 참다운 부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길러 가지고 하나님 세계에 가 사랑의 공기를 영원히 마시면서 사는 거예요. 죽지를 앓아요. 사랑이 근본이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는 무엇이든 가능하게 실천궁행할 수 있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전부 만들고 무엇이든지 창조할 수 있다구요. 그런 영계가 있다구요. 우리 본향이 있습니다.

농사지을 필요 없어요. 농토도 없어요. 차 만드는 공장도 없습니다. 사는 꽃밭과 집은 있을 수 있으되 그 외는 없다구요. 천리 만리 길도 순식간에 왕래합니다. 몇억만 리도 보고 싶으면 재까닥 한마디면 나타나는 거예요. 실체와 같이 느낄 수 있고 살 수 있는 그런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의 이상의 왕인데 말이에요. 그 분이 살 수 있는 환경, 자기 본고장이 얼마나 멋졌겠느냐 이거예요.

시공의 한계선에 매여 가지고 죽고 사는 것을 전부 다 고민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예요. 벗어나도 몇 백 단계를 벗어난, 그런 꿈의 세계와

이상의 세계가 우리의 본향 땅인 것을 잃어버리고 모르고 사는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청맹과니도 유만부동 할 수 있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다 내가 오늘 말 하루종일 해도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고 밤 12시까지 얘기하겠네.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 마음이 상대적이 못 되어 있기 때문에 싸우는 한을 벗어나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것 가지고, '우주주관 바라기 전에 자아주관 완성하라'는 표어로 싸운 거예요. 영계에 들어가자면 사탄세계의 정욕이 통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거 전부 죽어 버려야 돼요. 그러면 여자들이 별거벗고 와서 유인하더라도 남자의 그 작대기가 서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넘지 않고는 통일교회 교주, 전부 다 사랑의 왕이 되어 있더라도 수많은 여자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야단하는데 그걸 처리 못 합니다. 그들을 전부 찾아 가지고 복귀해 주어야 된다고요. 복귀의 길이 무서운 길입니다. 험한 태산 준령을 넘어 찾아온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누구냐 하면 여동생이에요. 쌍태로 태어난 동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훌륭한 여동생으로 키워 가지고 훌륭한 아내로 만들어야 되고 훌륭한 어머니로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여자들의 한이 그거예요. 훌륭한 오빠를 못 갖고 훌륭한 남편을 못 갖고 훌륭한 아버지를 못 가진 것이 한이 아니예요? 지금까지 여자들이 원수한테 잡혀서 사는 거예요. 천사장한테, 하나님의 간부(姦夫)에 품에 들어가 사는 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면 일시에 정리하고 뛰쳐나올 이 환경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하려면 한정이 없다고요.

지금은 청소년 윤락과 가정파탄 세계화 시대

그래서 오늘 알아야 할 것은, 상대적인 기준이 안 맞는, 몸 마음이 싸우는 그릇된 자리의 결과적 인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기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되었으니 이것이 불합격자요, 파괴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떨어져서 전부 다 고장났다 이거예요. 고장 병이 들었는데 무슨 고장 병? 그릇된 사랑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매를 심었기 때문에 끝날에는 세상에 사랑 문제, 청소년 윤락과 가정파탄 세계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때입니다. 이걸 수습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도 손 못 댄 것을 끝날에 손 대겠어요? 타락하는 것을 전부 다 내버려 둔 하나님이 끝날에 타락의 열매로서 전부 썩어지게 된 이 판국을 손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뜻 앞에 반대한다고 못 쓰게 만든 것을 끌고 들어가 가지고 본연의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라구요. 방치예요, 방치. 방치하다가 구더기 밥이, 독수리 밥이 되어 가지고 거름덩이 되어서 썩어 없어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중심삼고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 주겠다는 거예요. 구세주가 어디 있어요? 통일교인은 뭘 믿고 살아요? 선생님을 믿고 살지요. 선생님은 도적놈이요, 선생님이 사기꾼이예요. 세상에서 사기꾼이라 그러고 도적놈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선생님 믿어요? 「예.」 믿지 말라구요. 사기꾼이예요. 썩을 수 있는 세상, 거짓말 세상 말이에요. 가짜 세상에 문충재라고 진짜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내 마음이 압니다. 춘하추동이 변하더라도 내 마음은 선생님을 따라가겠다는 것이 변하지 않아요. 핍박이 있더라도 빼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그거 병입니다. 무슨 병이냐? 좋은 병이냐, 나쁜 병이냐? 「좋은 병입니다.」 치료 병이예요, 치료. 주사 병이예요. 주사를 맞

아 가지고 딱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선생님 뒤만 따라가느냐? 남자는 하도 많은데 말이에요. 선생님보다 잘난 남자가 많지요? 돈 많고 퍽박 안 받고 말이에요. 세상에 제일 나쁘다는 사람을 뭘 하려고 여기 달라붙어 있느냐? 마음이, 마음씨가 그렇다구요. 밤에도 생각지도 않을 것 같은데 생각이 나고 낮에도 24시간 생각이 나고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안 따라갈 수 없게끔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좋아하니까 마음이 좋아하다 ‘죽겠으면 죽고 말겠으면 말고.’ 하고 그렇게 따라 가보면 죽게 안 되어 있다구요. 마음이 훌훌, 뭐라고 할까, 유충이 전부 다 번데기 되고 나비가 되어 가지고 천상세계에서 비약해 가지고 천국 직행할 수 있는 길이 있을 성싶기 때문에 마음은 그런 거예요.

마음은 못 속입니다. 마음을 속일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나쁜 말하려면 ‘야! 가만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전부 다 녹음 돼요. 통일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선생님을 생각해 가지고 녹음된 것이, 선생님만 생각하는 여자가 되었다고 타락이 아니예요. 그것이 전부 본연의 인연에 의해 키워나가는 거예요. 가정적 시대, 종족적 시대, 민족적 시대, 국가적 시대, 세계적 시대로 발전해 나오는 그걸 따라 나오니 옛날 자기 판도보다 다른 차원을 중심삼고 박자를 맞추어 나오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수십 년 따라오다 보니... 오늘도 곽정환이 얘기하잖아요. 사연도 많고 내용도 많고 잊을 수 없는 본심이 우러나는 통곡의 길이 나를 안고 해방의 세계로서 날아갈 수 있는 자기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행복한 자예요, 불행한 자예요?

못 먹고 하루에 금식을 한 끼씩 두 끼씩 하더라도, 한 끼씩 먹고살더라도 전부 다 탄식을 안 하는 거예요. 일생 동안 고생하더라도 사랑 길에 고생하는 데는 흠이 안 생깁니다. 굶어 놓으면 흠이 생기는데 사랑 길에는 흠이 없습니다. 사랑의 힘에 아무리 굶어도 흠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살을 떼 내어도 흠이 안 생겨요. 마음에 흠이 없이 완

전한 마음, 개방된 그런 인격으로서 하늘나라 갈 때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천국에서 귀빈으로 모셔드리게 되어 있는 거라구요. 마음에 해방된 자를 누가 막느냐 이거예요. 천주에 어디든지 주인의 자리에 대접해 준다는 거예요. 좋을싸, 나쁠싸? 「좋을싸.」

그렇게 만들어 주는 선생님은 월사금 받아요? 월사금 받고 이 원리를 샀어요, 그냥 그대로 받았어요? 그냥 받았으니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알고 선생님까지도 그냥 준 그런 선생님이 무가치하게 아니까 사고라는 거예요. 사고가 뭐라고? 어머니한테 진짜 사랑을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요. 참부모를 공짜로 받았으니 공짜로 받은 자기가 전부 다 귀한 것을 몰라요. 모른 입장이라든가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된다고요. 그 뿌리를 하늘땅이 전부 다 따라오면서 주목하는 가운데 받았다면 그걸 대행할 수 있는 남자, 여자가 되어 그걸 받들어 가지고 가정에서 그들과 더불어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만 하나님이 그런 가정에 들어와서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요?

통일교회의 힘

하나님을 대표하고 인류를 대표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대표해서 살고, 그 사람 본심의 마음은 전부 다 과거 현재 미래를 거쳐 나갈 수 있고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중심삼고 그 마음 가운데 변하지 않는 절대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을 모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어디 가겠어요? 그 집에 오지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암만 잘났더라도, 암만 미인 딸이 다섯이고 말이에요. 못난이 딸이, 쪽정이 같은 딸이 하나 있더라도 마음은 24시간 일생 동안 생각하는 그 딸의 집에 가 머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예.」 뭔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마음이 그래요.

통일교회 믿으면 전부 선생님을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나쁜지 좋은지 모르지만 말이에요. 두 딸이 있으면 아무리 미인 딸이 훌륭한 딸이지만 거기에 가 있지 않고 쪽쟁이 같은 딸집에 가겠다는 거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설 수 있는 그 세계에 가다보니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가 살 수 있다 그 말이라구요. 부모를 모시고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나쁘지 않지 않지 않느냐 그거예요. 알싸, 모를싸? 「알싸.」

그래, 덮어놓고 행복해요, 무조건 행복해요, 그저 그럭저럭 행복해요? 「무조건 행복합니다.」 무조건 받았으니 무조건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고생해 가지고 만민이 무조건 기쁘게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한 사람이 희생해 가지고 천만이 희생하게 되면 그것이 선한 일 중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통일교인은 선생님이 그러니까 가지라도 되고 잃이라도 되어 가지고 지방에 돌아가게 되면 자기 일족 앞에 마을 앞에 남모르는 가운데 이런 위해 주고 전부 보호해 줄 수 있는 놀음을 하나님 대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게 되는 거라구요. 여러분의 마음이 선생님을 따라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갈 때 둘이 같은 마음이 되게 되면, 사랑이 느껴지게 되면 영원히 통일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사랑은 임시의 것, 잠깐 있는 것이예요, 영원한 것이예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논리를 중심삼고 사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된 그 사랑을 갖고서는 영생이라는 논리는 이론적이지요, 자연적인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죽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영원한 첫사랑을 맺은 사람은 하나님이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담 해와도 영원히 살아야 그 아들딸이 영원한 사랑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는 짝이요, 즐기니까 영생활 수 있는 것은 이론적이다 이거예요.

통일교회의 힘이 그거예요. 저 뿌리에 가면 갈수록,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선생님 생각이 더 간절해요.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이 말이에요. 그게 사고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다 영계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 조직을 몰라요. 땅 끝과 땅 끝에 나누어 가지고라도 전부 다 사모해서 불타게 된다면 말이에요. 밤잠을 못 자요. 밥 먹을 걸 잊어버릴 정도가 되게 되면 영계에서 통하는 거예요. 직접 선생님이 될 하는가 다 보는 것입니다. 훌륭한 일이지요. 그 조직을 모릅니다.

그래, 사탄세계는 그 조직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을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선생님 앞에 먹혀버리는 거예요. 선생님 앞에 소화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비몽사몽이라도, 꿈 가운데라도 선생님을 만나는 사람은 손 들어 봐요. 몽시라든가 비몽사몽간에 기도 가운데 선생님을 보는 사람 손 들어 봐요. 그건 백 퍼센트 되어야 돼요. 백 퍼센트 아니면 거짓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목욕재개하고 밀실에 들어가 기도 하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인간세계에 있어서 통일교회의 특권입니다. 일반 종교는 그것이 없어요. 10년, 40년 정성들여야 할 것이 1주일 정성, 40일 이내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세계에 복잡한 문제가 많지만 남자와 여자 둘 때문에 이 복잡한 문제가 생겼다 이거예요. 수많은 종교, 수많은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다구요. 하나님은 절대적인데 절대적인 사랑을 중심삼고 그 사랑에 몸 마음이 절대적으로 하나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다가도 하나님이 계시면 북극을 향해서 이렇게 남쪽에서 있던 것이 돌아간다고요. 그런 작용을 해요. 자기가 어디로 갈 것을 알아요. 그런 남자가 못 되고 여자가 못 되었다구요. 타락했기 때문에... 몸 마음이 싸워요. 이게 원수예요. 싸우는 데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통일교회 교인은 그걸 정비해야 됩니다.

몸 마음의 통일이 되지 않으면 갈 길도 못 가는 거예요. 갔다가도

또 돌아와야 돼요. 일생 살았던 것을 돌아오려야 돌아올 길이 없어요. 한 번 가면 못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원 받아야 하는데 후원하려면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도 인간을 대해 가지고 구원섭리를 직접 못 하는데 여러분이 이 땅에 와 가지고 보충, 협조 받을 수 있는 길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이 땅에서 해결해야 돼요. 사랑을 체험하고 아들딸을 낳는 가정을 기를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라고요. 영계에는 해산이 없어요. 왜 해산이 없느냐 하면 종적이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자기보다 낮기를 바래

하나님의 사랑은 종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종적에 정착할 것은 한 곳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면적이 없어요. 해산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종적인 하나님 대신 남자의 생명 씨인 정자를 넣고 여자는 난자를 가지고 바뀌야 돼요. 남자 중심삼고 360도 도는 것이 여자예요. 제 아무리 여자가 잘났더라도 주체가 될 수 없다고요. 생명의 씨를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암만 여자끼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여자가 생명 씨, 정자를 심어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남자가 할 수 있어요. 강제라든가 어떻게 하든지 싫더라도 받게 되어 있지 주게 안 되어 있다고요.

그래, 여자는 어디까지나 생명에 결탁할 수 있는 주체적 내용에 있어서 거기 서지 못합니다. 아무리 못났더라도 남자가 서기 때문에 남자를 우러러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 키가 평균적으로 남자 키보다 큰 여자는 시집가기가 곤란합니다. 키가 크니까 남자를 우습게 보려고 그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수리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남자를 올려다보고 살게 되어 있지, 내려다보고 살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도 다 그렇지요. 여자 족속은 다 그래요. 암만 변명해도

그런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원칙은 정정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남자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났더라도 말이에요. 내가 잘났다는 여자들, 요즈음에 통일교인 되어 가지고 시집 같은 건 영원히 안 가겠다고 하더니 시집가서 한 3년 살아보더니 남편 없으면 울고불고 야단하더라구요. 더 못살겠다고 궁둥이를 내졌고 다 그러더라구요. 여기 여자들, 아기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얼마만큼 갖고 싶어요? 아기 갖고 싶은 이상 남편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남편 이상의 아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남편보다 잘난 아들 딸을 바라는 것은 도적놈이에요, 도적놈. 도적놈 심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훌륭하게 봐야 돼요. 다 그렇게 살아요? 「예.」

여자들이 입이 빠르지요? 여자 입이 빠른 거와 같이 남자가 빨라 가지고 둘이 같으면 싸움만 하는 거예요. 남자는 전부 입술이 두둑해요. 여자는 입술이 왜 가는 것이냐?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기 때문이라구요. 아기를 많이 낳게 되면 교통 정리를 해야 됩니다. 좁은 방에서 아기 셋, 넷을 데리고 자 보라구요. 매일 같이 남자 같으면 싸움만 하고 하루에도 몇 번 투닥거리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전부 다 일어서 돌아가지고 지키고 다 하려니까 이 입이 전부 빨라야 된다고요. 입이 둔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싸움 끝난 다음에 아들한테 싸움하지 마라 그러겠어요? 보자마자 ‘싸움을 왜 해?’ 소리를 지르려니까 말이 빠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말 빠른 것이 여자입니다.

남자는 말이 떠요. 나도 절반은 미쳤기 때문에 말이 빨라졌다고요. 시간은 없는데 말을 많이 하려니, 전부 다 그 놀음 하다보니 말이에요. 내가 평안도 사람인데 말이 얼마나 뜬지 알아요? ‘어’ 하고는 ‘머’ 하고 ‘니’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그렇게 말하던 것이 내가 서울에 와 보니까 하루종일 말 세 마디밖에 못 하겠더라구요. 아 이거 말하기 시작하면 벌써 다 끝나는데 그거 창피해서 어떻게 말해요? ‘이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말 빨리 하는 걸 연구했습니다. ‘갈갈갈, 갈갈갈, 걸걸걸….’ 전부 다,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까지 전부 다 하는데 한번 그러니까 3시간 반이 걸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15분 동안에 해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빨라졌습니다.

인간이 훈련하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천천히 하게 되면, 말을 빨리 하게 되면 여러분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떼보면 틀림없는 말인데 그 전체로는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요. 글을 써놓고 보면 틀림없는 이론적인 말을 했는데 듣고 보면 무슨 말인지, 요것도 고것 같고 고것도 요것 같은 거라고요. 모맥(牟麥) 알지요? 모맥같이 말이예요. 요 각자도 삼각자도 다 마찬가지로인 것 같은 거예요.

주체 앞에 훌륭한 대상이 될지어다. 여자들이여 알지어다! 「아멘.」 대상 앞에 훌륭한 주체가 될지어다. 남자들이여 알지어다! 「아멘!」 답변은 잘 한다. (박수) 훌륭한 남자요, 훌륭한 여자니 훌륭한 남자 여자가 사랑하는 그 사랑도 훌륭한 사랑이 되고 훌륭한 사랑 가운데는 열매가 맺히면 훌륭한 아들딸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남편이 못났더라도 훌륭하게 살고 훌륭한 사랑의 주인 노릇을 하면 훌륭한 아들딸은 자연스럽게 태어나는 거예요. 남편 없었다고, 아내 없었다고 탓하지 말고 그 이상 훌륭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되어서 살게 되면 훌륭한 아들딸을 틀림없이 낳는 거라고요.

자기 남편보다 훌륭한 아들딸 낳았어요? 「예.」 욕심쟁이 여자들이 그런 훌륭한 아들은 못 낳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든지 축복가정 집에 가게 되면 여자가 안고 있는 아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들을 보게 된다면 ‘야, 이 간나는 남편을 사랑 못 했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보다 못 생겼거든. 그건 어머니 책임이예요. 태교라는 게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말을 할 필요 없어요. 문제는 간단한 거예요. 절대적

인 사람으로서 몸 마음이 하나되고 그런 남자, 그런 여자가 절대적인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되게 되면 하나님도 훌쩍 입에 삼켜 버리고 싶고, 눈에 넣고 싶어지는 거라구요. 우리도 그렇지요? 사랑하면 눈에 집어넣을 것이냐, 삼켜버릴 것이냐, 포켓에 넣고 날아갈 것이냐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사람이외에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 이외에 말이예요.

이러니 이상적인 욕심이 크다는 거예요. 마음 보따리가 크지요? 하나님의 상투 끝에 올라가 춤추고 싶고 다 그러고 싶은 거예요.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왜? 하나님도 기쁨의 하나님만이 아니예요. 슬플 때는 위로의 대상자가 되려니까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되겠기 때문에 상대가 자기보다 낮기를 바라는 거예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자기보다 낮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외롭고 슬플 때 위로할 아버지 어머니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모르지만 하나님 대신, 아버지 어머니 대신 해 주기 때문에 사랑의 상대는 자기보다 몇백만 배 낮기를 바라는 거예요. 몇백만 배 위안 받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나를 위해줄 수 있는 사람을 바라는 것이 지상 위에서는 이상적 남자, 여자 부부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슬퍼서 우는 남자를 어머니 대신 품고 전부 다 끌어주고, 영영 울던 것이 그 품에서 전부 다 잊고 편안함을 알아가지고 잠을 재울 줄 아는 아낙네가 될지어다. 아멘. (박수) 화가 나서 입술을 푸르르 떴고 눈이 새파래져서 독사뱀같이 삼각형이 되어져 가지고 이런 여자를 중심삼아 가지고 그걸 전부 다 아픔이 없이 가슴에 품고 말이예요. 내가 잠자기 전에 색시가 잠자게 해 놓고 잠자는데서 나도 같이 잠잘 수 있는 부부가 되겠다 하는 남편이 될지어다. 그것이 이상적인 남편이니라. 아멘. (박수)

참가정 운동에 전부 동참시켜야

아무리 못 해도 왜 둘이 맞서 가지고, 이마나 콧대를 대 가지고 싸우느냐 이거예요. 벌써 전부 다 비가 올 것 같으면 말이에요. 큰 집 주인이 되려면 말이에요. 빗간에 뭐 있으면 전부 다 그 곡식이 어떻게 되나 하고 말이에요. 비 맞으면 안 되겠으니 전부 다 미리 준비하는 거와 마찬가지로요. 저렇게 되면 오늘 저녁에 터진다 하게 될 때는 그 전부다 썩 해 가지고 말이에요. 상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흘만 상대하지 않게 된다면 찾아와서 ‘왜 당신 날 이렇게 모른 척, 아닌 척 하느냐?’ 하는 거예요. ‘모른 척 아닌 척하려고 했나? 싸우기 싫어서 그러지.’ 그렇게 세 번만 하게 되면 그런 포즈를 안 취한다는 거예요. 해보라구요.

그래, 정 못 참겠으면 ‘아이구, 소변 마려워!’ 하고 뛰쳐 가는 거예요. ‘싸움을 하더라도 변소에 갔다와서 합시다.’ 하고 한 15분 갔다오는 거예요. 소변 누러 가는데 보통은 1분도 안 걸리는데 말이에요. 3분 5분 걸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니까 대가리를 밀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 다음에는 문까지 나와 가지고 썩 둘러보는 거예요. 전부 다 문이 열렸다고 들어와 보면 말이에요. 어정어정 남편을 뒤에 놓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왜 나왔드랬어? 나보고 싶어 나왔어?’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걸 조정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사랑의 상대자가 되면, 변화된 사랑의 주체가 될 줄 알면 가정은 편안한 거예요. 그러기에 아무리 못났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싸워 가지고 자기 자식에게 눈물을 보여요? 내가 우리 어머니하고 약속을 했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통곡할 수 있는 비장한 결의를 하는 사건이 있더라도 아기들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눈물 보일 수 없는 거예요. 일생 동안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싸

우는 것을 못 보고 눈물도 못 봤다 할 수 있는 가정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 어때요? 이 남자, 어때요? 축복가정이에요? 어떤가 물어보잖아, 이 녀석아. 더러 싸우나? 「안 싸웁니다.» 안 싸우냐고 물어보는데 대답 안 하고 ‘더러 싸우나?’ 할 때 답변하는 거예요? 안 싸울 게 뭐야? 얼굴 보자, 안 싸우게 되어 있다. (웃음) 타산적인 머리이기 때문에 전부 다 안 싸우긴 왜 안 싸워? 말싸움이라도 하지요. 색시 한번 때려보지 않았어?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세계에 어디 가나 선생님에 대한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똑같아요.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간절한 마음이 그렇다구요. 찻간에 오색 인종 다섯이 타게 되면 말이에요. 다섯 나라, 보통 세 나라 이상 타요. 전부 다 선생님을 말하게 되면 전부 다 통일돼요. 선생님을 빼면 말이에요. 일본이 어떻고 뭐 어떻고, 미국놈이 어떻고, 독일놈이 어떻고 서로 싸우지만 말이에요. 선생님 말만 하면 전부 다 하나되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지요. 그래야 마음이 좋아요. 선생님 빼놓고는 하나 안 돼요. 그러니까 죽어도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예.» 돈 주고 사 올 수 있어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여러분은 다 갖고 있다구요. 선생님을 자랑하고 선생님의 역사를 알게 되면 모든 환경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거라구요.

몇 살이에요? 여기 할머니, 참 나이 많아서 이젠 90 가깝겠는데? 90 가까이 되지요? 딸 하나밖에 없잖아. 딸이 몇이에요? 「넷이에요」 딸 넷이에요? 통일교회 나오는 딸은 많지 않잖아. 하나밖에 없잖아요. 딸도 뭐 두둑하게 잘생겼구만. 할머니가 수고해 가지고 좋은 딸을 다 낳았다 하겠구만.

자, 참가정 운동을 합니다? 「예.» 말을 아무리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참가정 운동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일족을 구해야 돼요.

문제가 커요. 이제는 전부 다 참가정 운동에 전부 동참시켜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거와 마찬가지로 싫더라도 세 번 가 통고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해야 된다고요. 죽어요, 죽어. 안 하면 죽어요. 쫓겨난다고요. 이 땅에서 못 살아요. 전부 다 입적한 순서로써 대이동이 벌어져요. 그거 얼마나 비참해요? 조사위원들도 꿈으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대이동이 벌어진다구.

참부모를 만나 해방된 기쁨을 갖고 살자

윤박사도 왔어? 윤박사야? 「예,」 윤박사가 어떻게 왔어? 조사위원이야? 아, 어떻게 왔나, 물어보잖아? 조사위원들도 그래요. 앞으로는 통일교회 안 믿으려야 안 믿을 수 없습니다. 아들딸이 다 믿고 할아버지 될 때 전부 통일교회 믿게 되어 있으니 그때 가 가지고 전부 존경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서 한탄하지 말고 말이에요. 이미 문선생 집회에 왔으니 아예 전부 다 허리띠 풀어 제끼고 팬티만 입고라도 뛰쳐나가 챔피언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좋을 거예요. 내 말 들어 가지고 손해나는 사람을 나 못 봤다고요. 나도 하나님 말을 들어보니 손해난 적이 없어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가고 보면 그 몇천만 배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를 왜 지금까지 달고 왔느냐 하면, 하나님은 기독교에 축복을 다 줬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축복을 전부 다 줬던 거예요. 이들이 반대하니 이걸 잘라 버리면 세계 축복이 날아가 버려요. 하늘의 작전은 맞고 빼앗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죄 없이 맞아 온 거예요. 전부 다 한 가족이 나오고, 한 떼거리가 나오고,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그 가정도 무너지고 떼거리도 무너지고 교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통일교회가 그들의 신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모든 면에서

기성교회를 도와줘야 할 때가 왔다구요.

그러니까 가시밭길 걸어오던 그것을 곡괭이로 잘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살림할 수 있는 가정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라구요. 선생님이 지금 정착생활을 못 했다구요. 정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참부모와 성약시대 안착’이지요? 맨 처음에 1992년도에는 ‘참부모와 성약시대’, 그 다음엔 ‘참부모와 성약시대’ 뭐예요? ‘안착’이고 그 다음엔 뭐예요? ‘참부모의 승리권을 상속받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참부모를 사랑하고 사랑하자’는 겁니다. 다 축복을 상속했으니 타락한 인간으로서 참부모를 만나 가지고 해방된 그 기쁨을 갖고 살자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참부모를 사랑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전부 공식적입니다. 공식적이라구요. 그냥 그대로 주먹구구 식으로 안 된다구요. 수리적인 틀을 해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이 참조할 수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을 지금까지 타락 이후에 못살게 해 오고 연금상태로 해 나오던 사탄이 얼마나 능숙해요? 이런 모든 복귀섭리 와중에 물샷틈없는 이런 체제를 갖추어 나오기 때문에 사탄이 물러나는 거예요.

통일하게 되면 영계를 통일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면 한이 없지요. 영계를 통일해야 됩니다. 영계의 수많은 도인, 하나님까지도 ‘문충재 추방!’ 하고 역적으로 모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부정했으니 완성한 아담이 되려면 부정을 받아야 돼요. 사탄한테 부정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부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정해서 쫓아냈는데 이제는 탕감복귀원칙에서 부정하고 환영해야 됩니다. 전부 다 몰아내야 돼요.

선생님 하나 놓고 온 영계가 이단자로 모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몰아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43일간 영계에 대 혼란이 벌어져요. 계속할 수록 문충재는 후퇴 안 해요. 버티고 나가는 거예요. 최후는 하늘이 판

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저 뒤에 있어 이렇게 싸우던 것이 ‘문총재 뒤로 돌아서…!’ 혼란이 벌어지니 천상세계의 난국을 결단지어야 할 시기가 왔다 해 가지고 ‘문총재 뒤로 돌아서!’ 해 가지고 전부 다 문총재의 선언과 지금까지 주장이 옳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모든 영계가 전부 다 굴복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상 통일을 못 해요. 지상 통일을 못 한다구요.

오늘날 통일교회에서 별의별 가짜 메시아 되겠다는 사람이 많았지요? 도적놈 새끼들, 다 옥살박살 날 것을 몰라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되나. 도적놈 새끼들, 벼락에 맞아 일족이 망해 나가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조사국장은 알겠어요? 처음 듣는 말이에요. 영계가 어떤지 모른다구요. 영계가 영원히 갈 수 있는 고향이에요, 고향. 그걸 지금 알고 가야 돼요. 타락하지 않았으면 살면서 자기 갈 자리를 다 알고서 살아요. 알고 영계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모르지요? 모르니 폐품이에요, 폐품. 그걸 알아야 돼요.

전국 통반격파 운동을 해야

이제는 뭐 문총재 말을 자기들이 아니더라도 세상이 다 믿겠다는 바람이 부는 때인데 말이에요. 전부 다 바람불고 난 다음에,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전부 다 누더기 판 만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바람을 피해 가 가지고 탄 데 가서 잘살 수 있는 놀음하자는 것이 통일교회 문총재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여기 왔으니 고맙구만. 왔으니 말 듣고 앞으로 일족을 구하는 데 선두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건 내 책임이 아니예요. 이렇게 가려줘서 못하게 된다면 그 일족이 ‘왜 이 모양 이 꼴 만들어 놓았느냐?’고, ‘왜 축복 받게끔 전부 다 때려 몰지 못했느냐? 전부 다 진짜 사랑하고 어머

니 아버지 삼촌 같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매를 맞으면서도 해야 될 건데 왜 못했느냐?'고 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고향을 떠나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붙들고 가지 말라고 하던 그 반대의 놀음을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주체적 입장에서 그 어머니 아버지를 전부 다 해 가지고, 전부 다 나를 따라왔으면 이북에서 죽지 않았을 거라구요. 그러면 문총재의 어머니 아버지가 반대하는 데서 잘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이런 걸 했기 때문에 통일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 통일교회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천국이 무엇인지, 이 땅 위에 사람이 사는 근본이 무엇인가를 다 알고 도리를 따라 천리와 그 궤도를 맞춰 가지고 얼마든지 출발한 차가 멈춤이 없이 목적지에 전부 다 눈 스톱으로 달릴 수 있는 시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걸 싫다고 하면 어디 가서 간판을 붙이고 나서겠어요?

처음 만나 가지고 이런 실례가 어디 있느냐고 할 지 모르지만 이것이 실례의 얘기가 아니예요. 두고두고 하는 말이라는 거지요. 이제는 천하에 나를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없어요. 박대통령으로부터 전부 내 신세진 사람이라구요. 그 줄개새끼들, 전부 다 신세를 지워준 사람은 고마운 줄 모르고 나를 이용하려는 별의별 녀석들이 많아요. 정치하던 녀석은 여기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내쫓아 버린 거예요.

전통(전두환 전 대통령)도 그래요. 삼청동에 있던 것을 끌어낸 게 나예요. 노태우도 대통령 만든 게 나라구요. 그 각서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면 세상이 벌컥 뒤집어 지기 때문에 나라 때문에 막아오는 거예요. 조사위원들, 알겠어요? 그런 건 모르지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도 내가 시킨 것이고 부시도 내가 만들고 카터도 모가지 잘라 버린 거예요. 이번에 전부 다 새니터 돌(전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인지 무엇인지 내가 손을 안 대고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떨어진 거라구요. 내가 그런 조직을 갖고 있다구요.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싸움터가 생겼어요. 선생님이 22회 전국을 돌면서 전부 다 정지작업을 해서 바람이 부는데 이걸 놓치지 말고 당장 내일부터 여성연합은 여성연합대로 전국 통반격파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조사위원은 조사위원, 청년이면 청년, 학생은 학생, 그 다음에는 그 가외에 하프(HARP;고등학교원리연구회) 타프(TARP;교사원리연구회) 다 하라구요. 학교에서 직장 어떤 곳이든지 전체 이 분위기를 살려 가지고 운동하라구요. 학교면 학교 교내에서, 캠퍼스에서 축복해야 되고 말이에요. 전부 다 직장이면 회사에서 해야 되고, 관청에서도 사무실에서도 해야 되고, 어디서든지 축복 일색을 중심삼은 이런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대중을 모아서 감화를 시켜줘야 돼요. 감화시킬 수 있는 말이 뭐냐 하면 조상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상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혈통을 저끄러 버렸어요. 그것이 아담 가정, 첫째 가정이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1차 아담 실패, 2차 아담 실패, 3차 아담에 가서 1차 아담, 2차 아담 조상들의 실패를 수습해 가지고 세계 판도를 바꾸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 사랑의 정비, 혈통의 정비입니다. 뒤집어 놓아야 돼요. 축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부 다 대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부 다 될 수 있으면 여편네하고 남편네 둘이 부모님이 하던 거와 마찬가지로 단상에 나서서 하는 거라구요. 대학가면 대학가 반에 들어가던가 어디 가더라도 해야 된다고요. 이래 가지고 사무실에 들어가 가지고 총장부터 해 가지고 '우리 학교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참가정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전부 다 바람피워 가지고, 윤락 되어 가지고 쓰레기통이 될 것을 방지해야 하겠으니 교내에서부터 이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일을 해야 되겠다고요.

축복 받은 가정은 타락하지 않은 아담의 아들딸과 같이 되어야

아담 가정에서 해와는 어머니예요, 어머니. 어머니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세계 여성들이 하늘로부터 착지를 못했는데 어머니가 생겨났다구요, 어머니. 그 다음에는 가인 아벨인데, 아담 가정에서 해와가 가인 아벨을 가지고 사탄을 뒤따라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본래 완성할 아담을 하늘로 쫓아 버렸습니다. 그래, 아담은 사탄의 몸이 되어 가지고, 천사장의 몸뚱이를 이어받아 가지고 이 땅 위의 여자들을 전부 다 유린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람잡이 해 가지고 여자의 마음에 못을 수백 개 수천 개 박아 나왔다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끝에 가 가지고는 세계 인류를 전멸시키기 위한 프리섹스가 나오는 것입니다. 가정 자체가 그래요. 할머니가 손자하고 살아요.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살아요.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막 뒤집어 놨다구요. 그게 프리섹스 개념이에요. 사랑의 질서가 이게 뭐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요.

사랑을 중심삼고 계열적인 그 방계, 조직적인 편성이 계승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자기의 부부의 사랑으로부터 자기의 자녀의 사랑이 전부 다 질서적 단계를 가져야 할 텐데 이걸 다 파탄시켜 버렸다구요. 완전히 뒤집어져 갔습니다. 이걸 정비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아까 하나님도 아기로부터 나 가지고 그 다음에는 자라 가지고 총각으로 자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신랑 같은 연령, 아버지 같은 연령의 자리에 올라와서 지금까지 전부 다 주인 노릇하고 아버지 놀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대가 보고 싶고 상대를 품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아담이에요. 여러분의 아들딸은 뭐냐 하면, 자기들이 자랄 때의 어린 아기의 그 자체를

아들딸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를 닮던가 아버지를 닮던가 닮아요. 자기 어렸을 때의 그것을 실제로 보고,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던 그 사랑을 대신 계대를 이어 가지고 아들딸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역사를 상대적으로 느끼면서 사랑으로 키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형제가 되면 학교도 다른 학교에 가는 거예요. 16세, 17세 중고등학생들은 전부 다 남녀 공학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대학생은 괜찮아요. 이런 모든 논리적인, 이런 모든 교육을 받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게 난장판이 벌어졌어요. 중고등학생들이 전부 다 임신해 가지고 미혼모가 되고 말이에요.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난장판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무엇으로써 수습하느냐? 본연의 가정 되게 되면 여러분이 아담 가정에 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 하면 2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1대고 아담이 2대예요. 3대가 없습니다. 아담의 아들딸이 없었다구요. 하나님은 아담 해와를 키움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자란 역사를 재차 조명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실 존재가 역사와 더불어 기쁨을 안고 미래의 아들딸을 대신해서 3대가 하나될 수 있는 사랑의 인연을 가져야 되었는데 그걸 못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와 같은 가정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들딸, 축복 받은 가정은 하나님 앞에 타락하지 않은 아담의 아들딸과 같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자기가 커 오던 아기 시대로부터 총각 시대로부터 성년 남자로부터 아버지 시대에 자라오던 그런 모든 사랑을 아담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아담은 전부 다 자기 아들딸을 통해서 자기가 자라던 역사를 대신 느끼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거예요. 사랑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은 자기 자라던 모든

전부를 중심삼고 아기를, 아들딸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재차 느끼는 거라구요. 자기의 딸을 보게 되면 자기의 여편네가 자라던 과거를 딱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자랐겠구만.’ 또, 아내는 ‘아, 남편이 전부 다 이렇게 자랐겠구만.’ 하고 아는 거라구요. 자기의 남편, 아내가 자라는 것을 현재에 실제로 상대적으로 느끼는 그것이 자녀의 양육이요, 자녀의 교육입니다. 제2의 자기를 기르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이상 귀한 것이 없어

그래, 자기 몸과 같이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놀라운 게 그거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 받은 가정들은, 어머니들은 하나님이 품에 무릎에서 젖을 먹이고 키우던, 세 살까지 쌍태 아기를 품고 키우는 마음을 가지고 아들딸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갈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아들딸로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한 전부 다 형제예요. 형제시대라는 겁니다. 여자가 갈 길과 남자가 갈 길이 달라요. 교육하는 것도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성숙되는 것이 달라요. 이걸 짬뽕 만든 것이 문제 된 거라구요. 중등학교 전부 다 남녀공학이 문제라는 거예요.

결혼해 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전부 다 커 가지고 부부사랑 하던 것을 대신 ‘바로 저렇게 사랑했구만!’ 하고 재차 느끼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 전통이 끊임없이 역사를 통해 계대를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 무릎에서 타락하지 않은 선한, 천국 직행할 수 있는 아들딸을 품고 젖먹이는 어머니가 되었느냐 이거예요. 아버지가 되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대신 역할할 수 있는 아들딸을 키웠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 대신 사랑할 수 있는 완성한, 하나님의 몸과 같은 그런 몸이 될 수 있는 아들딸로서 결혼시켰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짓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바라는 그 사랑의 실체의 자녀를 또 품을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2대를 사랑해야 돼요. 2대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위기대가 종결이 안 돼요. 하나님은 아담을 혼자 사랑했지만 아담 아들이 되게 된다면 말이예요. 할아버지도 아담 아들을 사랑하고 아담도 사랑하는 거라구요. 두 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과거니까 천국을 상징하고 부모는 이 세상의 왕이예요, 왕. 왕 대표라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지난날의 왕 대표였고 어머니 아버지는 이 세계의 왕과 황후의 대표입니다. 제일 귀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이상 귀한 것이 없어요. 왕보다도 자기의 무엇보다도 귀한 거예요. 그건 이 땅위의 현세에 있어서 왕 중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을 절대 충신과 효자의 도리, 충효의 도리를 다한 사람들은 전부 다 세계로 뺏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통이 그렇게 돼요. 아담의 아들 대에 비로소 영계, 천상세계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는 아담의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두 사랑의 결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되면, 앞으로 노년 문제가 문제라구요. 나 이 많은 사람이 문제예요. 이들을 무엇에 쓰느냐 하면 손자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유치원의 선생님도 돼야 되고 소학교 선생님도 되고 중학교 선생도 해야 된다고요. 친구라구요. 유치원에 다니면 말 잘 못하지요? 할아버지도 노망하고 말이예요. 말도 전부 다 어머니 아버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다 이러니 딱 친구 하면 좋다는 거지요.

그러나 책을 보고 가르치는 데는 지금까지 닦아진 지식 가지고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성들여 가지고 유치원 학교 선생님, 소학교 선생님, 중고등학교 선생님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높은 수준의 경험이 있던 사람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전통을 배우는 거예요. 할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자리에 들어가겠다고 해서 중고등학교 무사통과, 대학도 무사통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갈 수 있는, 직행할 수 있는 아들딸을 낳아서 길러야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혼시켜야 된다. 하늘 가정을 내가 전수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일족이 확대되는 거예요.

아들딸을 많이 낳는 것이 좋아요, 덜 낳는 것이 좋아요? 국민이 전부 다 큰 나라가 좋아요, 작은 나라가 좋아요? 국민이 많게 되면 큰 나라가 되는 것이고 작은 나라는 아무리 크더라도 외국의 침범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작은 나라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딸을 많이 낳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아들딸을 많이 기른 할머니는 말이에요. 여왕이에요. 아들딸 키우는 것, 가정의 살림살이를 훤히 알아 가지고 전부 다 안다는 거예요. ‘야야, 손자를 이래라. 이거 어떻게 해라.’ 전부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왕마마, 영계 갈 때 여왕의 자격을 가지고 천상세계에 가야 된다고요. 이 땅 위에 가정을 중심삼고 그런 구별을 다 배우게 되면 가정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왕후, 왕비의 자격을 가지고 아담 가정에서 전부 다 심었던 그 씨와 같은 자리, 대등한 자리에 감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일족으로 대등한 환경, 천국 환경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중심삼고도 물론이지만 여러분 주변의 일족, 일국이 이와 같은 운명에 걸려 있으니만큼 그걸 살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난 것을 알았으니만큼 그들이 형제인 것을 알기 때문에 형제의 병을 위해서는 자기 땅도 팔고 자기가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것을 치료해 줘야 할 것이 형제지애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게 되면 넓고 넓은 형제권을 품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종족을 위해서 희생해야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생에 고달프게 세계를 돌다보면 말이에요. 집에 가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그들 앞에 심어준 것이 뭐냐 하면 밤이 오나 계절이 변하더라도 선생님을 사모하는 마음만이 커 가더라 이거예요.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그 마을에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사모의 마음을 중심삼고 생활하면 천사가 와서 활동할 수 있고 선한 조상들이 와서 타락과 관계없는 놀이터가 되고 희망봉이 된다는 거예요. 영계에 있는 영인들도 지상에 오는데는 언제나 올 수 없어요. 전부 다 사시장철 한 절기를 따라서 자기의 뭐라고 할까? 마음 문이 맞는다구요, 마음 문. 어떤 때는 여러분 친구들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다구요. 심문(心門)이 맞게 되면 이 땅 위에 영인들이 와 가지고 협조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아니예요. 영계와 더불어 앞으로 후손과 더불어서 3세대를 대표해서 살아 가지고 사랑의 전통을 남겨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모 앞에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 앞에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식을 사랑해야 돼요. 3대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하 부자지 관계 일신(一身), 부부관계 일신, 형제관계 일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것을 전수해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라야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고 지상에서 살다가 천상세계에 가는 것이요, 반드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박수)

형제가 있으니 형제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3대 할아버지의 고모가 있으면 그 고모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삼촌이 있으면 그렇게 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 관계, 일족에 대한 것을 책임을 져야 돼요. 공동 책임입니다. 일족을 거느리는 것은 아들딸을 키우기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전부 다 나라가 되게 되면 큰 나라를 포섭하기 위해서 가정보다도 종족이 크거든요. 그러면 가정은 종족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뜻을 바라보는 생활권 내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가정을 중심삼고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정 가운데 나라를 위할 수 있는 마음 터전을 자식 앞에 전수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나라가 갈 수 있는 길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이나 낮이나 이런 수고하는 것은 너희들의 복지, 너희들이 안식할 수 있는 터전과 더불어 너희들이 설 수 있는 나라를 찾아가기 위함이다. 내가 못하게 되면 너희들이 이 전통을 이어 받아야 된다.’는 그런 도리를 가르쳐 줘 가지고 사는 동안 부모를 생각하는 이상 그것을 잊지 못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하고, 또 형제 앞에 그렇게 사랑하던 그것을 잊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본을 보여 줄 것이 부모들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살 때 부모를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동묘지에 묻혔더라도 부모 앞으로 와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과 더불어 찾아갈 수 있는 아들의 도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통일교회 교인들도 그래요. 선생님이 있는 곳에 전부 오려고 별의별 짓 다하고 있다구요. 사랑하는 곳에는 가서 같이 살아야 돼요. 하나되어야 돼요. 갈라지기 싫은 거라구요. 하나되려고 하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구요. 찾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에 전부 다 160가정 한 가정을 전부 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찾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끊어지지 않아야 그 주변에 전부 다 다리가 생기고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환경에는 반드시 주체 대상이 있으니 주체 되는 전부 축복가정을 중심삼고

대상적인 사랑이 연결되는 거예요. 동기 없이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다구요.

참다운 가정 찾기 운동을 거국적으로 벌이자

사모의 심정이 사무처 가지고 사랑의 길을 찾아가는 데는 반드시 상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축복가정 160가정을 했으면 그것을 자기가 전부 다 세워 길러 가지고 축복을 해 줬다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해야만 그 일가가 내가 가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데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제부터 거국적으로 하자 이거예요. 그런 일을 함과 동시에 전부 다 일족들, 부모면 부모가….

선생님으로 말하게 되면 문씨 한씨가 둘이 아니예요. 하나라구요. 왜 하나냐 하면 말이예요. 문씨에 시집온 어머니가 문씨의 가문을 세울 수 있는 장자도 낳고 아들딸을 낳는다구요. 그거 갈라놓을 수 있어요? 또, 자기 딸이 시집에 가 가지고도 마찬가지로구요. 딸이 시집가 가지고도 그 집 가문의 장손을 키우고 장손이 잘 되고 못 되는 길잡이 할 수 있는 놀음하니까 마찬가지로예요.

나를 중심삼고 좌우 친족을 붙들고 돌아야 됩니다. 좌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씨, 한씨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전부 다 가지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출발만 하게 되면 틀림없이 애국 애족하는 가운데 참다운 가정 찾기 운동이 틀림없다는 바람만 불게 된다면 삼천만 민족은 오래 안 가 가지고 그 길에 물리는 것입니다.

새끼 풀 때 그것이 자꾸 물리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커 가지고 남북이 통일될 수 있고 아시아가 통일될 수 있는 거예요. 백의민족까지도 통일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일을 빨리 하기 위

해서 국제축복을 해 가지고 아시아 사람들을 세계에 배치해 놓았느니라! 나쁘지 않은 좋은 의미에서... 아멘. (박수)

자,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울면서 지었겠어요, 웃으면서 지었겠어요? 「웃으면서 지으셨습니다.» 좋아서 만들었겠어요, 싫어서 만들었겠어요? 「좋아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서? 나이 많은 노처녀들이 남들은, 동무들은 다 시집가는데 시집 못 가 가지고 전부 다 꿈지들 따 가지고 말이에요. 할미새 꼬리가 될 수 있게끔 백발이 성성한 노처녀가 있다면 한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는 노처녀 되어 가지고 시집 안가겠다.’ 하고 노처녀 되었겠어요, ‘시집가고 싶다, 싶다!’ 하면서도 노처녀 되었겠어요? 답변해 보라구요. ‘싫다, 싫다!’ 하면서도 할 수 없이 그리 되었으니 얼마나 비참해! 그런 노처녀들을 통일교회에 들어와서 구해주기 위해서 통일교회 남자들은 그 불쌍한 누나를 데리고 산다 해도 불평을 하지 않아요. 7년, 8년 누나와 같이 살아요.

남자들, 어때요? 여러분 며느리들도 얻어야 할 텐데 말이에요. 며느리를 전부 다 7년 위의 색시를 얻어 주면 환영이에요, 불환영이에요?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결혼해 가지고 그 나라 대통령 될 수 있는 손자를 볼 수 있다고 하면 어때요? 누가 알아요? 7대 이상, 한 사람 이상 7남편 이상의 가치의 씨를 중심삼고 전부 다 그 남편이 기쁘게 소화하게 된다면 말이에요. 7대 쌍을 중심삼고 복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아들딸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아들딸들이 나쁜 아들딸 태어나겠어요, 좋은 아들딸이 태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 있다면 나쁜 아들을 주겠어요, 좋은 아들을 주겠어요? 「좋은 아들을 줍니다.» 틀림없이 좋은 아들을 줄 거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대하는 그 상대가 무엇인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에 대하는 상대적 가치를 얼마만큼 존중시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타락한 아담해와가 쓰레기통에 들어간 것을 다시 꺼내 가지고 전부 다 구해주려

하는 여유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섭리를 계속해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사는 불행한 남편이 있지만 감사한다는 그 가정에 불평을 하겠어요? 그러니 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선생님을 보면 선생님이 잘생긴 남자예요, 못생긴 남자예요? 「잘생기셨습니다.» 에이, 남자들이 애기해야지 여자들이 대답을 왜 해요? 남자들은 선생님이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못생겼다고 생각해요? 「잘생기셨습니다.» 잘생긴 남자니까 잘생긴 남자 말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나쁘게 될 때는 안 들어야 되지만 자기보다 낫다 할 때는 무조건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논리가 성립돼요. 무조건 들어야 되겠나, 안 들어야 되겠나? 들어 가지고 나쁠 수 있는 일이 없다가요.

축복 받은 날에는 일족을 책임져야

내가 못 하는 운동이 없습니다. 씨름도 잘 하고 말이에요. 축구도 잘하고 무엇이든 전부 다 잘해요. 못 하는 운동이 없다가요. 지금도 뛰어서 담을 확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80이 다 되어 가는데 걸을 때 이렇게 걷는 것 봤어요? 이렇게 짹짹, 뒤에서 보면 20대, 30대같이 걷는 거예요. '자, 멋지게 걷는다. 저 남자 어떻게 생겼나 보자.' 하는 거예요. (박수)

80이 넘는 사람 어깨가 말이에요. 30대 청년 같으니 관심이 더 있어요, 관심이 더 없어요? 조사위원들! 「예.» 관심이 더 있어요? 「예, 있습니다.» 왜 '있습니다' 하면서 고개는 숙이나? 고개 들고 대답해야지. 관심을 가지고 해보라구요. 당신네 아들딸을 맡기더라도 자기들이 상 좋게 키워줄 수 있고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세계가 다 그렇게 아는데 여기 한국 패들은 모른다구요.

이제는 축복 받은 날에는 일족을 책임져야 돼요. 밀어 제겨서라도, 강제라도 축복 받으면 천국에 입적함으로 말미암아 티켓을 받는 거예요. 조사위원들, 그거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다 죽었어요, 답변을 안 하께? 귀가 다 막혔나? 여기 있는 줄 알고 여기 와서 얘기 하는데 전부 다 왜 답변 안 해요?

일족을 구해줘야 되겠어요, 안 해줘야 되겠어요? 「구해줘야 됩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 답변해요? 조사위원들, 조사위원들! 구해줘야 되겠어, 안 해줘야 되겠어? 「구해줘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예.» 조사위원 말로서 내가 믿고 있겠다구요.

자, 선생님이 이제 조사위원들 가운데 160가정, 180가정 축복했다고 하면 선생님이 전부 다 잔치 해 주라면 내가 잔치해 주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잔치 해 주기를 바라요? 160명을 데려다가 잔치해 줘야 되겠어요, 160명이 잔치해 가지고 선생님을 모셔야 되겠어요? 모셔가는 것이 그 일족에게는 최고 영광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남북통일보다 더 큰 영광인 줄 알아야 됩니다. 틀림없는 사실이라구요.

그것을 모르겠으면 영계를 모르니까 모르겠지만 기도를 해서든 무슨도를 통해서 알아보라구요. 틀림없어요. 거짓말 잘하는 문총재로 알았지만 반대입니다. 그 가외의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가정을 수습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위기대, 할아버지를 전부 수습해야 되고 어머니 아버지를 수습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건 전부 다 간단한 거예요.

차들 다 갖고 있지요? 먹는 차 아니라 타는 차 말이에요. ‘자,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설악산 구경 갑시다.’ 하고 데리고 가서 하룻밤 이틀 구경시키고 그 다음에 해운대에서 해수욕하고 그 다음에 어디예요? 이름난 데 몇 곳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다음에는 더 좋은 데 데리고 가겠으니 나서겠느냐, 안 나서겠느냐 해 가지고는 수련소 데려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게 되면 전부 특별히 해서 아침 점심

잘 먹여줘 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게 되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우리 손자님 보소. 우리 아들 녀석들 잘 두었더니 호사하누만! 이런 말씀까지 해 주다니!’ 그래 가지고 비행기 타라 해 가지고 천국 날아간다 생각해 보라구요. 그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망세계에 있는 사람을 해방시켰을 때의 기쁨

하나님도 환경을 창조했습니다. 해를 만들고 물을 만들고 공기를 만들고 땅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반드시 주체 대상이 있어요. 광물세계도 주체 대상, 식물세계도 주체 대상, 동물세계도 주체 대상, 인간세계도 남자 여자 주체 대상, 하늘나라도 주체 대상, 전부 다 주체가 있구요. 주체는 반드시 재창조해야 됩니다. 투입해야 됩니다. 투입하는 만큼 상대적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일생 동안 봉사하고 희생하면서도 잊어버리는 그것을 재미로 하는 거예요. 창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재미를 느끼셨겠느냐 이거예요. 창조하던 재미를 느껴야 됩니다. 재미있어서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낚시를 하는데 지금 배타는 걸 20여 년 배를 탔습니다. 그거 되풀이하는 것이 얼마나 단조로워요? 아니예요. 거기에 무한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무한한 세계를 무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강도 여러 강이라는 것입니다. 바다도 여러 가지라구요. 고기 종류도 무한합니다. 하나님이 재미있게 지은 이 자연세계를 전부 답사하고 그와 더불어 자기 마음세계와 친구 삼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고, 또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마만큼 인격의 폭이 넓어지는 거라구요. 잡아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예요. 큰 놈을 잡게 되면 놓아줍니다. 놓아주는 재미가 더 있대구요. 그런 세계라구요. 재미를 느껴야 돼요, 재미.

그래, 재미 중에 내가 알아보니 제일 재미있는 것이 전부 다 타락한

인간들을 부활시키는, 살려주는 이상 가치 있는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죽을 사지에 헤매는 그 병자를 고쳐줄 때에 의사가 보람을 느끼는 거와 마찬가지로 심령을 지도하는 사람이 사망세계에 있는 사람을 해방시켰을 때의 그 기쁨은, 그 세계는 누구도 모릅니다. 한 사람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무한히 발전하고 그가 환경에 선한 씨족을 남긴다고 볼 때, 그런 사람 한 사람만 해도 기쁘는데 천 사람 만 사람을 꼭 쥐게 될 때,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희망찬 생애가 연속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 선생님도 이런 얘기를 재미있어서 하겠어요, 억지로 하겠어요? 목이 쉬었더라도, 배가 고프더라도 재미있게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어요. 재미있다구요.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있습니다.」 재미없으면 즐라구. 자라구요.

자, 가정을 잘 뒤야지요, 가정. 하늘을 대표한 가정, 세계를 대표한 가정, 나라를 대표한 가정, 일족을 대표한 가정을 전부 다 길러내야 되는 것이 통일교회의 가는 공식적인 노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개인은 가정을 위하여 투입하라 이거예요. 희생하라는 겁니다. 투입은 희생입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사돈의 팔촌 층층시하에 시집간 맏며느리가 되어서도 통일교회 교인이라면 도망해 나오는 여자가 없어요. 그걸 투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1년, 2년, 10년, 일생을 곧게 투입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갈 때는 여왕의 무덤이 되는 겁니다. 할아버지도 와 울고, 어머니 아버지, 일족이 와 가지고 눈물지으면서 ‘그러한 며느리가 우리 가문에 또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라구요. 여왕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일생 동안 그를 아는 사람이 찾아 와 가지고 꽃이 사라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안 하겠나? 그거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선생님이 죽으면 그 무덤에 꽃이라도 한 다발씩 갖다 놓을래요? 「예.」 안 놔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못 하더라도 세계의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더 필요를 느꼈던 사람들은 오지 말래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서 허덕이던 일족, 사망에서 내 생명 자체를 구해줄 수 있는 이런 인연을 지어준 것에 대해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투입하고 잊어버렸다고 절대 손해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수십억 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쓴 사람이라구요. 내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족을 내가 책임진다고 결의해야

이번에 전부 다 한씨 문씨 종친회를 한 것도 빚지고 한 것입니다, 빚지고. 이번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문씨 종친회 선조의 정각 짓는 것을 하고 거기에 수련소 만들려면 말이에요. 이번에 잔치를 어제 함으로 말미암아 한 25억이 달아나요, 25억. 그 돈을 은행에 예금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공적인 존재예요. 공적인 물(物)입니다. 문씨 전체가 머리 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정한 그런 일을 했다면 거기에 머리 숙이는 모든 문씨는 복 받는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은 그것이 하나의 주체가 되어 대상적인 유언이, 그 후손들 앞에 그 어머니 아버지가 아는 만큼 ‘너희도 문충재의 사상과 같이 종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는 일을 하라.’ 할 수 있는 유언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확장되는 미래에 국가적 승리의 발판이 연결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얼마나 재미있어요? 죽어서 그것을 볼 때 꿈같이 행동한 것이 실제로 되는 걸 바라보니 말이에요. 하늘 앞에 죽어서 찬양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늘이 보호함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죽어서 하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 죽음 자리가 얼마나 복되겠느냐?

그 자리는 전부 다 황폐한 사막의 골짜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찾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 선생님은 공적인 눈물도 많이 흘렸고 공적인 피땀도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공적인 투쟁도, 희생도 많이 했기 때문에 세계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조사위원들이 지금까지 자기 멋대로 살고 비밀 캐는데 전부 다 눈이 독사눈같이 되어 살아 왔지만 그거 다 저나라에 가면 걸린다구요. 그걸 풀기 위해서는 선심을 쓰고 가야 할 텐데... 문총재 말을 듣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말고 그 나라에 선심 쓰고 자기 일족을 살리는 데 있는 정성, 돈 재산 전부 투입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거지새끼 안 된다구요.

160가정, 180가정만 하게 된다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전부 다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두 시간 더 계속해야 되겠으니, 점심때가 지나서 저녁밥이 식겠으니까... 무슨 밥이 식어요? 점심밥도 식고 저녁밥도 식게 된다 그 말이라구요. 그런 몰상식한 놀음을 해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전부 다 배고파하는 여러분을 동정하는 의미에서 전부 다 그치려고 그래요.

그래, 일족을 내가 책임진다고 결의해야 되겠어요. 무엇을 내가 책임져요? 여러분 일족이에요. 이거 7대를 어떡하느냐? 그것이 한 팀입니다. 아담 중심삼고 7대가, 한 팀이 전부 다 갈라져 가지고 일족이 수십 족속이 되는 거예요. 나라를 찾아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못 했기 때문에 전부 다 한이 맺혔으니 대한민국도 수많은 나라가 생겨났지요? 이걸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참부모와 더불어 하고 있는 거예요.

참부모라는 것은 뭐냐? 복중에서 태어난 쌍태도 참부모가 소원인 거예요. 무릎에서 자라고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도 소원이 참부모

되는 거예요. 형제로 자라면서 소원도 참부모가 되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의 소원도 참부모 되는 거예요. 아들딸을 못 낳았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사랑을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참부모가 되어 가지고 참아버지가 되고 참하나님과 하나되는 것이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종적인 세계와 횡적인 세계가 하나되어 가지고 전부 다 통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운동이 벌어져요, 운동. 운동은 무슨 힘? 원심력, 구심력에 의해서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삼지 않고는 구심력이 안 생기는 거라구요. 사랑의 부부가 하나님과 하나되지 않고는 원심력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횡적으로 확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운동하던 것이 시작하게 되면 크게 돌아가는 거라구요. 그런 가정들을 갖추어야 할 것이 타락한 세계로부터 본연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가피적으로 거쳐야 할 공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선생님이 말한 대로 책임지겠어요? 일족은 내 손에 있다! 해봐요. 「일족은 내 손에 있다!」 일족은 내 손에 있다! 「일족은 내 손에 있다!」 일족은 우리 부부에게 있다! 「일족은 우리 부부에게 있다!」 맞는 말이에요. (박수)

소유권·심정권·혈통을 전환해야

자, 점심 먹고 말이에요. 점심 먹고 부처의 장(長)들은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해산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말씀은 여러분 전부 다 따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 갈 길을 몰라요.

제1아담, 제2아담, 제3아담이라구요. 제1아담 실패, 제2아담의 국가적 기준에서의 복귀도 실패, 여기서 세계적 기준에서 선생님이 나와 가지고 이걸 복귀하려고 하던 것인데 영·미·불이... 영국은 해외 국

가, 미국은 아벨 국가, 불란서는 천사장 국가예요. 가인 아벨, 세계적 국가입니다. 영적 기독교의 문화권만 가지고 안 되겠으니 영육이 예수가 죽어서 갈라졌던 것을 대외적으로 되찾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마음을 몸이 언제나 유린해 가지고 공격하던 거와 마찬가지로 일독이가 나오는 거라고요. 일본은 해와 국가, 독일은 사탄적 아벨 국가, 이태리는 사탄적 천사장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틀러는 전부 다 기독교와 유대교를 말살시키려고 했다고요. 그것이 기독교 문화권을 중심삼고 연합국에 의해서 통일이 벌어졌다라고요, 통일이. 예수의 몸과 육이 갈라졌던 걸 비로소 통일된 세계, 해와 국가와 아벨 국가와 가인 국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시는 주님이 세계 통일의 나라를 위해서 왔는데 불구하고 오시는 주님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만일 선생님을 영·미·불이 받들었다면 7년 이내에 전부 다 세계는 축복이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 기독교의 문화권에 8억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요, 8억. 그래서 초인종적인 축복을 그때에 해야 할 것인데 쫓겨나 가지고 이 일의 기반을 닦아 가지고, 일족을 닦아 가지고 종족적, 민족적 기반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기반을 닦아 가지고 전부 다 축복과 연결시켜 종족을 편성하는 거예요.

3가정, 36가정, 그 다음엔 72가정, 124가정, 430가정, 777가정, 그 다음에 뭐예요? 1800가정, 6000가정, 6500가정, 3만 가정, 36만 가정, 360만 가정..., 12고개를 넘어야 돼요. 아리랑 고개 12고개라고 하지요? 아리랑 하는 것이 '사랑 애(愛)' 자하고 '마을 리(里)' 자하고 '고개 령(嶺)'이라구요. 사랑하는 마을을 찾아가는 고개라 그거예요. 그래서 아리랑입니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12고개를 넘어가는 것이 그렇다 이겁니다. 12고개를 만나 세계를 넘어가서 천하는 그 세계 품에 품기게 되어 있어요. 축복가정에 품겨야 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월 이전으로 360만쌍 끝났다 할 때는 이미 8월 이전에 그 때에 축복을 해

놓고 3천6백만쌍은 1년 이내에 끝내는 거예요. 3천6백만쌍 끝났으면 또 1년 이내에 3억6천만쌍은 문제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36억 하게 되면 36억 쌍 될 수 있는 72억 가정이 없어요. 50억 인류밖에 안 된다고요. 그거 몇 번만 하면 다 끝나는 거라고요. 이렇게만 하게 된다면 2000년 내에 세계는 갈 데 없이 가정 판도에 들이 박이지 않으면 살 곳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그래 가지고 축복 받은 가정들이, 160가정 완전한 사람들이 조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선생님이 1대 조이고 조상이 없어요. 조상이 쪽 몇 수천 대고 조상이 없어요. 조상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없다고요. 이제는 전부 다 선생님을 중심삼고 1대조, 2대조가 편성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완전한 날을, 순서를 중심삼아 가지고 나라에 전부 다 입적을 해야 됩니다. 입적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부 다 아담 해와가 소유가 없어요. 아담 해와가 타락하기 전 하나님의 소유권을 그냥 그대로 계속 받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소유권이 어디 갔느냐 하면 사탄세계에 넘어갔다고요. 이게 사탄 나라라고요. 혈통이 전환해 있기 때문에 혈통을 전환해야 하고, 소유권 전환, 심정권 전환을 해야 돼요. 일족을 다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 모든 일족의 재산과 일족의 모든 전부는 하나님의 소유가 못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딸이 가질 수 없고 복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앞에 헌납해 가지고 하나님에 돌려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 대통령이면 나라 대통령 전부 다 국민과 더불어 선생님의 아들딸을 거쳐 가지고 부모님을 거쳐 가지고 하늘나라의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됩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사탄 소유권이 되었다고요. 사랑을 중심삼고 주인 앞에 부여할 수 있는 것인데 가짜 사랑을 중심삼고 이 땅 위에 있기 때문에 사탄세계의 소유가 되어 왔다는 거예요. 소유권 주인의 역사가 악마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요. 돌려야 돼요.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세계가 통일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통을 세우는 생활

여러분 전부 다 발가벗고 타락했다구요. 자기 소유는 하나도 없어요. 발가벗고 전부 다 결혼식 했을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자기 모든 소유를 하늘로 바쳐 가지고 그걸 다시 하늘이 참부모의 소유로 우주를 다시 상속받아야 다시 분할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세계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되기 때문에 조만간 나라들이 전부 다 돈 많은 소유권을 전부 다 강탈해 갑니다. 요걸 탕감복귀하는 거예요. 강제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하는 것입니다. 싸우면서 먼저 하늘나라의 소유권에 접붙이려는 놀음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줄이 세계에서 제일 길 것이다 이거예요.

소유권 반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을 전부 다 98퍼센트, 75퍼센트 이상 빼앗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악마가 역으로 활용하는 걸 알아야 돼요. 울며 할 수 없으니 하지만 이것을 자원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예요. 자기 소유와 일족 전부와 자기 부부와 아들딸의 전부와 소유를 하나님께의 소유로서 낙인을 찍고 부모님의 소유, 참부모의 소유를 중심삼고 계열적으로 다시 분배받는 재편성 국가 시대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위원들도 돈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구요. 이 때에 나라 살리기 위해서, 남북통일을 위해서 내 가정에 백명 천명을 데려다가 먹여주어서 살릴 수 있는 준비하는 마음, 여유만만하게 전체를 위해서 쓰고 죽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바치지 않아도 그 혜택받은 사람이 하늘의 아들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 그 혜택받은 사람의 소유권을 더 많이 봉헌할 수 있는 밑천으로 쓴다 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대신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구요.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니 될 수 있으면 집에 들어가게 되면 양 말을 벗어요. 공석상에서 할 수 없어 넥타이를 매지, 오늘 뭐 더워서 넥타이 안 땀다고 생각하지 말라구요. 어디든지 공식적 행사가 아니면 될 수 있는 대로 한 가지 걸여된 옷을 입는 거예요. 왜? 전부 다 통일 교회는 절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백 명이 한 사람만 살리면 1년에 1천만 명, 2천만이 죽는 것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수십 년 전부터 선생님이 준비한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손수건도 그래요. 내가 호텔에 가게 되면 수십 가지 알록달록하게 다 해 놓지만 내가 쓰는 것은 요거 하나밖에 안 씁니다. 수십 년 그렇게 쓰는 것은 선생님이 앞으로 세계의 형제들이 죽어 가는 것을 살려주기 위한 그런 전통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역사적 전통을, 사상적 기반을 남기기 위한 거예요. 하자 할 때는 통일교회 교인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도 그래요. ‘오줌 한 번 싸고 내리는데 세 번 이상 싸고 내려라. 물 내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약해야 된다고요.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사는 줄 모릅니다. 와이셔츠도 사흘은 입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입고 갔다 오면 빨아요. 그러면 전부 다 빨래 집어 넣는 통 안에서 꺼내다가 다시 입어요. 그게 우리 집안에서 문제가 되었습시다. 선생님이 이러니까 전부 다 이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만큼 절약하라는 거예요. 사흘에 한 번 빨면 될 것을 이틀에 두 번 빨면 비누 값 물 값, 전부 다 와이셔츠에 소모되는 그 값을 전부 다 예금하라는 거예요. 절약하라는 거예요.

그러는 문선생이 나쁜 사람이지요. 집안에는 그렇게 까다롭게 하면서 말이에요. 세상을 살리기 위해 전부 다 그러는 걸 누가 알아줘요?

그러나 하늘은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망해야 되겠어요, 흥해야 되겠어요? 「흥해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탄도 흥해야 되겠기 때문에 반대를 못 합니다. 자기와 천리 만리의 차이를 갖고 사니까 말입니다. 이제 북한도 그래요. 이번에 중친회 했는데 중친회의 이것이 연결되게 된다면 북한 사람은 문제없다는 것입니다. 문씨 한씨는 여기에 전부 다 북한 사람이 많아요. 배가 돼 있어요, 배. 한씨 문씨가 수습하고, 이씨, 김씨, 조씨, 정씨가 수습하라 이거예요. 가난한 나라가 통일할 수 없다고 하지만 나는 당장에 통일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김정일이 만약에 선거하자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강력히 냅다 밀면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절대 남한은 침범 못 해요. 못 하게 되어 있다구요. 몰라서 그렇지요. 미국의 군사력이, 전부 다 신무기가 어떻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다구요. 북한의 모든 회의하는 비밀 찾간에 들어가 가지고 속삭거리는 것도 현실로 다 눈으로 보고 캐치(catch;알다)하는 거예요. 그런 세계에서 살고 있다구요. 땅 위에 비밀이 없이 감정할 수는 있는 시대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영계와 마찬가지로 시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속여 가지고 못 삽니다. 거짓말 해 가지고는 못 살아요.

그래서 그런 세계적인 문충재가 영계의 그와 같은 세계를 맞이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살 수 있게 하려니 50년 전에 끝날이 되어 때가 되거든 이런 시대가 온다고 할 때 통일교인들은 하나도 믿지 않았습니까. 한 시간, 1일 생활권 내에 들어간다고 한 것입니다. 지금 그런 때가 왔어요. 인터넷(internet)을 중심삼아 가지고 전부 다 매일 아침 저녁때 사실을 보고 살 수 있는 때에 있다구요. 회의 같은 것도 세계 각국에 앉아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워싱턴 타임스>에도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다구요. 그런 것을 코치하는 문선생이 그런 것을 모를 것 같아요?

또, 내가 꿈같은 얘기하던 것이 그 때는 전부 다 미쳤다고 소문났지만 말이에요. 이제는 선생님이 세계 판도를 짜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과학적인 첨단을 내가 다 갖고 있습니다. 나사(NASA;미항공우주국)의 전부 다 망원경, 50미터 망원경을 12일 동안 그 세계에 가 가지고 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몰라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 깔보지 말라는 거예요.

185개국에 만들 신문사

조사위원! 통일교회 깔보지 말라구요. 눈을 똑바로 뜨고 보라구요. 그러다 조사위원 눈이 이렇게 돌아갈 텐데... 자, 내가 어디서 한번 오라고 하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한 번 불러주면 좋겠지요? 왕초 같은 것 놓고 50미터 정도 씨름판에 부르면 어때요? 그런 때는 안 올지 모를 거라구요. 다리가 부러지고 대가리가 깨지고 말이에요. 그런 때에 와서 씨먹는대구요. 좋을 때는 거지새끼들이 먼저 오는 거예요. 국가 비밀회의 할 때 한 두 사람 만나 가지고 국가 비밀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 경험 있으니 다 알겠구만. 알싸, 모를싸? 「알싸.」

보라구요. 185개국에 신문사를 만듭니다. 조사위원이 한국에 3만 명 있는데 그와 같은 걸 만들어요. 지금 남미에서 조사위원을 만들고 있어요. 틀림없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도인들, 무술인들, 세계의 전부 강패 대장을 모가지 쳐버린 괴수들을 묶어 가지고 조사위원과 한 판 짜서 경찰서하고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조직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러지 않고는 세상의 할리우드라든가 남미의 음란 소굴, 라스베이거스의 도박장을 수습할 수 없습니다. 라스베이거스라든가 애틀란타의 도박장을 내가 20년을 연구했어요. 누구보다 잘 안다구요. 흰해요. 몰라 가지고 수습 못 하는 거예요. 그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체제를 만들기 위

해서 조사위원을 불러 세웠는데 조사위원이 앞으로 무엇이 될지 몰라요. 세계에 가 가지고 185개국의 책임자도 되고 교육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쯤 되면 세계가 어떻게 되나 생각해 보라구요. 선문대학, 브리지 포트대학에 이제 무도대학을 만들고 있어요. 강력하게 주먹 패를 전부 다 선한 주먹 패로 만들어 가지고 악한 주먹 패들이 기를 못 펴게 해 가지고 자연 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놀음을 하지 않고는 악마의 세계가 굴복하지 않아요. 조사위원들, 그런 것 알지요? 「예.」 야당 여당보다도 약할 거예요, 강할 거예요? 「강해야 됩니다.」 대답은 잘하누만. 도적놈 같아 가지고 국회의원 해먹고 무슨 뭘 해먹겠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국회의원이 문제가 아니예요. 계획 짜는 대로 모든 것이 오케이라구요. 그럴 수 있는 것을 바라보고 전진하고 있는 문총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강제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연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자연 굴복.

그래서 지금 한국의 세계일보에 혁명이 벌어지는 것 모르지요? 통일 교인들에게 전부 다 맡겼더니 자기들이 제일인 줄 알지, 천하를 몰라요. 세계 정상 최고급을 모르고 자기들이 제일인 줄 안다구요. 이놈의 자식들, 벌컥 뒤집어서 다 쫓아 버렸다구요. 세계에 난다긴다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사장 만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혁명을 해버린 거예요. 워싱턴 타임스도 그래요. 한국에 있는 신문이 아니예요. 세계 뉴스 같은 것이 2배 이상 늘 것이고 워싱턴 타임스에서 그냥 받아 가지고, 전부 다 영어로 받아 가지고 한국말로 쓸 수 있는 실력자가 있으면...

한국 풍조가 아니예요. 아시아와 세계의 보조에 맞출 수 있기 위해서 한국 지도자들을 무자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한국의 무슨 보? 무슨 보 사건? 「한보 사건입니다.」 ‘한’ 자가 ‘한보’에 붙어 있다는 게 기분 나쁘다구요. 안보 사건도 안 되고 망보 사건인데 말이

예요. 이런 것은 전부 다 내가 세 사람만 시켜서 취재하면 일주일 이 내로 완전히 파헤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걸 안 해서 그렇지요. 나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일본나라도 전부 다 내가 돕기 때문에 그렇지 여기서 40명을 동원하게 되면 세계적으로 핑크 나는 거예요. ‘문충재 모시겠습니다.’ 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힘 가지고 요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과 사리를 가지고 요리하려니 지금까지 50년 동안 욱먹었습니다.

160가정 일족을 구하라

지금 미국도 그래요. 차기 대통령 될 사람은 전부 나보고 사바사바 한다구요. 공화당, 민주당 전부 다... 그거 모르지? 한국에서 조사위원 해먹었다고 해서 큰소리하지 말라구요. 정신차리고 크게 날리고 크게 한 번 써먹을 수 있는 바람 타고 날아보자 이거예요. 내가 이려는 것이 허풍선이 아니라구요. 허풍선의 반의가 뭐예요? 실풍선. (웃음) 실풍선, 열매 된 풍선이라는 뜻이니까 쓸 만하지요. 안 그래요? 그렇게 알고, 약속했다구요.

조사위원! 여기 조사위원, 어디 갔어? 160가정 일족을 구하라구요. 죽기 살기로 자기 재산이고 뭐고 다 불살라 버려도 좋으니까 이것 하기 위해서 해 보라구요. 160가정이 절대 굶기지 않습니다. 왕으로 모실 수 있는 때가 오는 거예요. 원리를 알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지 노릇을 해 가지고 못난이같이 이웃동네 가서 살림하려고 빌붙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히 자리잡고 주인 양반 노릇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나 그런 사람입니다. 욱먹고 다니면서 세계의 난다긴다하는 사람을 꿈무늬에 찢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이상, 미국 사람이 못 하는 인맥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입니다.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구요. 그거 모르겠다면 내가 잡아다가 교육할게요. 지금 정글에서는 게릴라 부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자들을 데려다가 40일 아무것도 안 주고 뱀이든 뭐든 잡아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그 이상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놀음 하는 거예요. 쉴 사이가 없어요. 그런 일을 영원히 하겠다면 나가자빠질 거라구요.

조사위원들이 살면서 뭘 했어요? 이 때에 한번 나를 만났으니 한 번 나발 불고 북 쳐보려고 하는데 춤이라도 춰야 될 것 아니예요? 그래, 행차 후에 나발 불 거예요, 행차 전에 나발 불 거예요? 행차 후에 나발 붙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나라 다 통일하고 하나된 후에 조사위원이 뭐가 필요해요? 이 때 필요하지요. 실천해야 됩니다.

여기 다 자기 일족을 책임져야 돼요. 내 동생 같고 내 아들 같은 연령이구만. 80노인 할아버지가 종일 입 부르트게끔 이 놀음하는데 말 안 들으면 벼락을 맞던가 죽던가 망하던가 해야지요. 거기에 걸리지 않게끔 약속들 하고 가야 죽지를 않아요. 안 죽겠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생 동안 살아 온 것입니다.

나 똑똑한 사람이라구요. 천재적인 머리가 있다고 소문난 사람입니다. 하나 가르쳐주면 열을 알고 열을 가르쳐 주면 천을 안다는 소문났던 사람이라구요. 그렇게 나쁜 머리 가진 사람이 아니고 나쁘게 생기지도 않았습시다. 모든 것은 내가 손대면 무엇이든 다 이루는 거예요. 남이 10년 하면 3년 이내에 무엇이든 다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구요. 빨라요. 이 일이 될지 안 될지 그거 다 예상하고 되지 않을 것은 손을 안 대는 겁니다.

조사국을 만든 것은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손 댔으니만큼 결실을 위해서 전진적 명령하는 것을 비켜 가지 말고 직선에서 타깃(target; 표적)을 자기 일족을 구하는 데 두라는 겁니다. 평균적, 평등적 평안한

해방적 기지를 일족이 가질 수 있게끔 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 내가 다 할 거라구요. 틀림없이 할 거라구요. 책임지지요? 「예.」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강연을 해야 되느냐 하면 바쁘게는 세 번씩 까지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하고 점심하고 저녁때 말이에요. 아 젊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하루에 두 번도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세 번 못 하면 죽어야지요. 강의해서 이 말씀을 전부 다 전해야 합니다. 다 전했는데 안 들겠다면 망하겠으면 망하고 흥하겠으면 흥하고, 책임 안 진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가야 할 이스라엘 민족이 있으면 저 산에 구덩이 파는 농사짓는 사람이라도 가서 세 번 ‘아무 날 떠나요.’ 하고 통고하지 않으면 그 통고하지 않은 것이 그 사람을 반역자로 몰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먼저 안 사람이 민족의 밑창까지 전부 다 알려줘야 돼요. 금년 11월까지 전부 다 통고해야 돼요. 통고해서 안 들겠으면 국적을 갈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미에 우리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구요. 대한민국의 땅이 9천만 헥타르라구요. 남미 땅은 4모작이에요. 1년에 4모작입니다. 그런 땅을 사 가지고 우리 불쌍한 통일교인들을 남미 갖다 잘살게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내가 그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총목표는 가정 축복

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목숨 바쳐서 통일, 통일이여 오라! (‘우리의 소원 노래’ 제창)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통일이여 오라! (박수)

자, 점심 먹고 분할 조직 편성해서 끝내는 거예요. 그 중에 원고들 전부 다 따루게(외우게) 해 가지고 한 사람이 백 번 이상 몇백 번 강의해야 돼요. 요거 분할해 가지고 41만 곳을 강연해야 돼요. 앞으로

전부 다 하는 데는 협회를 중심삼고, 세계평화통일연합의 전체 책임자로곽정환이 섰지만 협회장은 한국 책임자라구요. 이래 가지고 전체 관할 밑에서 전체 장(長)들 중심삼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조사국장! 「예.」 조사국장이 교육할 수 있기에 너무 바빠요. 오늘 날짜로부터 조사국장 대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김봉태로 임명하는 거예요. 청년연합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여자들을 중심삼고는, 정대화 어디 갔어? 정대화! 「예.」 전부 다 부책임자로 임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연합은 학생이니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자 대표 되는 여기 여성연합은 여성연합도 대표 되고 가정연합에도 대표 되는 거예요. 여성연합하고 청년연합, 학생연합이 하나되어 가지고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위원 가정이 있으면 여편네는 누구나 불러 가지고 정 대화는 끌어내 가지고 교육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 손국장은 교육하는 데 반대 못 하게끔 조사위원들을 치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끌어내면 말이예요. 조사위원들은 잘났든 못났든 나는 모르겠어요. 여자임에 틀림없으면 끌어내라는 겁니다. 거기에 맡아들이 사회에 출세해 가지고 30대 이상 넘던가 40대 이상 넘으면 말이예요. 전부 다 청년연합에 가입시키고 대학교 중고등학교 들어간 사람들은 학생연합에 가입시키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가 그걸 만들어야 그 가정을 중심삼고 축복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담 가정에서 잃어버린 것이 어머니하고 가인 아벨이었습니다. 요것을 세계 전체 무대에서 평준화된, 수평선에서 평준화된 가치적 내용을 확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는 여성이 있어야 돼요. 세계여성협회, 세계청년협회, 세계학생협회가 외적 세계의 무대 되었으니, 가정에서 요것을 맞추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종족적인 부인회로부터 학생회, 국가적인 부인회 학생회도 편성해 나가는 거예요. 친척, 근친연합을 만들고 국가연합을 만들고 세계연합에까지 연결해야 된다고요. 이것은

공식적인 노정입니다. 무슨 노정이라고요? 「공식노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위원 부인들이 통일교회 아니라도 괜찮아요. 가정연합에 가입해야 된다고요. 거기에 일족을 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족의 부인들이 160명 있으면 청년들을 치리할 수 있는 책임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 되는 사람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조직이 없어 가지고는 치리할 수 없어요. 자기가 못 한다구요. 이런 국제적인 기반을 통해 가지고 가정적 기반을 소화할 수 있는 모든 체제를 이미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일가정이 해방되고 일족이 해방될 수 있는 편리적 전부 다 조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일을 도와주려고 한다 이거예요. 이런 결론에 의해서 조사위원은 반대할 수 있는 아무런 내용도 없다, 지지해야 된다 이겁니다.

요렇게 딱 해 가지고... 그러면 이 조사위원들 부인들을 중심삼고 아들딸 중심삼고, 아들딸 중에도 할아버지 되었으면 말이에요. 50, 60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또 늘리리 동동 이와 같은 조직을 함으로 말미암아 민족 전체가 영향받을 수 있다구요. 그러면서 전체 지금 모임이나 단체들, 카프 타프니 할 것 없이 지금까지 전체 조직이 전부 다 참가정을 중심삼고 가정 축복에 총주력하는 거예요.

총목표는 가정 축복입니다. 전체의 방향성, 전체 단체들의 하나의 격과 표준이라는 것은 가정연합 확장운동, 거국적인 확장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요것이 거국적이예요. 거 가정적인 기준에서 거 종족적 기반에서 거국적인 확장 운동까지 연결시키려니 우리가 여기서 종족적 기반만 해결하면 거국적 편성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사상 전통이 무너지더라도 가정만 살면 전통, 나라 만드는 것은 문제없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 때라고요. 그런 때인데 손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밖에 없습니다.

최후의 전략적인 요소인 줄 알고 있는 힘을 다해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여기는 뭐예요? 조사국장이고, 여기는 부조사국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 찾아가 가지고 정대화는 ‘당신의 여편네 데리고 당신 부처끼리 오소! 아들딸 데려 오소!’ 명령할 수 있다구요. 그 명령해도 괜찮다면 조사국장은 손 들어 보소. 국장이 들었으니까 전부 다 그래야지요.

봉태, 알겠어? 「예.」 봉태는 청년들 붙들고 교육을 하고 전부 다 지도하고 이래야 된다고. 그 청년들 중심삼아 가지고 카프 지도자를 따라 가야 되겠다고요. 전부 다 카프의 지도받아요. 전체가 하나의 체제에 어디든지 속해 가지고 그것이 가정연합에 총 정착, 안착을 해서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거국적인 편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요. 360만쌍을 한국만 하면... 내가 여기 있으면 360만 돌파한다고 봐요. 내가 어디 그만두고 여기 와 있을까요, 내 갈 길을 갈까요?

조사국장!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못 하면 어떻게? 「여기 와 계시면 더 좋구요.」 (웃음) 세계는 어떻고, 세계는 누가 책임져요? 자기들은 조그마한 대한민국, 손바닥만한 대한민국을 책임지는데 세계를 책임질 수 있어요? 세계의 문을 열 수 없다고요. 그건 현실적 문제입니다. 이것이 가상, 공상이 아니에요. 가상적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문제라는 걸 알고 세계를, 나라는 망하더라도 세계가 살면 나라는 살아 납니다.

대한민국이 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남북한, 남북미 전부 다 기독교 전부 다 구교·신교 통합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구요. 로마 교황청하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보내 가지고 교황을 만나 씨름을 해야 돼요. 전부 다 신교 책임자들은 나한테 굴복 다 했어요. 무슨 소리도 할 수 있다고요.

자, 희망찬 내일을 눈앞에 두고 그러한 전진적 행렬을 스톱시킬 수

없는 것이 전부 다 전장 부대에 선 군사들이 갈 길인 것을 알았기 때
문에 틀림없이 실천궁행은 문제없다 하고 결의를 다짐할 것이 오늘의
모인 자리인 것을 알지어다. 아멘! (박수) (만세삼창) *

文鮮明先生말씀選集 <第283卷>

印刷 2000年 1月 10日
發行 2000年 1月 15日
編者 文鮮明先生말씀編纂委員會
發行者 黃 善 祚
發行所 (株) 成 和 出 版 社
住所 서울 용산구 청파동 1가 172 - 1
電話番號 715-3894 ~ 6, 701-0110(청파서점)
FAX番號 701-1991
登錄番號 제3-98호
登錄日 1961年 5月 20日
